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0년 2월

박사학위 논문

李時憲의 『自怡先生集』 詩 譯註

朝鮮大學校 大學院

古典翻譯學科

李 恩 珍

李時憲의 『自怡先生集』 詩 譯註

The translation of Lee Si-heon's *Jaiseonsaengjip* poem

2020년 2월 25일

朝鮮大學校 大學院

古典翻譯學科

李 恩 珍

李時憲의 『自怡先生集』 詩 譯註

지도교수 최진규

이 논문을 문학박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학과

이 은 진

이은진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길수 (인)

위원 전남대학교 교수 김신중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리철승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상원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진규 (인)

2019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康津 白雲洞園林의 現 洞主 李承鉉의 所藏本을 底本으로 삼았다. 『自怡先生集』은 乾과 坤 2卷 2冊으로 이루어져 있다. 半葉은 10行 18字이고, 半郭은 15.5×22.8cm, 총 108板이다.

목 차

ABSTRACT

I. 『自怡先生集』 解題	01
1. 머리말	02
2. 李時憲의 生涯	04
3. 『自怡先生集』의 構成	09
4. 李時憲 詩의 特徵	13
5. 맺음말	25
II. 『自怡先生集』 譯註	27
1. 自怡先生集卷之上	28
詩	
1) 戊戌(1838)	
• 지천거사에게 부침 寄智川居士	28
• 죽헌주인에게 부침 寄竹軒主人	29
• 죽와주인의 시에 차운함 次竹窩主人	29
• 월남서재에 시를 지어 보냄 寄題月南書齋	30
• 지용 이용순 어르신에 시에 차운함 次芝翁李丈龍純韻	30
• 창평 대자암의 시에 차운함 次昌平大慈庵韻	31
• 조카사위 고제홍의 객관에 부침 寄高甥濟洪甥館	32
2) 己亥(1839)	
• 종제 사쟁에게 부침 寄士錚從弟	32
• 구림의 서호에 사는 벗 최경칙을 방문함 訪鳩林西湖崔友景則	33

- 서호에 배를 띄움 泛西湖 33

- 3) 庚子(1840)**
 - 창애 상사 경우 이인식에게 부침 寄蒼崖李上舍寅植景祐 34

- 4) 辛丑(1841)**
 - 죽은 딸을 위한 만가 亡女挽 35
 - 서울로 돌아가는 창애 이인식과 작별함 贈別蒼崖歸京 36
 - 섬암 이랑을 보냄 送蟾巖李郎 38
 - 지주 이인석과 작별함 奉別地主李侯寅奭 40
 - 다정의 시에 차운하여 철성으로 돌아가는 객에게 줌 次茶亭韻贈鐵城歸客 42
 - 문수서재의 벽상시에 차운함 [9수] 次文殊書齋壁上韻九首 42
 - 울원의 벽상시에 차운함 [10수] 次栗園壁上韻十首 46
 - 새 죽순이 비바람에 꺾어짐을 탄식함 新筍爲風雨所折歎 49
 - 꿈에서 느낌을 적은 시 感夢詩 50
 - 고씨 조카사위에게 부침 寄高甥 52
 - 지난해(1840) 8월 李郎 및 그의 아우 甲兒와 함께 岬嶺을 넘어 道岬寺에서 쉬었다. 見性菴을 지나 隱跡峰 아래에서 쉬었다가 해질녘에 돌아왔다. 올 봄(1841)에 갑자기 딸 李室의 죽음을 만나, 2월에 사위 집안의 선묘에 묻고, 이랑 또한 도성에서 객지 생활 하느라 소식이 막혔다. 바야흐로 간절히 그리워하다가 4월에 鹿門을 향해 홀로 은적봉 아래를 지나가다가 감회가 있어 읊음 去歲八月, 與李郎及卯君甲兒, 踰岬嶺憩岬寺. 歷見性菴, 歇于隱跡峰下, 乘暮而還. 今春遽遭李室之慘逝, 二月送埋其舅家先壟, 李郎亦旅于京城, 音塵間阻. 方切思想, 四月方向鹿門, 獨過隱跡之下, 感而有咏. 53
 - 4월 10일 西湖에 사는 崔氏 벗과 道岬寺에서 만났는데 李郎의 아우가 따라오자 문득 李郎이 생각나서 지음 四月旬與西湖崔友, 會于岬寺, 卯君隨焉, 忽憶李郎而作. 53
 - 이랑이 재취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회가 일어나 10월 22일에 절구 한 수를 지음 聞李郎再醮之期感而作一絕卽十月二十二日也 54

5) 壬寅(1842)

- 임인년(1842) 4월 이랑의 편지를 받고 시로 읊어서 보냄 壬寅四月李郎書詠寄 54
- 구림에 사는 최씨 조씨 등 여러 벗들과 함께 가제에서 노닐다가 친척 조월로의 시에 화운함 [절구 2수] 同鳩林崔曹諸益遊假帝和曹威月老韻二絶 55
- 과거 시험 보는 날 우연히 읊음 8월 화순의 식년 향시 科日偶吟八月和順鄉式科 55
- □성 김재황이 읊어서 보여준 시에 화운함 和□城金雅在璜詠示韻 56
- 병매 瓶梅 56

6) 癸卯(1843)

- 최치인이 부쳐서 보여준 시에 화운하고, 겸하여 이중함 어르신에게 감사의 답을 함 和崔雅稚仁寄示韻兼謝韻李丈仲涵氏 57
- 최씨 벗에게 다시 화운하고 겸하여 이씨 어르신께 드림 再和崔友韻兼呈李 58
- 다시 최학사에게 화운함 再和崔友 58
- 장천동에서 벽에 걸린 시에 차운함 長川洞次壁上韻 59
- 천관산 정상에 올랐으나 햇빛이 흐릿하여 멀리까지 다 볼 수 없어 한이 되어 시를 지음 登天冠山絕頂日色昏霾未能窮眼而恨而有作 59
- 장동 이기선을 뒤늦게 애도함 追挽長洞李雅璣善 60
- 고금도로 가서 이판서를 방문하고, 겸하여 관제묘를 배알하는 김지겸 형을 보냄 [5월20일] 送金兄志謙之古島訪李判書兼謁關帝廟五月念日 61
- 금산 관아로 부임하는 김해사를 송별함 送別金海史赴錦山衙 61
- 해사 김숙의 「승사록」 뒤에 쓴 시 題金海史翻乘槎錄後 62
- 청조루의 옛터에서 聽潮樓遺址 62
- 운포 노형이 관산 태수의 피향정 연회시를 외워서 전해주자, 내가 듣고 훌륭하게 여겨 애오라지 그 시에 보운함 雲圃老兄誦傳冠山守披香亭宴會詩 聞而壯之聊步其韻 63
-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운 박형을 송별함 送別紫雲朴兄還鄉 63
- 영계주인을 뒤늦게 애도함 追挽穎谿主人 64
- 「장춘동」 시에 차운함 次長春洞韻 64

7) 甲辰(1844)

- 죽사의 석양 시에 차운함 次竹榭夕陽韻 65
- 운곡으로 가는 길 해질녘에 계수정을 지남 向雲谷暮過桂樹亭 65
- 막부 제승당에서 우석(주수신관호)·당산(막객)·해사(김숙)·소치(허정)과 밤에 술을 마시며 운자를 나누다가 ‘梅’자를 얻음 蓮營制勝堂同于石主帥申觀浩棠山幕客海史金瀟小痴許斑夜飲分韻得梅字 66
- 다음 날 밤에 또 운을 잡음 翌夜又拈韻 67
- 이별할 때 우석 절도사에게 다시 줌 臨別更呈于石節度 67
- 예촌 족속에 대해 답함 和曳村族叔 68
- 즉흥시 偶吟 68
- 우석 절도사에게 부침 寄于石節度 69

8) 乙巳(1845)

- 한식 寒食 70
- 늦봄 暮春 70
- 동헌에 드리는 2수 寄呈東軒二首 71
- 방옹의 운을 잡음 拈放翁韻 72
- 계산이 해상에서 돌아와 시축을 보여주며 운을 잡아 끝에 쓰게 함 桂山自海上還示以詩軸使拈韻書尾 72
- 앞의 운을 써서 낙화를 읊음 用前韻詠落花 73
- 4월에 삼천으로 가던 길에 두 수를 지음 四月向三川路中作二 73
- 용연서각에 씀 題龍淵書閣 74
- 지주와 도갑사에서 노닐며 운자에 따라 절구 한수를 지음 與地主遊岬寺口號一絕 75
- 화답한 시를 붙임 附和 75
- 도갑사에서 자고 상견성암에 올랐다가 이별하며 지은 시 宿岬寺登上見性臨別拈韻 75
- 운옹에게 화답 和雲翁 76
- 유재에게 부침 寄留齋 77
- 화운한 시를 붙임 附和韻 78

- 회사의 편지에 시로 부침 晦沙書詩 79
- 지주를 삼가 전별함 奉餞地主 79
- 회사가 보여준 시에 차운함 和晦沙示韻 80
- 유재에게 부침 寄留齋 81
- 화운한 시를 붙임 附和韻 82
- 유재의 부채시에 추후 화운함 [절구 3수] 追和留齋扇面示韻三絶 83

9) 丙午(1846)

- 서호에 배를 띄움 泛西湖 84
- 지주가 차운한 벽상시에 화답함 和地主次壁上韻 85

10) 丁未(1847)

- 북창으로 가는 길에서 北倉路中 86
- 하류천으로 가는 도중에 한식을 맞음 下柳川途中寒食 86
- 하석정에서 하석 어른의 시운에 화답함 霞石亭和霞丈韻 86
- 원운 原韻 87
- 초남정에서 밤에 술을 마심 草南亭夜飲 88
- 공주 쌍수산성에서 公主雙樹山城 88
- 고향으로 돌아가는 임수재를 송별함 送別林秀才還鄉 88
- 김수재의 시축에 있는 시에 화운하여 줌 和贈金秀才軸中韻 89
- 김수재의 자호가 백운거사인 까닭에 장난삼아 시를 지어 보냄 金秀才自號白雲居士故戲贈 90
- 또 그 시에 화운함 又和其韻 90
- 오계에게 장난삼아 지어 보냄 戲寄梧溪 90
- 몽해 김씨 벗의 시에 차운함 次夢海金友韻 91
- 오계가 봉래 부안 변산에서 산을 유람한 시축에 지음 題梧谿蓬萊扶安卞山遊山 91
- 봉림 종인을 위한 만가 挽鳳林宗人 93

11) 乙酉(1849)

- 조암에게 화답함 和鈞巖 94

- 벗 김오계가 비로 간혔을 때 지은 시에 화답함 和梧溪金友滯雨時作 95
- 분국 10수로 회사에게 화답함 盆菊十首和晦沙 95
- 두 번째 시 其二 96
- 세 번째 시 其三 96
- 네 번째 시 其四 97
- 다섯 번째 시 其五 97
- 여섯 번째 시 其六 98
- 일곱 번째 시 其七 98
- 여덟 번째 시 其八 99
- 아홉 번째 시 其九 99
- 열 번째 시 其十 100
- 구포에서 만덕사로 가는 길에 自九浦向萬德寺 100
- 세심암에서 머무름 宿洗心菴 100
- 다산과의 옛 일을 생각함 茶山感舊 101
- 두 번째 시 其二 101
- 굴동을 지나며 過橋洞 102
- 함장암 옛터에서 삼연의 시에 차운함 合掌菴故址次三淵韻 102
- 산에서 돌아와 오계의 벗들에게 보냄 還山寄梧谿諸益 102
- 두 번째 시 其二 103
- 소요연정시에 화답함 和逍遙蓮亭韻 103
- 백회에게 화답함 和百悔 104
- 재첩시 再疊 104
- 이두회 모친 최부인의 회갑 축수 시서 李母崔夫人回庚晬詩序 104
- 파산 강회 시운을 하석 어른께 드림 坡山講會詩韻呈霞石丈席 106

12) 辛亥(1851)

- 장동에서 오장암을 만나 소산에서 밤에 이야기를 나눔 長洞逢吳莊菴夜話山 108
- 재첩시 再疊 108
- 장동에서 또 장암과 시를 지음 長洞又與莊菴拈韻 109
- 재첩시 再疊 109

- 한식날 송산의 고씨 종형을 곡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음 寒食往哭松山高從兄歸路作 110
- 장동에서 춘과·나사·장암 등 여러 벗들과 시를 지음 長洞與春坡懶史莊菴諸益拈韻 110
- 재첩시 再疊 111
- 장암과 인봉 그리고 고씨 조카사위가 찾아와 운을 들어 수창함 莊菴與寅峯高甥來訪山齋拈韻唱酬 111
- 재첩시 再疊 111
- 장암과 월출산에 오름 與莊菴登月出山 112
- 야화 夜話 113
- 장암의 귀향을 송별함 別莊菴歸鄉 113
- 석표에게 화답함 和石瓢 114
- 두 번째 시 其二 114
- 백회에게 화답함 和百悔 115
- 우 又 115
- 우 又 116
- 석표에게 화답함 和石瓢 116
- 유재에게 부침 寄留齋 117

13) 壬子(1852)

- 즉흥시 偶吟 117
- 「운곡잡영」에 빗대어 백운 14경을 지음 擬雲谷雜詠賦得白雲十四 118
- 총영 摠詠 122
- 회사의 ‘반거’ 운을 들어 우연히 읊음 拈晦沙泮居韻偶吟 123
- 치천으로 가는 길에 治川途中 123
- 처음 제비를 봄 初見燕子 삼월삼진날 三月三日 124
- 장흥 부사 김헌순을 위한 만사 挽長興府使金獻淳 124
- 두 번째 시 其二 124
- 세 번째 시 其三 124
- 네 번째 시 其四 125

- 운초가 춘성으로부터 관산 관아에 와서 머물며 자주 시를 보내주니 그 운에
 화답하여 보내드림 雲樵自春城轉客冠衙頻以詩寄示和其韻以呈 125
- 석표에게 화답함 和石瓢 126
- 우 又 126
- 재첩시 再疊 127
- 삼첩시 三疊 127
- 소치가 또 찾아와 모여 다시 시를 지음 小痴又來會更拈韻 128
- 원효 초당 옛터에서 옛날을 회상함 元曉草堂古墟懷古 128
- 운초에게 화답함 和雲樵 129
- 파산이 석표와 석오 윤직각이 수창한 시를 외워 전해주자 그 두 시에 보운하
 여 석표에게 보냄 坡山誦傳石瓢石梧尹直閣酬唱詩步其二韻寄瓢老 129
- 두 번째 시 其二 130
- 세 번째 시, 파산에게 화답함 其三和坡山 130
- 운초의 앞 운에 화답하여 제석에 지어 보냄 和雲樵用前韻 除夕詠寄 131
- 또 자술함 又自述 132

14) 癸丑(1853)

- 잠 못 이루는 밤에 읊음 夜無眠起而詠 132
- 회사에게 화답함 和晦沙 132
- 병중에 명율을 들어 ‘蓬’자를 얻음 病中拈明律得蓬字 133
- 또 운을 잡 又拈韻 133
- 우 又 134
- 새소리를 듣고 지음 聞禽語有作 134
- 우 又 134
- 또 병석에서 감회에 젖음 又詠病懷 135
- 파산이 서울에서 관북 영흥부까지 거의 4천리를 왕래하며 귀로에 들렸다. 내
 가 마침 병중으로 억지로 일어나 운을 불러서 먼 여정의 노고를 위로함 坡山
 自京抵關北永興府，來往幾四千里歸路歷入余適在病枕強起呼以慰遠行之勞 135
- 우 又 136
- 우 又 136

- 상주거사에게 화답함 和尚州居士 137
- 석표가 찾아오자 소동파 시운을 들어 함께 여러 편을 지어 파산 사우에게 보
 냄 石瓢至 拈坡詩韻 共賦數篇 寄坡山詞友 137
- 우 又 138
- 또 흥금의 시를 지음 又題襟 139
- 우 又 139
- 계간의 조카에게 소동파의 시운을 들게 함 使溪良姪拈坡韻 140
- 우 又 140
- 석표가 다시 들르자 소동파의 운을 잡음 石瓢重過拈坡韻 141
- 우 又 141
- 베개 밑에서 육유의 운을 잡음 枕上拈陸韻 142
- 운초가 보내온 「무이십운」 차운시에 화답함 和雲樵次武夷十韻見寄 142
- 두 번째 시 其二 142
- 세 번째 시 其三 143
- 네 번째 시 其四 143
- 다섯 번째 시 其五 144
- 여섯 번째 시 其六 144
- 일곱 번째 시 其七 144
- 여덟 번째 시 其八 144
- 아홉 번째 시 其九 145
- 열 번째 시 其十 145
- 또 앞 시에 차운하여 춘파와 회사에게 부침 又用前韻寄春坡晦沙 146
- 첫눈을 보고 소동파의 운을 잡음 見初雪拈坡韻 146
- 우 又 146
- 아이에게 보냄 示兒 147
- 동려가 밤에 이르자 소동파 시운을 잡음 桐廬至夜拈坡詩韻 148
- 두 번째 시 其二 148
- 세 번째 시 其三 149
- 네 번째 시 其四 149
- 또 주희의 시운을 잡음 又拈朱詩韻 150
- 파산이 찾아오니 소동파의 시운을 잡음 坡山至拈坡詩韻 150

- 우 又 151
- 우 又 151
- 우 又 152
- 또 육방옹의 시에서 ‘膺’자 운을 들어 함께 화답함 又拈陸放翁詩得膺字共和 153
- 우 又 154
- 우 又 154
- 우 又 155
- 우 又 155
- 과산과 연구시를 지음 與坡山聯句 156
- 韓昌黎의 「상서사」시를 차운하여 과산에게 줌 次韓昌黎湘西寺詩韻贈坡山 · 158
- 동려에게 부침 寄桐廬 161
- 우 又 161
- 황정이 벼슬살이 삼년 만에 부모님을 뵈러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기에 방옹의 차운 시를 지어 보냄 篁亭宦遊三載歸覲還鄉云拈放翁韻以寄 162
- 두 번째 시 其二 162
- 세 번째 시 其三 163
- 네 번째 시 其四 164
- 다섯 번째 시 其五 164
- 행남에게 화답함 和杏南 165
- 춘과 회갑 수연시와 소서 春坡回甲晬宴詩并小序 165
- 두 번째 시 其二 167
- 세 번째 시 其三 168
- 친척형 송원 신기숙씨를 추만함 追挽松園愼戚兄箕叔 168

15) 甲寅(1854)

- 병석에서 일어나 문을 나섬 病起出門 170
- 당인의 시운을 잡음 拈唐人詩韻 171
- 예전에 백 그루의 매화가 있었으나 지금은 몇 송이만 개화하니 감흥시를 읊음 古有百本梅今存數朶開花感而吟 171
- 즉흥시 偶吟 172

- 앞 시의 운을 써서 회사에게 부침 用前韻寄晦沙 172
- 산으로 돌아가는 운담거사를 송별하는 시와 서문 送別雲潭居士還山詩序 173
- 유재가 무주로 양이된 곳에 부침 寄留齋茂朱量移所 176
- 두 번째 시 其二 176
- 세 번째 시 其三 177
- 황정과 이별하며 줌 贈別篁亭 178
- 석표와 잡영 10수를 지음 6월 비 내리는 날에 與石瓢賦得雜詠十首六月雨 178
- 두 번째 시 其二 178
- 세 번째 시 其三 179
- 네 번째 시 其四 179
- 다섯 번째 시 其五 179
- 여섯 번째 시 其六 180
- 일곱 번째 시 其七 180
- 여덟 번째 시 其八 180
- 아홉 번째 시 其九 181
- 열 번째 시 其十 181
- 용정 이씨 노인의 시에 화답함 和龍井李老詩 181
- 두 번째 시 자술하다 其二自述 182
- 과거 보는 날 무료하여 소동파의 시운으로 3수를 지음 科日無聊拈坡詩韻賦得
三首 182
- 두 번째 시 其二 183
- 세 번째 시 其三 184
- 백회가 보여준 운에 화답함 和百悔示韻 184
- 우 又 185
- 설달 아침 우연히 읊음 臘朝偶吟 185

16) 乙卯(1855)

- 병중에 읊음 病中偶吟 186
- 속리거사 정시면이 편지와 시를 보내오고 또 「백운동도」를 그려주었기에 벽에
걸고 생각을 붙여 그 운에 화답하여 줌 俗離居士鄭君時縣寄書兼詩且畫白雲洞

- 圖揭壁以寓思云和其韻贈之 187
- 우 又 187
- 유명 신석오의 시에 차운함 次柳營韻 188
- 앞 운을 써서 한적한 시를 지음 用前韻詠閑居 188
- 유수 신석오가 산거에 찾아 왔고 또한 율시 2수를 보내왔기에 화답하여 드림
柳帥申石活見訪山居且寄示二律和以贈之 189
- 재첩시 再疊 190
- 삼첩시 三疊 191
- 석오의 「영보당」시와 「죽사동」시에 차운함 次石活永保堂韻竹寺洞韻 192
- 우 又 192
- 석오 대감께 부치는 짧은 편지 시 寄石活台短柬詩 193
- 지난번 진영에서 함께 지하의 聯句詩에 화답하였다. 비록 ‘江部’에서 한 운이
빠졌으나 사람은 많고 운자가 부족하여 사람마다 얻은 운자가 네 자에 불과했
다. 여운이 돌아와서도 시들지 않아 다시 모든 운을 없애고 애오라지 ‘喚仙’ 두
글자를 들어서 당일의 미진함을 웃으며 말함 向於柳營共和池荷聯句雖沒江部一
韻人多韻少每人所得不過四箇韻字餘意歸而未衰更沒其全韻聊供喚仙當日未盡之笑
云 194

17) 丙辰(1856)

- 환선정에서 주수 석오의 「부용」시에 화답함 喚仙亭和主帥石活芙蓉韻 197
- 석오에게 화답함 和石活 198
- 석표에게 화답함 和石瓢 200
- 석표에게 화답함 和石瓢 201
- 봉헌 이기수에게 부치는 편지 시 寄鳳軒李基洙詩書 201

2. 自怡先生集卷之中 202

- 죽사동 산당화 竹寺洞山棠花 202
- 화운한 시를 붙임 附和 202
- 시인의 각별한 관심 詩人別樣奇 203
- 죽사동에서 같은 날 운을 잡음 竹寺洞同日拈韻 203

- 화운한 시를 붙임附和韻 204
- 근수루에서 운을 잡음 近水樓拈韻 204
- 화운한 시를 붙임 附和韻 204
- 주현의 발에 내리는 비 籌軒簾雨 205
- 화운한 시를 붙임 附和韻 205
- 재첩시 再疊 206
- 화운한 시를 붙임 附和韻 206
- 앞 시의 운을 써서 해남의 옛 수령을 송별함 用前韻送別海南舊使君 207
- 다음 날까지 비가 내려 이어진 인연 翌雨續緣 207
- 화운한 시를 붙임 附和韻 208
- 신안에 사는 신암을 위한 시와 서문 新安新菴詩並序 208
- 암우의 시에 화답함 和菴岫詩 212
- 신종의 백회시에 차운함 愼從白悔詩韻 213
- 일속산방에 화답하여 부침 和寄一粟山房 213
- 다산의 「옥판봉」시에 차운하여 삼가 정유상에게 보내고 짧은 서문을 붙임 次茶山「玉版峰」詩韻奉寄維桑并小序 214
- 「천황봉」시에 화운함 和天皇峯韻 216
- 풍악산으로 유람 가는 이를 전송하는 시와 서문 送人遊楓嶽詩序 217
- 산양 이수재에게 화답하고 이별함 和別山陽李秀才 220
- 쌍정의 둔우를 찾아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절구 2수를 남김 雙亭訪菴岫不遇留題二絕 220
- 정유상의 「상풍」시에 화답함 和維桑賞楓韻 221
- 「갑사」시에 화답함 和岬寺韻 222
- 눈 내린 창가에 백 그루의 매화가 피니 춘파 회사에게 절하며 청불을 주고 아울러 짧은 편지를 보냄 百梅雪窓拜呈春坡晦沙清拂下并短柬 222
- 금릉 여섯 수 金陵六首 223
- 둔우의 시에 화답함 和菴岫詩 226
- 운곡에 사는 사간 김권의 시에 화답함 和雲谿金司諫權詩韻 227
- 물염정 시 勿染亭韻 228
- 뜻을 펼쳐 우연히 읊음 述志偶吟 229
- 미륵가 彌勒歌 229

- 표제 고향진을 위한 만가 절구시 3수 挽表弟 高厦鎮三絶 231
- 실제 3수 失題三首 232
- 실제 失題 234
- 초의대사에게 짧은 서문과 오언 고시를 드림 贈草衣大師小序并五古 234
- 가학치를 지남 過駕鶴峙 237
- 사선정에서 머무름 宿四仙亭 238
- 호산춘색도에 지음 題壺山春色圖 238
- 산수화에 지음 題山水畫 238
- 송단노인에게 씀 題松壇老人 238
- 연파어자도에 지음 題烟波漁子圖 239
- 일연거사 회갑연에 바치는 시와 서문 一淵居士回甲壽宴詩序 239

참고문헌 242

ABSTRACT

The translation of Lee Si-heon's *Jaiseonsaengjip* poem

Lee, Eun-jin

Advisor : Prof Choe, Chin-kyu

Major in Translation of Sino-Korean Classic

School of Chosun University

| Abstract |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lives of Lee Si-heon, and the composition and content of his anthology titled 『Jai SunSeng jib』, and his sense of seclusion. Lee was born in the Gangjin Baegun-dong Wonlim(白雲洞園林) and lived there all his life. Many famous people visited Baegun-dong Wonlim, and 『Jai SunSeng jib』 contains numerous poems that are written in socializing with them. Baegun-dong Wonlim was first established by Lee Dam-lo, the sixth ancestor of Lee Si~heon, and has been passed down to its descendants, which is called Jungheung-jo of Baegun-dong Wonlim.

『Jai Sun Sengjib』 consists of 394 poems, 6 prefaces, 7 commemorative articles, 7 opinions, 12 memorial orations, 4 Sangnyang-mun and 11 epistles.

While studying the civil service exam in order to enter the government, Lee Si-heon always admired to be a hermit, and live in harmony with nature. He read diligently with the scriptures of ancient sages, listening to the wind and the sound of water in the valleys, not to concern himself with the disputes of the world. He studied not only Confucian literature and Buddhist literature, but also Taoism literature. In particular, he admired a

fairyland and took care of himself by hypogastric breathing, a training method of Taoism. He was influenced by Taoism from Lee Dam-lo, Confucianism from his two teachers, Jeong Yak-yong and Sung Geun-mook, and Buddhism from Seon Master Choui, thus he was the Euniljisa (a scholar who lived in a hidden place) who embraced Yubuldo(儒佛道) and lived in the Baegun-dong Wonlim.

Key words : Lee Si-heon(李時憲), 『Jaiseonsangjip(自怡先生集)』, Baegun-dong Wonlim, a fairyland, hermit idea, hypogastric breathing, Lee Dam-lo, Jeong Yak-yong, Sung Geun-mook Seon Master Choui,

I. 『自怡先生集』 解題

1. 머리말

본고는 自怡堂 李時憲(1803-1860)의 문집 『自怡先生集』에 대한 역주이다. 이시헌은 전남 강진군 월출산 남쪽에 위치한 白雲洞園林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살며 19세기 호남지역 園林文學의 맥을 이어온 山水 田園詩人이다.

조선중기에는 잇닿은 士禍로 인한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많은 선비들이 자신들의 뜻을 충분히 펼칠 수가 없었다. 이에 山林에 은거하며 심신을 수양하는 한편 원림을 조성하고 吟風弄月하려는 풍조가 유행하였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원림문학이 출현하였다. 이렇듯 조선시대 원림은 사대부들의 풍류의 공간임과 동시에 선비들이 자신들의 내면의 세계를 상호 공감하는 교류와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백운동원림은 16세기 담양의 瀟灑園, 17세기에 조성된 완도의 芙蓉洞과 더불어 호남의 3대 원림으로 일컬어진다. 이시헌의 『자이선생집』은 바로 백운동원림¹⁾을 대표하는 문집이기 때문에 『자이선생집』에 대한 역주 작업은 원림문학사상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백운동원림은 17세기 중후반에 이시헌의 6대조 李聘老(1627~1701)에 의해 처음 조성된 후 현재까지 그의 후손들에게 계승되어 왔다²⁾. 하지만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황폐해진 백운동원림을 강진군청에서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복원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2018년에는 다산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백운동 고문헌들에 대한 탈초와 해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백운동원림 기념관 건립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강진 향토 문화유산 22호인 백운동원림은 지난 2019년 4월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5호로 지정되었다.³⁾

본고는 백운동 중흥조⁴⁾라고 일컬어지는 자이당 이시헌의 『자이선생집』중 詩篇에 대

-
- 1) ‘백운동원림’의 명칭은 ‘백운동 별서정원’ ‘백운동 별서원림’ ‘백운동 정원’등 여러 가지로 일컬어지고 있다. 본고는 ‘백운동원림’ 혹은 ‘백운동’으로 표기하겠다.
 - 2) 白雲洞 園林은 입산조 李聘老(1627~1701)가 원림을 조성하였고, 둘째 손자 李彦吉(1684~1767)이 이를 계승해서 관리해오다가 이담로 사후 55년이 지난 1756년에 이언길의 큰 아들인 李毅權(1704-1759)의 전 가족이 옮겨와 생활한 이후로 별서정원이 주거공간으로 변모하였으며, 그 후 자손들이 11대에 걸쳐 이를 보존하고 전승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3) 이처럼 백운동 원림은 호남의 3대 별서 중의 하나로서 건축사적인 가치,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좋은 시문을 남긴 문학사적인 가치, 우리나라 최초의 차와 담배에 대한 기록들이 발견된 문화사적인 가치 등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다. 이처럼 건축사적인 가치, 문학사적인 가치, 문화사적인 가치가 풍부한 강진 백운동 원림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4) 정민(2015),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글항아리. 75쪽에서 정민이 이시헌을 ‘백운동 원림의 중흥조’라고 표현하였다. 본고도 이 명칭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해 역주한 것인데, 이시헌의 詩는 19세기 호남지역의 원림문학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시헌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998년에 임형택의 「정약용의 강진유배기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⁵⁾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이시헌이 다산 정약용의 마지막 제자라고 밝혀졌다. 그 후 10년이 지나 2009년에 발표된 김봉남의 「茶山 제자 李時憲의 詩文에 관한 一研究」⁶⁾는 이시헌의 시 세계를 연구한 유일한 논문이다. 2017년 박미선의 「자이당 이시헌의 ‘백운동별서’ 승계와 향촌활동」⁷⁾에서는 이시헌이 향촌에서 어떻게 활동하였는가를 고찰하였고, 2018년 김경국의 「강진 백운동 관련 인물 고찰」⁸⁾에서는 강진 원주이씨들의 백운동원림 정착과정 및 후손들의 승계과정을 객관적으로 고찰하였다.⁹⁾

한편 단행본으로 2015년 정민의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 동백 숲길 맑은 그늘 물 끝난 곳 구름 이네』와 2018년 『잊혀진 실학자 이덕리와 동다기』¹⁰⁾라는 연구서가 나오면서 백운동원림과 자이당 이시헌의 존재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앞선 김봉남의 「茶山 제자 李時憲의 詩文에 관한 一研究」에서 이시헌과 다산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시헌이 한때 名利를 추구했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隱逸생활에 심취하고 儒學을 통해 眞性을 회복한 점과 養生을 추구하고 仙家를 동경했던 점을 고찰하였다. 김봉남은 『자이선생집』에 실린 시가 1838년~1854년에 지은 시만 수록되어 있고 52세[1854년] 이후부터 58세[1860년] 사이에 지은 시문이 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필자가 고찰한 바로는 『자이선생집』 乾에 干支가 丙辰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시헌의 시문이 1856년까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5) 林煥澤(1998), 「丁若鏞의 강진유배기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한국한문학연구』 제 21집, 한국한문학회, 113~150쪽.

6) 金奉楠(2008), 「자이선생집해제」, 『茶山學團文獻集成』 권5, 대동문화연구소.
(2009), 「茶山 제자 李時憲의 詩文에 관한 一研究 -茶山과의 관계와 內面意識을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第38輯, 동방한문학회, 109~133쪽.

7) 박미선(2017), 「자이당 이시헌의 ‘백운동별서’ 승계와 향촌활동」, 『호남문화연구』 권61.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원, 165-192쪽.

8) 김경국(2018), 「강진 원주이씨의 백운동(白雲洞) 별서(別墅) 정착과정 고찰」,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177~200쪽, 기타인문학원, 39~54쪽.

9) 그 외에도 2016년 천득엽의 「강진 백운동 별서원림(別墅園林)의 가치」에서 백운동원림의 공간구성을 연구하여 백운동의 건축학적 가치를 주장하였고, 2016년 이재연(2016), 「강진 백운동의 변화와 보존 방안」에서 백운동을 복원하면서 앞으로 백운동을 어떻게 보존을 해야 할지 그에 대한 방법을 고찰하였다.

10) 정 민(2018), 『잊혀진 실학자 이덕리와 동다기』,, 글항아리.

2. 李時憲의 生涯

이시헌은 原州人으로 자는 叔度, 호는 梅園·白雲洞人·自怡堂이다. 1803년 9월 5일에 태어났다. 그의 조부 李顯樸은 해남윤씨와 혼인하여 다산 정약용의 외가와 먼 친척이 되었는데, 이는 나중에 이시헌이 다산초당에서 강학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생부는 李錫輝인데 이시헌의 나이 4살에 세상을 떠나자 생모 居昌 愼氏가 이시헌의 백부 李德揮에게 출계시켰고, 이로 인해 나중에 이시헌이 백운동원림의 동주가 될 수 있었다. 이시헌의 배우자는 長田이씨 李寅容의 딸이다.

이시헌의 世系는 다음과 같다.

<표1>

성명	생몰년	배우자	
李彬	1597-1642	거창신씨	원주이씨 최초 문과 급제
李聘老	1627-1701	함풍이씨	백운동원림 입산조
李泰來	1657-1734	죽산안씨/반람박씨	
李彦吉	1684-1767	전주최씨	백운동원림 2대 동주
李毅權	1704-1759	금성최씨/문화류씨	백운동원림 3대 동주
李顯樸	1735-1819	해남윤씨/창령조씨	백운동원림 4대 동주
李德揮	1759-1828	광산김씨	백운동원림 5대 동주
李時憲	1803-1860	전주이씨	백운동원림 6대 동주

이시헌의 6대조 이담로는 17세기 중후반에 강진 백운동원림을 처음 조성한 입동주이다. 그는 생원 진사 양시에 입격하고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했던 부친 李彬(1597-1642)¹¹⁾의 영향으로 과거공부를 하였으나 결국에 공명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둘째손자 李彦吉(1684~1767)을 데리고 백운동에 들어가 별서를 조성하여 은거하였다. ‘李聘老’의 이름은 도가의 시조 老子的 字인 ‘聘’에서 비롯되었으며 호는 ‘白雲洞隱’이

11) 李彬 : 자는 彬彬, 호는 西疇로 외가인 영암의 옥천에서 태어났다. 당대 문필가로 이름난 玉峯 白光勳(1537~1582)이 그의 외조부이다. 인조 4년(1626) 명나라 외교사절을 영접하는 데 백의중사로 참여하여 뛰어난 글재주를 인정받았으며, 1627년에 사마 양시(진사시, 생원시)에 합격하고, 1633년(인조 11)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예조좌랑, 사간원정언, 병조정랑을 거쳐 장수현감으로 부임하기 전 인 1642년(인조 20) 46세로 세상을 떠났다. 나중에 鄉先生으로 존경을 받아 강진 月岡祠에 배향되었다. 유집으로 『西疇集』이 있다.

다. 그는 백운동에 들어온 후 생을 마칠 때까지 백운동을 낙토로 여겼으며, 후손들에게 平泉의 경계¹²⁾를 남겼다. 유집으로 『遣閑錄』이 있다.

이시헌은 10살 무렵에 부친 이덕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산초당에 들어가 정약용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812년 가을에 다산은 다산초당 문하생들과 월출산 등반을 하였는데, 길이 너무 험하여 천황봉까지 오르지 못하고 내려와 백운동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산은 백운동의 승경에 감탄하여 백운동의 12경을 꼽아 모두 13수의 시를 짓고, 초의에게 「白雲洞圖」를 그리게 하여 『白雲帖』을 엮어 이덕휘에게 선물하였다. 이처럼 백운동원림은 다산과의 인연으로 더욱 명성을 얻게 되었다. 1818년 다산이 해배되어 경기도 두릉으로 돌아 간 후에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세의를 이어갔다.

이시헌의 20대는 정확한 행적을 알 수 없으나 1831년 6월 15일에 晦沙 高美庸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회사의 진사시 합격을 축하하면서 자신은 떨어져서 돌아가신 부모님 묘에 찾아갈 면목이 없다고 토로한 내용으로 보아 과거공부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시헌은 36세에 금선암에서 草衣(1786~1866)¹³⁾를 만나 佛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초의에게 불법을 전수받은 이시헌은 「彌勒歌」라는 시를 비롯하여 불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불가경전을 연구하는 한편 참선을 통해 道를 추구하였다.

이시헌은 1844년에 전라우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해온 申觀浩(1810~1884)¹⁴⁾를 처음 만

12) 평천의 경계 : 平泉은 唐代의 제상 李德裕의 별장인 平泉莊을 말하는데, 이덕유는 「平泉樹石記」를 지을 정도로 이곳의 樹石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平泉山居戒子孫記」에서 “후대에 이 평천을 파는 자는 내 자손이 아니며, 평천의 나무 하나 돌 하나를 남에게 주는 자는 훌륭한 자체가 아니다. 後代鬻平泉者, 非吾子孫也. 以平泉一樹一石與人者, 非佳子弟也.”라 하며 자손을 경계하는 글을 남겼다. 『事文類聚·續集』 卷 9「居處部·園池」. 이시헌은 이 평천의 경계를 늘 마음에 새기며 백운동원림을 잘 보존하기 위해 평생 노력하였다.

13) 草衣(1786~1866) : 조선 후기의 승려. 張意恂의 호이다. 15세에 운흥사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고 정약용에게서 유학과 시문을 배우고, 신위, 김정희와 친교가 깊었다. 해남 두륜산 일지암에서 40년 동안 지관을 닦고, 서울 봉은사에서 『화엄경』을 새길 때 증사가 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4) 申觀浩 : 본관은 平山. 초명은 자는 國賓, 호는 威堂·琴堂·東陽·于石. 할아버지는 훈련대장 申鴻周이며, 아버지는 부사 申義直이다. 전형적인 무관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당대의 석학이며 실학자인 정약용·김정희 문하에서 다양한 實事求是의 학문을 수학하였다. 그리하여 무관이면서도 독특한 학문적 소양을 쌓아 儒將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또 개화와 인물들인 姜瑋·朴珪壽 등과 폭넓게 교류하여 현실에 밝은 식견을 가질 수가 있었다. 전라도 병마절도사를 거쳐 1849년에 금위대장이 되었는데, 헌종의 즉음과 연루되어 1850년에 전라도 녹도로 유리안치 되었다가 1853년에 무주로 양이되었다. 그리고 1857년에 칠종의 배려로 유배가 풀렸다. 유작으로는 『심행일기』 『민보집설』 『용서촬요』 『금석원류휘집』 『유산필기』가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났다. 이시헌은 1844년에 申觀浩를 처음 만난 이후 1857년 해배가 될 때까지 서로 시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돈독한 친분을 유지하였다. 특히 신관호는 武人집안 출신이면서도 儒家에 대한 학식이 풍부하였으며, 茶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무렵에 小痴 許鍊과도 교류하면서 시를 함께 지었다.

한편 이시헌은 47세 무렵에 霞石 成近默(1784~1852)¹⁵⁾의 문하에서 강학을 하였다.¹⁶⁾ 성근묵은 成渾 이후 尹宣擧·尹拯을 거쳐 尹光紹·姜必孝로 이어지는 학통을 계승하였으며 당색은 少論이었다. 원래 이시헌의 증증조부 李毅敬(1704~1778)¹⁷⁾이 尹宣擧(1610~1669)의 증손자인 尹東洙(1674~1739)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기 때문에 강진 백운동 원주이씨 집안은 자연스럽게 少論의 학맥을 이어왔다. 이런 인연으로 이시헌은 1848년에 하석 성근묵을 찾아가 7대조 西疇 李彬의 행장과 고조부 守卒菴 李彦吉의 행장과 발문을 받았는데 아마도 이 시기에 하석에게 수학했던 것으로 보여진다¹⁸⁾. 그리고 1849년에 이시헌은 집안에 전해오는 유묵들을 정리하여 『七世遺墨』·『守拙菴行錄』·『西疇集』·『白雲世守帖』 등을 엮어 후세에 남김으로써 ‘백운동원립의 증홍조’가 되었다.

이시헌은 세 명의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딸이 계례를 올린지 4년이 지난 1841년에 죽었고, 이듬해 1842년에 7살 난 아들이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1855년 둘째 아들 李正欽(1830~1855)마저 24살의 나이에 죽었다.¹⁹⁾ 이런 아픔을 겪은 이시헌은 오랜 시간 병고에 시달리다 1860년 5월 20일에 운명한 후 백운동에 묻혔다.

15) 成近默 : 본관은 昌寧, 자는 聖思, 호는 果齋·成渾의 후손이며, 아버지는 부여현감·금구현령 成鼎柱이다. 1809년(순조 9)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1838년(헌종 4)에 양근군수 재임시에 이조로부터 재학이 뛰어난 인물로 추천을 받아 경연관을 거쳐 1805년에 사헌부장령으로 발탁되었고 1807년에 사헌부집의로 승진하였다. 1852년(철종 3)에 형조참의로 임명되었는데, 그 해에 죽었다. 청렴·강직하기로 이름을 떨쳤으며 학문이 빼어났다. 죽은 뒤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文敬이다. 저서로는 『果齋集』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6) 이시헌의 3남 이복흠이 쓴 『白雲處士自怡先生行錄』에 “다산 정약용과 하석 성근묵은 모두 스승으로 본받은 분들이요. 丁茶山若鏞·成霞石近默, 皆師範之門”라는 내용이 나온다.

17) 李毅敬 : 본관은 原州 자는 景浩, 호는 桐岡 또는 憂樂堂. 아버지는 승문원박사 李彦烈, 어머니는 羅州吳氏. 전라남도 강진에서 태어나 윤동수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743년(영조19) 암행어사의 천거로 경기전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1748년 익위사부술이 제수되자 나아가 사도세자의 스승이 되었으며 사도세자로부터 남다른 존경을 받아 친필 詩를 하사받기까지 하였다. 主簿가 제수되고 壽職으로 첨지중추부사가 내려졌으나 평생에 이를 받지도 않았고, 죽는 날도 그의 명정에 익위사부술이라고만 쓸 것을 유언하였다. 대표적 제자로는 高漢德과 李桓圭 등이 있다. 강진의 월강사에 봉향되었으며, 내부협관이 증직되었다. 저서로는 『桐岡遺稿』 『五服便覽』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8) 박미선의 논문에, 성근묵이 1852년에 형조참의에 임명된 후 파산서원에서 제자를 양성하였는데 그때 이시헌이 성근묵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고 파악하였다.(알의 논문, 180쪽) 그런데, 성근묵이 세상을 떠난 해가 1852년인 점을 미루어 보면 검토의 여지가 있다.

19) 『自怡先生集·坤』 「祭亡兒正欽文」

이시헌의 연보는 다음과 같다.

<표2>

나이	年度	行績
1	1803	9월 5일 전라남도 강진 白雲洞園林에서 生.
4	1806	生父 李錫輝 卒(28세)./生母는 居昌愼氏 愼志顯의 딸./8월2일 弟 李時淳 生.
9	1811	10월10일 父 李德揮가 다산에게 진귀한 음식을 전해줌에 대한 茶山의 감사 편지.
10	1812	茶山을 따라 다산초당의 학동들과 월출산에 오름. 茶山이 『白雲帖』을 엮어 이덕휘에게 줌.
16	1818	茶山이 해배되어 9월에 고향인 경기도 마현으로 돌아감.
17	1819	5월15일 祖父 李顯樸 卒(85세).
20	1822	6월16일 딸 生. /1월 7일 이덕휘에게 이시헌을 칭찬하며 생달유를 요청하는 茶山의 편지.
22	1824	장남 李勉欽 生.
23	1825	봄에 별시를 보려면 열흘 일찍 두룽에 와서 점검 받으라는 다산의 편지.
25	1827	차를 좀 많이 보내주고 향시를 볼 계획이면 서울로 올라와 형세를 살펴보라는 茶山의 편지.
26	1828	1월 21일 父 李德揮 卒(69세)./5월 2일 부친 부고에 다산의 조문 편지.
27	1829	2월 8일 부친 1주기 때 茶山의 위로 편지.
28	1830	2남 李正欽 生./3월15일 三蒸三曬로 제대로 차를 요청하는 茶山의 편지.
34	1836	2월22일 茶山 卒(75세)./족보에 없는 3남 三喜 生(「祭三兒文」으로 추정)
35	1837	딸이 全州李氏 李龍求의 아들 李應純과 혼인.
36	1838	『自怡先生集』에 실린 詩를 처음 씀./초의를 금선암에서 初遇./草衣가 금강산 유람 후 「風入松」을 씀.
37	1839	三男 李復欽 生./成近默이 과천 관악산 아래에 霞石亭을 지음. 草衣가 백운동을 방문하고「白雲洞見白鶴翎有作」을 씀.
38	1840	8월 사위 李應純과 도감사에 오름.
39	1841	정월에 딸이 亡./4월 영암 서호에 사는 崔景則과 도감사에 올라 사위를 회상./10월22일 사위 李應純이 재가.
40	1842	2월26일 아들 三喜 亡./8월에 화순향시를 봄.
41	1843	장흥 위씨의 제각 장천동에 가서 천관산에 오름.

42	1844	申觀浩가 전라우도수군절도사로 부임./ 小痴가 草衣의 소개로 申觀浩와 初遇.
43	1845	소치를 만나 시를 씀./소치와 申觀浩를 찾아가 함께 시를 씀.
44	1846	윤5월에 成近默의 문하에 입문하기 위해 편지를 씀.
45	1847	공주 쌍수산성에 감./申觀浩 한양으로 돌아가면서 小痴 동행함.
46	1848	성근묵에게 李彬의 행장 및 李彦吉의 행장과 발문을 받음.
47	1849	다산초당에 가서 스승 丁若鏞을 회상./『癸丁兩慶疊書』 『七世遺墨』 『守拙菴行錄』 『西疇集』 간행./申觀浩가 전라도 녹도에 유배./2남 李正欽의 병을 치료하려 담양에 머무름.
48	1850	10월 상순에 『白雲世守帖』의 발문을 씀.
49	1851	莊菴과 월출산에 오름.
50	1852	백운동원림의 14경을 시로 읊음.
51	1853	백운동원림 4개월간 중수./申觀浩가 감형되어 무주로 양이./申命淳이 전라우도수군절도사로 부임.
52	1854	속리거사 鄭時縣이 「白雲洞圖」를 그려줌.
53	1855	3월 그믐에 徐憲淳에게 자식을 잃은 위로하는 편지를 보냄./二男 李正欽 亡.
54	1856	손자 李瓛永生.
55	1857	다산의 아들 丁學淵의 답장./다산의 조카 丁維桑 백운동에 방문./전라우도수군절도사 申命淳 백운동 방문./申觀浩 해배.
56	1858	申命淳에게 답장.
57	1859	萬頃政堂重修記를 씀.
58	1860	5월20일 강진 白雲洞園林 언덕에 장사를 지냄.

3. 『自怡先生集』의 構成

『자이선생집』은 未完의 문집이다. 일반적으로 문집은 편차 상, 序文·目錄·本文·附錄·跋文 등의 순으로 엮어져 있는데, 『자이선생집』은 본문만 실려 있어서 편저자와 제작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시헌의 족질로 그에게 師事했던 성균관 박사 李嶽(1842-1928)이 쓴 「白雲處士 自怡先生行錄」이 그의 문집 『桂陽遺稿』에 실려 있고, 이시헌의 3남 李復欽(1839-1908)이 쓴 「自怡堂李時憲公行狀草記」가 남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흠 및 이복흠과 동시대의 가까운 집안 인물로 보인다.

『자이선생집』은 2권 2책으로 된 石印本으로 간행 되었으며, 문집에 詩 387수, 序 6편, 記 7편, 說 7편, 祭文 12편, 上樑文 4편, 書 11편이 수록 되어있다.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3>

권	분류	文類 및 題目	
卷之上	詩 (387수)	1838년 智川居士 외 10수	
		1839년 泛西湖 외 2수	
		1840년 寄蒼崖李上舍 1수	
		1841년 亡女挽 외 41수	
		1842년 瓶梅 외 5수	
		1843년 長川洞次壁上韻 외 16수	
		1844년 寄于石節度 외9수	
		1845년 寄留齋 외 25수	
		1846년 泛西湖 외 2수	
		1847년 北倉路中 외 18수	
		1849년 和釣巖 외 25수	
		1851년 和石瓢 외 18수	
		卷之中	
1853년 和晦沙 외 62수			
1854년-1855년 寄留齋茂朱量移所 외 44수			
1856년 和石浯 외 7수			
竹寺洞山棠花 외 52수			
序(6편)	癸丁兩慶帖序/自怡堂自序/禁松襖面約序 외 3편		
記(7편)	金陵客舍重修記/萬頃政堂重修記 외 5편		
說(7편)	主人翁說/菊花說贈菊史金孝廉 외6편		
祭文(12편)	哭亡女文 외 11편		
上樑文(4편)	石南新居上樑文 외 3편		
書(11편)	上霞石書 외 10편		

시는 이시헌의 나이 38세인 1838년부터 지어진 시 총 387수가 수록되어 있다. 시의 형식에 관계없이 배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언시는 26수이고 나머지 361수는 칠언시

이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한적하게 유유자적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내면을 수양하고자 하였던 산수 전원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자이선생집·건』에는 시가 지어진 干支에 따라 실려 있지만 『자이선생집·곤』에는 干支가 없어서 시가 지어진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시현의 시의 특징은 다음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겠다.

시에는 이시현이 다산초당에서 스승으로 모신 정약용을 그리워하는 시, 성인이 되어 스승으로 모신 하석 성근목과 수창한 시, 초의선사를 처음 만난 후 지은 작품들이 있다. 또한 당시 강진에 부임해 온 현감[宋三默·李寅植·李寅奭·朴承輝·閔馨在 등], 해남의 전라도도수군절도사 [申觀浩], 호남 관찰사[申命淳] 등과 수창한 시들이 있다. 아울러 卮園 黃裳, 小痴 許鍊, 정약용의 조카 丁維桑 그리고 다산초당의 문하생[尹鍾敏 등]들과 수창한 시들이 실려 있다. 이런 시들을 통해 이시현이 백운동에 은거하면서도 각지의 여러 명사들과 폭넓게 교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집에 실린 시들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백운동의 14경을 노래한 「擬雲谷雜詠賦得白雲十四景」 15수이다. 朱子가 武夷山에 승경 九曲을 꼽아 노래하였듯이, 처음 백운동원림을 조성한 이담로는 「白雲洞幽棲記」에 백운동의 8경물을 자신의 벗으로 삼아 노래하였고, 그후 정약용은 1812년에 백운동을 방문한 후 백운동의 12경을 노래하며 초의에게 「백운동도」를 그리게 하였다. 이어서 1852년 이시현은 백운동의 14경을 노래하여 선대의 유업을 지키며 이곳에서 은거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었다. 이는 주자를 尊崇하며 성리학을 공부하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정서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도 많은 명사들이 백운동원림이 조성된 이후로 줄곧 백운동의 승경을 노래하였다.

참고로 이담로와 정약용 그리고 이시현이 꼽은 백운동의 승경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4>

景	李聘老	丁若鏞	李時憲
1景	蓮	玉版峯	白雲洞
2景	梅	山茶徑	自怡堂
3景	菊	百梅塢	千佛峰
4景	松	紅玉瀑	停仙臺
5景	竹	流觴曲水	百梅園
6景	蘭	蒼霞壁	萬松岡
7景	鶴	貞蕤岡	箕筥谷
8景	琴	牡丹砌	山茶徑
9景		翠微禪房	牡丹圃
10景		楓壇	映紅砌
11景		停仙臺	蒼霞壁
12景		箕筥園	紅玉潭
13景			楓壇
14景			曲水

序는 모두 6편이 있다. 그 중 「癸丁兩慶帖序」는 이시현이 1849년에 하석 성근목을 찾아가 자신의 고조부인 이언길의 행장 및 발문을 받고 백운동으로 돌아와 쓴 『守拙菴行錄』의 서문이다. 이시현의 고조부 이언길이 1763년에 회혼례를 올리고 1767년에 84세로 죽은 후 壽職으로 동지중추부사에 추증된 것을 경축하는 내용이다.

「禁松禊面約序」는 이시현의 현실 참여의식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당시에 금송정책이 실시되고 있었는데 소나무는 조정의 중요한 재정이었고, 백성들에게는 일상생활의 땀감으로 쓰일 뿐 아니라 죽어서 관곽으로 쓰이는 소중한 나무였기에 함부로 벌채하지 않도록 규제하였다. 그러나 강진 고을에서 소나무를 함부로 채취하여 산이 벌거숭이가 되자 이시현은 고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금송에 대한 약정을 맺고 그 서문을 썼다. 다만 현재 문집에는 서문만 수록되어 있고 약정한 조목들은 실리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記는 모두 7편이 있다. 그 중에 「金陵客舍重修記」와 「金陵社稷壇重修記」를 미루어 보아 이시현이 비록 관직에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강진 지역에서 명망이 상당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금릉사직단중수기」는 이시현이 당시 현감을 대신하여 쓴 글로 보인다.²⁰⁾

20) 문집에는 ‘代人作’ 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 박미선의 앞의 논문(184~185쪽)에 “이시현은 강진에서 떠나 4년 만에 돌아온 후 사직단을 둘러보았는데,壇壝, 神室, 齋舍 등이 무너지고 떨어져 나가고 기울어져 볼 품 없었다. 그런데 사전은 사람을 다스리고 신을 섬기는데 중요한 장소이므로 읍민들에게 이를 자문하고 목재를 모아 새롭게 세우기로 도모하였다.” 라고 하였다. 필자가

說은 7편이 있다. 그 중에 「菊花說贈菊史金孝廉」은 菊史 金孝廉이라는 사람에게 菊花說을 지어 보낸 글이다. 이시헌은 화초를 가꾸는데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隱逸之士로 일컬어지는 국화에 대한 관심이 유별하였다. 18세기에 조선의 신지식인들은 과거시험이 부정부패의 산실이 되자 청운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로지 과거공부에만 몰두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물에 빠져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는 경향이 일어났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후기 도성을 중심으로 한 신지식인의 특징이기도 하다.²¹⁾ 이시헌도 한때 도성에 올라가 과거준비를 하였는데 당시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祭文은 12편이 있다. 그 중에 이시헌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3명의 자식을 위한 제문이 실려 있는데, 「祭三兒文」은 ‘三喜’라는 아들이 일곱 살에 병들어 죽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문은 이시헌의 자식이 3남[이면흙·이정흙·이복흙] 1녀로 알려져 있는데 이복흙 이전에 아들이 한명 더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書는 11편이 있다. 「送三川高進士晦沙書」는 1831년 6월 15일에 이시헌이 담양 삼천에 사는 벗 晦沙 高美庸에게 자신이 과거시험에 떨어져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초한 마음을 가눌 길 없다고 토로하는 내용이다. 고미용은 집안에 세의로 교유한 벗으로『자이선생집』맨 처음에 그에게 부치는 시가 실려 있으며, 고미용과 주고받은 시가 석표 윤종민과 더불어 가장 많다. 「與留齋書」는 신관호가 현종의 죽음에 연루되어 전라도 녹도로 유배 갔다가 1849년에 무주로 양이되었을 때 위로하는 내용이다. 「慰徐巡相書」는 1855년에 호남관찰사 徐憲淳(1801~1868)이 자식을 잃자 이시헌 또한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을 겪었던 터라 진심으로 위로하는 내용이다.

이시헌의 문집을 바탕으로 고찰하기로는 4년간 강진을 떠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벼슬에 나아간 적이 전혀 없는 이시헌이 “고을 사람들에게 물어 그 곳을 중수할 방법을 도모하고, 봉급을 출연하고 재목을 모우며 장인을 모집하여 법도를 내려 주니 일이 또한 예정 보다 빨라서 신실은 먼저 작년에 수리하였다.” 라는 내용의 중수기는 이시헌이 현감을 대신하여 현감의 입장에서 작성만 했을 뿐 중수를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여긴다.

21) 정민 (2007년)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181~283쪽.

4. 李時憲 詩의 特徵

이시헌 詩의 특징은 다섯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5언시보다는 7언시를 선호하였고, 둘째는 山水田園詩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셋째는 佛家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였고, 넷째는 茶와 관련된 詩語들이 자주 사용되었으며, 마지막 다섯째는 당대 강지지역에 발자취를 남긴 유명 인사들이 많이 등장한다.

여기서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이시헌은 5언시 보다 7언시를 선호하였다. 『자이선생집』에는 모두 387수의 시가 실려 있는데, 그 중 5언시는 26수에 불과하지만 7언시는 361수나 된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

간지(연도)	7언절구	7언율시	5언절구	5언율시	기타	합
戊戌(1838)	8	3				11
己亥(1839)	3					3
庚子(1840)		1				1
辛丑(1841)	25	4	10	2	7언시(1)	42
壬寅(1842)		3	2	1		6
癸卯(1843)	5	11		1		17
甲辰(1844)	1	8	1			10
乙巳(1845)	7	18			7언시(1)	26
丙午(1846)	3					3
丁未(1847)	13	4		1	5언시(1)	19
己酉(1849)	4	22				26
辛亥(1850)	1	18				19
壬子(1852)	20	16				36
癸丑(1853)	12	48			5언시(3)	63
甲寅(1854)	10	18				28
乙卯(1855)		14		1	7언시(1)	16
丙辰(1856)		8				8
卷之中	14	35		1	5언시(2)/7언시(1)	53
합	126	231	13	7	10	387

둘째, 이시헌의 시에는 현실 참여시가 거의 없고 대체적으로 山水田園詩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시헌이 살았던 19세기[순조·헌종·철종] 조선 사회는 왕권의 약화와 외척의 권력독점으로 삼정이 문란해지고 매관매직이 성행하였으며, 특히 유학자들 사이에서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천주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그러나 이시헌

의 시에는 현실에 참여하거나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시현은 산수 속에 閑居하며 仙人의 삶을 추구하였다.²²⁾ 이시현의 이러한 은둔사상은 仙境에서 仙經을 끼고 閑居하는 도가의식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陶淵明(365-427)에 의해서 시작된 산수전원시란 산수와 전원에서 생활하며 그곳의 흥취를 시로 읊는 시를 말한다. 산수전원시인은 佛家와 道家를 수용하여 전원 에 은거하고 명산대천을 유람하면서 隱逸의 삶을 추구하였다. ‘隱逸’이란 “세상을 피하여 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은일의식은 出處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出處意識은 『論語』「泰伯」의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머무르지 않는다. 천하에 道가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은둔한다. [危邦不入, 亂邦不居.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에서 찾을 수 있다. 곧 군자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알아서 처신한다는 뜻이다.

‘隱’은 때를 기다리며 자연에 숨어 수신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상을 등지고 자연에 숨어들어 유유자적하는 삶 속에서 동시에 언젠가는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뜻을 펼칠 날을 기다리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벼슬아치가 되는 길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는 방식과, 세상을 피해 은둔해서 살지만 학식이 뛰어나 천거를 받는 방식, 그리고 공적으로 관직에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공명에 뜻을 둔 학자는 적극적으로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에 나아가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자연에 묻혀 높은 학식을 인정받아 천거로 관직에 나아가곤 하였다.

이시현은 젊어서 공명에 뜻을 두고 벼슬에 나아가려는 ‘出’을 추구하면서도 내면에는 늘 백운동에서 자연과 더불어 은거하고픈 ‘處’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시현은 여러 차례 과거시험에 낙방하면서 자신이 젊을 적부터 공명에 뜻을 둔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마음을 표현하며 다산초당의 벗 윤중민에게 화답하는 「再疊」시를 살펴보자.

백운으로 내 그대와 함께 돌아가니
깊고 깊은 작은 골에 세속의 기운 드무네
뒤늦게 임천을 깨달은 마음 거리낌이 없고
일찍이 명리를 추구한 계책 온전히 그릇되었네

白雲吾與爾同歸
小峒深深俗韻稀
晚覺林泉心不累
早求名利計全非

22) 『自怡先生集·坤』에 실린 「禁松禊面約序」·「金陵客舍重修記」를 보면 현실 참여의식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낡은 거문고 가락 다하니 벗이 찾아오고
 외로운 학 울며 지나가니 신선을 꿈꾸네
 시료가 부족하여 시를 다 짓지 못하였는데
 산 빛과 물빛은 서로 잘 어우러져있네

古琴彈盡來知己
 孤鶴鳴過夢羽衣
 詩料闌珊收未了
 山光水色勢相圍

위의 시는 1852년 이시현의 나이 50세에 지은 것이다. 석표는 윤종민으로 윤두서의 후손인데 다산초당의 동학들 중에서 이시현과 가장 마음이 통하는 벗이었다. 이시현이 사는 백운동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다. 거쳐 뿐 아니라 이시현 자신에게도 세속의 기운[俗韻]이 적다. ‘俗韻’이란 말은 은일지사의 대표격인 陶淵明의 「歸田園居」에 “젊어서부터 세속에 적응할 정취 없고, 성정이 본래 산림을 좋아하였네. [少無適俗韻, 性本愛邱山.]”라는 구절에서 나왔다.

오십 평생을 백운동에서 태어나 살아왔으니 애초에 이시현에게는 俗韻이 적었을 것이다. 그런 자신이 명리를 추구하며 부질없이 살아 온 지난날이 그릇되었다고 여기고, 자연 속에서 거문고 가락에 知音을 맞이하며 시를 수창하는 은일의 삶을 살고자 하였다. 성현들의 경전에서 禮를 익히고 거문고 뜯으며 음악을 겸비하여 禮樂一體의 삶을 살고자 하였다.

같은 시기에 지어진 「拈晦沙泮居韻偶吟」라는 한 편의 시를 살펴보자.

세월이 흘러 어느덧 오십의 나이
 백발에도 성인이 남긴 경서만을 끼고 있네
 시혼이 한매의 그림자와 함께 지키고
 병든 몸이 노학의 모습과 닮아 보네
 일신의 계책에 어찌 반드시 득실을 논하리오
 마음공부로 오히려 스스로 허령함을 지켜야하리
 산에서 고요히 지내니 항상 일이 없어서
 집을 푸르게 두른 천봉우리를 마주할 뿐 일세

洽到光陰半百齡
 白頭猶復抱遺經
 詩魂共守寒梅影
 病骨爭看老鶴形
 身計何須論得喪
 心工猶自保虛靈
 山居靜寂常無事
 只對千峯繞屋青

위의 詩題에 나오는 회사 고미용은 선대부터 世誼를 이어온 忘年之友이다. 이시현은 나이 50에 백발이 되도록 여전히 성현의 경전을 끼고 시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詩魂은 매화와 함께 하였다. 세속과 단절된 산중에 은거하는 은자에게 매화는 진정한 벗이었다. 이시현은 병든 몸에 일신의 계책을 공명에 두지 않고 神靈한 상태로 만물의 이

치에 밝은 明德의 경지인 虛靈不昧한 마음공부를 추구하였다.

이시헌은 백운동원림에서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며 살았다. 자연 속에 숨어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 그것은 은일지사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었다.

백운동에서 은거하며 신선처럼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노래한 「又題襟」라는 시를 살펴해보겠다.

홀로 한가한 구름을 짝하여 함께 돌아오니	獨伴閑雲與共歸
시시와 비비를 모두 잊었네	都忘是是復非非
누워서 바람 소리를 들으니 귀가 맑아지고	臥聽虛籟能清耳
일어나 빈 호리병을 두드리니 옷이 젖으려 하네	起擊空壺欲濕衣
소나무 물가에서 돌평상 쓸어 바둑을 두고	松水碁聲開石榻
대나무 숲에서 사립문 닫고 다구에 차를 뺀네	竹林茶臼掩荆扉
집이 가난해도 늘 독서를 좋아하니	家貧好讀唯常事
쌀독은 비었으나 오히려 나를 살찌게 하네	糠竅猶看使我肥
단조의 신묘한 방술을 연단술에서 찾고	丹竈神方求煉術
청산의 영험한 약은 자지가에 담겨 있네	靑山靈藥有芝歌
평생의 수양은 오직 나로 말미암으니	百年自養惟由我
단전을 지킬 뿐 다른 것을 바라지 않네	保得丹田不願佗

위의 시는 이시헌이 아름다운 백운동에서 신선처럼 지내려는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세상의 시비를 모두 잊고 백운동 골짜기에서 백운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다가 한가로이 누워서 불어오는 바람소리에 귀를 더욱 맑게 한다. 백운동 물 흐르는 골짜기에는 높다란 소나무가 있다. 여름이면 시원하게 그늘진 널찍한 돌평상에 앉아 바둑을 두는 이시헌의 모습이 바로 신선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구름과 짝하여 세상의 시비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다. 귀에 담는 것은 백운동 골짜기에 불어오는 바람 소리²³⁾와 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일 뿐이다. 솔바람 소리와 물소리 들리는 계곡의 돌평상에 앉아 紫芝歌²⁴⁾를 부르며 바둑을 둔다. 백운동의 대나무 숲에는 아

23) 바람 소리 : 원문의 ‘虛籟’는 바람소리를 말한다. 『莊子』 「齊物論」에 天籟·地籟·人籟가 있다고 했다. 바람 소리는 천뢰로서, 虛籟라고도 한다.

24) 紫芝歌 : 秦과 漢의 교체기에, 商山四皓 즉 東園公·夏黃公·角里先生·綺里季가 이 남전산에 은거하며 세상에 나오지 않은 내용의 노래이다.

생차가 자생하고 있다. 바둑을 두고 난 후 대숲 속에 있는 집안으로 들어와 사립문 닫고 차를 뺀다 차를 달여 마시며 독서를 생활화하였다.

이시헌은 평소 속세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속의 천석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며 지내는 仙境을 동경하였고, 늘 仙經을 읽으며 단진수련을 통해 양생하는 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도가적 사상도 지니고 있었다.

그 외에 그의 시 중에 “금보는 그대 때문에 자세하게 논해졌고, 선서는 나 때문에 분명하게 읽혀졌다. [琴譜憑君評細瑣, 仙書從我讀分明.]”²⁵⁾, “이제부터 길이 매화 집문을 닫고, 홀로 선경 안고 속된 이웃을 사양 하리. [從今永閉梅花屋, 獨抱仙經謝俗隣.]”²⁶⁾, “나이 들어 다만 전인의 비결을 믿노니, 홀로 선경을 안고 구름 속에 누워있네. [老來只信前人訣, 獨抱仙經臥雲中.]”²⁷⁾ 라고 읊은 부분에서 그 사례를 알 수 있다.

다시 「和釣巖」 시를 살펴보자.

내 의관을 정제하고 용모를 수렴하여
 밤기운이 짙을 때 홀로 단전을 지키노라
 미추는 거울을 거둬 닦아도 달아나지 못하고
 소리는 진실로 종을 치기 전에도 있는 법
 허명한 이곳이 삼재의 주인이니
 동작하는 사이에 온 몸이 따르도다
 잘 간직하여 잃지 않음이 가장 좋으니
 봄날 태화주에 항상 취하리라²⁸⁾

整余冠服斂余容
 獨保丹田夜氣濃
 妍醜莫逃重磨鏡
 聲音固在未撞鐘
 虛明這處三才主
 動作中間百體從
 持守最宜無放失
 春風常醉太和醲

위의 시는 1849년 이시헌의 나이 47세에 쓴 작품이다. 조암은 집안의 族人²⁹⁾인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위 시는 이시헌이 1847년부터 1848년 사이에 하석문하에서 공부하며 집안의 유묵들을 정리하기 위해 성근묵에게 7대조 서주 이빈의 행장과 고조부 수졸암 이언길의 행장과 발문을 받아서 1849년에 강진으로 돌아온 후 쓴

25) 『自怡先生集·乾』 「和晦沙」 46쪽.

26) 『自怡先生集·乾』 「偶吟」 63쪽.

27) 『自怡先生集·乾』 「與石瓢賦得雜詠十首」 66쪽.

28) 태화주 : 술을 가리킨다. 宋代邵雍의 「无名公傳」에 “천성적으로 술을 좋아했는데 일찍이 술을 명명하여 太和湯이라 했다.” 라 하였다.

29) 『自怡先生集·坤』 「祭釣巖族叔文」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釣巖이 족속임을 알 수 있다.

것이다. 그 후 詩風에 도가적 성향이 두드러졌으며 산수와 더불어 유유자적하고 단전 수양을 병행하며 仙人의 경지에 오르고자 노력하였다. 단전 수련은 도가의 대표적인 양생술이다. 고요한 밤에 홀로 의관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마음을 텅 비우며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곳곳이 앉아 양생하고 있는 이시헌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인간의 현실을 초월하여 태화주에 취해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신선사상이 드러나 보인다.

이시헌의 自號가 ‘자이당’인데 ‘自怡’라는 語源은 梁나라 때 구곡산³⁰에서 백운과 더불어 은거하였던 華陽居士 陶弘景(456~536)의 「詔問山中何所有賦詩以答」³¹이라는 시에서 유래하였다. 그럼 이시헌의 「擬雲谷雜詠賦得白雲十四景」라는 시에서 백운동원림의 승경 14곳을 노래하며 그 중 자신의 堂號 〈自怡堂〉을 노래한 시를 살펴보자.

‘자이’는 다만 내 마음의 한가로움이니	自怡只是我心閑
산 고개 너머 돌아가는 구름도 모두 상관하지 않네	嶺上歸雲摠不關
천년토록 화양거사 시어이거늘	千載華陽詩上語
아득한 정은 오히려 청산을 저버릴까 두렵네	遐情猶恐負青山

위의 시는 1852년 50세의 나이에 쓴 시이다. 시의 키워드는 첫 구에 있는 ‘自怡’이다. 이시헌은 화양거사 도홍경의 시구에서 나오는 ‘자이’를 자신의 호로 삼았다. 둘째구의 “산 너머로 돌아가는 구름도 모두 상관하지 않네.”라고 노래하였듯이, 눈에 보이는 외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면의 즐거움에 무게를 실으니, 산 너머로 돌아가는 구름 또한 자신의 마음에 걸릴 것이 없었다. 천년이 훌쩍 넘는 오랜 세월을 지내온 화양거사 도홍경의 시어 ‘自怡’는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였다. 혹여 자신이 은일한 삶을 떠나 청산을 저버리고 백운동을 벗어날 마음이 생길까 두려워하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보인다.

또한 「自怡堂自敍」 첫 부분에서 ‘自怡’라는 것은 “몸이 마음에서 저절로 얻어지는 바

30) 구곡산 : 강소성 구용현 동남쪽에 있다. 漢나라 때 茅盈·茅固·茅衷 삼형제가 이 산에서 득도하여 三茅眞君이라 불리는 신선이 되었기 때문에 ‘모산’으로도 불린다.

31) 陶弘景의 「詔問山中何所有賦詩以答」에서 “산 속에 무엇이 있는가. 산 고개 너머 백운만이 많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스스로 즐길 수 있을 뿐. 임금께 가져다 드릴 수는 없나이다. 山中何所有, 嶺上多白雲. 只可自怡悅, 不堪持贈君.”라 하였다.

요, 마음이 내면에서 저절로 즐거워하는 바이다.”³²⁾라고 말하였다. 세상에 은둔하여 물질을 버리고 자신이 늙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는 은일의 삶을 살고자 하였다.

「自怡堂自序」의 끝 부분에 “자이한 삶의 경지에 이르면 구름 한 점 없어도 좋고 ‘자이당’이라는 거처가 없어도 좋은데 이러한 경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여 ‘自怡堂’이라는 당호를 명명하고 스스로 이러한 삶의 경지를 추구하노라.”³³⁾라고 하였다. 이시헌은 백운과 더불어 유유자적한 삶 속에서의 목표점은 ‘自怡’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읊은 「篁亭窟遊三載歸觀還鄉云拈放翁韻以寄」라는 시를 살펴보자.

내가 타고난 직책은 무엇인가	天生授職我何官
천석 연화와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라네	泉石煙霞與共歡
삼을 키워 산인의 옷을 지어 입고	藝麻自製山人服
침을 캐서 도사의 갓을 만들어 쓰네	採葛新裁道士冠
굴원에서 바둑 두는 신선에 가깝고	弈近棊仙臨橘局
낡은 부들방석에 앉아 있는 스님의 모습이네	形同梵釋老蒲團
백운동은 청성 자락에 붙어 있는 것과 같으니	白雲猶屬青城路
지는 달과 반짝이는 별 보며 설한을 꿈꾸리	落月翻星夢雪翰

위의 시는 1853년 이시헌의 나이 53세에 지은 시이다. 이시헌의 벗 황정이 벼슬살이 3년 만에 부모님을 뵈러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남송시대의 시인 육유의 시에 차운하여 지어 보낸 것이다. 이시헌은 공명에 뜻을 두기도 하였으나 본래 타고난 자신의 직책은 자연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었다. 이 즐거움이 바로 은일의 삶이다. 자연에서 삼과 침을 캐서 옷과 갓을 만들어 걸친 차림으로 굴원에서 바둑을 두는 신선³⁴⁾, 부들방석에 앉아 참선하는 스님의 모습으로 青城³⁵⁾ 자락에 있는 듯한

32) 『自怡先生集·坤』 「自怡堂自敍」. 怡者, 己之所以自得於心, 而心之所以自樂於內者也.

33) 『自怡先生集·坤』 「自怡堂自敍」, 若是而爲自怡也, 則雖堂之無是雲可也, 我之無是堂亦可也, 又安用名也? 然余則聞是說, 而未得其道者也, 姑以是名堂, 聊以是自求云爾.

34) 신선 : 옛날에 巴邛 사람이 자신의 橘園에 대단히 큰 굴이 열렸기에 이를 쪼개어 보니, 그 속에 백발의 두 노인이 서로 마주 앉아 바둑을 두면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노인이 “굴 속의 즐거움은 商山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고사가 있다. 『玄怪錄』 「巴邛人」.

35) 青城 : 杜甫의 「丈人山」에 “청성에서 나그네살이 하게 되면서, 청성 땅에는 침을 벨지 못하였네. [自爲青城客, 不唾青城地.]”라 하였다. 『杜詩詳註』 卷10 청성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이 시구를 끌어다가 백운동에 살고 싶은 자신의 뜻을 밝힌 것이다.

백운동에서 달과 별을 보며 지낸다고 하였다.

셋째, 이시헌의 시에는 佛家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내면의식이 드러나 있다. 1838년 이시헌의 나이 36세에 금선암에서 초의를 처음 만났고, 이 때 이시헌은 초의와 몇 마디를 나누면서 바로 그의 인품에 매료되었다³⁶⁾.

다음은 1841년에 「次文殊書齋壁上韻 九首」중 두 번째 시에서 이시헌은 문수서재 주변에 있는 臺巖을 노래하며 지은 시이다.

푸른 산이 끊어진 곳에 바위가 가파른데	靑山斷處石峻嶒
호랑이가 앞에 걸터앉고 봉황이 나는구나	虎踞前頭鳳勢騰
마침 흰 구름이 바위 위로 일어나니	時有白雲巖上起
밝은 달에 선승이 내려온 듯하네	月明疑是下仙僧

위의 시에서 이시헌은 문수서재에서 가파른 臺巖을 올려다보며 마치 호랑이가 그 바위에 걸터앉고 봉황이 나는 모습이라 노래하면서 그 바위 위로 일어나는 白雲을 밝은 달빛 사이로 내려오는 신선같은 스님이라 비유하였다. 여기서 이시헌이 불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내면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시헌이 1844년에 지은 「偶吟」이라는 시를 살펴보자.

세모의 산재에 눈이 막 개이니	歲暮山齋雪霽初
선달 무렵 매화향기 깨끗한 옷에 스미네	梅香近臘襲清裾
부박한 황금이 세속을 부끄럽게 하니	黃金浮薄羞今俗
늙도록 부지런히 애써 고서를 신봉하네	白首辛勤信古書
천지는 맷돌처럼 저절로 돌아가고	天地自回雙扇磨
세월은 수레의 바퀴처럼 멈추질 않네	光陰不住兩輪車
포단의 흥취 ³⁷⁾ 를 아는 이가 없으니	無人解道蒲團趣
비단 침구에 화려한 집도 이보다 못하리라	錦褥華堂恐不如

36) 『自怡先生集·坤』 15쪽 「贈草衣大師小序并五古」에 실려 있는데 1838년 6월 15일에 쓴 것이다.

37) 포단의 흥취 : 부들방석에 단정히 앉아 명상하는 禪僧과 같은 法樂을 말한다.

위의 시 5구와 6구의 “천지는 맺들처럼 저절로 돌아가고, 세월은 수레의 바퀴처럼 멈추질 않네.”에서 불가의 윤회사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7구와 8구의 “포단의 흥취를 아는 이가 없으니, 비단 침구에 화려한 집도 이보다 못하리라.”에서 부들방식에 단정히 앉아 명상하는 禪僧의 法樂을 찬미하고 있다. 이밖에도 『彌勒歌』³⁸⁾라는 시를 지으며 佛家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盆菊十首和晦沙』에서는 “속세에 빛을 받하니 신령한 부처가 나타난 것 같고, 이교에서 약속했던 늙은 신선이 찾아 온듯하네. [沙界放光靈佛現, 圮橋留約老仙來.]”라 노래하며 피어난 국화를 부처의 현신으로 비유하였으며, 『又拈陸放翁詩得曾字』에서는 “『楞嚴經』을 어찌하여 암송했던가, 내 모습은 여전히 죽반승과 같구나. [楞嚴一經誦何曾, 貌樣還同粥飯僧.]”라 하며 수행에 힘쓰지 않는 자신을 음식이나 축내는 스님으로 비유하기도 하였다.

넷째, 이시현의 시에는 茶와 관련된 詩語들이 자주 나온다. 곧 20여 수의 시에 茶鼎·茶爐·茶譜·茶鑑·茶臼·茶罐·茶竈 등과 같이 茶와 관련된 시어들이 나온다. 이시현이 거주한 백운동원림의 뒤편에는 만 그루의 대나무 숲이 있는데 그 속에서 야생차가 자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 환경과 스승 다산 및 초의의 영향으로 이시현은 자연스레 茶와 관련된 시들을 지었다고 여겨진다.

조선 후기 茶文化은 다산과 초의가 처음 싹을 틔웠고 추사로 인하여 더욱 만개하였다. 이시현은 『江心』³⁹⁾이라는 茶書를 필사하여 보관할 정도로 茶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한편 다산은 강진의 유배생활이 풀려 경기도 마현으로 돌아간 후 1830년에 이시현에게 三蒸三曬⁴⁰⁾의 제다법으로 餅茶를 만들어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럼 이시현이 1852년 50세의 나이에 백운동원림의 14경을 노래하는 『擬雲谷雜詠賦得白雲十四景』의 10번째 노래한 〈暎紅砌〉를 살펴보겠다.

봄날의 공을 모두 옮겨 이곳에 기탁하니
온통 푸른 숲에 한 산만이 붉네
산인의 탁상에 차솔과 차통이 있으니

輸盡春功寄此中
千林共碧一山紅
茶鐺竹榼山人榻

38) 『自怡先生集 坤』에 실려 있는 이 시가 지어진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다. 『自怡先生集 坤』에는干支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39) 『江心』: 李德履(1728~?)가 쓴 실학사상이 담긴 책이다. 정민의 『잊혀진 실학자 이덕리와 동다기』, 라는 책에 『동다기』의 原題가 『江心』에 실린 「茶記」라고 밝히고 있다.

40) 三蒸三曬: 차 잎을 세 번 찌고 세 번 말린 후 그 것을 절구에 곱게 빻아 돌샘에서 나오는 물로 씻이겨 떡 모양으로 굳혀 餅茶를 만드는 제다법이다.

백발옹에게 남은 인생 여유롭네

太侈殘年白髮翁

영흥채는 이시현이 백운동 원림의 14승경 중 열 번째로 꼽은 곳이다. 백운동원림에 봄이 되자 백운동원림은 울긋불긋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신록의 세상이 되었다. 특히 영산홍은 유별나게 화려한데 산인은 바로 이시현 자신의 모습이다. 화려한 봄날 백발로 늙어가는 여생을 茶鑑과 茶筒을 마주하며 茶香에 취하여 담박한 삶을 영위하는 이시현의 모습이 엿보인다.

다섯째, 이시현의 시에는 당대 강진지역에 발자취를 남긴 유명 인사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시현의 첫 번째 스승인 다산 정약용, 나중에 스승으로 모신 하석 성근묵, 전라우도수군절도사 신관호 · 신명순, 초의선사, 석표 윤종민과 소치 허련, 강진 유배기에 다산의 그림자였던 치원 황상, 정약용의 조카 정유상을 비롯하여 강진에 부임해 온 현감[이인식 · 이인석 · 박승휘 · 민형재], 장흥부사 고혜진 · 김현순 그리고 그의 망년지우 회사 고미용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대부분의 만남은 백운동원림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1849년에 쓴 「茶山感舊」 2수를 살펴보겠다.

상전이 벽해 되듯 삼십년 만에 내 다시 오니
소내의 선옹⁴¹⁾께서는 돌아오질 않네
홀쩍 떠나셨으나⁴²⁾ 흔적은 아직도 ‘丁石’⁴³⁾에 있고
해운의 산달이 그를 위해 배회하네

滄桑卅載我重來
菖上仙翁去不廻
泥爪尙留丁石在
海雲山月爲徘徊

시회가 일찍이 굴원⁴⁴⁾에서 열렸는데
꽃이 시들고 물이 흘러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가

騷壇曾向橘園開
花謝水流歲幾回

41) 소내의 선옹 : 다산이 경기도 광주[지금의 양주군 조안면 능내리 소내 마재] 출신이다.

42) 홀쩍 떠나셨으나 : 원문의 ‘泥爪’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아무 미련 없이 홀쩍 떠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蘇軾의 「和子由澗池懷舊」에 “인생 길 이르는 곳 무엇과 비슷하다 할까, 눈발의 기러기 발자국과 같다 하리. 우연히 발톱 자국 남겨 놓았을 뿐, 날아가면 어찌 다시 동쪽 서쪽 헤아리랴. 人生到處知何似, 應似飛鴻踏雪泥. 泥上偶然留指爪, 鴻飛那復計東西.”라는 구절이 나온다. 『蘇東坡詩集』 卷3.

43) 丁石 : 茶山草堂 석벽에 ‘丁石’이라고 두 글자가 새겨져 있다.

44) 굴원 : 강진군 굴동 마을인데, 이곳에 차나무가 많아 다산이 자신의 호를 ‘茶山’이라고 하였다.

책상을 지던 소생이 지금은 백발이 되어
 동풍을 맞으며 홀로 자하대⁴⁵⁾에 오르네

負笈小生今白髮
 東風獨上紫霞臺

위의 시는 이시현이 다산의 제자임을 알려주고 있다. 1810년 즈음에 이시현이 다산 초당에 들어가 다산의 가르침을 받다가 다산이 1818년에 해배되어 경기도 마현으로 돌아간 후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다산초당 石壁에 새겨진 ‘丁石’이란 두 글자만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시현은 어렸을 적 책상을 지고 스승님 앞에 나아가 강학을 하며 때로는 詩會가 열리던 다산초당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어느덧 백발이 되어 다산초당을 찾아가 자하대에 올라 옛 스승을 그리워하였다.

다음은 이시현이 교유한 명사들 중에 가장 많은 시를 주고받았던 유재 신관호와 수창한 시이다.

행차가 월출산에 막 이르거든
 수레 멈추고 친구가 사는 곳을 묻게나
 대 숲과 고목들이 우거진 계곡의 서쪽 마을
 백운 속 창하벽⁴⁶⁾이 나의 집일세

行到月山入境初
 停車爲問故人居
 叢篁古木谿西巷
 白雲蒼壁是吾廬

위의 시는 1845년에 신관호가 전라우도수군절도사의 직책을 마칠 즈음에 이시현이 신관호에게 보낸 4수 중 두 번째의 것이다. 신관호가 머물렀던 幕府 제승당은 이시현이 사는 곳보다 남쪽에 위치한다. 위 시에서 이시현은 신관호가 도성으로 떠날 때 행차가 자신이 사는 월출산에 이르면 잠시 수레를 멈추고 신관호의 벗이었던 이시현을 떠올리며 백운 속 창하벽이 있는 자신의 집을 잠시 들려주길 바라고 있다. 창하벽은 백운동원림의 14승경 중 하나이다. 이런 이시현의 시에 신관호는 다음과 같이 화답하고 있다.

안개 낀 청라에서 일찍 수초의 뜻⁴⁷⁾을 알았으니
 묻지 않아도 그대⁴⁸⁾가 사는 곳임을 알겠네

煙蘿早識遂衣初
 不問曾知叔度居

45) 자하대 : 다산초당에 있었던 누대의 이름이다.

46) 창하벽 : 이시현이 백운동원림의 승경 중 11景으로 꼽은 곳이다.

47) 수초의 뜻 :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에 돌아와 숨어 살겠다는 뜻의 노래인「遂初賦」를 말한다. 썸의 孫綽이 십여 년 동안 산수를 유람한 뒤에, 산림에 은거하려고 마음먹은 처음의 뜻을 마침내 이루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遂初賦」를 지은 고사가 있다. 『晉書』 卷56 「孫綽傳」.

청산의 백운 속에서 만났을 때
 백 그루 매화가 온 집을 들렀었지

相見靑山白雲裏
 百樹梅花擁一廬

위의 시에 따르면, 첫 구의 ‘안개 낀 청라’는 앞의 시에서 이시헌이 자신의 집을 ‘백운 속 창하벽’이라 말한 것, 곧 백운동원림을 가리킨다. ‘수초의 뜻’은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에 돌아와 숨어 살겠다는 뜻이다.

신관호가 백운동원림을 방문했을 때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던 봄날이었다. 백운동원림에는 백 그루의 매화가 심어져 있었는데 이러한 승경을 이시헌은 ‘百梅園’이라 불렀다. 신관호는 武官 출신이었지만 ‘儒將’이라 불릴 만큼 성리학에 대한 학식이 깊었고 어려서부터 정약용에게 私淑하였다. 신관호는 또한 추사 김정희에게 글씨를 배웠는데, 실제로 백운동원림을 ‘福人福地’라 여기고 글씨까지 남겼다. 이시헌은 신관호가 전라우도수군절도사를 지낸(1844~1845) 후, 1849년 철종 원년에 함에 사사로이 의원을 들였다는 이유로 전라도 녹도로 유배되었다가 1853년에 무주로 量移되었을 때에도, 계속 시문을 주고받을 만큼 돈독한 교유관계를 유지하였다.

48) 그대 : 李時憲을 가리킨다. 원문의 ‘叔度’는 李時憲의 號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자이당 이시현의 생애과 『자이선생집』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이시현의 시의 특징도 함께 고찰하였다.

이시현은 백운동원림이라는 공간에서 한평생을 보내며 19세기 호남지역 원림문학의 한 맥을 이어온 산수전원 시인이었다. 백운동원림은 전형적인 은거의 공간이다. 세상과 단절된 깊은 골짜기에서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 국화와 함께 하면서 방안에는 늘 서적과 거문고 그리고 차가 있었다.

이시현은 10살 무렵부터 다산초당에서 정약용이 해배될 때까지 가르침을 받았던 다산의 마지막 제자였다. 다산은 그에게 성리학적 지식 뿐 아니라 차 문화에 대한 영향도 주었다.

이시현 詩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전원에서 자연과 벗 삼아 유유자적하며 심신을 수양하는 산수전원시가 가장 두드러진다. 이 밖에도 정약용·성근묵과 師承관계를 드러내는 시, 초의·신관호·소치 등 당대의 명사들과 교류하며 지은 시들이 많다. 그리고 백운동원림 주변의 대나무 숲에서 자생하는 야생차와 다산·초의의 영향으로 茶詩 또한 여러 편이 있다.

한편 이시현은 전원 속에서 성리학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불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도가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며, 늘 자신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면서 爲己之學의 자세로 자연과 더불어 은일한 삶을 영위하였다.

필자는 본고에서 『자이선생집』에 실린 시 387수를 처음으로 역주하였다. 비록 필자가 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심도 있는 해석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초역을 계기로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시현의 시 세계를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自怡先生集』 譯註

1. 自怡先生集卷之上

詩

1) 戊戌(1838)

지천거사에게 부침 寄智川居士

진사 고미용은 아래에 보이는 회사이다. 高進士美庸見下晦沙是也

1

문노니 고성의 설경이 어떠한가?
 푸른 산에서 이별 후 꿈에 자주 보이네
 오늘밤 새로 지은 시가 시축에 가득하리니
 성긴 울타리에 밝은 달이 매화를 비추네

孤城雪景問如何
 別後蒼山入夢多
 此夜新詩應滿軸
 疎籬明月照梅花

2

이별의 정 아득하여 작은 서재에 누웠더니
 三川⁴⁹⁾의 벗⁵⁰⁾을 꿈속에서 찾아 헤매네
 주인이 당상에서 시를 막 짓고 나니
 뿔피리 소리 찾아들고 달도 지려하네

離思悠悠臥小齋
 三川雲樹夢中迷
 主人堂上詩初就
 畫角聲殘月欲低

3

49) 三川 : 회사 고미용이 사는 전라남도 창평에 흐르는 냇물의 명칭이다.

50) 벗 : 원문의 ‘雲樹’는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로, 杜甫의 「春日憶李白」의 “위수 북쪽엔 봄 하늘에 우뚝 선 나무, 강 동쪽엔 저문 날 구름. 渭北春天樹, 江東日暮雲.”에서 유래하였다.

병든 몸 눈이 소복이 쌓여도 두렵지 않으니
 내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묻지 말라
 사랑스럽게 갓 피어난 매화 봄소식
 끊긴 다리에 찾아와 한참 서있기 때문이네

病軀不怕雪侵肥
 休教傍人問所思
 爲愛新梅春有信
 斷橋尋到立多時

죽헌주인에게 부침 寄竹軒主人

이대유 李大有

애뜻한 그리움에 희미한 등불을 짝하여
 맑은 시내에서 자고 일어나 약초밭 난간에 오르네
 외로운 꿈에도 찾아오지 않은 채 겨울밤이 다하고
 북풍에 눈보라 불어와 차가운 창을 치누나

相思脉脉伴殘燈
 一枕清谿上藥欄
 孤夢不來冬夜盡
 北風吹雪打窗寒

죽와주인의 시에 차운함 次寄竹窩主人韻

주인은 송삼묵이다. 主人宋三默

1

세상 사람들은 모두 화보를 좋아하여
 한갓 스스로 꽃나무만을 사랑하네
 홀로 강가의 집을 아끼노니
 밝은 달빛 외로운 대나무에 비추네

世皆耽色譜
 徒自愛花木
 獨憐江上宅
 明月照孤竹

2

한 이랑 대숲이 사철 푸르니
 바람소리 넘쳐나고 달빛도 새로워라
 그 안의 한가한 늙은이 보고도 싫지 않으니

叢篁一畝四時春
 剩得風聲月色新
 中有閑翁看不厭

백년을 벗하고도 다시 이웃을 삼으리라

百年相伴復相鄰

월남서재에 시를 지어 보냄 寄題月南書齋

보장사의 옛 암자이다. 寶藏廢庵

매화꽃 지러하자 버들잎 짙어 가고
 높은 산 깊은 곳에 초당이 그윽하네
 용의 울음⁵¹⁾은 삼동의 칩거에서 오래도록 울리고
 학의 꿈⁵²⁾은 여전히 만 리의 마음을 품고 있네
 스님은 낙화에 앉아 佛法을 전하는데
 나그네는 흐르는 물 따라 발자국 소리 남기네
 제생은 스승의 가르침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라
 책 속의 선현들이 丈席⁵³⁾에 임하셨으니

梅欲飄零柳欲陰
 亂山深處草堂深
 龍吟久作三冬蟄
 鶴夢猶存萬里心
 僧坐落花傳梵語
 客隨流水步登音
 諸生休歎無師教
 冊上前賢丈席臨

지용 이용순 어르신에 시에 차운함 次芝翁李丈龍純韻

세월이 이미 지나 반백으로 희끗희끗4)
 숲속 골짜기에서 어느새 늙은 몸 되었네
 절벽에서 쏟아지는 폭포수는 미주가 되고
 작은 동산에 꽃다운 풀은 비단 방석이 되네
 꽃은 활짝 피었건만 오히려 일은 많고

光陰已過二毛人
 林壑居然到老身
 懸壁飛泉移美酒
 小園芳草替華茵
 花猶鮮笑猶多事

51) 용의 울음 : 원문의 '龍吟'은 용의 울음소리란 뜻으로, 李白의 「聽吹笛」에 의하면 “바람이 불어 종산을 감아 도니, 일만 구렁이 다 용의 울음소리이다. 風吹繞鍾山, 萬壑皆龍吟.” 하여, 본래는 깃대 소리를 형용하는데 이 밖에도 시인들은 흔히 대로 만든 여러 가지 관악기 소리나, 또는 소나무에 부는 바람소리까지도 모두 이렇게 형용한다.

52) 학의 꿈 : 세속을 초탈하여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말한다. 唐代 司空圖의 「與李生論詩書」에 “땅은 청량하여 학의 꿈 맑고, 숲은 고요하여 중의 모습 엄숙하네. 地涼清鶴夢, 林靜肅僧儀.”라 하였다.

53) 丈席 : 학문을 講하는 자리로, 師席을 말한다. 『禮記』 「曲禮」 上에 “음식을 먹으러 오는 객이 아니라 講하러 오는 객이면 자리 사이의 거리를 1丈이 되게 띄워 놓는다.”라 하였다.

54) 반백으로 희끗희끗 : 원문의 '二毛'는 머리카락이半白이 된 것을 말한다. 晉 潘岳의 「秋興賦序」에 “내 나이 서른두 살이 되니 비로소 이모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余春秋三十有二始見二毛”라 하였다.

제비는 무정하지 않아 가난한 집을 다시 찾았네
달을 낚고 구름을 일구는 일⁵⁵⁾ 참으로 좋은 계획이니
이 산에서 한번 벗어나면 바로 풍진이리

燕不無情不負貧
釣月耕雲真好計
此山一出卽風塵

창평 대자암⁵⁶⁾의 시에 차운함 次昌平大慈庵韻

조카사위 고씨를 위하여 짓다. 爲高甥作

산 중턱 높다란 누각은 쌍봉을 끼고 있으니
琴榻에 책 읽는 등불을 스스로 용납할 만하네⁵⁷⁾
골짜기에 들어서니 지형이 저자거리의 소음을 막아주고
누각에 누우니 베게머리에 산골물소리 들려오네
빈 뜰에 달빛이 천 길 대나무 사이로 쏟아지고
가파른 절벽에 세월이 수 척의 소나무 사이에 깊어가네
그대의 심중에는 기녀 생각 없으니
창 너머 붉은 소매에 눈물 흐르리⁵⁸⁾

半山危閣夾雙峰
琴榻書燈可自容
入洞地遠城市鬧
臥樓枕送礪流淙
空庭月落千尋竹
懸壁年深數尺松
高士心中無妓女
隔窓紅袖淚龍鍾

암자가 불당이므로 끝 구절에서 이를 언급했다. 菴爲佛堂, 故末句及之.

55) 달을 낚고 구름을 일구는 일 : 원문의 ‘釣月耕雲’은 달빛 아래서 낚시질을 하고, 산속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뜻으로, 전하여 은거 생활을 의미한다. 宋代 管師復이 승산에 은거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라 묻자, “언덕에 덮인 흰 구름은 갈아도 다함이 없고, 못에 가득한 밝은 달은 낚아도 흔적이 없네. 滿塢白雲耕不盡, 一潭明月釣無痕.” 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56) 대자암 :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월봉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창평에 맨 처음으로 생긴 정자인上月亭이 있다.

57) 스스로를 용납할 만하네 : 陶淵明의 「歸去來辭」에 “남창에 기대어 傲然히 즐거워하니, 무릎이나 들어갈 작은 집이 편안하기 쉬움을 알겠노라. 倚南窓以寄傲, 審容膝之易安.”에서 ‘容膝’의 ‘容’과 같은 의미이다.

58) 눈물 흐르리 : 원문의 ‘龍鍾’은 눈물 흘리는 모양이다. 岑參의 「逢入京使」에 “둥으로 고향 바라보니 멀리 아득하기만 하고, 두 소매 눈물 닦느라 마를 새 없구나. 故園東望路漫漫, 雙袖龍鍾淚不乾.”라 하였다.

조카사위 고제홍⁵⁹⁾의 객관에 부침 寄高甥濟洪甥館

1

봄날 낭성⁶⁰⁾에서 온 몇 줄의 서신
 바로 지난 밤 꿈에 만난 사람일세
 다시 운산에서 만날 약속을 하였으니
 꽃이 지고 푸르름 짙어질 날을 기다리네

數行書自朗城春
 却是前宵夢裡人
 重到雲山留後約
 待他紅瘦綠肥辰

2

병든 몸에 나그네 시름 점점 더 많아져
 밝은 달 보며 고향을 그리는 마음 가늘 길 없어라
 가련한 두견새⁶¹⁾ 돌아가고픈 마음을 재촉하네
 아직 꽃이 지지 않았는데 푸른 산에서 우는구나

病枕羈愁轉覺多
 鄉心其柰月明何
 偏憐杜宇催歸意
 啼在青山未落花

2) 己亥(1839)

종제 사쟁에게 부침 寄士錚從弟

설의 누에 고치되고 등지의 제비 새끼 낳으니
 흥겨운 정취는 남은 꽃을 좇으나 다 지려하네
 누가 한번 북을 쳐서⁶²⁾ 내 기운을 북돋아

蠶薪已繭燕巢雛
 興逐殘花落欲無
 一鼓誰能先作氣

59) 고제홍 : 李時憲의 아우 李時淳의 사위. 본관은 장흥. 부친은 府使 高惠鎭이다.

60) 낭성 : 전라남도 영암을 가리킨다.

61) 두견새 : 원문의 '杜宇'는 전국시대 蜀王 望帝의 죽은 넋이 변해서 새가 되었다는 두견이를 말한다.

62) 한번 북을 쳐서 : 『春秋左氏傳』 「莊公·十年條」에 “대저 전쟁이란 것은 용기이다. 첫 북소리에 기

병든 몸을 시단에서 일어나게 하리오

騷壇仍起病餘軀

구림의 서호에 사는 벗 최경칙을 방문함 訪鳩林西湖崔友景則

西湖⁶³)에 사는 처사의 집 찾아가니
 오동나무 그늘 깊은 곳에 장다리꽃⁶⁴) 피었네
 주인은 회사정⁶⁵)에서 술에 취해 있다가
 학이 돌아가라 알려주니⁶⁶) 해는 이미 저물었네

尋到西湖處士家
 桐陰深處菜園花
 主人會社亭中醉
 鶴報歸來日已斜

서호에 배를 띄움 泛西湖

서호의 봄물은 이끼처럼 푸르고
 비 온 뒤 산 빛은 저물녘에 열렸네
 세 노인은 가뿐하게 노도 짓지 않은 채
 아침 물결에 떠났다 저녁 돌아오네

西湖春水綠如苔
 雨後山光向晚開
 一棹不勞三老力
 早潮縱去暮潮廻

세를 올리고, 두 번째 북소리에 기세가 약해지고, 세 번째 북소리에 힘을 다 소모하게 된다. 夫戰勇氣也, 一鼓作氣. 再而衰, 三而竭.”라 하였다.

63) 西湖 :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호수의 명칭이다.

64) 장다리꽃 : 꽃이 달린 줄기. 무우나 배추에서 돋은 장다리에 피는 꽃이 달린 꽃줄기를 장다리꽃이라 한다.

65) 회사정 :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에 있는 정자이다.

66) 학이 …… 알려주니 : 宋 때의 隱子 林逋가 孤山에 은거하면서 항상 두 마리의 학을 길렀다. 임포는 언제나 작은 배를 타고 西湖에서 노닐었는데, 혹 손이 임포를 찾아오면 동자가 학의 우리를 열어 주어 학들이 날아서 임포에게 갔다. 임포가 그것을 보고서 손님이 온 것을 알고 짐으로 돌아오곤 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宋史』 卷457 「隱逸列傳·林逋」. 이 시에서는 이시현이 영암 서호에서 은거하는 벗 최경칙을 찾아갔으나 집에 있지 않음을 표현한 내용이다.

3) 庚子(1840)

창에 상사 경우 이인식⁶⁷⁾에게 부침 寄蒼崖李上舍寅植景祐

물가의 사립문을 해질녘에 열었는데	臨水柴扉向晚開
빈 골짜기에 사람의 발자국 소리 ⁶⁸⁾ 들려서라	登音空谷有人來
흐르는 물 따라 골짜기 건너니 구름이 나막신에서 피어나고	尋流度壑雲生屐
술을 차고 누대에 오르니 달빛이 술잔에 가득차네	攜酒登樓月滿杯
오늘 흉금을 열어 옥수를 읊조리지만	此日襟期吟玉樹
지난 번에는 찬 매화에 소식을 주고 받았네	他時信息寄寒梅
국화 필 때 청산의 약속을 기다리니	黃花留待靑山約
지난 밤 이별이 빨랐다고 말하지 말게나	休道前宵別意催

67) 이인식(1808~?) : 자는 景祐. 본관은 全州. 순조 25년(1825) 을유 식년시 [진사] 2등 17위 (22/100). 1839년에 초의선사가 이인식에게 쓴「金斯文金陵李秀才蒼崖 竝寄書求偈 遂更次前韻 三疊以寄九首」가 『艸衣選集』에 실려 있다. 이 시기에 초의선사가 백운동을 방문하여 쓴 「白雲洞見白鶴翎有作」도 함께 실려 있다.

68) 빈 골짜기의 발자국 소리 : 적적할 때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로, 뜻밖의 즐거운 일이 생기거나 반가운 소식을 들은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莊子』「徐無鬼」에 “그대는 저 월나라의 방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자기 나라를 떠난 지 며칠 뒤에는 그 친구를 만나면 기쁘고, 떠난 지 몇 달이 되면 일찍이 자기 나라에서 만났던 사람을 만나도 기뻐한답니다. 일 년쯤 지나면 자기 나라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보아도 기뻐합니다. 자기 나라를 떠난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고향 사람을 생각하는 정이 더욱 깊어 가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저 빈 골짜기에 숨어 사는 사람이 잡초가 우거져 족제비들이 겨우 다니는 오솔길마저 막힌 쓸쓸한 곳에서 해마다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기만 해도 몹시 기뻐하는 것이지요. 하물며 형제나 친척이 옆에서 기뻐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眞人의 말로 우리 임금의 곁에서 기뻐 소리처럼 내 주지 못한 지가 말이오. 子不聞夫越之流人乎. 去國數日, 見其所知而喜. 去國旬月, 見所嘗見於國中者喜. 及期年也, 見似人者而喜矣. 不亦去人滋久, 思人滋深乎. 夫逃虛空者, 藜藿柱乎鼯鼯之逕, 跟位其空, 聞人足音蹵然而喜矣. 又況乎昆弟親戚之警歎其側者乎. 久矣夫莫以眞人之言警歎吾君之側乎.”라 하였다.

4)辛丑(1841)

죽은 딸을 위한 만가 亡女挽

1

부모 자매가 곡하며 서로 보내니
 솔 소리 멀고 산골 물소리 아득하여라
 청년의 이 영결에 붉은 만장 앞세운 길
 산 자의 슬픔이 오히려 죽은 이 보다 더하네

爺孃姊妹哭相送
 松聲欲迥澗聲微
 青年此別丹旒路
 生者猶勝死者悲

2

아 네가 笄禮⁶⁹⁾ 올린 지 어느덧 사년
 올봄에 시댁으로 보내려 하였는데
 복사꽃은 천고의 한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봄바람에 활짝 꽃을 피웠네⁷⁰⁾

嗟汝加笄已四載
 今春將擬送夫家
 夭桃不識人千古
 猶帶東風芍芍華

3

하늘은 본래 무심하니 너를 어이할까
 모질게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이르렀는가
 이번 길이 바로 네가 돌아가는 길이니

天本無心奈爾何
 忍令吾女至斯耶
 今行便汝于歸路

69) 笄禮 : 성년식 절차의 하나로 여자가 비녀를 꽂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여자 15세를 말하기도 한다.

70) 활짝 꽃을 피웠네 : 『詩經』 「周南」에 “싱싱한 복숭아나무, 꽃이 활짝 피었도다. 그녀 시집감이여, 집안 살림 잘 하리라. 桃之夭夭, 灼灼其華. 之子于歸, 宜其室家.”라 하였는데, 보통 원만하게 이루어진 혼례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다.

진실로 외로운 녀이나마 시택에 이르길

只信孤魂到舅家

4

月朗山⁷¹⁾ 앞 옛 연못 서쪽에
松杉의 한쪽 길에 풀이 우거졌네
이곳이 너희 시택 선묘 곁이니
혼이라도 돌아가 의지하길 바라노라

月朗山前古澤西
松杉一路草萋萋
是汝舅家先墓側
魂兮歸來可依兮

서울로 돌아가는 창애 이인식에게 주며 작별함 贈別蒼崖歸京

1

매화가 핀 관아⁷²⁾에서 처음 이상사를 만났을 때
주렴 사이 밝은 달이 마음을 비췄네
대화를 나눌 때⁷³⁾ 내 나이 더 많으나
술 마시며 글을 논할 땐 그대가 스승이었네
강남에 이르러서 좋은 시구 많았는데⁷⁴⁾
한강에 봄이 오자 돌아갈 생각 일으키네
요즈음 새 성상께서 현인을 부르시니
長楊의 시부⁷⁵⁾를 바치기를 기대하노라

梅閣初逢李上舍
一簾明月照心期
聯床序齒吾云老
引酒論文子是師
詩到江南多好句
春生洛水動歸思
際茲新聖招賢日
爲待長楊獻賦詩

71) 月朗山 : 전라남도 장성군의 남서부에 위치한 산이다.

72) 매화가 핀 관아 : 원문의 '梅閣'은 매화가 활짝 핀 관아를 가리킨다. 南朝 梁나라의 何遜이 揚州의 法曹로 있었는데, 관아의 동쪽 청사에 매화나무 한 그루가 꽃이 만개하였으므로 何遜은 그 아래에서 매일 詩를 읊곤 하였다. 이후로 東閣官梅라 하여 지방의 관아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73) 대화를 나눌 때 : 원문의 '聯床'은 형제나 벗이 서로 침상을 잇대 놓고 잠자리를 함께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른다. 李時憲(1803년 생)이 李寅植(1808년 생) 보다 5세 연상이다.

74) 강남에 이르러서 …… 많았는데 : 이 시에서 강남은 李時憲이 사는 강진 지역을 말한다. 시문에 뛰어난 蒼崖 李寅植이 처음 강진으로 부임해 오던 때를 떠올린 표현이다.

75) 長楊의 시부 : 漢나라 때 賦의 대표적인 작가 揚雄이 지어서 황제에게 바친 작품이다. 長楊은 장안 부근에 있는 궁궐 이름으로, 황제가 사냥할 때 머물곤 하던 곳이다. 이 賦는 墨客卿과 翰林主人이란 가공인물을 등장시켜 문답체로 지었는데, 揚雄은 이 작품에서 겉으로는 황제를 한껏 추어

2

굽이굽이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질 듯 슬펐는데
 부질없이 눈물로 석 달 봄날을 지냈었네
 이제 또 이렇게 이별하며 혼이 녹아내리니⁷⁶⁾
 천리 길에 벼를 보내는 마음 어이 건디랴

올해 정월에 딸을 잃어서 한 구절에 말하였다. 是歲正月, 哭女 故一句云.

삼월 강남에 좋은 비 내리는 모습 보니
 청산은 그리기도 좋고 시로 읊기에도 좋아라
 시름에 겨운 이 몸 그대와 또 이별하니
 봄날 꽃과 새의 고운 기약도 저버렸구나

九曲猿腸寸欲斷
 謾將雙淚度三春
 今來又是銷魂處
 千里那堪送故人

三月江南好雨看
 青山宜畫復宜詩
 我作愁人君且別
 一春花鳥負佳期

3

이별의 노래⁷⁷⁾ 한 가락에 멀리 헤어지니⁷⁸⁾
 벼를 찾는 피꼬리도 정을 다해 우는구나⁷⁹⁾
 훗날 고관이 되어⁸⁰⁾ 소식이 끊어지면
 꿈속 흰 구름 단풍나무에서 헤매리라

驢歌一曲隔雲泥
 喚友鴛鴦盡意啼
 厚祿他時書斷否
 白雲紅樹夢中迷

올리면서도 사실은 묘하게 기교를 부려 신랄하게 諷諫을 하였다. 『漢書』 卷87·下 「揚雄傳」.

76) 혼을 녹아내리니 : 南朝梁의 江淹이 지은 「別賦」 첫머리에 “암담하게 사람의 혼을 녹여 내는 것은 바로 이별하는 그 일이라고 하겠다. 黯然銷魂者, 唯別而已矣.”라는 말이 나온다.

77) 이별의 노래 : 원문의 ‘驢歌’는 이별의 노래를 말한다. 그 가사에 의하면 “검은 망아지가 문에 있으니, 마부가 다 함께 있도다. 검은 망아지가 길에 있으니, 마부가 멩에를 다스리도다. 驢駒在門, 僕夫具存. 驢駒在路, 僕夫整駕.”라 하였다.

78) 멀리 헤어지니 : 원문의 ‘雲泥’는 청운과 진창으로 차이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杜甫의 「送韋書記赴安西」에 “그대 홀연 귀하게 되니, 청운과 진창이 마주보듯 현격하도다. 夫子忽通貴, 雲泥相望懸.”라 하였다.

79) 피꼬리도 …… 우는구나 : 『詩經』 「小雅·伐木」에 “나무 찍는 소리 쟁쟁 울리고, 새들은 재갈재갈 즐겁게 노래하네. 깊은 골에서 훌쩍 날아서는, 높은 나무 위로 자리를 옮겨 앉네. 재갈재갈 즐겁게 노래하는 새들이여, 서로들 벼를 구하는 소리로다. 伐木丁丁, 鳥鳴嚶嚶. 出自幽谷, 遷于喬木. 嚶其鳴矣, 求其友聲.”라 하였다.

80) 고관이 되어 : 원문의 ‘厚祿’은 녹봉을 후하게 받는다는 뜻으로, 고위 관원을 가리키는데, 杜甫의 「狂夫」에 “후록의 고인으로부터 편지도 끊어져서, 항상 주리는 아이들 낮빛이 처량하네. 厚祿故人書斷絕, 恒飢稚子色淒涼.”라는 말이 나온다. 『杜少陵詩集』 卷9.

섬암 이랑⁸¹⁾을 보냄 送蟾巖李郎

짧은 글을 덧붙임 并短引

아~ 내 사위가 이곳에 4년을 머물렀는데, 딸에게는 봉새와 짝하는 길조⁸²⁾를 점쳤고 나에게서는 용을 타는 기쁨⁸³⁾이 있었다. 그러나 조물주는 무정하고 조화하는 시기가 많아 맑은 구슬을 이미 잃고 윤택한 옥⁸⁴⁾만 홀로 남았다. 딸을 애도하고 사위를 가련히 여기니 이별에 임하여 슬픔이 더해진다. 말하자니 목이 메고, 침묵하자니 기운이 막혀 눈물을 뿌리고 슬픔을 토해내며 마음을 시에 드러낸다.

嗟余館甥四載于茲，女卜協鳳之吉，翁有乘龍之喜，造物無情，化兒多猜，明珠既失，潤玉獨存.悼死憐生，臨別增傷，欲語則喉咽，欲默則氣短，揮淚瀉哀，情見于詞.

1

사위를 사랑하지 않는 이가 없겠지만
 나는 유난히 사랑 하였네
 이제 누구를 사랑할거나
 화촉을 다시 밝히기는 어려운 것을

人無不愛婿
 我獨最深愛
 而今愛爲誰
 花燭復難再

81) 이랑 : 이시현의 사위로 효령대군 후손 李龍求의 아들 李應純이다.

82) 봉새와 짝하는 길조 : 춘추시대 때에 陳敬仲이 齊나라에 망명하여 갔는데 懿仲이 그에게 딸을 주려고 점을 쳤더니 점괘에, “숫봉 암봉이 날아 화합하게 울음 운다. 八代를 지나면 더할 수 없이 높겠구나. 鳳凰于飛, 和鳴鏘鏘.”라 하였다. 『春秋左氏傳』 「莊公·2年」.

83) 용을 타는 기쁨 : 훌륭한 사위를 찬미한 말이다. 後漢 때 黃憲과 李膺이 모두 桓焉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환언의 두 딸이 모두 용을 탔다고 일컬은 데서 유래한 말이다. 唐 杜甫의 시에 “집안에 기쁜 생기 넘쳐, 요사이 사위가 용을 탔네. 門闌多喜色, 女壻近乘龍.”라 하였다. 『杜少陵詩集』卷1「李監宅」.

84) 윤택한 옥 : 원문의 ‘玉潤’은 훌륭한 사윗감을 뜻한다. 晉나라 때 衛玠가 樂廣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장인과 사위가 똑같이 명망이 높아서 당시에 논하는 이가 “장인은 얼음처럼 깨끗하고, 사위는 옥처럼 윤택하다. 婦翁冰清, 女壻玉潤.”고 했던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장인과 사위의 美稱으로 쓰인다. 『晉書』 卷36「衛瓘列傳·衛玠」.

2

아 내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딸이 없다고 다르겠는가
 다만 서로 만나는 날이 있다면
 차마 斷腸의 슬픔 견디지 못하리라

嗟余愛子心
 那間女存亡
 但使相逢日
 不堪忍寸腸

3

사년 동안의 장인과 사위
 의는 끊어지고 이름만 남았구나
 삶과 죽음으로 의를 바꾸지 말고
 다만 이 마음을 간직 하자구나

四載吾翁婿
 義斷獨留名
 莫以存亡改
 只保此心情

4

삼월 구름 낀 산 속에
 봄빛은 여전히 사랑스럽건만
 이별의 마음은 예전과 다르니
 다시 기쁘게 만나기 어려우리

三月雲山裡
 春光尙可愛
 別懷還異昔
 歡會復難再

5

나의 어여쁜 딸이 젊은 날에
 푸른 피⁸⁵⁾로 이미 죽었으니

青年我所嬌
 碧血已云亡

85) 푸른 피로 : 원문의 '碧血'은 충신이나 열사 등 정대한 이들이 흘린 피를 말한다. 周나라 敬王의 대부였던 萇弘이 충간을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한스럽게 여겨 자결을 하였는데, 그 피가 맺혀 碧玉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莊子』「外物」. 이 시에서는 젊은 나이에 죽은 딸의 원통함을

오늘 그대와의 이별에
 어찌 斷腸의 슬픔까지 말하랴

此日人間別
 那能說斷腸

6

남쪽 고을에서 오늘 아침 이별하니
 사위⁸⁶⁾도 지난 날 이름이 되겠구나
 세상사는 일장춘몽일 뿐인데
 사람들은 스스로 백년의 정을 품고 있네

南國今朝別
 東床舊日名
 事徒一春夢
 人自百年情

지주⁸⁷⁾ 이인석⁸⁸⁾과 작별함 奉別地主

이인석 李侯寅奭

1

가시나무에 오래 깃들기 어려우니⁸⁹⁾
 청운의 길⁹⁰⁾은 절로 장구 하리라
 仙臯⁹¹⁾의 가는 길을 재촉하니

枳棘棲難久
 雲衢路自長
 仙臯催去意

표현하였다.

- 86) 사위 : 원문의 ‘東床’은 사위의 별칭이다.晉 太傅 郗鑒이 王氏 가문에 사람을 보내 사윗감을 고를 적에, 모두 의관을 단정히 하고 나와서 극진하게 맞았는데, 오직 王羲之만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서 동상에 누워 배를 내놓은 채 호떡을 먹고 있었다. 이를 기특하게 여긴 치감이 그를 사위로 선발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世說新語』「雅量」.
- 87) 지주 : 그 지방의 군수나 현감을 의미한다.
- 88) 이인석(1800~?) : 자는 亮汝. 본관은 全州. 1838년 알성시 문과에 급제. 중앙관 비변사, 이조참판, 이조참의를 지냈다.
- 89) 가시나무에 …… 어려우니 : 이인석이 봉황처럼 큰 인물이라 가시덤불 같은 남쪽 지방에 오래 있을 수 없다는 의미로,『後漢書』卷76「循吏列傳·仇覽」에 “가시나무 덩불은 봉황이 깃들일 곳이 못 되고, 이 작은 고을은 대현이 나아갈 길이 아니다. 枳棘非鸞鳳所棲, 百里豈大賢之路.”라 하였다.
- 90) 청운의 길 : 원문의 ‘雲衢’는 청운 속에 있는 길거리란 뜻으로, 흔히 청운의 뜻을 펼쳐 조정에서 현달함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宋 梅堯臣의 시에 “여기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곧바로 구름 속 거리로 오른다. 於茲亦未幾, 用直升雲衢.”라 하였다.
- 91) 仙臯 : 지방관을 이른다. 後漢 明帝 때 河東 사람 王喬가 葉縣의 현령으로 있었는데, 그는 신선술을 익혀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면 항상 엽현에서 조정으로 날아가 명제를 알현하였다. 명제가 그가 자주 오는데도 수레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몰래 太史를 시켜 엿보게 하였더니,

행장은 소박하여 거문고와 학 뿐이라네⁹²⁾
공의 수레를 어찌 붙들 수⁹³⁾ 있으랴
趙盃⁹⁴⁾의 술잔도 너무 분주 하구려
버들과 매화를 다시 꿈속에서 만나리니
밝은 달빛에 그대 위해 배회하리라

琴鶴淡歸裝
侯轍攀何得
趙盃酌已忙
楊梅須再夢
明月爲彷徨

2

오사모와 푸른 도포자락에 수레를 타고
고을로 내려오니 벼슬아치들 중에 신선 같았네
강과 성에 꽃이 피고 봄이 함께 이르더니
바닷가에 구슬이 돌아와⁹⁵⁾ 달처럼 둥글었네
가시나무 숲은 끝내 봉황이 깃들 곳이 아니니
작은 새장에서 문득 먼저 솔개가 풀려났네
백발의 노인들 수레를 에워싸며 다투어 길을 막고
寇恂을 일 년 더 빌려주기⁹⁶⁾를 원하네

烏帽綠袍惹御煙
下州來著吏中仙
江城花發春俱至
海戶珠還月共圓
叢棘終非棲鳳地
小籠旋已放鸞先
擁車髻白爭遮道
只願寇君借一年

“그가 올 때마다 한 쌍의 들오리가 동남쪽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날아오기를 기다려 그 물로 잡았는데, 한 쌍의 신발만 얻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이리하여 器物을 제조하는 부서인 尙方의 관원에게 감별하도록 시켰더니, 이 신발은 원래 4년에 尙書의 관원에게 하사하였던 신발이었다고 한다. 『後漢書』 「方術列傳·王喬」

- 92) 거문고와 학 : 원문의 ‘琴鶴’은 고인들이 항상 거문고와 학을 행장에 지녀서 淸高하고 廉潔함을 표시했던 데서 온 말이다. 唐 시인 鄭谷의 「贈富平李宰」에 “그대는 청렴하고 또 가난하여, 거문고와 학과 가장 서로 친하구려. 夫君淸且貧, 琴鶴最相親.”라 하였다. 특히 宋 趙抃은 성도 전운사로 부임할 때 몸에 딸린 것이라곤 오직 거문고와 학 뿐이었다고 한다.
- 93) 수레를 …… 붙들 수 : 원문의 ‘轍攀’은 ‘臥轍攀車’의 줄임말로 선정을 베푸 지방 관원이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그 지방의 주민들이 수레를 붙잡고서 만류하기도 하고[攀車] 수레바퀴 앞에 누워서[臥轍]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하소연하는 것을 말한다. 『後漢書』 卷26 「侯霸列傳」.
- 94) 趙盃: 宋 사람 趙抃이 외직으로 나가 성도를 다스리는데, 자기에게 딸린 것은 거문고 하나, 학 한 마리뿐이며, 간편한 정사를 하였다. 그래서 수령의 청백함을 말할 때 흔히 쓴다.
- 95) 바닷가에 …… 돌아와 : 청렴한 정사를 펼쳐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뜻이다. 後漢 때 함포에서 구슬이 생산되었는데, 탐관오리가 많이 수령으로 오면서 잠시 구슬이 나오지 않다가, 孟嘗이 태수로 부임하여 청렴한 정사를 행하자, 다시 구슬이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고사가 전해 온다. 『後漢書』 「循吏·孟嘗傳」.
- 96) 寇恂을 일 년 더 빌려주기 : 선정을 베푸 수령을 다시 그 고을에 임명해 달라고 청하는 것을 말한다. 後漢 光武 때 寇恂이 河內·潁川·汝南의 太守를 연임하며 선정을 베풀다가 여남 태수를 그만두고 조정에 들어와서 執金吾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光武帝를 따라 영천에 가서 도적의 항복을 받을 적에 고을 사람들이 길을 막고 “寇恂을 1년 동안 빌려 달라. 借寇君一年”라 간청하자 그

다정97)의 시에 차운하여 철성98)으로 돌아가는 객에게 증 次茶亭韻 贈鐵城歸客

호수의 달과 산의 구름은 좋은 인연 있어	湖月嶠雲有好緣
가는 곳마다 한가로운 정으로 흐르는 세월 보냈네	閑情隨處度流年
바둑 두며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99) 얼마나 웃었던가	枰頭幾笑爛柯子
호리병 속에 약 파는 신선처럼 스스로 은둔했네100)	壺裡自藏賣藥仙
그대는 나에게 계산의 승경을 이야기 하였고	爲我谿山談勝跡
나는 그대에게 공맹의 전현들에 대해 물었었지	憑君鄒魯問前賢
한 동이 술 다하고 시도 파할 썬에	一樽酒盡題詩罷
우는 새와 지는 꽃잎이 석별의 자리를 전송 하였지	啼鳥落花送別筵

문수서재의 벽상시에 차운함 [9수] 次文殊書齋壁上韻九首

1

옛 암자 터에 서재를 새롭게 지으니 한층 산뜻한데	菴古齋新煥一層
불사의 종소리 끊어지고 독서 소리가 이어지네101)	鍾梵已斷誦絃登
청산에게 묻노니 우리 선비와 이웃함이다	問爾青山鄰我士

곳에 머물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게 한 고사가 전한다. 『後漢書』卷16「寇恂列傳」.

97) 다정 : 孝廉 尹鍾英(1792~?)이다. 1828년에 식년시 진사에 합격. 尹斗緒의 직계후손이며 다산의 외종사촌으로 다신계의 18제자 중 한 사람이다.

98) 鐵城 : 강원도 철원지역의 옛 지명이다.

99)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 晉 王質이 石室山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동자 몇 명이 바둑을 두면서 노래하는 것을 보고는 곁에서 구경하였다. 동자가 대추씨와 같이 생긴 것을 주기에 왕질이 먹었는데, 배가 고프지 않을 뿐 아니라 얼마 있다가 동자가 “어찌하여 안 돌아가는가?” 하기에, 왕질이 일어나 도끼를 보니 자루가 다 썩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함께 살던 사람들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述異記』卷上.

100) 호리병 속에 …… 신선 : 後漢의 術士 費長房이 시장에서 약을 파는 仙人 壺公을 따라 그의 호리병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 日月이 걸려 있고 신선 세계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곳의 고대광실 안에서 맛있는 술과 음식을 실컷 먹고 나왔다는 전설이 전한다. 『後漢書』卷82·下「方術列傳·費長房」.

101) 독서 소리 이어지네 : 孔子가 蔡나라에서 3년 동안 거주하고 楚나라의 초빙을 받아 가던 중, 陳의대부와 蔡의 대부가 보낸 수하인들에게 포위된 일이 있었다. 당시에 “7일 동안 식량이 떨어지고 외부와 두절된 상태에서 채소국도 배불리 먹지 못해, 따르는 이들이 모두 병들었는데, 孔子는 더욱 강개하여 강송하며 絃歌를 그치지 않았다. 絕糧七日, 外無所通, 藜藿不充, 從者皆病, 孔子愈慷慨, 講誦絃歌不衰.”라는 고사가 전한다. 『孔子家語』卷5「在厄·第20」.

적막하게 淨瓶¹⁰²⁾을 지키는 스님과 견주어 어떠한가
 위는 문수암에서 연옹¹⁰³⁾의 시에 차운하다. 右文殊菴 次淵翁韻

何如寂寞守瓶僧

2

청산이 끊어진 곳에 암석이 험준하니
 호랑이가 앞에 걸터앉고 봉황이 나는구나
 때마침 흰 구름이 바위 위로 일어나니
 밝은 달에 仙僧이 내려오는 듯하네
 위는 대암이다. 右臺巖

靑山斷處石峻嶒
 虎踞前頭鳳勢騰
 時有白雲巖上起
 月明疑是下仙僧

3

물을 임하고 바위를 등진 곳에 작은 동굴이 났으니
 어느 때나 밝은 달이 돌아올 기약을 하지 않을까?
 가장 기이함은 호수가 가득 차고 산이 텅 빈 밤이면
 들쭉날쭉 나무 그림자가 石臺를 보호하는 것이라네
 위는 월대이다. 右月臺

臨水背巖小洞開
 幾時明月不期廻
 最奇湖滿山空夜
 樹影參差護石臺

4

선인들이 부지런히 가르칠 방법을 두어서
 특별히 작은 언덕 옆에 서루를 지었네¹⁰⁴⁾
 시렁에 삼만의 서책을 가득 꽂아두고

前人勤設教人方
 別講書樓傍小岡
 挿架盈盈三萬軸

102) 淨瓶 : 불교에서 세수를 하거나 의식을 행할 때 淸水를 담아서 쓰는 길그릇 병의 이름으로 승려의 필수품이다. 보통 승려의 생활이나 행적을 비유할 때 쓰곤 한다.

103) 연옹 : 김창흡(1653~1722)이다. 자는 子益, 호는 三淵으로 金尙憲의 증손이고, 金壽恒의 아들이다.

104) 원문의 ‘講’은 의미상 ‘構’의 誤記로 보인다.

후학들이 가슴속에 가득 채우기를 바랐네
 위는 서루이다. 右書樓

須令後學腹中藏

5

범도 가고 스님도 없는데¹⁰⁵⁾ 석천만이 그대로 남아
 밤새도록 책상에 맑은 소리 울리네
 이처럼 석천의 근원이 넓고 깊으니
 바다에 이르러선 하늘에 다다를 수 있으리라
 위는 석천이다. 右石泉

虎逝僧亡但石泉
 竟宵書榻響淙然
 渾渾有源能如是
 放海終看到稽天

6

도를 논하다 계곡에 이르니 함께 유장하고
 다시 맑고 탁함으로 창랑을¹⁰⁶⁾ 읊조리네
 그 속에 평평한 시내가 활짝 열리니¹⁰⁷⁾
 구곡에 뽕과 삼을 몇 곳에 심었는가
 위는 도계이다. 右道谿

講道臨谿意共長
 更將清濁詠滄浪
 箇中且觀平川豁
 九曲桑麻幾處庄

7

산 아래 외로운 마을은 이름이 죽정이니

山下孤村是竹亭

105) 범도 가고 스님도 없는데 : 쯔나라 慧遠法師가 廬山 東林寺에 주석하면서 절 앞의 시내를 건너
 속세에 발을 디디지 않았는데 여기를 지나기만 하면 문득 호랑이가 울었다. 하루는 陶淵明·陸修靜
 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 넘자 호랑이가 우니 세 사람은 크게 웃고
 헤어졌다는 고사가 있다. 이를 虎溪三笑라 한다. 『東林十八高賢傳』.

106) 청탁으로 창랑을 : 屈原의 「漁父詞」에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
 리면 나의 발을 씻으리라. 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라 하였다. 『楚辭
 』.

107) 활짝 열리니 : 朱子의 「武夷權歌」에서 “구곡도 다할 즈음에 눈앞이 활짝 열리니 뽕과 삼은 우로
 에 짓고 평평한 시내 보여라. 九曲將窮眼豁然 桑麻雨露見平川” 하였다. 『朱子大典』卷9.

현인을 숭상하는 사당의 단청이 선명 하여라
제생들에게 또 학문할 곳¹⁰⁸⁾이 있으니
해마다 향기로운 제물로 제사를 받드네
위는 죽원이다. 右竹院

崇賢遺祠煥丹青
諸生又有藏修處
俎豆苾芬歲薦腥

8

서호의 참모습은 옅은 단장이 선명하니
길푸른 긴 눈썹을 한쪽으로 길게 그린 듯
호수에 비추는 봄빛은 볼수록 더욱 좋아서
산 그림자에 제비 날고 연기 속에 백로가 비상하네
위는 서호이다. 右西湖

西湖眞面淡粧鮮
濃綠修眉掃一邊
鏡裡春光看更好
燕飛山影鷺飛煙

9

호수에 비친 銀山은 거울 속처럼 밝고
산 모습과 산 그림자는 둘 다 우뚝하네
질은 안개와 구름은 모두 나의 취향이니
비 내려도 좋고 비가 개어도 좋아라
위는 은산이다. 右銀山

湖上銀山鏡裡明
山容山影兩崢嶸
睡霧宿雲皆我趣
常看宜雨復宜晴

108) 학문할 곳 : 원문의 ‘藏修’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업에 매진한다는 뜻이다. 『禮記』 「學記」에 “군자는 배움에 있어 장하고, 수하고, 식하고, 유한다. 君子之於學也, 藏焉修焉, 息焉遊焉.”라 하였는데, 孔穎達은 疏에서 “藏은 마음속에 항상 학업을 품는 것이고, 修는 닦고 익히기를 그만두지 않는 것이다. 藏謂心常懷抱學業也, 修謂修習不能廢也.”라 하였다.

율원의 벽상시에 차운함 [10수] 次壁上韻十首

한 수가 빠짐 一首缺

1

도성의 북두성을 바라보며	京華斗北倚
임금님의 소식 ¹⁰⁹⁾ 을 듣노라	消息日邊聞
늙고 외로운 신하 눈물 흘리며	白髮孤臣淚
하늘가에서 오색구름 ¹¹⁰⁾ 바라보네	天涯望五雲
위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시이다. 右戀君	

2

타향살이 수심에 매화의 녀도 끊어져	羈思梅魂斷
고향을 그리며 두견새 소리 듣노라	鄉心杜宇聞
고향 산은 아득하여 끝이 없으니	故山渺無際
지는 해에 돌아가는 구름만 바라보네	落日見歸雲
위는 집을 그리워하는 시이다. 右思家	

3

瓊州와 雷州 ¹¹¹⁾ 는 얼마나 떨어져 있나	瓊雷問幾許
남과 북으로 소식이 막혔네	南北阻音聞
밤이면 빗소리를 같이 들을 수 없어	無夜同聽雨
때때로 홀로 구름만 바라보네 ¹¹²⁾	有時獨看雲

109) 임금님의 소식 : 원문의 ‘日邊’은 임금의 주변을 뜻한다. 東晉의 明帝가 어렸을 적에 부왕인 元帝로부터 장안과 해 중에 어느 것이 거리가 더 먼가 하는 물음을 받고 해는 눈에 보이니 더 가깝다고 대답한 고사가 있다. 『世說新語』 「夙惠」.

110) 오색구름 : 상서로움의 뜻으로 ‘임금’ 혹은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가리킨다.

111) 瓊州와 雷州: 宋代 蘇軾이 瓊州別駕로 좌천되었을 때에 경주의 儋耳라는 고을에서 지냈는데 같은 시기에 그의 아우인 卯君 蘇轍이 儋州에 귀양 가 있으면서 형제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했다고 한다.

위는 아우를 생각하는 시이다. 右憶弟¹¹³⁾

4

곤궁에 처한 先賢이 계셨고
 天命을 알았던 달인을 들었나니
 흰 머리가 되도록 풍상을 겪으며
 이십년 구름 낀 瘴海¹¹⁴⁾에서 지냈노라
 위는 회포를 노래한 시이다. 右述懷

處窮前哲在
 知命達人聞
 白首風霜劫
 廿年瘴海雲

5

고요히 관조함¹¹⁵⁾ 달관의 경지요
 듣지 않아야 제대로 듣는 것이리라
 세상일은 부침하는 물과 같고
 인심은 모였다 흩어지는 구름 같도다
 위는 세사를 겪은 시이다. 右閱世

靜觀方達觀
 無聞是聽聞
 世事浮沈水
 人心聚散雲

6

영욕에 어찌 마음이 동요되리

榮悴那心動

112) 구름만 바라보네 : 아우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한다. 杜甫의 「恨別」에, “고향 집 생각하며 달 아래 거닐다 맑은 밤에 서 있고, 아우를 그리워하며 구름 보다가 한낮에 조노라. 思家步月清宵立, 憶弟看雲白日眠.”라 하였다.

113) 아우 : 李時憲의 아우 月樵 李時淳을 말한다.

114) 瘴海 : 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생기는 瘴毒이 있는 해안 지역을 가리키는데 주로 귀양의 의미로 쓰인다. 王庭珪의 「送胡邦衡之新州貶所」에 보이는 구절로 “이름이 북두성 위보다 높아졌는데, 몸은 남주의 장해 사이로 떨어지네. 名高北斗星辰上, 身墮南州瘴海間.”라 하였다. 이 시에서는 이십년 동안 부친과 조부를 여의고 딸의 죽음을 맞는 등 여러 어려운 일을 겪음을 비유하였다.

115) 고요히 관조함 : 程顥의 「秋日偶成」에 “만물을 고요히 바라보매 저마다 제 본성대로 사는 삶 누리니, 사시의 즐거운 흥이 사람과 같구나. 萬物靜觀皆自得, 四時佳興與人同.”라 하였다.

시비는 귓가를 지나가는 소리일 뿐
 초연히 티끌세상에서 벗어나니
 몸 밖의 일은 모두 뜬 구름일세
 위는 은둔하는 시이다. 右 遯跡

是非過耳聞
 脫然謝塵白
 身外摠浮雲

7

이 땅은 내가 살 땅이 아니요
 오늘 들은 것은 어제 들은 것과 다르다네
 어찌 시끄러운 저갓거리를 버리고
 고향산천으로 돌아와 살지 않으리
 위는 저갓거리를 싫어하는 시이다. 右 厭城市

茲土非吾土
 今聞異昔聞
 那能辭鬧市
 歸臥故山雲

8

月出山 아래 집을 샀으니
 세속의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라
 항상 속인이 알까 두려워
 사립문을 흰 구름으로 가렸네
 위는 유거를 노래한 시이다. 右 幽居

買屋月山下
 嚙塵不欲聞
 常恐俗人知
 柴扉掩白雲

9

하늘의 푸른빛이 주렴 사이로 스며드니
 맑고 차가운 기운이 가까이 음을 알겠네
 주인은 한가로이 자유롭게 지내니
 그윽한 거처에 구름이 막 피어오르네
 위는 내 집을 읊은 시이다. 右 詠弊廬

空翠入簾滴
 清冷近戶聞
 主人閑自在
 幽處欲生雲

새 죽순이 비바람에 꺾어짐을 탄식하며 新笋爲風雨所折歎

5월28일 五月二十八日

우리 집 원림은 백운 골짜기로	我家園林白雲谷
골짜기엔 만 그루의 대나무가 뻗뻗 하다네	谷裡曾森萬竿竹
곧은 기운 우뚝 솟아 하늘을 찌르고	直氣矗矗能衝霄
맑은 그늘이 어슴푸레 항상 집을 덮어주네	清陰翳翳常覆屋
그동안 대나무가 이십년을 벌거벗어 ¹¹⁶⁾	邇來濯濯二十年
향기 사라지고 운치 끊어져 사람을 속되게 하였네 ¹¹⁷⁾	香消韻斷令人俗
벼랑에 우뚝 서서 붉은 빛을 가리기 어렵고	層崖獨立難掩丹
약한 가지는 스스로를 부축하며 애써 푸른빛을 드러내네	弱枝自扶強舒綠
세밑에 날이 차니 봉황은 오지 않고	歲暮天寒鳳不至
대나무 열매는 캐고 캐도 한 움큼도 채우질 못하네	琅玕采采未盈掬
올해 가랑비 넉넉하고 봄비가 많으니	今年霪深春雨多
새 죽순을 길러 처음 싹을 틔웠네	養得新笋初萌芽
만개의 대껍질이 용의 자손들 안고 나오니	萬籜抱出龍孫兒
고양이 귀 송아지 뺨처럼 다투어 뽐족하네	貓頭犢角爭尖斜
긴 몸은 곧장 솟아 구름을 찌를 듯 서 있고	長身直上攬雲立
황금빛 푸른빛이 윤택하여 참으로 자랑스럽네	金碧軟潤眞堪誇
죽순을 보는 것이 대나무 보다 나음을 알겠거니	始知看笋勝看竹
나날이 자라남이 사랑스러워 날마다 어루만지네	爲愛日長日摩挲
둘레를 헤아리며 높이를 재어보니	圍而量之仰而度
둘레는 한척이요 길이는 수 척이라네	滿尺其圍長幾尺

116) 벌거벗어 : 원문의 ‘濯濯’은 소와 양이 초목을 헤쳐서 온 산이 반질반질한 모양이다. 『孟子』 「告子」 上에, “牛山の 나무가 일찍이 아름다웠는데, 대국의 교외이기 때문에 도끼와 자귀로 매일 나무를 베어 가니, 아름답게 될 수 있겠는가. 그 밤낮으로 자라나는 바와 雨露가 적셔 주는 바에 싹이 나오는 것이 없지 않건마는, 소와 양이 또 따라서 방목되므로 이 때문에 저와 같이 탁탁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탁탁한 것만을 보고는 일찍이 훌륭한 재목이 있는 적이 없다고 여기니, 이것이 어찌 산의 본성이겠는가. 牛山之木, 嘗美矣, 以其郊於大國也, 斧斤伐之, 可以爲美乎. 是其日夜之所息, 雨露之所潤, 非無萌蘖之生焉, 牛羊又從而牧之, 是以若彼濯濯也. 人見其濯濯也, 以爲未嘗有材焉, 此豈山之性也哉.”라 하였다.

117) 향기 …… 속되게 하였네 : 蘇軾의 「綠筠軒」에, “밥에 고기가 없을 수는 있지만, 거처함에 대나무가 없어진 안 되지. 고기가 없으면 사람을 여위게 하지만, 대나무가 없으면 사람을 속되게 한다네. 可使食無肉, 不可居無竹. 無肉令人瘦, 無竹令人俗.”라 하였다.

훗날 하늘을 받들 기둥¹¹⁸⁾을 삼을 만하니
 역마가 먼지 날리며 공물로 바칠만했네
 밤중에 회오리바람이 땅에서 갑자기 일어나니
 九龍山 정상에서 모래가 휘날렸네
 한순간 바람에 꺾여 쓸어낸 듯 쓰러지니
 뱀을 자르고 용을 베듯 서로 거꾸로 넘어지네
 犀甲¹¹⁹⁾이라면 오히려 천군의 힘을 견딜 수 있거늘
 비단 포대기로 어찌 어린 죽순을 보호할 수 있으랴
 애석타 싹을 틔우도록 힘쓴 봄날의 노력이어
 무슨 뜻으로 길러 놓고 다시 꺾어 버렸는가
 반평생을 살면서 만 가지 이치를 살펴보니
 조물주의 사사로움 없음이 모두 이와 같구나
 아름다운 여인이 꽃다운 나이에 죽는 것과 같으니
 여인은 며느리노릇 못했고 선비는 쓰이지도 못했네
 杜甫는 굴거리나무¹²⁰⁾의 꺾임을 노래하지 말라
 오래 산다 한들 일 백년일 뿐 이리

異時可作擎天柱
 驛馬飛塵克貢額
 半夜飄風忽地起
 九龍山頭走沙石
 一瞥吹折盪如掃
 斷蛇斬龍相顛倒
 犀甲猶催千軍力
 錦綉那得嬰兒保
 可惜萌蘖一春功
 何意養得更折夭
 半世閱歷觀萬理
 造物無私揔如是
 有如玉人芳年夭
 女而不婦士不試
 杜老休說柵樹折
 老且百年一而已

꿈에서 느낌을 적은 시 感夢詩

짧은 설명을 붙임. 并短引

지난밤 꿈에 이랑이 침실 서쪽 작은방 아랫목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지난날 사
 위가 머물던 곳이다. 이랑이 짐을 챙겨 장차 본가로 돌아가려 하는데 나는 이별
 의 슬픔에 잠겨 대청과 창문 사이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망녀 李室이 역시 얹게 단장하고 연복으로 상을 대하고 함께 앉아 바야흐로 버

118) 하늘을 받들 기둥 : 원문의 ‘擎天柱’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곤륜산의 하늘을 떠받치는 여덟 개
 기둥을 말한다.
 119) 犀甲 : 물소의 가죽으로 만든 갑옷으로, 아주 튼튼한 갑옷을 뜻한다. 대나무가 자라면 서갑 처럼
 튼튼해서 수없이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음을 표현 하였다.
 120) 杜甫는 굴거리나무 : 杜甫의 『柵樹爲風雨所拔歎』에 초당 앞 강가에 서 있던 2백 년 된 굴거리
 나무가 풍우에 뽑힌 것을 탄식하여 읊은 ‘柵樹爲風雨所拔’ 라는 내용이 나온다. 『杜少陵詩集』 卷
 10.

선을 손바느질 하고 있었는데 이랑은 버선을 신고 있지 않았다. 내가 딸을 꾸짖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몇 자의 천 조각이 없어서 갈아 신을 여유분이 없을 만큼窘塞하기가 이와 같느냐?” 하였다. 딸이 곧 살포시 웃으며 말하기를 “비록 새로 지은 것이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했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고 두 눈썹을 내리깔고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내가 그로 인하여 불현 듯이 깨어나니 한바탕 남가일몽¹²¹⁾이었다. 두 줄기의 눈물 금할 길 없어 베개 주변을 다 적셔 마침내 느낌을 한 편의 읊시로 적어 본다.

신축년(1841) 6월 17일 밤.

夜夢，李郎坐于寢西夾房之奧，卽前日館甥之室。理裝而將告歸，余有臨別之悵，徊徨于廳牖之間。亡女李室，亦以淡粧燕服，對床并坐，方手鍼補襪，而李郎因足不襪矣。余責女曰“那無數尺之布，不有替著之具，其窘急如是耶。”女乃微笑曰“縱有新裁，姑未及就成云。”語畢，雙蛾微低如有羞色。余因翻然而覺，乃一場南柯也。不禁雙淚送流，枕邊霑盡，遂感吟一律記之，卽辛丑之六月十七日夜。

쟁그랑 패옥 소리 기다란 대청에 울려 퍼지며
기쁘게 만났는데 다만 한바탕 꿈이었네
분명히 아비를 보고 겨우 몇 마디 나누더니
아직도 새 단장으로 신랑을 마주하고 있네
꿈에서는 천고의 사람인줄 깨닫지 못하고
꿈을 기억하고서 공연히 두 줄기 눈물만 흘리네
꽃다운 혼을 전송하니 다시 부를 수 없어
깊은 밤에 지는 달을 보며 홀로 방황하네

錚然環佩響長廊
歡會只憑夢一場
見爺分明纔數語
對郎依舊尙新粧
夢時不覺人千古
記後空沾淚兩行
斷送芳魂招不得
夜深殘月獨彷徨

121) 남가일몽 : 덧없는 인생을 비유하는 말로, 唐 淳于棼이 대낮에 괴목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槐安國에 들러 공주에게 강가들어 南柯 태수를 지내는 등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꿈속의 槐安國이 바로 나무 밑동의 개미굴이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고씨 조카사위에게 부침 寄高甥

1

고씨 사위를 못 본지 오래되어	不見高甥久
늘 서석의 가을을 그리워하네	長懷瑞石秋
날이 찬데 탈 없이 지내며	天寒無恙在
세 밑에 독서를 하고 있는지	歲暮讀書不
독서하면 오히려 즐거움이 있거늘 122)	佔畢猶堪樂
어찌 가난한 살림 123)을 시름하라	簞瓢肯入愁
아~ 나는 자유롭게 소요하는 사람 124)으로	嗟余漫浪子
백발도 얼마 남지 않았네	無幾到霜頭

2

근래에 알 수 없는 병이 들어	近有無何疾
신음한 지 한 달 남짓 되었네	吟呻一月餘
붓 잡아도 기운을 떨치기 어려우니	操毫難作氣
몇 마디 시구로 편지를 대신하노라	數句替裁書

122) 원문의 ‘佔畢’은 ‘畢’과 같이 쓰인다.

독서하며 : 원문의 ‘佔畢’은 『禮記』 「學記」에 나오는 말로 佔은 글을 배울 때 쓰는 나무 조각[筭]을 말하고, 畢은 글씨를 쓰는 대나무 조각을 말한다. 원래 글을 읽기만 하고 그 뜻을 모른다는 의미로 쓰이나, 여기서는 독서의 의미로 쓰였다.

123) 가난한 살림 : 簞食瓢飲으로 孔子가 이르기를 “어질도다, 안회여. 한 대나무 도시락밥과 한 표주박 물로 누추한 시골구석에서 살자면 다른 사람은 그 걱정을 견디지 못하건만, 안회는 도를 즐기는 마음을 변치 않으니, 어질도다, 顔回여. 賢哉回也, 一簞食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回也.” 한 데서 온 말이다. 『論語』 「雍也」.

124) 자유롭게 소요하는 사람 : 唐 元結을 가리킨다. 元結이 自號를 ‘浪士’라 하고 「浪說」7편을 지었는데, 그가 뒤에 郎官이 되자, 당시 사람들이 “낭자는 또한 부질없이 벼슬을 하는 것인가? 浪者亦漫爲官乎” 하고 마침내 그를 漫郎이라 호칭한 데서 온 말이다. 漫郎이란 곧 세속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떠도는 문인을 뜻한다. 『唐書』 卷143 「元結列傳」.

지난해(1840) 8월 이랑 및 그의 아우¹²⁵⁾ 갑아와 함께 감령을 넘어 도갑사에서 쉬었다. 견성암을 지나 은적봉 아래에서 쉬었다가 해질녘에 돌아왔다. 올 봄(1841)에 갑자기 딸 이실의 죽음을 만나, 2월에 사위 집안의 선묘에 묻고, 이랑 또한 도성에서 객지 생활 하느라 소식이 막혔다. 바야흐로 간절히 그리워하다가 4월에 녹문을 향해 홀로 은적봉 아래를 지나가다가 감회가 있어 읊음. 去歲八月，與李郎及卯君甲兒，踰岬嶺憩岬寺。歷見性菴，歇于隱跡峰下，乘暮而還。今春遽遭李室之慘逝，二月送埋其舅家先壟，李郎亦旅于京城，音塵間阻。方切思想，四月方向鹿門，獨過隱跡之下，感而有咏。

옛 모습 청산에게 지나간 자취를 묻노니
봄바람에 홀로 오르니 내 마음 우울하여라
두견새는 내 이별의 한도 모르면서
지는 꽃 속에 울며 구슬픈 소리를 보내누나

依舊青山問往跡
春風獨上我心灰
杜宇不知離別恨
落花啼送數聲哀

4월 10일 서호에 사는 최씨 벗과 도갑사에서 만났는데 이랑의 아우가 따라오자 문득 이랑이 생각나서 지음 四月旬與西湖崔友會于岬寺卯君隨焉忽憶李郎而作。

산의 모습은 의구하고 풍광은 새로운데
삼월의 절¹²⁶⁾에 한 사람이 빠졌네¹²⁷⁾
지는 해와 가는 구름에 고개를 돌려보니
그리운 사람은 한강가에 아득하여라

山容依舊物華新
三月蕭寺少一人
落日歸雲回首地
所懷迢遞漢水瀕

125) 아우 : 원문의 '卯君'은 훌륭한 아우를 뜻하는 말이다. 宋 蘇軾이 그의 아우인 蘇轍이 卯년에 출생했다 하여 蘇轍을 '卯君'이라고 불렀는데, 蘇轍 역시 문장으로 이름이 낮았다.

126) 절 : 원문의 '蕭寺'는 절을 뜻하는 말로, 성이 蕭氏인 梁 武帝가 불교를 숭상하여 절을 많이 지은 데서 유래된 말이다.

127) 한 사람이 빠졌네 : 그 자리에 이랑이 함께하지 못함을 탄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이 적다'라는 '少一之歎'의 고사는 唐 王維의 「九日懷山東兄弟」에 “나 홀로 타향에서 나그네 몸 되고 보니, 명절을 만날 때마다 부모 생각 갑절 더하네. 알건대 우리 형제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수유를 두루 꽃고 한 사람이 모자란다 하리라. 獨在異鄉爲異客，每逢佳節倍思親。遙知兄弟登高處，遍插茱萸少一人。”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이다. 『王右丞集』 卷14.

이랑이 재취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회가 일어나 10월 22일에 절구 한 수를 지음
 聞李郎再醮之期感而作一絕卽十月二十二日也.

그대가 이날 재혼 한다는¹²⁸⁾ 소식을 들으니
 어느 하늘에서 기러기가 다시 봄에 우는고¹²⁹⁾
 누가 알았으랴 사 년간 東床의 운택한 옥이
 옮겨가 다른 집안의 보배¹³⁰⁾가 될 줄을

聞子續絃屬此辰
 何天嚙雁再鳴春
 誰知四載東床玉
 移作他家席上珍

5) 壬寅(1842)

임인년(1842) 4월 이랑의 편지를 받고 시로 읊어서 보냄 壬寅四月李郎書詠寄

이 년 천 리 머나 먼 이별 후
 사월에 몇 줄의 편지가 왔네
 근래에 고향으로 돌아 온 소식 들었는데
 서로 만남은 도리어 아득하도다
 세상일이 고금이 된다고 한들
 인정에 어찌 친밀하고 소원함이 있으리오
 꿈속에서 그대를 그리워하노니
 봉우리의 달빛이 밤 창문에 허명하여라

二年千里別
 數行四月書
 還鄉知屬耳
 逢榻却茫如
 世事成古今
 人情豈密疎
 相思一枕夢
 峰月夜窓虛

128) 재혼 한다는 : 원문의 ‘續絃’은 ‘재혼 한다’는 뜻이다. 거문고를 타다가 줄이 끊어지면 다시 잇는 것을 續絃이라 하는데, 이 詩에서는 喪妻하고 再婚하는 것을 의미한다.

129) 기러기가 …… 우는고 : 남녀의 혼인을 노래한 『詩經』 「邶風·匏有苦葉」에 “기럭기럭 기러기는 해 돋는 아침에 쓰고, 신랑이 신부 데려오려면 얼음이 녹기 전이라네. 雝雝鳴雁, 旭日始旦. 士如歸妻, 迨冰未泮.”라는 말이 나온다.

130) 다른 집안의 보배 : 원문의 ‘席上珍’은 선비의 재덕을 뜻한다. 『禮記』 「儒行」에 “유자는 석상의 진귀한 보배처럼 자신의 덕을 갈고닦으면서 임금이 불러 주기를 기다린다. 儒有席上之珍以待聘”라는 내용이 있다.

구림에 사는 최씨·조씨 등 여러 벗들과 함께 가제에서 노닐다가 친척 조월로의 시에 화운함 [절구2수] 同鳩林崔曹諸益遊假帝和曹戚月老韻二絶

1

천불이 모인 듯한 바위산에
 스님 한 분 용납할 암자 뿐이네
 객이 오자 정오의 경쇠 울려
 소리가 바닷가 서쪽 봉우리에 떨어지네

石巒千佛會
 庵屈一僧容
 客來鳴午磬
 聲落海西峯

2

봄바람을 제굴에서 맞으며
 지는 해를 중원에서 보노라
 스님은 떠났으나 암자는 그대로 남아서
 구름은 흘러갔으나 돌샘에 흔적만 남았네

春風依帝窟
 落日見中原
 僧去菴猶在
 雲歸石井痕

과거 시험 보는 날 우연히 읊음 科日偶吟

8월 화순의 식과¹³¹⁾ 향시 八月和順鄉式科

누런 해나무의 가을빛도 먼 옛날 일이요
 반평생 공명은 한쪽에 던져버렸네
 온 나라의 선비들은 이날 문장을 겨루는데
 산속에서 시를 읊으며 흐르는 세월을 보내네
 젊었을 적 시부는 참으로 보잘 것 없었으니
 말년의 浮沈이 어찌 우연이리오

黃槐秋色已先天
 半世功名屬一邊
 海內文章爭是日
 山間嘯詠度流年
 早時詞賦眞聊爾
 末路昇沈豈偶然

131) 식과 : 식년과시의 준말. 조선 시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 과거. 소과, 문·무과, 잡과를 함께 실시하였고, 초시·회시·전시 세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子·卯·午·酉가 드는 해를 회시와 전시가 시행되는 式年으로 하였다.

이제부터 원림에서 유유자적하며
 흰 구름과 밝은 달의 인연에 따르리라

從此園林閑自在
 白雲明月任隨緣

□성 김재황이 읊어서 보여준 시에 화운함 和□城金雅在璜詠示韻

세모의 낙엽이 지는 황량한 산
 작은 계곡으로 발자국이 찾아드네
 거문고 현에 교분 맺어 맑은 마음보고
 차를 마시며 시를 이야기하며 제야를 보냈네
 호수와 바다에서 그대를 만나 늦음을 탄식하니
 눈보라 객을 머물게 함이 어찌 헛된 일 이리오
 부평초처럼¹³²⁾ 떠돌다가 그대와 의 만남 이루니¹³³⁾
 구름과 달빛에 사흘 밤을 지내니 좋은 인연일세

落木荒山歲暮天
 蹺音尋到小谿邊
 琴絃托契看心水
 茶夢話詩入夜年
 湖海逢君嗟晚矣
 雪風留客豈徒然
 萍遊剩遂吾荊願
 雲月三宵亦好緣

병매 瓶梅

맑은 호리병에 물을 담아 갓 핀 매화 꽃으니
 여윈 매화가 늙은이를 닮아 바라보네
 뜰의 나비가 그윽한 꽃을 찾아오게 하려면
 병풍 속의 까치가 남은 향기를 쪼게 해야하리
 어찌 땅의 힘으로 뿌리와 줄기를 북돋아주어
 타고난 자태를 간직하여 눈서리와 닮게 하리오
 무엇보다도 은근히 숲에 달이 떠오를 때면
 배회하며 때때로 대나무 창 옆에서 엿보리라

水壺貯水護新芳
 孤瘦爭看白首郎
 欲放園蝴尋暗藥
 須教屏鵲啖餘香
 那將地力培根幹
 能保天姿映雪霜
 最是慙慙林間月
 徘徊時覘竹窓傍

132) 부평초처럼 : 淸 관원의 심문을 받기 위하여 변방 요새에 우연히 서로를 모이게 되었다는 말이다. 唐 王勃의 「滕王閣序」에 “관산은 넘기 어려운데, 누가 길 잃은 사람을 슬피해 줄꼬. 부평초가 물에서 서로 만나듯 하였으니, 모두가 타향의 길손들일세. 關山難越 誰悲失路之人, 萍水相逢, 盡是他鄉之客.”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133) 만남 이루니 : 원문의 ‘荊願’은 훌륭한 사람을 사모하는 말이다. 李白이 형주 자사 韓朝宗에게 보낸 편지에 “萬戶侯를 원치 않고, 다만 한 형주가 한 번 알아주기를 바란다.” 한 말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시에서는 李時憲이 평소에 金在璜을 사모하다가 늦게 만남을 이르는 말이다.

6) 癸卯(1843)

최치인이 부쳐서 보여준 시에 화운하고, 곁하여 이중함 어르신에게 감사의 답을 함
 和崔雅稚仁寄示韻兼謝韻李丈仲涵氏

1

청빈함을 좋아하는 한 어진 선비 서른 날 아홉 끼니 먹을 만큼 ¹³⁴⁾ 가난하구나 시서는 본래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 ¹³⁵⁾ 이어늘 호해에서 속절없이 백발로 늙어가네 마주한 청산이 항상 집에 가득하고 명월을 부르나 돈은 따지지 않네 그윽하고 한적함은 예로부터 나의 뜻이니 분수 밖의 공명은 저 한쪽의 꿈이여라	爲愛清貧一士賢 三旬斷續九炊煙 詩書自是青氈業 湖海無端白髮年 控揖蒼山常滿屋 招呼明月不論錢 幽閑自是吾人趣 分外功名夢一邊
---	--

2

주옥같은 글에는 고인의 어짊이 넘쳐나고 섬세한 시의 재료 연기처럼 피어오르네 강풀에 제비가 돌아오니 봄은 바다처럼 푸르고 들꽃에 나비가 꿈꾸니 하루가 일 년 같아라 부질없이 의기를 칼날 보듯이 하였고	瓊章剩得故人賢 詩料尖纖轉搖煙 江草燕歸春似海 野花蝶夢日如年 謾將意氣同看劔
---	---

134) 서른 날 아홉 끼니 먹을 만큼 : 썩나라 陶淵明이 彭澤을 다스릴 때, 三旬九食할 정도로 가난했는데 그의 「擬古」에 “동방에 한 선비가 있으니 입은 옷은 항상 남루하거니와 한 달에 고작 아홉 끼니만 먹고, 십 년을 갓 하나로 지냈네. 東方有一士, 被服常不完. 三旬九遇食, 十年著一冠.”라 하였다.

135)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 : 원문의 ‘靑氈’은 선대로부터 전해진 귀한 유물을 가리키는데, 썩나라 王獻之가 누워 있는 방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모조리 훔쳐 가려 할 적에, 그가 “도둑아, 푸른 모포는 우리 집안의 유물이니, 그것만은 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 偷兒, 靑氈我家舊物, 可特置之.”라 하자, 도둑이 질겁하고 도망쳤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晉書』 卷80 「王羲之傳·王獻之」.

문장은 값어치 없다고 스스로 비웃었네
 맑은 시편으로 그윽이 나를 위로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작은 계곡에서 짧은 종이에 답장을 쓰네

自笑文章不直錢
 多謝清篇幽獨慰
 短箋裁答小谿邊

최씨 벗에게 다시 화운하고 겸하여 이씨 어르신께 드림 再和崔友韻兼呈李丈

봄비 내린 후 맑게 갠 저녁을 시로 쓰려고
 작은 종이에 종횡으로 붓을 휘두르네
 칼을 어루만지니 별빛이 흔들리고
 쇠를 울리니 옥소리가 쟁쟁하구나¹³⁶⁾
 누각으로 날아와 학이 최학사를 부르고
 텅 빈 누대에서 봉새가 이선생을 기다리네
 아름다운 시구를 仙露盤¹³⁷⁾에 쏟아내어
 속된 마음의 티끌 씻어내니 매우 맑아지네

春後新詩弄晚晴
 小箋揮灑筆縱橫
 須看撫劍星搖彩
 更覺金春玉有聲
 樓起鶴招崔學士
 臺空鳳待李先生
 瓊函瀉得仙盤露
 洗却塵胸十分清

다시 최학사에게 화운함 再和崔友

산에 거처하니 아름답지 않은 날이 없어
 신록이 아름답고 붉은 꽃 지는 늦봄이여라
 꽃은 피어나서 나비의 단꿈을 깨우고
 나무 그늘은 새의 몸을 다 가려주질 못하네
 말로에 마음을 토로할 만한 벗이 없어
 잠에서 깨어나 시를 지어 벗에게 보내노라
 시 솟씨라야 뜻을 말하기에¹³⁸⁾ 넉넉할 뿐이니

山居無日不佳辰
 嫩綠殘紅際暮春
 花事翻驚蝴一夢
 樹陰未護鳥全身
 論心末路無知己
 罷睡新詩賴故人
 工拙只爲言志足

136) 옥소리가 쟁쟁하구나 : 唐 韓愈의 「山南鄭相公樊員外酬荅爲詩其末咸有見及語樊封以示愈依賦十四韻以獻」에 “금성이 울리니 옥성이 응하여, 그 향취가 대단히 성하네. 金春撼玉應, 厥臭劇蕙鬱.”라 하였다. 『全唐詩』 卷342.

137) 仙露盤 : 漢 武帝가 銅仙人을 주조하여 銅盤을 받들고 甘露를 받게 했다.

138) 뜻을 말하기에 : 『書經』 「舜典」에 “시는 자신의 뜻을 표현한 것이요, 노래는 그 말을 길고 짧게 조절하며 늘인 것이다. 詩言志, 歌永言.”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애오라지 짧은 시구로 자주 수창하노라

聊將短句唱酬頻

장천동(139)에서 벽에 걸린 시에 차운함 長川洞次壁上韻

해 지는 장천동
 맑은 바람 벽상루에 불어오네
 백 년 魏氏의 업적¹⁴⁰⁾ 깃든 곳을
 삼월에 우리들이 유람하였네
 이곳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고
 산에 오르니 시야가 자유롭네
 애오라지 돌아간 후 꿈에서
 계곡의 물소리 몇 날밤이나 휘감길런고

落日長川洞
 清風壁上樓
 百年魏氏業
 三月我儕遊
 觀海於斯足
 登山可自由
 聊知歸後夢
 幾夜繞谿流

천관산 정상에 올랐으나 햇빛이 흐릿하여 멀리까지 다 볼 수 없어 한이 되어 시를 지음 登天冠山絕頂日色昏霾未能窮眼而及恨而有作

봄날 짙은 운무가 잠깐 술에서 깬 듯
 하늘 바람 맑은 빛이 홀로 무리에 빼어나네
 온 세상이 망망한 바다로 섞여 들어가니
 섬들이 뒤섞여 점점이 구름으로 보이네
 사년 동안 계획하여 겨우 하루 시간 내었건만
 전체 광경 중 삼분의 일을 잃었네
 산 오르는데 헛되이 힘쓰고 돌아왔으나
 어찌 계곡에 누워서 지는 해를 보내는 것과 같으리오

春靄迷暝乍醒醺
 天風秀色獨離群
 乾坤渾入茫茫海
 島嶼錯看點點雲
 四載經營纔一日
 十全光景失三分
 歸來枉費登臨力
 何似谿邊臥送曛

139) 長川洞 : 전라남도 장흥군에 있는 천관산 주변의 골짜기이다.

140) 魏氏의 업적 :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천관산 중턱 계곡에 長興 魏氏 사묘제실이 있다.

장동에 살았던 이기선을 뒤늦게 애도함 追挽長洞李雅璣善

1

얼음 같은 혼을 부르나 ¹⁴¹⁾ 돌아오지 않으니	招盡冰魂不見歸
백년의 기약이 이미 헛되어라	百年期望已空虛
바라건대 자식은 三難 ¹⁴²⁾ 을 갖추어	遺孤惟幸三難在
자라서 그대처럼 독서를 좋아하길	長得如君好讀書

2

젊은 나이에 요절한 한이 이미 끝이 없으니	青年夭恨已無窮
자식을 먼저 보낸 그대의 부친을 어이하리	哭子人間奈若翁
마디마디 창자가 지금도 끊어지는 듯 슬퍼하며	九曲猿腸今寸斷
흰머리에 다만 스스로 푸른 하늘을 원망하네	白頭只自怨蒼穹

3

경황없이 붓을 휘둘러 눈물 젖은 시를 써서	草草揮成和淚詩
그대를 조문하니 이 마음 슬픔이 더해지네	吊君添得此心悲
황천에서 어여쁜 우리 딸을 보거든	泉臺如見吾嬌穉
부모가 이제껏 울고 있다고 전해주길	傳道爺孃哭到斯

141) 혼을 부르나 : 『楚辭』 「招魂」에 “혼령이여 돌아오라, 옛날 살던 곳으로. 魂兮歸來, 反故居些.”라는 등 죽은 이를 애도하는 처창한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 이 「招魂」은 초나라 굴원이 楚懷王을 애도해서 지었다는 설도 있고, 宋玉이 그의 스승인 굴원을 위해 지었다는 설도 있다.

142) 三難 : 보기 드문 귀한 집안의 출신[貴之難], 드물게 장수하는 집안[壽之難], 보기 드문 행실[行之難]을 三難이라고 한다.

고금도143)로 가서 이관서를 방문하고, 겸하여 관제묘144)를 배알하는 김지겸 형을 보냄 [5월20일] 送金兄志謙之古島訪李判書兼謁關帝廟五月念日

黃梅가 다 지니 비가 듬성듬성 내리고	黃梅落盡雨疎疎
하늘에 닿은 푸른 물에 돛단배 느릿느릿 떠나네	碧水連天一颿徐
백발인 申大雅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니	白首未歸申大雅
반가운 눈빛으로145) 이상서를 맞이했으리라	青眸應拭李尙書
산은 옛 사당을 에워싸 영령을 보호하고	山圍古廟英靈護
썰물이 되자 황량한 성 전쟁의 기운도 사라지네	潮退荒城戰氣虛
枕櫓亭146) 앞 푸른 바다에 달이 떠오르니	枕櫓亭前滄海月
깊은 밤 홀로 정자에 오르는 마음 어떠했으리오	夜深獨上意何如

금산 관아로 부임하는 김해사를 송별함 送別金海史赴錦山衙

십 년 동안 만나며 백발이 되도록	十載相逢雪滿頭
오두막집 짓고 흰 마름꽃 피는 물가에서 살았네	蓬廬高臥白蘋洲
가난해도 顏淵의 안빈낙도하는 즐거움 바꾸지 않고	簞瓢未改顏賢樂
호수와 바다에서 항상 范老147)의 근심을 간직하였네	湖海常存范老憂
연나라 조나라의 비장한 노래148) 바람결에 북에서 일고	燕趙有歌風北起
초나라 오나라의 남은 꿈 물결 따라 동으로 흐르네	楚吳留夢水東流
錦谿149) 태수와는 막역한 벗이니	錦谿太守知音足

143) 고금도 : 현재는 행정구역상 완도군에 속해 있으나 이시현의 생존 시에는 강진에 속해 있었다.
 144) 관제묘 : 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장수 關羽의 靈을 모시는 사당이다.
 145) 반가운 눈빛으로 : 원문의 ‘靑眸’는 반가워하는 눈빛을 의미한다. 晉 阮籍이 달갑지 않은 사람에게 게는 白眼을 보이고 반가운 사람에게는 靑眼을 보였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晉書』 「阮籍傳」.
 146) 枕櫓亭 :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일대에 있었던 정자이다.
 147) 범로 : 宋 范仲淹(989~1052)을 가리킨다. 그가 지은「岳陽樓記」에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근심하고, 천하 사람들이 즐거워한 뒤에 내가 즐거워할 것이다.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歟.”라 하였다.
 148) 연나라 …… 노래 : 전국 시대 때 荊軻가 燕나라 태자 丹의 부탁을 받고 秦王을 죽이러 떠날 적에, 筑의 명인인 高漸離의 반주에 맞추어 「易水寒風」이라는 비장한 노래를 부르고 작별했다는 고사가 유명하다. 『戰國策』 「燕策3」.
 149) 금계 : 전라북도 금산의 옛 명칭이다.

막다른 길에 멈추면 어려움을 건네줄 배가 되리라

窮道爲停濟困舟

해사 김숙의 『승사150)록』 뒤에 쓴 시 題金海史翻乘槎錄後

김푸른 바다 거슬러 절민¹⁵¹⁾으로 떠나니
놀라움이 겨우 진정되어 정신이 평온해지네
열흘간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니
천리가 꾀꼬리와 제비들의 봄날이네
태조의 산하는 근심이 없고
청나라¹⁵²⁾ 일월은 여전히 새롭네
백발 되어 돌아와 강남의 흥취를 전해주니
여러 누대들이 꿈에 자주 보이네

泝盡滄溟出浙閩
驚魂才定便怡神
旬雨雨風風劫
千里鶯鶯鶯鶯春
太祖山河無恙在
康熙日月有如新
白頭歸說江南興
多少樓臺入夢頻

청조루¹⁵³⁾의 옛터에서 聽潮樓遺址

신기루 아득히 해우가 걷히자
조수에 임하니 공연히 청조루가 생각나네
봄바람 적막한데 버들개지 날리고
해질녘 배회하니 제비들 시름하네
높고 낮은 늙은 나무들은 들 성곽을 의지하고
뺨 둘러 있는 여러 산들은 강물을 지켜주네
시를 지어¹⁵⁴⁾ 선현의 시구를 이야기하며
객사 등불아래 세 번 반복하여 읽으니¹⁵⁵⁾ 흥취가 더욱 그윽하네

蜃氣迢迢海雨收
臨潮空憶聽潮樓
春風寂寞楊花過
斜日徘徊燕子愁
老樹高低依野郭
群山周匝護江流
留題爲說前賢句
三復旅燈興更幽

150) 승사 : 천자의 명을 받들고 해외에 사신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張騫이 한 무제의 명을 받고 大夏에 사신으로 나가 黃河의 근원을 찾았는데, 이때 ‘배를 타고 乘槎’ 은하수로 올라가 견우와 직녀를 만났다는 전설이 南朝 梁의 宋懷이 지은『荊楚歲時記』에 나온다.

151) 절민 : 중국의 浙江省과 福建省 지역의 병칭이다.

152) 청나라 : 원문의 ‘康熙’는 淸나라 聖祖의 연호(1662~1722년)이다.

153) 청조루 : 강진군 강진읍 옛 부 객관 남쪽에 있었던 누각이다.

154) 시를 지어 : 원문의 ‘留題’는 명승지나 고적 등을 유람하며 거기에 대하여 시가를 짓는 것이다.

155) 세 번 반복하여 읽으니 : 원문의 ‘三復’은 하루에 세 번 반복해 읽었다는 뜻으로 항상 가슴속에

운포 노형이 관산 태수의 피향정 연회시를 외워서 전해주자, 내가 듣고 훌륭하게
여겨 애오라지 그 시에 보운함 雲圃老兄誦傳冠山守披香亭宴會詩聞而壯之聊步其韻

홍정에서 객과 더불어 맑게 노닐 새	紅亭携客共清遊
玉板의 좋은 시구 그림 액자에 남았네	玉板瓊詞畫額留
下邑으로 전해준 즐거운 유람을 듣고 보니	下邑將看傳勝事
한 평생 이런 풍류 다시하기 어려워라	百年難再此風流
臨臯亭156) 태수의 연회에서 문장들이 지어지고	文章移得臨臯守
계묘년157) 가을에 뛰어난 산수를 수없이 만났네	山水剩逢癸卯秋
詩文158)은 고을을 다스림에 방해가 되지 않으니	騷雅不妨治郡課
태수159)는 푸른 바다의 갈매기를 꿈꾸지 마소서	滄鳧休作夢滄鷗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운 박형을 송별함 送別紫雲朴兄還鄉

秋城160)에서 이별한지 십년인데	秋城一別十回春
세 밑에 노인이 되어 동병상련이네	歲暮同憐抵老人
내가 약속 저버리자 반갑게도 찾아와주니	吾背襟期青眼在
세상살이에 흰머리만 새로 쉬이 늘어나네	世間容易白頭新

명심하며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詩經』「抑」에 “흰 옥돌 속에 있는 汚點은 그래도 깎아서 없앨 수 있지만, 말을 한번 잘못해서 생긴 오점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 白圭之玷, 尚可磨也. 斯言之玷, 不可爲也.”라는 말이 나오는데, 孔子의 제자인 南容이 매일 이 구절을 세 번씩 반복해서 외우자, 孔子가 이를 훌륭하게 여겨 자신의 조카딸로 처를 삼게 했던 고사가 있다. 『論語』「先進」.

156) 臨臯亭 : 蘇軾이 赤壁에서 뱃놀이하던 곳의 黃州에 있었던 정자이다. 宋 范成大的 『吳船錄』 卷下와 呂祖謙의 『臥遊錄』에 보인다.

157) 계묘년 : 1843년이다.

158) 詩文 : 원문의 ‘騷雅’는 屈原의 「離騷」와 『詩經』의 「小雅」, 「大雅」를 합한 말로,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詩文을 가리킨다.

159) 태수 : 원문의 ‘寫臯’는 한 나라 때 王喬가 신었던 신발로, 신선들이 신는 신발을 말한다. 『後漢書』「方術傳」에 “왕교는 河東 사람인데 현종 때 葉令이 되었다. 王喬는 神術이 있어서 매달 朔望에 臺에 나와 조회하였다. 황제는 그가 자주 오는데도 수레가 보이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太史로 하여금 몰래 엿보게 하였다. 太史가 엿본 뒤에 王喬가 올 때 두 마리의 오리가 동남쪽에 서 날아온다고 하였다. 이에 오리가 오는 것을 보고 그물을 펴서 잡으니, 단지 신발 한 짝만 있었다. 尙方에 명하여 자세히 살펴보게 하니 전에 尙書院의 관속들에게 하사한 신발이었다.”라 하였다.

160) 秋城 : 전라남도 담양군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그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어찌 다 말하리오만
 함께 깊이 잠들었다 새벽 빗소리 듣네¹⁶¹⁾
 천리를 찾아왔다가 돌아간 후 꿈에
 매화꽃 핀 금강 물가를 함께 걷네

相思敢說停雲夕
 對睡方濃聽雨晨
 千里又尋歸後夢
 梅魂携入錦江灘

영계주인을 뒤늦게 애도함 追挽穎谿主人

술을 벗 삼아¹⁶²⁾ 隱遁詩 지으며 살아온 오십년
 남쪽 하늘에 놀랍게도 少微星¹⁶³⁾이 떨어졌네
 앞서 茶亭이 애도하고 樗軒이 뒤에 애도하니
 다만 바람 맞으며 묘 앞에서 곡을 하네

逃酒隱詩五十年
 南天驚落少微纏
 茶亭先挽樗軒後
 只自臨風哭墓前

「장춘동」¹⁶⁴⁾ 시에 차운함 次長春洞韻

맑은 가을날 長春洞에 들어서서 바라보니
 푸른 절벽과 붉은 비탈 새로 그려진 그림 같네
 풍경과 내 마음이 하나 된듯하여
 앉아서 혼연히 太和人이 되었네

清秋入洞見長春
 翠壁丹崖畫面新
 境與吾心一般意
 坐來渾成太和人

161) 빗소리 듣네 : 비바람이 치는 밤 벗이나 형제끼리 침상을 나란히 하고 자는 것을 매우 정겨운 일로 친다. 白居易의 「雨中招張司業宿」에, “이곳에 와서 함께 묵을 수 있겠소. 빗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침상에 누워 잡시다. 能來同宿否, 聽雨對牀眠.” 하였다.

162) 술을 벗 삼아 : 蘇晉은 唐 현종 때의 문신으로 특히 술을 매우 즐겨 마셨으므로, 杜甫의 「飲中八仙歌」에 “소진은 수불 앞에서 장기간 재계를 하는데, 취중에는 가끔 좌선을 도피하기 좋아한다네. 蘇晉長齋繡佛前, 醉中往往愛逃禪.”라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2.

163) 원문의 ‘纏’은 ‘躔’의 오기로 보인다.

少微星 : 處士星으로, 소미성이 희미하거나 떨어지면 인간 세상의 處士가 죽는다 하였다.

164) 장춘동 : 전남 해남군 구림리에 있는 대흥사로 들어가는 계곡길이다.

7) 甲辰(1844)

죽사의 석양 시에 차운함 次竹樹夕陽韻

갑진년(1844) 8월 甲辰八月

종일토록 한적하게 거문고 타고 차 마시며
 취하고 깨는 사이에 이윽고 해질녘이네
 외로운 돛단배 천리 바다에서 석양빛에 돌아오고
 지는 노을은 만 겹 산을 끼고 넘어가네
 애석하게도 황혼이 주렴에 드리우니
 희끗희끗한 머리가 얼마나 창백하던가
 술자리에서는 노을빛을 근심하지 말 것이니
 또한 명월을 맞이해 얼굴을 기쁘게 펴리라

琴談茶夢鎮日閑
 而已斜陽醉醒間
 孤帆帶歸千里海
 殘霞携度萬層山
 黃昏可惜簾旌近
 蒼白幾何鬢髮斑
 酒席未須愁暮景
 且邀明月喜開顏

운곡¹⁶⁵으로 가는 길 해질녘에 계수정을 지남 向雲谷暮過桂樹亭

해질녘 금강이 차가워지고
 가을바람에 계수나무 드높네
 해가 저물어도 근심하지 말 것이니
 기쁜 만남에 고달픔을 잊을 수 있어서라

落日錦江冷
 秋風桂樹高
 未須愁暮到
 歡會可忘勞

165) 운곡 : 전라북도 고창에 있던 옛 지명이다.

막부166) 제승당167)에서 우석[주수 신관호] · 당산[막객] · 해사[김숙] · 소치[허정]168)과 밤에 술을 마시며 운자를 나누다가 ‘梅’자를 얻음 [11월 17일] 蓮營制勝堂 同于石主帥申觀浩棠山幕客海史金瀾小痴許珽 夜飲分韻得梅字至月十七日

1

높은 制勝軒이 바다를 향하고	制勝軒高壓海開
장수의 고상한 풍취가 아울러 높도다	元戎風雅并催崑
밤이 깊지 않아 시상이 촛불에 펼쳐지고	詩情入燭無多夜
술자리 끝나기도 전에 그림이 그려졌네	畫意落箋未了杯
주렴 밖에 수선화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簾外水仙如有待
달빛 속에 산 모습은 기약하지 않아도 돌아오네	月中山容不期迴
짧은 시를 막 짓고 차 마시는 것도 쉬니	短吟新就茶初歇
북두성이 강 하늘을 도니 저녁 뿔피리가 재촉하네	斗轉江天暮角催

2

달 밝은 밤 눈 개인 고운 누대에	月明雪霽好樓臺
그림 같은 산천이 거울처럼 비치네	畫面山川鏡面來
속세가 싫어 바람결에 늘 대나무를 보고	厭俗臨風常看竹
추위 벗 삼아 물을 마시며 매화를 찾고자하네	友寒飲水欲尋梅
먼 길손과의 만남은 참으로 기이하고	遠人邂逅云奇矣
주수169)의 문장 또한 상쾌하기만 하네	主闢文章亦快哉
시료가 섬세하여 밤잠을 이룰 수 없어서	詩料尖纖難夜寐
남은 등불 심지 돋았더니 촛불이 재가 되네	殘燈剪到蠟成灰

166) 막부 : 원문의 ‘蓮營’은 幕府의 별칭이다. 南朝 齊의 衛軍 將軍 王儉이 才士를 많이 영입하여 막부를 열자, 당시 사람들이 연화지 혹은 연화부라고 일컬었던 데에서 유래한다. 『南史』 卷49 「庾杲之列傳」.

167) 제승당 : 경상남도 통영시 환산면 두억리 한산도에 있는 사당이다.

168) 소치 허련(1808~1893) : 조선말기 추사 金正喜의 제자이자 선비 화가로 글, 그림, 글씨에 모두 능하여 三絶이라 불렸다. 스승을 따라 추사체를 쓰기도 했다. 「夏景山水圖」등의 작품이 있다.

169) 주수 : 원문의 ‘主闢’은 ‘監司’를 뜻하는데 이 시에서는 신관호를 가리킨다.

다음 날 밤에 또 운을 잡음 翌夜又拈韻

어느덧 한 해도 훌연히 저물어 가니¹⁷⁰⁾
 늦은 나이에 만난 새로운 벗 斷金之交가 되었네
 오래 된 돌은 보아하니 그림에 의미가 있는듯한데
 흰 구름은 일찍 나오지 않아 마음이 없는 듯하네

[우석 신관호가 돌을 그려서 보내 주었기에 말하다.]于石畫石以贈 故云

꽃의 향기는 물에 떠서 사람을 취하게 하고
 시의 소재는 거문고 줄에 엉켜 깊은 밤에 들어오네
 이별 후 그리운 이는 어디에 있으리오
 아득히 바다 너머 푸른 산을 바라보네

堂堂歲色忽窮陰
 晚道新知已斷金
 老石看來圖有意
 白雲曾不出無心

花香泛水令人醉
 詩料凝絃入夜深
 別後相思何處是
 迢迢隔海見青岑

이별할 때 우석 절도사에게 다시 줌 臨別更呈于石節度

집안에 전해오는 가법은 대대로 忠貞이니
 餘事의 문장으로 한 시대에 이름을 떨쳤네
 侍從臣이 되어¹⁷¹⁾ 문득 승정원에 오르더니
 虎符¹⁷²⁾를 지니고 운주영을 다스렸네
 승경이 아니면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
 하물며 태평시대라 바다도 잔잔하구나
 스스로 다행히 백운의 산 속 객이 되어
 사흘 밤 마음의 달이 주렴에 비치네

傳家家法世忠貞
 餘事文章一代名
 珥筆俄從承政院
 虎符來鎮運籌營
 知非勝界人無遇
 況際明時海不驚
 自幸白雲山裡客
 三宵心月照簾旌

170) 해가 저물어가니 : 원문의 ‘窮陰’은 陰氣가 짝 찼다는 뜻으로 한 해가 저무는 겨울을 가리키는 데, 『周易』「復卦」에서 볼 수 있듯이 군자 또는 정의를 상징하는 陽은 영영 소멸하는 법이 없어 반드시 소생하고 말 것이지만 그 양이 너무도 미약하여 소생할 힘이 없을까 걱정이라는 것이다.

171) 시종신이 되어 : 원문의 ‘珥筆’은 ‘戴筆’과 같다. 곧 붓을 귀 뒤에 꽂는다는 뜻으로 侍從臣을 가리킨다. 漢나라 때 임금을 시종하는 신하는 기록에 대비하여 항상 冠 옆에 붓을 꽂고 다녔던 데에서 유래하였다.

172) 호부 : 군대를 發兵할 때 사용하는 信符를 뜻한다.

예촌 족속에게 답함 和曳村族叔

아름다운 숲에 옥룡¹⁷³⁾ 가지 휘어지고
 세찬 눈은 바람을 끼고 저녁 기운을 뒤따르네
 솔가지는 세한에 저문 빛을 드리우고
 매화의 마음은 새봄이 얼마 남지 않았네
 흥이 시드니 시구도 모두 의미가 없고
 늙어 가니 공명도 아득히 기약이 없네
 다행히 빈 골짜기에 발소리가 들려오니¹⁷⁴⁾
 편지를 애써 잡고 그리움을 위로하네

瓊林擎重玉龍枝
 驕雪挾風夕氣隨
 松髮歲寒垂暮色
 梅心春隔不多時
 興殘詩句都無味
 老去功名渺不期
 賴有澗然空谷響
 華牋強把慰相思

즉흥시 偶吟

세 밑의 산재에 눈이 막 개니
 선달 무렵 매화향기 깨끗한 옷에 스미네
 부박한 황금이 세속을 부끄럽게 하니
 늙도록 부지런히 애써 고서를 신봉하네
 천지는 맷돌처럼 저절로 돌아가고
 세월은 수레의 바퀴처럼 멈추질 않네
 蒲團의 흥취¹⁷⁵⁾를 아는 이가 없으니
 비단 침구에 화려한 집도 이보다 못하리라

歲暮山齋雪霽初
 梅香近臘襲清裾
 黃金浮薄羞今俗
 白首辛勤信古書
 天地自回雙扇磨
 光陰不住兩輪車
 無人解道蒲團趣
 錦褥華堂恐不如

173) 옥룡 : 韓琦의 「喜雪」에 “바위에 눈이 덮여 엄호 빠진 듯하고, 휘어진 늙은 가지에 옥룡이 차가 워라. 危石蓋深鹽虎陷, 老枝擎重玉龍寒.”라는 구절이 있는데,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자 그 모습이 마치 옥으로 만든 용과 같다는 것이다. 『安陽集』 卷17 「壬子十一月二十九日時雪方洽」.

174) 빈 골짜기에 …… 들려오니 : 『莊子』 「徐无鬼」에 “텅 빈 골짜기에 숨어 사는 사람은 명아주와 콩잎이 족제비의 길마저 막고 있는 터라, 빈 골짜기에서 홀로 걷다가 쉬다가 하노라면, 다른 사람의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기뻐하는 것인데, 하물며 형제와 친척들의 기침 소리가 옆에서 들려온다면 어떨겠는가. 夫逃虛空者, 藜藿柱乎黽黽之逕, 踉位其空, 聞人足音澗然而喜矣. 而況乎昆弟親戚之警效其側者乎.”라 하였다.

175) 蒲團의 흥취 : 부들방석에 단정히 앉아 명상하는 禪僧과 같은 法樂을 말한다.

우석 절도사에게 부침 寄于石節度

1

산 아래 대나무 숲에는 다만 몇 채의 집일 뿐
 외로운 새 잔등 아래 시를 읊조리는 마음이라
 돌아가는 기러기에 멀리 강호의 그리움을 부치고
 꿈에서 깨어나니 누가 꿈의 흔적을 알리오
 한 세상 인생살이 지금 반평생이 흘렀고
 오분의 봄 중에 이미 삼분이 지나갔네
 동쪽엔 매화와 살구꽃 피더니 서쪽에 버들 피어나고
 붉은 꽃 가득하더니 푸른 뜻이 남아있네

山下篁林第幾村
 孤禽殘燭取吟魂
 雁歸遙寄江湖思
 蝶散誰知夢寐痕
 一世人生今半世
 五分春色已三分
 東邊梅杏西邊柳
 剩得紅情綠意存

2

龍蛇¹⁷⁶⁾의 지난 겁난을 신묘한 거북에게 묻노니
 충무공의 공로를 너는 스스로 알리라
 푸른 바다에서는 배가 되어 적진을 돌진하니
 청산에서는 돌이 되어 공적비를 지고 있네
 위는 충무공 비문이다. 右忠武公碑

龍蛇往劫問神龜
 忠武勳勞爾自知
 蒼海爲船衝戰陣
 青山化石負功碑

176) 龍蛇 : 龍과 蛇은 각각 辰年과 巳年을 상징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흔히 간지에 ‘辰’과 ‘巳’가 들어간 해에는 흉한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다. 여기서는 임진왜란을 가리킨다.

8) 乙巳(1845)

한식 寒食

강남에 한식날 비가 흩뿌리니
 봄날도 삼분의 이가 지나가네
 진한 봄기운에 꽃도 취하려하니
 버들도 기뻐하는 듯 반가이 맞이하네
 나비는 단꿈을 따라 깨어날 줄 모르고
 찌꼬리의 고운 소리 저녁까지 들려오네
 병중의 시편은 다 부질없는 흥취거늘¹⁷⁷⁾
 아름다운 날 어떻게 안개와 구름에 화답할까

江南寒食雨紛紛
 春色三分已二分
 惱殺紅情花欲醉
 展開青眼柳如欣
 蝶隨短夢渾忘覺
 鶯惜嬌音晚有聞
 病裡詩篇渾漫興
 佳辰何以答煙雲

늦봄 暮春

강남의 삼월에 인천이 아름다우니
 보던 책을 잠시 놓고 술통 앞에 기대었네
 나비 꿈속에 꽃은 붉게 피어나고
 한 쌍의 제비 나는 곳에 풀도 다투어 푸르구나
 청명에 내림 비 계곡물 넘쳐흐르고
 해질녘 연기에 산 이네 항상 보이네
 늙어 갈수록 봄바람의 뜻을 알 수 있으니
 詩墨을 술자리에 가까이 하노라

江南三月麗人天
 暫置看書倚榼前
 花意紅酣蝴蝶裏
 艸心翠戰鶯雙邊
 谿流剩得清明雨
 山靄常看薄暮煙
 老去春風能領略
 却將詩墨近樽筵

177) 다 부질없는 흥취거늘 : 杜甫의 「江上值水如海勢聊短述」에 “나는 성질이 아름다운 시구를 지나치게 좋아해, 남을 놀래키지 못하면 죽어도 마지않네. 늘그막의 시편은 다 부질없는 흥취일 뿐이니, 봄이 오매 꽃과 새들은 너무 시름하지 말거라. 爲人性癖耽佳句, 語不驚人死不休. 老去詩篇渾漫興, 春來花鳥莫深愁.”라 한 데서 온 말이다. 『杜少陵詩集』 卷10.

동헌에 드리는 두 수 寄呈東軒二首

지주는 박승휘(178)이다. 地主朴承輝

1

琴軒에서 유유자적하니 향불(179)사그라지고
 봄 깊은 화려한 누대에서 옥대를 풀었네
 지방 수령이 되어 홀연히 선령의 신발 남겨두고
 螭頭(180)에서 잠시 시종신 의관을 벗어놓았네
 편안하고 한가로이 일에 임하니 일이 없는 듯하였고
 청렴한 관리가 되어 관직에서 벗어난 듯
 시문은 고을을 다스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니
 동산의 울긋불긋 화초를 마음껏 보시길

琴軒自適篆香殘
 畫閣春深玉帶寬
 臯影忽分仙令舄
 螭頭暫卸侍臣冠
 舒閑臨事如無事
 清寂爲官似去官
 騷雅不妨治郡課
 山園紅綠剩堪看

2

봄놀이 가자던 가약을 저버렸는데
 청명절은 이미 지났으니 삼진날이 마땅하오
 경박하나 복사꽃의 계절을 사랑할 만하니
 머뭇거리며 영산홍 필 때를 기다리겠소
 螭頭의 푸른 대나무 넉넉한 뜻을 알겠고
 祥寺의 지는 꽃을 보며 늦은 시를 지으시길
 관기는 잠시 金縷曲(181)을 멈출지어다

尋春一約負佳期
 錯迺清明上巳宜
 輕薄堪憐桃李節
 遲回爲待映紅時
 螭頭翠竹知饒趣
 祥寺殘花晚賦詩
 官妓且停金縷曲

178) 박승휘(1802~1869) : 조선의 문신. 자는 光五. 호는 社臯, 시호는 文貞. 본관은 密陽. 1829년(순조 29) 문과에 급제, 내외직을 역임하고 1845년에 강진 군수를 지냈으며 1848년(헌종 14) 司成으로 校正郎廳이 되어 『三朝寶鑑』의 편찬에 참여. 1855년(철종 6) 대사간, 1864년(고종 1)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다.

179) 향불 : 원문의 '篆香'은 唐·宋 시기에는 篆書 모양으로 만든 향에 불을 붙여 그것이 타들어가는 것으로 시간을 재면서 모기 등의 벌레를 쫓는 용도로 쓰곤 했다.

180) 螭頭 : 螭頭官의 준말로 당 나라 때 史官이 거하던 관아의 별칭이다.

181) 금루곡 : 唐 金陵의 소녀 杜秋娘이 15세에 李錡의 첩이 되었는데, 李錡를 위해 詞를 지어 노래한 일이 있었다. 그 곡에 "주군께 권하노니 금색 실로 만든 옷을 아끼지 말고, 모름지기 소년 시절을 아껴야 하리. 꽃이 피어 꺾을 만하면 바로 꺾어야 하니, 꽃 없어진 뒤에 부질없이 가지만 꺾

동풍에 오히려 꺾어 전해 줄 가지가 있나니

東風猶有折贈枝

방옹(182)의 운을 잡음 拈放翁韻

점점 금년이 작년과 달리 느껴지니
 몸은 여윈 학이요 마음은 울지 못하는 매미¹⁸³)로다
 봄바람에 견디지 못하여 꽃이 다투어 시드니
 지는 해에 다시 찾아와 버들과 잠드네
 세상일은 모두 일장춘몽과 같으니
 봄날은 항상 비온 뒤의 하늘과 같네
 지금 홀연히 또 삼월이 저물어 가니
 봄의 풍광¹⁸⁴)을 아끼며 한바탕 슬퍼하네

轉覺今年異昨年
 身同癯鶴意寒蟬
 東風不耐花爭老
 斜日翻尋柳與眠
 人事都歸醒後夢
 春陰常作雨餘天
 今忽又云三月暮
 解惜韶華一悵然

**계산이 해상에서 돌아와 시축을 보여주며 운을 잡아 끝에 쓰게 함
 桂山自海上還示以詩軸使拈韻書尾**

연운이 미간에 있으나 기운은 아직 남아 있고
 그대의 맑은 유람 말하지 않아도 알겠네
 가는 날 부슬부슬 꽃비가 넉넉하더니
 올 때는 살랑살랑 보리 바람 따듯하여라
 봉래산의 삼신산¹⁸⁵)을 가까이 하려고
 滄海¹⁸⁶)를 곧바로 갔다가 만리 길을 돌아왔네

煙雲眉際氣猶存
 知子清遊在不言
 去日縈霖花雨足
 來時搖艷麥風溫
 蓬壺欲挹三山近
 滄海直窮萬里翻

지 마소서. 勸君莫惜金縷衣, 勸君須惜少年時. 花開堪折直須折, 莫待無花空折枝.”라 하였다.
 182) 방옹(1125~1210) : 南宋의 대표적 시인 陸游의 호다. 약 50년 동안에 만여 수에 달하는 시를 남겨 중국 詩史上 최다작의 시인으로 꼽힌다. 강렬한 서정을 부흥시킨 점이 최대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저서에는 『劍南詩稿』가 있다.
 183) 울지 못하는 매미 : 원문의 ‘寒蟬’은 추운 가을날 울지 못하는 매미를 말하는데, 흔히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이다.
 184) 봄의 풍광 : 원문의 ‘韶華’는 아름다운 계절의 경치, 보통 春光을 가리키는 詩語이다
 185) 봉래산 : 원문의 ‘蓬壺’는 신선이 사는 봉래산인데 모양이 병과 비슷하다는 데서 유래한다.
 186) 창해 : 東海 혹은 渤海를 가리킨다. 이 창해 안에 蓬萊·瀛洲·方丈 등 이른바 三神山이 있다고 전해졌다.

아름다운 정취를 시 한축에 거두니
대나무 그늘로 지는 해가 사립문에 비치네

佳趣穩收詩一軸
竹陰斜日迥柴扉

앞의 운을 써서 낙화를 읊음 用前韻詠落花

봄빛이 가지 끝에 겨우 남아 있어
지는 꽃에게 물어보나 말없이 떨어지네
가랑비를 견디지 못해 석 잔 술에 취하니
오히려 동풍을 아끼며 한번 웃음에 온화해지네
문득 시름 곁에 제비와 피꼬리를 쫓다가
꿈속에 훨훨 나는 나비를 따르네
이제 다시 기쁜 일이 적을 것이니
종일 무료하게 지내며 홀로 문을 닫으리

春色枝頭僅若存
殘花爲問落無言
不堪細雨三杯醉
尙惜東風一笑溫
忽逐燕鶯愁裡過
半隨蝴蝶夢中翻
從今更少開顏地
永日無聊獨閉門

4월에 삼천으로 가던 길에 2수를 지음 四月向三川路中作二首

1

칠년 동안 이 행차를 준비하다가
동풍에 찾아와 영신성에 머무르네
마음은 문헌 보검처럼 늘 벗어나고자 하나
몸은 한가한 구름을 좇아 여정조차 헤아릴 수 없네
늙지 않은 청산은 여전히 옛 모습이거늘
다시 찾아온 백발에 남은 생이 부끄럽네
다만 노력하여 이날을 다 마치리니
책상을 마주하여 등불 켜고 지극한 정 나누리

七載經營有是行
東風來宿永新城
心如埋劍常思出
身逐閑雲不計程
未老青山猶舊面
重來白髮愧殘生
但須努力窮斯日
逢榻燃燈話至情

한 길 지팡이에 어린 동자 하나
 행장은 담박하니 내 마음과 같구나
 이별의 말을 견디지 못하고 긴긴날을 보내며
 여전히 몸을 의지하며 저녁 바람을 쐬네
 풀은 더디게 돌아옴을 한하여 푸른빛을 구기겠고
 꽃은 기다리기 싫어서 붉은 빛을 떨구었으리
 여러 해 동안 몇 번이나 삼천의 길을 꿈꾸었던가
 다시 지금 온 이 길이 꿈속일까 두려워라

齊丈一筇滿尺童
 行裝澹泊與心同
 未堪分語消長日
 猶足倚身納晚風
 草恨遲回應皺綠
 花嫌留待已消紅
 多年幾夢三川路
 却恐今來復夢中

용연서각(187)에 지음 題龍淵書閣

고각 오백 칸에 청풍이¹⁸⁸⁾ 불어와
 일월을 헤아리니 아득하여 따라 잡기 어렵네
 기와에 ‘正德三年189)’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고
 처마는 추성의 산 중턱에 걸쳐있네
 주인이 바뀌니 흥망을 알 수 있고
 명월을 불러보니 고금이 순환하네
 객이 와서 오래 앉아 있으니 온통 꿈 꾸듯
 물에 붉게 아롱진 연꽃이 가장 사랑스러워라

古閣清風五百間
 經營日月杳難攀
 瓦存正德三年字
 軒入秋城一半山
 換得主人興替見
 招呼明月古今還
 客來坐久渾如夢
 最愛紅蓮點水斑

187) 용연서각 : 진라남도 담양군 용면 부근에 있었던 서각으로 보인다.

188) 오백 칸에 청풍이 : 蘇軾의 「病中獨遊淨慈謁本長老周長官以詩見寄因次韻答之」에 “노 선사께서 남산에 들어왔단 말을 와병 중에 들었나니, 청풍 오백 칸을 깨끗이 쓸었구려. 臥聞禪老入南山, 淨掃清風五百間.”라 하였다.

189) 正德三年 : 1506,(중종1)년이다. 正德은 중국 명나라 제 11대 황제인 무종이 사용한 연호로(1506년~1521년), 무종은 正德 연호를 본 따 正德帝 혹은 正德皇帝라고도 불린다.

지주190) 와 도갑사에서 노닐며 운자에 따라 절구 한수를 지음
 與地主遊岬寺口號一絶

유수 같은 천년 세월의 절에
 서늘한 팔월의 초가을이라
 외로운 구름도 흘러가지 못하니
 이별의 정이 함께 아득 하여라

流水千年寺
 微涼八月秋
 孤雲飛不去
 離思共悠悠

화답한 시를 붙임191) 附和

월출산 절간에
 내 발길 가을로 접어드네
 청산의 슬픈 이별
 내일 갈 길이 아득하여라

月出招提境
 吾行入素秋
 青山悵悵別
 明日路悠悠

도갑사에서 자고 상견성암192)에 올랐다가 이별하며 쓴 시 宿岬寺登上見性臨別拈韻

골짜기를 지나 그윽한 길을 찾으니
 암벽에 의지하여 작은 누대가 있네
 연푸른 숲속의 안개 흩어지고
 작고 흰 바다 구름 떠다니네
 꺼져가는 등불을 짝하여 잠드는 밤
 태수와 가을을 함께 하노라
 청산의 이별 길에서
 슬피하며 가다가 멈추네

穿壑尋幽逕
 依巖有小樓
 輕蒼林靄散
 微白海雲浮
 伴宿殘燈夜
 共分太守秋
 青山因別路
 悵悵去而留

190) 지주는 박승휘를 말한다.

191) 원문에 ‘韻’자가 생략되어 있고, 격자가 되어 있지 않아 편집도 잘못된 부분이다.

192) 상견성암 : 월출산 도갑사에서 구정봉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암자이다.

운옹에게 화답함 和雲翁

1

듣자하니 백운산의 늙은이가
바닷가 장춘동을 찾아 간다네
늙어 갈수록 이름난 산수를 좋아하니
연하의 푸른빛이 눈앞에 어른거리네
몸은 백운을 따라 지팡이를 끌고
집은 청산에 초당을 엮었네
雲翁은 이미 구름 속에 머물러 있으니
구중궁궐의 봉황이 편지¹⁹³⁾를 물고 올까 두렵다네

聞道白雲山裡翁
海上欲尋長春洞
老去喜遊名山水
煙霞翠色眉際動
身逐白雲携藜杖
家在青山結茅棟
雲翁已被雲留住
九天恐致啣書鳳

2

사랑스럽다 가을 경치 물을 따라 흐르니
짧은 지팡이로 푸른 계곡 가를 찾았노라
해상과 청산의 약속 얼마나 많았던가
인간 세상 백발의 시름을 어찌할 수 없구나
호수 속의 새는 안개 낀 달을 온통 잊고
그림 속의 소¹⁹⁴⁾는 시내에 한가로이 노니네
맑은 복을 논하여 공경대부를 삼는다면
먼저 부군을 만호의 제후로 삼으리라

愛看秋容逐水流
短筇尋到碧谿頭
幾多海上青山約
無奈人間白髮愁
煙月渾忘湖裡鳥
水川閑放畫中牛
若論清福爲公相
先數夫君萬戶侯

193) 봉황이 편지를 : 임금을 조서를 받들고 가는 사신의 행차를 뜻하는 말이다. 周나라 때 봉황이 天書를 입에 물고 文王의 도읍지에 날아와 노닐었으므로 무왕이 鳳書의 紀를 받게 되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藝文類聚』 卷99 「引 春秋元命苞」.

194) 그림 속의 소 : 원문의 ‘畫牛’는 산림에 은거하여 유희자적하는 것을 말한다. 南北朝 隱士 陶弘景이 梁 武帝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소 두 마리를 그려 올려 자신의 뜻을 나타냈는데, 한 마리는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그림이고, 한 마리는 머리에 금으로 만든 굴레를 썼으나, 사람이 고삐를 잡고 채찍으로 모는 그림이었다. 이를 본 梁 武帝는 그를 招致할 수 없음을 알고 그대로 버려두었던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南史』 卷76 「隱逸列傳下·陶弘景」.

유재에게 부침 寄留齋

지난 날 수선화 아래서 취했던 일을 생각하노니
 붉은 담요에 앉아 장군과 함께 술을 마셨지
 장군이 수선화 시를 지으니
 화신도 말없이 빼어난 시에 눈물 흘렸네
 꽃을 대하며 수선화 시를 세 번 읊조리고
 화렴의 밤빛 진영의 달 아래 잠들었네
 달이 지자 꽃을 시름하며 곧 이별하니
 다시 봄바람 불면 도리아래서 취하기를 기약하네
 경박한 도리와는 기약을 할 수 없으니
 청명절과 상사일¹⁹⁵⁾을 놓쳤네
 뒤늦은 오월¹⁹⁶⁾이면 느티나무 향기로우리니
 편지에 그림다는 글자를 공연히 전하네
 국화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지 말게나
 병석에도 절로 피고 절로 떨어졌거늘
 애석타 좋은 시절 헛되이 지나가 버렸으니
 인간 세상 한번 만남도 저와 같으리라
 또 강남에 시월이 돌아오니
 바다 구름 눈 되어 북풍 불어오네
 아득히 대나무 정자 처마 아래
 수선화 줄기는 이미 물에서 나왔으리라
 다만 이 꽃이 필 때에 이르러
 장군의 극진한 예의에 한번 사례 하리라

憶昔水仙花下醉
 紅氍共飲將軍鱣
 將軍爲賦水仙花
 花神無語泣詩髓
 對花三復水仙篇
 畫簾夜色營月睡
 月落花愁旋別離
 更期東風醉桃李
 桃李輕薄不留期
 錯過清明與上巳
 晚來榴熱槐欲薰
 尺書空傳相思字
 黃華休笑無信人
 病裡渠開渠自墜
 可惜佳辰虛過了
 人世一逢有如彼
 又是江南十月天
 海雲釀雪北風至
 遙想竹榭新簷下
 水仙花莖已出水
 但願及此花開時
 一謝將軍禮意摯

195) 상사일 : 음력 3월에 첫 번째 맞는 巳日. 이날 냇가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는데, 魏나라 이후 3월 3일로 정하였음. 곧 3월 3일을 말한다.

196) 오월 : 원문의 '榴熱'은 5월의 異稱이다.

화운한 시를 붙임 附和韻

유재 留齋

내가 그대를 보지 못해 마음이 취한 것 같은데 누가 나에게 한 말의 술을 부어 주리오 水城의 밤 호각소리 길손의 귀를 놀라게 하고 海山の 가을바람에 추위가 뼈에 스미네 국화를 홀로 대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르지 않고 주렴에 걸린 새벽달에 어찌 잠들 수 있으리오 이로부터 德必有隣 ¹⁹⁷⁾ 을 말하기 어려우니 길을 이루지 못해 ¹⁹⁸⁾ 도리에게 부끄럽네 복사꽃 필 때의 약속을 남기고 부질없이 이별하니 이별한지 일 년이 지나 뱀띠의 해 ¹⁹⁹⁾ 가 되었네 봄꽃과 가을 단풍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인편에 소식을 전하네 또 광채 나는 시를 보내주시니 크게 드리운 구름 ²⁰⁰⁾ 이 작은 병풍 ²⁰¹⁾ 에 떨어지는 듯 하네 지난해 수선화 모임을 생각하니 멀지 않은 곳에 그리운 임이 완연히 그곳에 있네 때때로 문을 나서며 크게 웃노라니 차가운 물결이 성을 치며 밀려오네 올해 수선화도 다시 아름답게 피어나 친구를 기다리며 향기 물에 스미네 복사꽃의 약속은 그르칠 수 있으나 외롭지 않은 수선화 그대를 정성스레 기다리네	我不見君心如醉 誰能瀉我一斗觥 水城夜角驚客耳 海山秋風逼寒髓 黃花獨對人不到 簾鉤曉月那堪睡 從此難言德有隣 也不成蹊羞桃李 桃李爲約漫相別 相別經年歲在巳 春花秋楓計莫遂 只憑來使小函字 又有珠光送詩上 偉如朶雲研屏墜 憶曾去年水仙會 不遠所懷宛在彼 時時出門放大笑 惟有寒潮打城至 今年水仙亦復佳 留待故人香沁水 桃李之約猶可錯 難孤水仙待君攀
---	--

197) 德必有隣 : 『論語』 「里人」에 “덕은 외롭지 않아서 반드시 이웃이 있다.德不孤, 必有隣.”고 한 데서 온 말로, 덕이 있는 사람은 같은 부류의 사람이 따르므로 항상 친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198) 길을 이루지 못해 : 『史記』 「李廣列傳贊」에 “복숭아꽃 오얏꽃은 말이 없지만, 그 아래에 자연히 길이 이루어진다. 桃李不言, 下自成蹊.”라 하였다.

199) 뱀띠의 해 : 이 시가 지어진 해가 乙巳년 1845년이다.

200) 드리운 구름 : 원문의 ‘朶雲’은 드리운 구름이라는 뜻으로, 남의 書翰의 敬稱으로 쓰인다.

201) 작은 병풍 : 원문의 ‘研屏’은 먼지나 먹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벼루머리에 치는 매우 작은 단 폭의 병풍. 옥이나 쇠 또는 도자기로 만들며 붓을 꽂아 두는 筆架를 겸한 예도 있다.

회사의 편지에 시로 부침 寄晦沙書詩

북풍에 눈이 내리려는 즈음에
 고요히 지내는 몸의 근황은 어떠한고
 구구한 가을의 회포를 가눌 수 없었고
 충충했던 봄날의 이별을 어찌 견뎌냈던고
 한 달 동안의 병세는 알릴 것 없으니
 언제쯤 못 만난 그리움 다시 펼거나
 다만 평안하다는 답신을 바라며
 많은 이야기는 바빠서 다 갖추지 못하네

未審北風雪意初
 靜中體事近如何
 秋懷不任區區至
 春別那堪惻惻餘
 一朔病情無足聞
 幾時阻思更相叙
 便回只冀平安字
 多少惻惻不備書

지주를 삼가 전별함 奉餞地主

1

금릉의 남녀들이 다투어 환영하고
 남해의 구슬이 돌아와²⁰²⁾ 달도 보름달이 되었네
 백리의 호남고을에 춘심이 흠족하고
 이 년간 관청은 수심처럼 청정했네
 하늘 끝에 홍곡의 깃털처럼 비상할터이니
 가시덤불엔 봉새가 깃들기 어려움을 알겠네
 아득히 돌아가는 수레 잡을 수 없으니
 향기로운 이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리

金陵士女競相歡
 南海珠還夜月團
 百里湖鄉春意洽
 二年官閣水心寒
 雲霄自有鴻毛順
 枳棘從知鳳栖難
 歸轍迢迢攀不得
 香名留待口碑看

202) 구슬이 돌아와 : 漢나라 때에 孟嘗이 合浦太守가 되었는데, 그 고을에는 곡식이 나지 아니하고 바닷가에서 구슬만 생산하여 백성들은 그것을 팔아서 살아갔더니, 먼저 온 관리들이 그 구슬 캐는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 구슬이 다른 바다로 다 옮겨가고 없어졌다. 孟嘗이 太守로 와서 전에 해오던 악한 법을 다 고치고 어진 정치를 베풀었더니 1년이 못가서 도망갔던 구슬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것을 ‘去珠還浦’라 한다.

영각²⁰³⁾에서 거문고와 술로 기쁨을 다하고
가을 들어 성대한 모임을 다시 이루었네
시혼은 밤이 들자 매화와 다투어 즐고
병든 몸에 바람을 맞자 학도 더불어 쓸쓸하네
얼마나 자주 진번의 걸상을 받았던가²⁰⁴⁾
구군 같은 그대를 일 년 더 빌리기 어려워라
애석하게도 운산과 이별한 후엔
백수로 꿈에서 만나기만을 기다리네

鈴閣琴樽罄一歡
秋來勝會再成團
詩魂入夜梅爭睡
病骨臨風鶴與寒
幾度頻承陳榻解
一年借得寇君難
可惜雲山從此別
白首只憑夢裏看

회사가 보여준 시에 차운함 和晦沙示韻

백운동 이곳은 홍진과 떨어져 있으니
세모에 누가 은둔한 이를 찾아오리
억지로 강호의 꿈 많이 꿀 수 없고
끝내 시골 속인들 피하기도 쉽지 않네
복사꽃 피니²⁰⁵⁾ 우연히 어부의 길을 찾고
눈이 개이니 공연히 剡溪의 이웃²⁰⁶⁾이 생각나네
이별 후 은근한 수많은 이야기를

白雲一面隔紅塵
歲暮誰能訪隱倫
無多強作江湖夢
未易終逃野俗人
桃發偶尋漁子路
雪晴空憶剡中鄰
別後慙慙多少話

203) 영각 : 한림원 혹은 장수나 지방 장관이 집무하는 곳을 말한다. 여기서는 강진 현감이 근무하는 곳이다.

204) 진번이 …… 받들었던가 : 어진이나 친한 벗을 깎듯이 대우한다는 뜻이다. 陳蕃이 豫章太守로 있을 적에 특별히 걸상 하나를 마련해 놓고는, 徐釋가 찾아올 때에만 반갑게 맞으면서 내려놓았다가 그가 돌아가면 다시 올려놓고 아무에게도 내려 주지 않았던 懸榻의 고사가 전한다. 『後漢書』 卷53 「徐釋列傳」.

205) 복사꽃 피니 : 陶淵明의 「桃花源記」에 나오는 이른바 무릉도원의 전설을 말한다. 썸나라 때 武陵의 어부가 복사꽃이 흘러 내려오는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갔다가 秦나라의 난리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곳이 워낙 仙境이라서 바깥세상의 변천과 세월의 흐름도 잊고 살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06) 剡溪의 이웃 : 晉의 王徽之가 눈 내리는 밤에 갑자기 剡溪에 사는 친구인 戴逵가 보고 싶어 배를 타고 친구의 집을 찾아갔는데, 집 앞에 이르러 흥이 다하였기에 그냥 돌아간 고사가 있다. 蘇軾의 시는 이 내용을 읊은 것으로, “적막한 왕자유가 剡溪의 길에서 배를 돌리니, 저 멀리 戴安道는 눈 오는 저녁을 누구와 보내나. 寂寞王子猷, 回船剡溪路. 迢遙戴安道, 雪夕誰與度.”라 하였다. 『世說新語』 「任誕」.

다만 편지에 써서 물고기에게 부치네²⁰⁷⁾

只憑尺素寄河鱗

보내 온 시에 설경을 묻고 강호를 꿈꾼다는 구절만 있고, 한번 찾아오겠다는 기약이 끝내 없기에 이렇게 답하며 희롱하였다. 來詩有問雪景夢江湖之句而一顧終無期故以是答嘲耳

유재에게 부침 寄留齋

1

남쪽 눈 내리는 연영에서 다시 만나
 畫燭²⁰⁸⁾ 밝혀 거문고 얘기 하니 하룻밤 일 년 같았네
 어찌 이 날 관청의 매화 소식²⁰⁹⁾을 견딜 수 있으랴
 방초의 시름이 이별 자리에서 생겨나네

南雪蓮營再有緣
 琴談畫燭夜如年
 那堪此日官梅驛
 芳草愁生送別筵

2

남쪽 호수 안개 낀 달 속에 한적하게 수양하며
 이 년간 물처럼 깨끗한 관리였네
 이제 북쪽으로 돌아갈 날 머지않았으니
 언제쯤 월출산을 찾아오시려나

南湖煙月養心閑
 如水官情二載間
 從此北還知有日
 幾時來過月出山

207) 물고기에게 부치네 : 書信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晉의 陸機가 「飲馬長城窟行」에 “멀리서 온 손님, 잉어 두 마리 전해 주네. 아이 불러 요리하라 부탁했더니, 그 속에서 나온 한 자 비단 글. 客從遠方來, 遺我雙鯉魚. 呼兒烹鯉魚, 中有尺素書.”의 구절이 있다.

208) 畫燭 : 궁중이나 왕의 하사품으로 일부 귀족계층에서 사용된 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초를 말한다.

209) 관청의 매화 소식 : 원문의 ‘梅驛’은 매화를 전달해 주는 驛使라는 뜻으로 소식을 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역사는 공문서나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남북조 시대 宋 사람인 陸凱가 강남에서 매화 한 가지를 장안에 있는 范曄에게 부쳐 보내 준 고사가 있다.

3

행차가 월출산에 막 이르거든
 수레 멈추고 친구가 사는 곳을 묻게나
 대 숲과 고목들이 우거진 계곡의 서쪽 마을
 백운 속 蒼霞壁²¹⁰이 나의 집일세

行到月山入境初
 停車爲問故人居
 叢篁古木谿西巷
 白雲蒼壁是吾廬

4

관도 가까이 대숲에 집이 있으니
 산음으로 부질없이 뱃머리 돌리지 마세요
 동풍이 불어와 잠시 매화 앞에서 술에 취하여
 저물녘에 낭주에 도착해도 상관없으리

咫尺官途竹裏舍
 山陰休作謾回舟
 東風暫醉梅前酌
 不妨黃昏到朗州

화운한 시를 붙임 附和韻

유재 留齋

1

남으로 내려와 그대와 좋은 인연 맺었으니
 수선화 모임에서 술 마신 추억 바로 작년이구려
 어찌하면 둘이 매화와 버들 모임을 만들어
 평생 이별의 자리 하지 않을까

南到於君最有緣
 水仙花酒憶前年
 那得兩家梅柳社
 平生不作別離筵

2

210) 蒼霞壁 : 이시현이 백운동원림의 승경 중 11景으로 꼽은 곳이다.

잠시 서로 만나 매우 한가하니
 난초와 대나무의 기이한 자태 세속을 벗어났네
 그대와 맑은 인연을 많이 맺었으니
 아침이면 軒窓에서 월출산이 보이네

暫時相對劇時閑
 蘭竹奇姿出世間
 多君一種清緣在
 早有軒窓月出山

3

안개 낀 청라에서 일찍 수초의 뜻²¹¹⁾을 알았으니
 묻지 않아도 그대²¹²⁾가 사는 곳을 알겠네
 청산의 백운 속에서 만났을 때
 백 그루 매화가 온 집을 둘렀었지

煙蘿早識遂衣初
 不問曾知叔度居
 相見靑山白雲裏
 百樹梅花擁一廬

4

푸른 봄날 짝하여 돌아가는 길에
 장차 산음에서 배를 하나 마련하리라
 봄바람 불 때 매화 앞에서 취할 수 있다면
 숲에서 자는데 어찌 마음이 朗州에 이르리오

行伴靑春歸居路
 將具一棹山陰舟
 東風若借梅前醉
 林宿何心到朗州

유재의 부채시에 추후 화운함 [절구3수] 追和留齋扇面示韻三絶

1

초서가 쓰인 저 사랑스러운 둥근 부채는
 장군의 화려한 누각에서 내게 부쳐왔네

愛他團扇草書開
 寄自將軍畫閣廻

211) 수초의 뜻 :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에 돌아와 숨어 살겠다는 뜻의 노래인「遂初賦」를 말한다.晉의 孫綽이 십여 년 동안 산수를 유람한 뒤에, 산림에 은거하려고 마음먹은 처음의 뜻을 마침내 이루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遂初賦」를 지은 고사가 있다. 『晉書』 卷56 「孫綽傳」.

212) 그대 : 李時憲을 가리킨다. 원문의 ‘叔度’는 李時憲의 號이다.

더운 날 깊은 산 속 떠 집에서
 맑은 바람 얼굴에 불어오니 고인이 오신듯

暑日深山筓屋下
 清風一面故人來

2

그대는 요사이 시와 술을 누와 함께 했는가
 서풍에 병 든 몸 일으켜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렸네
 아득히 바다 동쪽 누대에 달이 떠오를 때면
 화려한 주렴에서 나를 부르는 소식이 있을 줄 알겠네

詩樽近日共誰開
 病起西風首幾回
 遙想海東樓上月
 知應有信畫簾來

3

병중에 피어난 국화가 다 지니
 또 강남에 시월이 돌아왔네
 냉랭한 집에 이불을 안고 끊어진 꿈을 찾으니
 눈이 오려는지 창을 치며 북풍이 불어오네

黃花落盡病中開
 又見江南十月回
 冷屋擁衾尋斷夢
 打窓雪意北風來

9) 丙午(1846)

서호에 배를 띄움 泛西湖

병오년(1846) 5월 丙午五月

호수 가운데 돌섬은 나룻배만큼 작고
 대숲과 향기로운 난초는 푸른빛이 흐르네
 먼 포구에 이는 차가운 물결을 앉아 대하니
 석양에 배 돌려 長洲로 돌아오네

湖心石嶼小如舟
 叢竹芳蘭翠欲流
 坐待寒潮生遠浦
 夕陽回棹下長洲

지주가 차운한 벽상시에 화답함 8월 和地主次壁上韻八月

지주는 민형재²¹³)이며 자호는 광릉조수이다. 地主閔馨在自號廣陵釣叟

1

雲亭은 취정 안에서 취한 듯 하고

雲亭如醉醉亭中

산수의 흥취 깊어지니 술의 공이 줄어드네

山水興深減酒功

태수의 풍류는 고금에 있었으나

太守風流今古在

廬陵²¹⁴)이 어찌 광릉옹과 같으리오

廬陵何似廣陵翁

2

平泉의 유업²¹⁵)이 백운동에 있으니

平泉遺業白雲中

감히 선인의 공을 자신의 공으로 여기라

敢把先功作己功

대대로 여전히 안분지족을 지켜며

世守猶爲於分足

평생 나물 캐고 고기 잡으며 달갑게 늙어가리

百年甘老採漁翁

213) 민형재(1789~1855) : 본관은 驪興, 자는 魯瞻이다.

214) 여릉 : 北宋 때의 歐陽脩는 吉州 廬陵 사람인데, 그가 쓴 「醉翁亭記」에 “태수는 누구인가? 여릉 사람 구양수이다. 太守謂誰 廬陵歐陽脩也”라 하여 자신이 여릉 출신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古文眞寶·後集』 卷6.

215) 평천의 유업 : 平泉은 唐 宰相 李德裕의 별장인 平泉莊이다. 그는 「平泉山居戒子孫記」에서 “후대에 이 평천을 파는 자는 내 자손이 아니며, 평천의 나무 하나 돌 하나를 남에게 주는 자는 훌륭한 자제가 아니다. 後代鬻平泉者, 非吾子孫也, 以平泉一樹一石與人者, 非佳子弟也.”라며 자손을 경계하는 글을 남겼다. 『事文類聚·續集』 卷9 「居處部·園池」.

10) 丁未(1847)

북창으로 가는 길에서 北倉路中

천리 길도 겨우 백리가 남았는데	千里之途纔百里
바닷바람과 산비가 더욱 힘들게 하네	海風山雨惱人多
다만 모름지기 힘써 앞길을 향해 나아가면	但須努力能前進
흡사 도성의 봄꽃을 보는듯하네	恰見長安二月花

하류천(216)으로 가는 도중에 한식을 맞음 下柳川途中寒食

한식날 도성에서 꽃을 보지 못하고	洛城寒食不見花
봄빛은 무정하게 나그네 길에 저무네	春色無情客路斜
집을 둘러싼 천 그루의 매화가 피어나는 곳	繞屋千株梅發處
동풍에 머리 돌려 고향의 산천을 꿈꾸네	東風回首夢鄉山

하석정(217)에서 하석(218) 어른의 시운에 화답함 霞石亭和霞丈韻

1

시냇물 흐르는 흰 돌에 마음을 비추니 맑아지고	川流白石照心清
더욱이 봄빛에 태양이 아름다워라	又是春光麗日明
고인의 風浴하던 뜻(219)도 이와 같았으리니	古人風浴應如許

216) 하류천 : 수원천이 지나가는 세류동에 정조 때 세운 上柳川·下柳川라는 도로 표지석이 있다

217) 하석정 : 成近默이 1839년에 과천 서쪽의 관악산 남쪽 紫霞洞에 지었던 정자이다.

218) 霞石 : 조선 후기의 문신 成近默의 號이다.

219) 풍욕하던 뜻 : 원문의 ‘風浴’은 ‘風浴宜時節, 冠童共詠歌.’로,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의 포부를 물었을 때 子路·冉有·公西華는 현실 정치와 관련된 뜻을 밝힌 데 반해 曾點은 “늦봄에 봄옷이 완성되면 어른 대여섯 사람과 아이 예닐곱 사람과 함께 沂水에서 목욕하고 舞雩에서 바람 쐬고

저절로 그윽한 흥취가 앓은 곳에서 생겨나네

不覺幽興坐處生

2

풀로 엮은 누간은 작은 시냇가에 정정하게 서있고
 봄바람은 자줏빛 하늘에서 불어오네
 泉石에 앉아 있으니 예전부터 아는 듯하여
 강남의 고향집 꿈처럼 아득하네

草閣亭亭小澗邊
 東風詠入紫霞天
 坐來泉石如曾識
 家在江南夢黯然

천석이 월출산과 비슷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泉石如月出山故云

원운 原韻 성근묵 成近默

호는 하석이다 號霞石

1

산 그림자는 유난히 수면을 좇아 맑아지고
 봄빛은 먼저 초심을 향해 밝아지네
 벗이 찾아오면 반드시 흥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흥취는 자연스레 풍경 따라 생겨나네

山影偏從水面清
 春光先向草心明
 朋來未必緣乘興
 興味自然隨境生

2

물가의 바위 언덕에 한가로이 앉아있으니
 온화한 바람 따뜻한 해가 봄날 일세
 시름겨운 나는 글재주가 없지만
 참뜻²²⁰⁾이 이 사이에서 활발해지네

閑坐巖阿澗水邊
 和風暄日屬春天
 愁人未解談文字
 眞意此間活潑然

노래하며 돌아오겠다. 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十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 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無慾의 경지를 말한 바 있다. 『論語』「先進」.

초남정에서 밤에 술을 마심 草南亭夜飲

붉은 꽃 푸른 잎 울긋불긋 도성의 봄날에
호롱불을 켜고 두 세 명이 대작하네
나그네 회포 각각 강남의 꿈을 말하며
청명절이 다 지나도 도성에 머물러 있네²²¹⁾

淺綠深紅洛水春
篝燈對酌兩三人
羈懷各說江南夢
過盡清明尙滯秦

공주 쌍수산성²²²⁾에서 公主雙樹山城

나루터 푸른 산머리 외로운 성은
호서지방 오십 고을을 웅진하고 있네
나무 그림자 따라 스님은 靈隱寺²²³⁾로 돌아가고
강물소리 들으며 객은 월파루에 앉았네
둥근 모래밭에 지는 해 붉은빛이 물들고
가파른 벼랑에 지는 노을 푸른빛이 흐르네
성대의 태평함에 변방도 고요하니
다만 관현으로 시 읊조리며 승경 찾아 유람하네

渡頭孤城碧山頭
雄鎮湖西五十州
樹影僧歸靈隱寺
江聲客坐月波樓
圓沙落日紅留暈
懸壁殘霞翠欲流
聖代昇平邊警息
管絃只作選勝遊

고향으로 돌아가는 임수재를 송별함 送別林秀才還鄉

1

220) 참뜻이 : 陶淵明의 「飲酒」에 “산기운은 조석으로 아름답고 나는 새는 서로 함께 돌아오네. 이 가운데 자연의 참뜻이 있는지라. 변론하려고도 이미 말을 잊었네. 山氣日夕佳, 飛鳥相與還. 此中有眞意, 欲辯已忘言.”라 하였다. 『陶淵明集』 卷3.

221) 도성에 머물러 있네 : 원문의 ‘秦關’은 秦나라의 수도인 함양의 관문인데 일반적으로 수도를 뜻한다. 즉 벼슬을 하기 위해 한양에 와서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222) 쌍수산성 :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백제시대 산성. 백제 당시에는 웅진성이라고 불렀으나 고려시대 이후에는 공산성이라고 불렀으며, 조선 인조 이후에는 쌍수산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223) 靈隱寺 :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쌍수산 공산성 내에 있는 사찰이다.

어렸을 적 이경 사이에서 유학 할 때
 천리를 책상자 메고 홀로 오고 갔네
 내일이면 고당에서 아버지께 가르침을²²⁴⁾ 받을테니
 동풍에 다시는 고향을 꿈꾸지 않으리라

童年遊學二京間
 千里擔簞獨往還
 明日高堂趨鯉對
 東風休復夢鄉山

2

남산²²⁵⁾에서 봄 술에 취했다가 깨는 사이에
 천리 길에 서로 만나 몇 마디 나누고 돌아가네
 오늘 고향집²²⁶⁾에 돌아가 뵈는 날이니
 은근히 월출산 찾아 주길 바라네

終南春酒醉醒間
 千里相逢數語還
 此日蘭庭歸拜日
 慙慙來訪月出山

김수재의 시축에 있는 시에 화운하여 줌 和贈金秀才軸中韻

누가 영문의 陽春歌²²⁷⁾를 알리오
 곡중에 다만 청산이 많이 보이네
 풍수가는 일찍이 玉龍의 비결을 전하였고²²⁸⁾
 보주를 타고 일찍이 達摩의 파도를 건넜네
 知者和 仁者の 즐거움²²⁹⁾은 어떠한가

陽春誰識郢門歌
 只見青山曲中多
 堪與早傳玉龍訣
 寶舟曾渡達摩波
 智仁所樂云如許

224) 아버지께 가르침을 : 아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한다. 孔子가 혼자 서 있을 때 그의 아들 孔鯉가 종종걸음으로 뜰 앞을 지나가자 孔子가 문기를 “詩를 배웠느냐?” 하니, 孔鯉가 대답하기를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孔子가 말하기를 “詩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니, 孔鯉가 물러가 詩를 배웠다. 『論語』「季氏」.

225) 남산 : 원문의 ‘終南山’은 周나라 도성인 鎬京의 남쪽에 있는 산인데, 후세에는 모든 도성의 남산을 終南山이라 칭한다.

226) 고향집 : 원문의 ‘蘭庭’은 상대방의 집을 뜻한다

227) 陽春歌 : 『陽春白雪歌』의 줄임말로, 본디는 戰國 시대 楚나라의 고아한 歌曲을 말하는데, 흔히 고아한 정취가 담긴 詩文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옛날 楚나라 郢에서 노래를 잘하는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下里」나「巴人」같은 보통의 유행가를 불렀는데, 수백 명이 따라서 합창하였다. 그러나 정도가 높은 노래를 부르니 불과 10여 명만 따라 부르고, 「陽春歌」나「白雪歌」같은 최고급의 노래를 부를 적에는 따라 부르는 자가 아예 없었다고 한다.

228) 옥룡의 비결 : 신라 말기의 고승인 玉龍子 道詵이 지었다고 하는 『玉龍秘記』를 가리키는데, 그 내용이 玉龍子十勝之地秘訣, 十勝之地外論保身山水之所, 玉龍秘訣, 玉龍子記, 玉龍子詩, 玉龍子靑鶴洞訣 등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복의 유래도 자신에게 달려 있네
 천지는 비밀을 감춤에 사사롭지 않으나
 공정한 마음으로 말해 주는 것이 어떠하리

禍福由來亦任他
 天地無私藏秘物
 公心說與更如何

김수재의 자호가 백운거사인 까닭에 장난삼아 시를 지어 보냄
金秀才自號白雲居士故戲贈

한 골짜기 백운이 백운을 관리하니
 스스로 백운거사라 이르네
 천산을 유람하는 데는 참으로 주인이 있는 법
 백운이 곳곳에서 항상 그대를 따르리라

一洞白雲管白雲
 自以白雲居士云
 筇屐千山真有主
 白雲處處長隨君

또 그 시에 화운함 又和其韻

표표히 세속을 벗어난 나그네
 부처도 아니고 신선도 아닐세
 꿈은 천산이 모인 곳에 떨어지고
 마음은 조각달 걸린 곳에 허명하네
 다섯 번 풍악산의 천석을 노래했고
 세 번 한라산의 하늘을 읊었었지
 석실에서 사흘 밤 나눈 이야기
 함께 온 것이 어찌 우연이었으리

飄飄塵外客
 非釋又非仙
 夢落千山合
 心空片月懸
 五題楓嶽石
 三詠漢擎天
 石室三宵話
 偶來豈偶然

오계에게 장난삼아 지어 보냄 戲寄梧溪

요사이 오직 들췌 아이로 걱정이 많아

近日惟憂在仲兒

229) 知者和 仁者の 즐거움 : 『論語』 「雍也」에 “지혜로운 이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이는 산을 좋아한다. 知者樂水, 仁者樂山.”라는 말이 나온다.

지척인데도 서신이 또한 더디구려
 봄부터 삼천리 먼 길 함께 하자던 약속
 하루 종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네
 옛 상자 속 서책은 얼마나 읽었으며
 날이 맑은 날 모는 얼마나 옮겨 심었나
 한번 찾아가 남은 인연을 모두 잊고자
 초라한 몇 줄 글로 예를 갖추지 못하네

咫尺音書亦徐遲
 自春共作三千里
 無日不思十二時
 舊篋書能多少閱
 新晴秧得幾何移
 都希一訪餘緣續
 草草數行不備儀

몽해 김씨 벗의 시에 차운함 次夢海金友韻

사흘 밤 돌 마루에 누워 마음을 논하니
 은둔하며²³⁰⁾ 한가로운 마음 늙을수록 깊어지네
 칠 대째 시서를 강진에 전해 주며
 백년 골짜기에서 운림을 가까이 하네
 호수의 백구는 동실동실 파도를 타고 나와 동맹을 맺고
 해학은 너풀너풀 날아와 나를 찾아 큰 뜻을 함께 하네
 海는 野로도 쓰여 있다. 海一作野
 紫芝歌²³¹⁾ 한 곡조 부르자 산이 저물려하니
 도리어 말년에 지음이 적음을 부끄러워하네

三宵石榻臥論心
 嘉遯閑情晚轉深
 七世詩書傳海國
 百年邱壑近雲林
 同盟泛泛湖鷗在
 遐意翩翩海鶴尋
 一曲芝歌山欲暮
 却羞末路少知音

오계가 봉래 부안 변산에서 산을 유람한 시축에 지음 題梧谿蓬萊扶安卞山遊山軸

1

누런 잎이 흰 대나무 사립문에 막 날리니

黃葉初飛白竹扉

230) 은둔하며 : 원문의 ‘嘉遯’은 은거하다는 뜻이다. 『周易』 「遯卦」에 “嘉遯貞吉”이라 하였고, 이에 대한 주석에서 “九五는 中正이니, 은둔하기를 아름답게 한 자이다. 처함이 中正의 道를 얻어서 때에 맞게 멈추고 행함이 이른바 아름다움이란 것이다.”라 하였다

231) 紫芝歌 : 秦 말기에 東園公·綺里季·夏黃公·甬里先生 등 네 노인이 폭정을 피해 商山에 들어가서 은거하였다. 이때 그들이 지어 불렀다는 노래이다. 『樂府詩集』 卷58 「琴曲歌辭」.

맑은 서리가 碧蘿衣²³²에 스며드네
가련타 십년간 봉래산 호수의 꿈이여
참다운 모습의 풍경 그대가 돌아오길 기다렸으리

清霜欲透碧蘿衣
可憐十載蓬湖夢
眞面風光待子歸

2

저물녘에 달 가운데 사립문을 두드리니
蓬壺²³³의 구름과 노을이 아직도 옷을 적시네
시 주머니를 열어 먼저 호해의 시구를 찾으니
서풍에 한껏 시를 읊고서 돌아왔도다

黃昏來叩月中扉
蓬壺雲霞尙濕衣
解橐先尋湖海句
西風剩得詠而歸

3

石門²³⁴의 물빛이 붉은 사립문에 비치니
참으로 속세에서 옷을 털어내려 하네
고래를 타고 간 신선²³⁵을 부를 수 없으니
다만 구름을 소매에 가득 채워 돌아가네

石門水色映紅扉
眞向人間欲拂衣
騎鯨仙子招靡得
只拾雲根滿袖歸

4

청산은 백운동 사립문에 은은히 비치고
단풍의 가을빛은 나그네의 옷자락에 오르네
늦게 피어난 국화가 기다리고 있는 듯 하니
거문고 애기와 차 꿈으로 돌아갈 필요 없으리

靑山隱映白雲扉
紅樹秋光上客衣
晚吐黃花如有待
琴談茶夢不須歸

232) 碧蘿衣 : 칠푼굴로 만든 옷이라는 말인데, 산에 숨어 사는 處士들의 옷을 말한다.

233) 蓬壺 : 부안 蓬萊山과 구례 智異山을 가리킨다.

234) 石門 : 전라남도 강진군의 도암면 석문리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235) 고래를 타고 간 신선 : 李白이 일찍이 采石江에서 취중에 뱃놀이하다가 달을 잡으려고 물에 뛰어 들어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에서, 전하여 李白의 별칭으로 쓰인다.

봉림 종인을 위한 만가 挽鳳林宗人

오복 중에 첫째가 장수인데
 인생에서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칠순도 오히려 드문 일이거늘²³⁶⁾
 팔순은 기약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께서는 이런 장수를 누리셨으니
 덧없는 인생살이 다시 무엇이 슬프리오
 다만 제가 스스로 상심하니
 이 뜻을 공께서는 응당 아시겠지요
 온 세상이 명리에 나아가니
 사도가 오래도록 쇠퇴하였습니다
 공께서 유독 이에 개탄하시며
 이른 나이에 어진 스승을 따르셨습니다
 연원이 진실로 점차 이루어지시니
 선비의 바람이 참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빈궁한 생활 오십년에
 바르고 굳게 홀로 자신을 지키셨습니다
 누가 알았으리 초야에서
 이런 훌륭한 자제²³⁷⁾의 자질이 있을 줄을
 자사가 알지 못하여
 벼슬도 천거하지 못했습니다
 공에게는 부족할 것 없으나
 다만 시대를 개탄할 뿐입니다
 의관은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지업을 누가 따르리오
 적막한 鳳林 고향에²³⁸⁾

五福一日壽
 人生最難斯
 七十尙云稀
 八耄非易期
 公能享此壽
 浮生更何悲
 獨我竊自傷
 此意公應知
 舉世趨名利
 斯道久專衰
 公獨慨於是
 早歲從賢師
 淵源固有漸
 士望良在茲
 貧窮五十年
 貞固獨自持
 誰知草澤裏
 有此芝蘭資
 刺史不能聞
 一命未有施
 非足慊於公
 只堪慨于時
 衣冠返故丘
 志業有誰追
 寂寞鳳林洞

236) 칠순도 …… 일이거늘 : 唐 杜甫의 「曲江」에 나오는 “人生七十古來稀”에서 유래한 말이다.

237) 훌륭한 자제 : 원문의 ‘芝蘭’은 썬나라 때 큰 문벌을 이루었던 謝安이 子姪들에게 “어찌하여 사 람들은 자기 자제가 출중하기를 바라는가?” 하고 묻자, 조카 謝玄이 “비유하자면 마치 芝蘭과 옥 수가 자기 집 뜰에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한 데서 유래하였다. 『晉書』 卷79 「謝安列傳」.

아는 자는 공연히 한탄합니다²³⁹⁾
 운산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영전에 곡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사로 한 바탕 애곡을 대신하니
 간절한 마음 가득 만사에 채웁니다
 바람결에 눈물 금할 수 없으니
 宗人의 사사로움 때문은 아닙니다

知者空齋咨
 雲山稍隔越
 未能哭靈輻
 蕭歌當一哭
 亶亶滿幅詞
 臨風不禁淚
 非獨吾宗私

11) 己酉(1849)

조암²⁴⁰⁾에게 화답함 和鈞巖

내 의관을 단정히 하고 용모를 엄숙히 하여
 밤기운이 짙을 때 홀로 丹田을 지키노라
 거울을 거둬 닦아도 미추는 달아나지 못하고
 종을 치지 않아도 소리는 본디 있는 법²⁴¹⁾
 虛명한 마음이 三才의 주인이니
 동작하는 사이에 온 몸이 마음을 따르도다
 잘 간직하여 잃지 않음이 가장 좋으니
 봄바람에 항상 太和의 기운에 취하리라

整余冠服斂余容
 獨保丹田夜氣濃
 妍醜莫逃重磨鏡
 聲音固在未撞鐘
 虛明這處三才主
 動作中間百體從
 持守最宜無放失
 春風常醉太和醲

238) 鳳林 : 강진군 움천면 봉림리를 말한다.

239) 한탄합니다 : 『周易』「萃」에 上六은 한탄하면서 눈물과 콧물을 흘림이다. 上六 齋咨涕洟라는 내용이 있다.

240) 조암 : 『自怡先生集·坤』에 조암죽숙에게 쓴 제문에 하석 성근목이 만사를 지어줬다는 내용이 있다.

241) 종을 ……있는 법 : 문답을 통해 학문이 진보하는 것을 가리킨다. 『禮記』「學記」에 “질문을 잘 기다리는 자는 종을 치는 것과 같아서 작은 것을 두들기면 작게 울리고 큰 것을 두들기면 크게 울리니, 조용해지기를 기다린 연후에 그 소리를 다할 수 있다. 답문을 잘하지 못하는 자는 이와 반대이니, 이것이 학문을 진보시키는 방도이다. 善待問者，如撞鐘，叩之以小者則小鳴，叩之以大者則大鳴，待其從容，然後盡其聲。不善答問者反此，此皆進學之道也。”라 한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벗 김오계가 비로 간혔을 때 지은 시에 화답함 和梧溪金友滯雨時作

봄날 석 달 중에 두 달을 이미 보내고
 나그네 시름에 비를 근심하며 쓸쓸히 앉았네
 이곳에서 山水에 한껏 취해
 花鳥를 게을리 읊으니 비는 상관이 없네
 머리 숙여 홀로 마음을 논하는 벗에게 절하고
 손 가는대로 다만 잠 오게 하는 책을 뒤적이네
 애석하게도 내일 아침이면 서로 헤어져야 하니
 의지할 곳 없는 시든 꽃만이 새벽바람에 남아 있네

春色三分二已虛
 客愁愁雨坐蕭如
 剩醉溪山惟在此
 倦吟花鳥不關渠
 低頭獨拜論心友
 信手徒翻引睡書
 可惜明朝相分地
 殘紅無賴曉風餘

분국 10수로 회사에게 화답함 盆菊十首和晦沙

風蘭을 보내고 눈 속 매화는 아직 피지 않아
 서리를 막으려 작은 화분에서 피웠네
 가을 모습은 옥 이슬 받아 흠뻑 자라나고
 화려한²⁴²⁾ 金箋紙는 잘라 놓은 듯 아름답네
 沙界²⁴³⁾에 빛을 발하니 신령한 부처가 나타난 것 같고
 圮橋²⁴⁴⁾에서 약속했던 늙은 신선이 찾아온듯하네
 주인翁의 기품과 원래 같은 품격이니
 세 번 향기 맡고²⁴⁵⁾ 한 번 꽃잎을 머금으며 즐기리라

斷送風蘭隔雪梅
 霜花護得小盆開
 秋容玉露潛滋養
 宮樣金箋巧剪裁
 沙界放光靈佛現
 圮橋留約老仙來
 主翁氣味元同品
 三嗅一餐亦快哉

242) 화려한 : 원문의 ‘宮樣’은 宮中에 유행하는 服裝의 樣式이란 뜻으로, 전하여 화려함을 의미한다.
 243) 沙界 : 불교 용어인 娑婆世界의 준말로, 衆生이 온갖 고통을 겪으며 사는 이 세상을 가리킨다.
 244) 圮橋 : 장량이 下邳의 圮橋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이 신발을 이고 밑으로 떨어뜨리고는 장량으로 하여금 주워오게 하였다. 이에 장량이 신을 주워다가 노인에게 신기자, 그 노인이 장량에게 『太公兵法』을 주었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245) 향기 맡고 : 杜甫의 「秋雨嘆」에 “마루 위의 서생은 공연히 머리만 세었을 뿐, 바람결에 몇 번이나 향내 맡으며 우노라. 堂上書生空白頭, 臨風三嗅馨香泣.”라는 구절이 나온다. 『杜少陵詩集』 卷3.

두 번째 시 其二

난초를 차고 연잎 옷을 입고²⁴⁶⁾ 국화와 인연을 맺어
가을이 오니 초사의 이소편을 소리 높여 읊네
저 가을 기운²⁴⁷⁾에 묻노니 찬 기운 어떠할고
풍상을 견디느라 여위어 가련하네
색보에 실린 품목의 향기가 다양하니
화려한 못에 혼이 돌아와 물이 졸졸 흐르네²⁴⁸⁾
몇 떨기를 비녀에 꽂아 가절에 수창하려 하니
꽃 또한 응당 백발에 오르는 걸 부끄러워하리

蘭珮荷衣結菊緣
秋來高詠楚騷篇
稟他金氣寒如許
耐得霜風瘦可憐
色譜品題香種種
芳潭魂返水涓涓
欲簪數朶酬佳節
花亦應羞上雪顛

세 번째 시 其三

重陽節 술 마시며 西京²⁴⁹⁾의 풍속을 본받고자
일어나 금분 곁으로 가니 눈이 유독 밝아지네
아침 해 뜨면 울타리에서 켤 필요 없겠고
서릿바람에 술기운이 한껏 깨는듯하네
설마 아름다움이 봄의 자태만을 따르리오
나의 그윽한 곧음과 함께 세상의 정을 끊었도다
백발에 맑은 마음²⁵⁰⁾ 꽃 아래 늙어가리니
세 밑에 참된 흥취 늘그막의 교유를 이루었도다

重陽對酌效西京
起傍金盆眼獨明
朝日不須籬下採
霜風剩得酒中清
寧渠媚態隨春態
併我幽貞絕世情
霜鬢冰心花下老
歲暮眞趣晚交成

246) 난초를 …… 입고 : 은자의 생활을 말한다. 『楚辭』 「離騷」에 “가을 난초를 꿰어서 패물로 삼고 紉秋蘭以爲佩”, “연잎을 잘라 저고리 만들고, 연꽃을 모아 치마를 만든다네. 製芰荷以爲衣兮, 集芙蓉以爲裳.”라 하였다.

247) 가을 기운 : 金은 四時 중 가을에 해당하여 원문의 ‘金氣’는 가을 기운을 뜻한다.

248) 졸졸 흐르네 : 『荀子』 「法行」에 “졸졸 흐르는 근원이 있는 샘물이며, 막힘없이 끝없이 흘러 퍼 지리라. 涓涓源水, 不離不塞.”라는 逸詩가 나온다.

249) 西京 : 後漢이 도읍을 洛陽으로 옮기고 나서 前漢의 도읍이었던 長安을 가리켰던 말로 후세에 前漢 시대를 대신 칭하는 말로 쓰인다.

250) 맑은 마음 : 원문의 ‘冰心’은 상대방의 맑고 깨끗한 마음을 말한다. 唐 시인 王昌齡의 「芙蓉樓送辛漸」에 “낙양의 친구가 만약 묻거든, 한 조각 빙심이 옥호에 있다고 하게나. 洛陽親友如相問, 一片冰心在玉壺.”라 하였다.

네 번째 시 其四

한사와 한화의 자취는 본래 같아서
 형체를 잊고 함께 대하니 허공처럼 담박하여라
 색과 향기를 아울러 얻어 마음도 함께 동화되고
 마음이 서로 맞으니 뜻이 바로 융화되네
 홀로 못 꽃들보다 뒤에 피어 속세를 벗어나니
 어여쁘다 유독 아름다운 덕은 黃中²⁵¹)을 부여 받았네
 나의 시 花先賦를 이루지 못했는데
 시구가 말없이 저절로 공교하여라

寒士寒花跡本同
 忘形共對澹如空
 色香并得心俱化
 氣味相求意便融
 獨殿群芳超物外
 偏憐美德稟黃中
 我詩未就花先賦
 句在無言也自工

다섯 번째 시 其五

너를 서리 아래 傑物²⁵²)이라 부름이 가장 마땅하리니
 서풍에 한 바탕 옷자 호방한 정취가 일어나네
 가을의 모습은 향기로운 봄꽃에 필적할만하고
 만년의 절조에서 항상 吉士의 곧음을 볼 수 있네
 홀로 서등을 짝하여 추위에 잠들지 않으니
 또한 주렴에 밝은 달 머물러 괴로이 빛나네
 예로부터 隱逸者²⁵³)는 더욱 아름다운 호칭이니
 고관의 훌륭한 벼슬 응당 부끄러워하리라

喚爾最宜霜下傑
 西風一笑動豪情
 秋容肯逐芳春艷
 晚節常看吉士貞
 獨伴書燈寒不睡
 且留簾月苦爲明
 從來隱逸尤佳號
 朱紫應羞做好卿

251) 黃中 : 『周易』 「坤卦 文言」에 “황을 내면에 갖추고서 이치에 통달한다. 黃中通理”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黃은 土와 中央의 색으로, 中을 뜻한다.

252) 서리 아래 傑物 : 국화꽃을 가리킨다. 陶淵明의 「和郭主簿」에 “향기로운 국화는 숲 사이에 활짝 피고, 푸른 소나무는 바위 위에 줄지었네. 소나무는 곧은 절조 가슴에 품고, 국화는 서리 아래 걸물이 되었도다. 芳菊開林耀, 青松冠巖列. 懷此貞秀姿, 卓爲霜下傑.”라 하였다. 『陶淵明集』 卷2.

253) 隱逸者 : 宋나라의 周敦頤가 쓴 「愛蓮說」에 “국화는 꽃 중의 隱者이고 모란은 꽃 중의 부귀한 자이고, 연꽃은 꽃 중의 군자이다. 菊, 花之隱逸者也. 牡丹, 花之富貴者也. 蓮, 花之君子者也.”라 하였다.

여섯 번째 시 其六

병매와 같이 분국을 보호하려
 북에서 눈 내리니 향남으로 옮겨 두네
 중앙절을 건디며 오직 그대만이 남아 있으니
 활짝 핀 그대를 위해 웃음을 아끼지 않으리라
 꽃과 함께 은일하여 온통 자신을 잊었으니
 이슬을 먹고 홀로 깨어 술잔이 필요치 않네
 오묘한 시의 뜻을 늙은이 자득하여
 혼을 불어 넣는²⁵⁴⁾ 구법이 그림 속에서 만들어지네

護得盆菊似瓶梅
 移置香南雪北來
 堪作重陽惟汝在
 休慳一笑爲君開
 與花俱隱渾忘我
 啜露獨醒不用杯
 妙處詩情翁自得
 傳神句法畫中裁

일곱 번째 시 其七

참된 향기와 참된 빛으로 색향을 모두 갖추니
 차가운 달빛아래 서편 곁채에서 미인을 보는 듯
 세속의 슬픔을 쓸어내고 초연히 홀로 서 있고
 빼어난 자태를 길러 결코 견줄 데 없네
 여원 매화와 나란히 동료가 될 만하고
 요염한 복사꽃²⁵⁵⁾ 차갑게 대해 하인 보듯 하네
 설어로는 품격을 평론할 수 없으니
 粉으로 단장하지 않아도 새로운 모습이네

眞香眞色色香俱
 霜月西廂見美姝
 掃却時粧超獨立
 養生逸態絕雙無
 比肩梅瘦堪寮友
 冷眼桃夭視僕夫
 藝語未能評品格
 莫將粉脂作新局

254) 혼을 불어 넣는 : 원문의 ‘傳神’은 그림, 그중에서도 특히 인물화를 그리는 것을 말한다. 쯔의 저명한 화가 顧愷之가 초상화를 그리면서 몇 년 동안 눈동자를 찍지 않자, 그 이유를 물으니, “그림 속에 정신을 전해서 살아나게 하는 것은 바로 눈동자 속에 있기 때문이다. 傳神寫照, 正在阿堵中.”라 대답했다는 고사가 있다. 『世說新語』 「巧藝」.

255) 복사꽃 : 『詩經』 「周南」 편에 “싱싱한 복숭아나무, 꽃이 활짝 피었도다. 그녀 시집감이여, 집안 살림 잘 하리라. 桃之夭夭, 灼灼其華. 之子于歸, 宜其室家.”라 하였다.

여덟 번째 시 其八

비가 개인 파아란 하늘에
 아름다운 마음과 그윽한 끈음이 참으로 사랑스럽구나
 병든 몸으로 즐겨 보며 잠을 이루지 못하니
 외로운 등불이 썰렁한 집에 고요히 비치네
 차가운 맹세를 맺어 더불어 더디게 늙어가며
 맑은 성품 길러 간직하여 숙된 아름다움이 싫어지네
 너를 위해 읊조리고 너를 위해 마시리니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취기가 도네

輕蒼瓷色雨餘天
 芳意幽貞儘可憐
 病枕耽看爭不睡
 孤燈寂照冷無煙
 寒盟結與同遲暮
 水性養存厭俗妍
 爲汝沈吟爲汝飲
 形神并得卽醺然

아홉 번째 시 其九

鶴翎²⁵⁶과 鷺翅는 품제가 친근하여
 남국의 기이한 자태는 세속에서 벗어났네
 蘭士와의 맹세가 깊으니 풍취가 같고
 橘仙과의 인연²⁵⁷이 거듭되니 심신을 바치네
 가을 중앙절에 편지가 왔는데
 세모에 국화 따는 이 만나기 어려워라
 내 유독 회사 고미용을 좋아하여
 열편의 시를 읊으며 그 참됨을 그려보네

鶴翎鷺翅品題親
 南國奇姿迥絕塵
 蘭士盟深同氣味
 橘仙緣重贈形神
 秋來有信重陽日
 歲暮難逢採雪人
 獨愛晦沙高士舍
 十篇吟哢寫其眞

256) 학령 : 국화의 품종을 일컫는데 紅鶴翎·黃鶴翎·白鶴翎 세 품종을 三鶴翎이라고 한다.

257) 굴신과의 인연 : 옛날에 巴耶 사람이 자신의 橘園에 대단히 큰 굴이 열렸기에 이를 쪼개어 보니, 그 속에 백발의 두 노인이 서로 마주 앉아 바둑을 두면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노인이 “굴 속의 즐거움은 商山에 뒤지지 않는다.”라 말했다는 고사가 있다. 『玄怪錄』「巴耶人」.

열 번째 시 其十

詩의 경지와 꽃의 뜻을 서로 주고받으며
 깨끗한 종이 얻어 그대의 편지²⁵⁸)에 화답하네
 풍상을 겪은 대범함을 사랑하여
 달빛에 이슬을 머금은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노라
 풍류와 아량이 가을 뒤 선비를 황홀하게 만나니
 그대의 마음이 歲寒의 집에 들어오는 듯하네
 시를 보며 향기 맡는 법이 있으니
 화려한 화분에 국화 기를 필요 없으리라

詩境花情互映遮
 雪箋剩得朶雲加
 愛他傑傑風霜骨
 施以娟娟月露華
 流雅悅逢秋後士
 情懷如入歲寒家
 臨詩我有香觀法
 不必金盆養菊花

구포에서 만덕사²⁵⁹)로 가는 길에 自九浦向萬德寺

두 어 명의 벗과 함께 승경을 찾아 나서니
 가벼운 바람과 맑은 해 때마침 봄날이로다
 들꽃에 나비 날아드니 꽃의 뜻이 넘쳐나고
 강풀에 제비 날아오니 풀의 뜻이 젖어드네
 白蓮社²⁶⁰) 구름 걸린 나무 밖에서 종소리 울리고
 단풍 든 호수에 석양빛으로 돛단배 돌아오네
 錦囊²⁶¹)에 사람 놀라게 할 시구 부족함을 부끄러워하고
 승경을 만나 공교하지 못한 시어를 다듬어야하리

探勝二三子與同
 輕風映日屬春空
 野花蝶夢紅情惱
 江草鶯飛綠意融
 蓮社暮鐘雲樹外
 楓湖歸帆夕陽中
 錦囊愧乏驚人句
 境到宜工語未工

세심암²⁶²)에서 머무름 宿洗心菴

258) 그대의 편지 : 원문의 ‘朶雲’은 상대방의 편지에 대한 경칭이다.

259) 만덕사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만덕산에 있는 백련사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260) 白蓮社 : 원문의 ‘蓮社’는 東晉의 고승 慧遠이 僧俗의 18賢과 念佛 結社를 맺었는데, 그 사찰의 연못에 白蓮이 있었으므로 白蓮社 혹은 줄여서 蓮社라고 일컫게 되었다. 이 시에서는 강진 萬德寺인 白蓮社를 가리킨다.

261) 금낭 : 훌륭한 시를 뜻한다. 唐 李商隱의 「李長吉小傳」에 의하면, 長吉이 諸公과 놀러 나갈 때마다, 어린 종복 奚奴이 오래되고 허름한 錦囊 古破錦囊을 등에 지고 그 뒤를 따라 다녔는데, 長吉이 새로운 시를 짓고 나면 곧장 그 錦囊 속으로 던져 넣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선방에서 스님과 더불어 머무르며
 마음의 티끌 씻어내니 생각마다 공적하네
 어두운 골짜기 구름 돌아가니 맑은 밤 고요하고
 수풀의 새의 꿈에 봄날이 무르익네
 허명한 밤빛이 창가에 그윽하고
 작은 암자엔 佛燈이 과랴게 빛나네
 깨끗한 곳에서 인연을 맺어 속된 말 없으니
 새로운 시를 지어 각 각 숨씨를 자랑하네

禪房寄宿與僧同
 洗得塵心念念空
 冥壑雲歸清夜靜
 叢林鳥夢一春融
 虛明夜色幽窓下
 青熒佛燈小广中
 淨界結緣無俗語
 新詩題破各誇工

다산과의 옛 일을 생각함 茶山感舊

뽕 밭이 푸른 바다 되 듯 삼십년 만에 내 다시 오니
 菘上的 仙翁²⁶³께서는 돌아오질 않네
 훌쩍 떠나셨으나²⁶⁴ 흔적은 아직도 ‘丁石’²⁶⁵에 있고
 해운의 산달이 그를 위해 배회하네

滄桑卅載我重來
 菘上仙翁去不廻
 泥爪尙留丁石在
 海雲山月爲徘徊

두 번째 시 其二

시회가 일찍이 橘園²⁶⁶에서 열렸는데
 꽃이 시들고 물이 흘러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가
 책상을 지던 소생이 지금은 백발이 되어
 봄바람 맞으며 홀로 紫霞臺²⁶⁷에 오르네

騷壇曾向橘園開
 花謝水流歲幾回
 負笈小生今白髮
 東風獨上紫霞臺

262) 세심암 : 萬德寺에 속한 암자로 茶山과 草衣가 다녀간 적이 있다.

263) 菘上的 仙翁 : 다산이 경기도 광주(지금의 양주군 조안면 능내리 소내召川 마재馬峴) 출신이다.

264) 훌쩍 떠나셨으나 : 원문의 ‘泥爪’ 세상에 대한 짐착을 버리고 아무 미련 없이 훌쩍 떠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蘇軾의 「和子由澗池懷舊」에 “인생 길 이르는 곳 무엇과 비슷하다 할까, 눈발의 기러기 발자국과 같다 하리. 우연히 발톱 자국 남겨 놓았을 뿐, 날아가면 어찌 다시 동쪽 서쪽 헤아리랴. 人生到處知何似, 應似飛鴻踏雪泥. 泥上偶然留指爪, 鴻飛那復計東西.”라는 구절이 나온다. 『蘇東坡詩集』 卷3.

265) 丁石 : 茶山草堂 석벽에 ‘丁石’이라고 두 글자가 새겨져 있다.

266) 橘園 : 강진군 굴동 마을인데, 이곳에 차나무가 많아 다산이 자신의 호를 ‘茶山’이라고 하였다.

267) 紫霞臺 : 다산초당에 있었던 누대의 이름이다.

굴동(268)을 지나며 過橘洞

붉은 꽃과 짙푸른 풀이 서로 비치고 가리우니
 호숫가 춘광이 배로 더해지네
 거듭 찾아온 청산은 옛 모습 그대로인데
 하얀 귀밑머리 보며 세월을 부끄러워하네
 종소리에 홀로 백련사의 모임을 기억하고
 풀빛은 橘洞의 인가를 온통 뒤덮었네
 오늘 올라와 굽어보며 감개가 무량하여
 동풍에 두견화를 대하며 술을 따르네

嬌紅濃綠互映遮
 湖上春光一倍加
 重到青山猶舊面
 相看白鬢媿年華
 鐘聲獨記蓮池社
 草色全迷橘里家
 此日登臨多感慨
 東風對酌杜鵑花

합장암(269) 옛터에서 삼연의 시에 차운함 合掌菴故址次三淵韻

바닷가 푸른 산 형세를 모두 거두어들이니
 석문이 불거져 나와 하늘가에 떠 있네
 용이 바위 골짜기로 돌아가 구름이 젖은 듯 하고
 우입금이 강물의 바위를 뚫은 듯(270) 물이 평온히 흐르네
 명암(271)은 저절로 아름다운 경치에 있는 듯하고
 흥망은 각각 홀로 작은 암자에 머물러 있네
 藥泉(272)이 떠난 후에 일으킨 사람이 없으니
 우리들은 헛되이 한만히 노닐 뿐이네

濱海青山勢全收
 石門斗起際天浮
 龍歸巖穴雲猶濕
 禹鑿江聲水穩流
 顯晦自如佳境在
 廢興各獨小菴留
 藥泉去後無人創
 吾輩徒能汗漫遊

산에서 돌아와 오계의 벗들에게 보냄 還山寄梧谿諸益

268) 굴동 : 다산초당이 있는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에 위치한다.

269) 합장암 : 다산 다산이 갔었던 곳으로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산 자락에 있는 암자이다.

270) 우입금이 …… 뚫을 듯 : 원문의 ‘禹鑿’은 夏禹가 홍수의 물길을 강하로 유도할 적에 “용문의 바위를 뚫고 이궤의 길을 열었다. 鑿龍門, 辟伊闕.”라는 말이 『淮南子』 「修務訓」에 나온다.

271) 명암 : 원문의 ‘顯晦’는 벼슬과 은둔 등 명암에 관한 일이다.

272) 藥泉 : 다산초당에 있는 약수터로 茶山을 의미한다.

울긋불긋 날로 화려해짐을 고요히 보니
모든 골짜기 단장하여 비단으로 수를 놓았네
지난 날 청산에서 사흘 밤을 머물던 길손
공연히 수고롭게 농산의 구름을 밟고 다녔지²⁷³⁾

靜觀紅綠日紛紛
全壑粧成錦繡紋
向也青山三夜客
虛勞踏破隴頭雲

두 번째 시 其二

영산홍이 피었는데 비가 흠뿌리니
대밭 드리운 책상에 무늬가 움직이는듯
누가 한적한 사람을 위해 꽃 아래 시를 읊을까
흰 구름이 피어나 붉은 꽃밭에 드리웠네

映山花發雨紛紛
簾几冷然欲動紋
誰爲閑人花下詠
白雲共作臥紅雲

소요연정시에 화답함 和逍遙蓮亭韻

붉은 연못에 푸른 섬은 주먹 남짓 한데
작은 정자 경치와 어우러져 그윽하네
밝은 달 천리 물가 필요치 않고
백 칸의 누대처럼 청풍을 받아들인듯
꽃을 대하니 홍이 濂翁²⁷⁴⁾의 愛蓮說에 들어가고
잎을 타니 몸이 太乙의 배²⁷⁵⁾에 오른 것 같네
책상 너머로 금서가 여전히 있으니
고요히 의관 갖추어 명경지수에 노니네

紅池綠嶼拳餘頭
一蓋茅茨境與幽
浩月不須千里渚
清風剩得百間樓
對花興入濂翁說
駕葉身登太乙舟
榻外琴書猶可設
靜中巾服鏡中遊

273) 농산의 …… 다녔지 : 宋 때 학자 羅大經이 고승의 「悟道」를 인용하여 “진종일 찾아봐도 봄이 보이지 않아서, 농산의 구름 속을 두루 밟고 다녔어라. 돌아와서 웃으며 매화 향기 맡아보니, 가지 위에 봄이 이미 무르익었네. 盡日尋春不見春, 芒鞋踏遍隴頭雲. 歸來笑撚梅花嗅, 春在枝頭已十分.”라 고쳐 읊었다고 한다.

274) 濂翁 : 北宋의 학자로 호가 濂溪인 周敦頤를 가리키는데, 그가 일찍이 蓮을 대단히 사랑하여 「愛蓮說」을 지었다.

275) 太乙의 배 : ‘太一蓮舟’를 말하는데, 太乙神에게 제사지낼 때 쓴 연꽃으로 만든 배. 宋代 韓駒의 「題太乙真人蓮葉圖」에 “太乙真人을 제사하는 연잎의 배에, 건을 벗은 맨머리에 바람이 차네. 太乙真人蓮葉舟, 脫巾露髮寒颼颼.”라 하였다.

백희에게 화답함 和百悔

비갠 하늘에 풀 빛 연푸른데
 날 따뜻해지니 침상을 술통가까이로 옮기네
 담박한 맛이 술 단지 밖에서 생겨나고
 청허한 경지가 담소 나누는 자리에 들어오네
 시편에 스스로 硯朱로 점을 찍고²⁷⁶⁾
 차술에 白石을 굽는²⁷⁷⁾ 연기 사라졌네
 애석하여라 가을 지난 후 백발이 성성하니
 다만 지난 날 연회하던 빈주가 아니구려

輕蒼艸色雨餘天
 向暖移床近榼前
 澹泊味生樽酒外
 清虛境入笑談邊
 詩篇自點硯朱露
 茶鼎新消煮白煙
 可惜星星秋後髮
 殊非賓主舊時筵

재첩시 再疊

백운과 단풍이 외로운 누대에 드리웠는데
 무단히 차가운 비 그치려 하질 않네
 파초 잎은 초라한 신세를 금하기 어려운데
 국화는 오히려 자신의 빛과 향을 내뿜네
 仙家の 오랜 약속 金丹의 비결을 어겼고
 騷社의 옛 유람한 벗들 검은 머리가 적구나
 다만 고인의 시 한권을 안고
 서풍에 읊조리며 한가한 시름을 보내네

白雲紅樹臥孤樓
 寒雨無端不肯收
 蕉葉難禁身勢拙
 菊花猶自色香浮
 仙家宿約違丹訣
 騷社前遊少黑頭
 獨抱古人詩一卷
 西風詠罷送閑愁

이두희 모친 최부인의 회갑을 축수하는 시와 서 李母崔夫人回庚晬詩序

276) 硯朱로 점을 찍고 : 원문의 '點露硯朱'는 이슬을 묻혀 朱墨을 간다는 뜻이다. 唐나라 때 신선을 매우 좋아했던 高駢이 「步虛詞」에서 “청계산 도사를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니, 하늘을 오르내리는 학 한 마리뿐이로다. 골짜기 어귀 깊이 잠겨 푸른 창은 춤기만 한데, 이슬방울로 주목을 갈아 지은 글 지우고 고치노라. 靑溪道士人不識, 上天下天鶴一隻. 洞門深鎖碧窓寒, 滴露硯朱點周易.”라 한 데서 온 말이다.

277) 白石을 굽는 : 神仙·方士 등이 흰 돌을 구워서 양식으로 삼았다는 전설에서, 후세에는 道家의 수련의 典故로 쓰인다. 『神仙傳』 「白石先生」에 의하면 백석선생은 “항상 흰 돌을 구워서 양식으로 삼았고, 인하여 백석산에 들어가서 살았다. 常煮白石爲糧, 因就白石山居.”라 하였다.

나는 기구한 사람이라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로이 늙어갔다. 다른 집이 축수연을 베풀면서 어버이를 위해 잔을 올리고 덕과 복을 칭송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을 슬퍼하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山陽²⁷⁸⁾ 李斗會의 노모 최부인은 내가 아끼는 벗인 鳳軒公²⁷⁹⁾의 아내이며, 부인의 막내딸은 바로 나의 둘째 며느리이다. 이로써 부인의 품모와 절도가 갖추졌다고 들었다.

신해(1851)년²⁸⁰⁾ 정월 초하룻날은²⁸¹⁾ 곧 부인의 회갑인 생신²⁸²⁾이다. 이에 보성의 여러 군자들이 서로 덕을 상고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칭송하며 연이어 글을 지어 高堂²⁸³⁾에게 백년 장수의 잔을 권했다.

열흘이 지나 이두회가 백운산 거처로 나를 찾아와 당일에 창수한 시문을 보여주며 내게 화답해 주기를 원했다. 스스로 돌아보건대 보잘 것 없는 내가 어찌 화답할 수 있겠는가. 다만 평소에 남을 부러워했던 자로서 이제 다행히 혼인하여 서로 아끼는 집안을 만났으니 감히 한마디 축수의 잔을 올리는 글이 없으랴.

생각건대 봉헌공 가정의 훈계와 최부인 규문의 규범과 이두회 형제의 돈독한 행실은²⁸⁴⁾ 보성의 인사들이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장수와 복록의 성대함을 누릴 바는 진실로 마땅하다. 덕스러운 집안의 만수무강을 내가 회갑을 경축하는 자리에서 점 칠 수 있다. 뜻을 잇고 복을 이음으로써 길이 영예를 누릴 자는 어진 자손과 형제들에게 있으니 이두회는 힘쓸지어다.

子曰 ‘몸을 세워 이름을 날려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끝이라’라 했으니, 이두회의 학업이 “孝經” 一章의 편에 있도다.

余畸人也，早泣風樹，孤子到老。每見人家，壽考燕喜，爲親奉觴，頌德稱嘏，未嘗不撫躬自悼代人欽艷也。山陽李君斗會甫壽母崔夫人，吾畏友鳳軒公嘉耦也，而婦人之季女，卽余仲婦也。以是聞夫人之風範備矣。歲在重光大淵獻三陽月日，乃夫人回庚初度也。于是山陽諸君子，相與考德頌美，列名徵詞，以侑高堂百年之觴。居一旬，斗會甫訪余于白雲山居，視以當日唱酬詩韻，要余和之。自顧蔑如，何足張之。第以平昔欽艷於人者，今幸相遇於姻婭相愛之家，敢無一言侑觴之詞乎。竊念鳳軒公家庭之戒，崔夫人閨闈之範，斗會甫昆季惇復之行，山陽之人士，無能間焉，其所以享壽考福祿之盛者，固宜矣。德門無疆之壽，余於是回庚一慶卜之矣。夫繼志承福，以永終譽者，其在乎賢胤昆季乎。斗會甫其勉之哉。子曰：“立身揚名，以顯父母孝之終”，斗會甫之業，其在孝經經一章之篇乎。

278) 山陽 : 전라남도 보성을 가리킨다.

시를 지어 말하기를

남녘의 무녀성²⁸⁵이 축수의 술잔에 비추니
 성대한 연회의 가무가 금당에서 평화롭네
 신해년 화갑에 봄바람이 일찍 불어오고
 생신날 萱庭²⁸⁶에 상서러운 구름이 밝도다
 선량한 이에게 내리는 복이 어찌 한갓 부부의 장수리오
 경사가 흘러 장차 자손들의 영화를 보리라
 아름다운 덕을 받들 揚顯²⁸⁷은 어진 자손에게 있으니
 시종 그대의 집안이 효로써 이름이 있으리라

詩曰

婺彩南躔映賀觥
 長筵歌舞錦堂平
 重光花甲春風早
 初度萱庭瑞靄明
 福善豈徒夫婦壽
 慶流將看子孫榮
 承休揚顯惟賢在
 終始君家孝以成

파산 강회 시운을 하석 어른께 드림 坡山講會詩韻呈霞石丈席

1

사도의 백년이 금년이니
 坡山の 강회는 寒泉²⁸⁸과 비슷하네

師道百年有是年
 坡山一會傲寒泉

279) 봉헌공 : 李時憲의 二男 李正欽의 장인인 李基洙를 말한다. 본관은 廣州이다.

280) 신해년 : 원문의 ‘重光’은辛의 고갑자며 ‘大淵獻’은 亥의 古甲子이다.

281) 정월초하룻날 : 원문의 ‘三陽’은 陰氣가 점차 소멸하고 양기가 두루 펼쳐지는 三陽開泰의 月正 元日, 즉 정월 초하루를 맞게 되었다는 말이다. 11월에 하나의 陽爻가 처음으로 생겼다가, 1월이 되면 세 개의 陽爻가 下卦에 자리하는 泰卦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282) 생신 : 원문의 ‘初度’는 처음 태어난 날로 곧 ‘生日’을 말한다.

283) 高堂 : 남의 父母를 높여 부르는 말

284) 돈독한 행실 : 원문의 ‘敦復’은 『周易』 「復卦·六五」의 爻辭로 “육오는 돌아옴에 도타우니 후회가 없다. 六五敦復无悔”라 한 데에서 나왔다.

원문의 ‘復’은 ‘復’의 오기로 보인다.

285) 무녀성 : 織女星 남쪽의 女宿이다.

286) 萱庭 : 모친이 계시는 집의 뜰을 말한다. 老萊子是 楚나라의 隱士인데 그의 나이 70세에 그때까지 생존한 부모 앞에서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어 부모를 즐겁게 해 드리는 등, 지극한 효성이 늙도록 변함없었다 한다.

287) 揚顯 : 후세에 이름을 드날려 부모를 드러낸다는 의미이다. “신체의 머리털과 살은 부모에게서 받아 나온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처음이 되고, 입신하여 도를 행해서 후세에 명성을 드날려 부모를 현양시키는 것이 효도의 끝이 된다.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라는 孔子의 말에서 유래하였다. 『孝經』 「開宗明義章」.

288) 寒泉 : 朱子가 머물렀던 精舍인데 여기서는 朱子를 가리킨다.

연원은 文簡公²⁸⁹)과 文成公²⁹⁰)의 학맥이니
 강회에서 ‘誠’과 ‘敬’편을 논하였네
 호해에서 우산을 지고²⁹¹) 많은 선비들이 모여드니
 초야에서 스승 맺은²⁹²) 인연 고가에 전해지네
 돌아가 의지하고 학문에 매진 할 곳을 얻었으니
 백세의 고풍으로 사현을 흠모하네

淵源文簡文成學
 講討曰誠曰敬篇
 湖海擔簦多士聚
 邱園束帛故家傳
 依歸兼得藏修地
 百世高風慕四賢

2

파산의 구업이 금년까지 전해지니
 풍광이 더욱 빛나며 간천을 지키네
 이곳에서 선조를 빛냄은 효성스런 후손에 달려있고
 斯文이 후손을 계도함은 남겨진 책에 힘입었네
 갓 심은 왜나무 오래 된 살구나무를 여전히 침모하니
 대숲의 비와 솔바람은 다시 별도로 전하네
 선비들이여 때에 맞춰 힘써야 하나니
 사망에서 종으로 섬기는 이 고을의 현자시니라

坡山舊業有今年
 雲物增輝護澗泉
 此地光先[一作前]因孝嗣
 斯文啓後賴遺編
 新槐古杏猶瞻慕
 竹雨松風更別傳
 群彥及時須勉力
 四方宗事一邦賢

289) 文簡公 : 成渾(1535~1598)의 시호이다.

290) 文成公 : 李珥(1536~1584)의 시호이다.

291) 우산을 지고 : 원문의 ‘擔簦’을 풀이한 말이다. 簦은 자루가 긴 큰 삿갓 비슷한 우산인데, 전국 시대 유세객 가운데 虞卿이 짚신을 신고 자루가 긴 우산을 지고 趙나라 孝成王에게 가서 유세한 일이 있다. 『史記』 卷76 「虞卿列傳」. 여기에서는 전국의 선비들이 스승을 찾아 모이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292) 스승 맺은 : 원문의 ‘束帛’은 비단 다섯 필을 한 묶음으로 만든 것으로 귀중한 예물로 쓰였다. 『禮記』 「禮器」에 제후가 천자를 조회할 때 “속백에다 벽옥을 추가하는 것은 천자의 덕을 옥에 비겨 존경을 표한 것이다. 束帛加璧尊之”라 하였다.

12)辛亥(1851)

장동에서 오장암을 만나 소산에서 밤에 이야기를 나눔 長洞逢吳莊菴 夜話小山

1851년 2월 辛亥二月

머리에 부는 땃바람에 적막하게 앉았노라니	竹風吹髮坐蕭然
바다처럼 봄이 깊어 밤이 일 년 같네 ²⁹³⁾	如海春深夜似年
묵향은 저절로 거문고와 술 밖에 피어나고	墨味自生琴酒外
마음의 향기가 담소 앞에서 떠다니네	心香浮動笑談前
꽃들이 만발했는데 다시 청명절 비가 내리려하고	花闌更欲清明雨
버들이 짙푸르는데 항상 해질녘 연기 속에서 근심하네	柳暗常愁薄暮煙
세상일의 기이한 인연은 오래 합하기 어려우니	人世奇緣難久合
백운의 산 빛으로 재촉하여 돌아가는 꿈을 꾸네	白雲山色夢歸鞭

재첩시 再疊

작은 산의 산 빛은 우뚝우뚝 솟아있고	小山山色直叢叢
자리 깊은 곳에서 세 사람이 시문을 짓네 ²⁹⁴⁾	硯北筵深坐鼎東
입 속으로 웅얼거리나 詩料를 구하기 어렵고	詩料難求沈吟裏
취하나 깨어 있으나 鄉愁를 달랠 길 없네	鄉愁無賴醉醒中
가랑비 내리는 등불 앞에 시인들 밤을 지새는데	一燈細雨騷人夜
이월 붉은 복사꽃에 서풍 ²⁹⁵⁾ 이 불어오네	二月紅桃少女風
애석하여라 우리의 차츰 늙어가는 마음	可惜吾儕遲暮意

293) 일 년 같네 : 하루를 마치 일 년의 긴 세월처럼 느긋하고 한가롭게 보낸 것을 말한다. 蘇軾의 「過廣愛寺」에, “세상에 우거한 몸은 꿈속 같은데, 안한한 마음은 하루가 일 년 같구나. 寓世身如夢, 安閒日似年.” 하였다.

294) 시문을 짓네 : 원문의 ‘硯北’은 벼루 북쪽에 앉아 있다는 말로, 시문을 저작하는 것을 뜻한다.

295) 서풍 : 원문의 ‘少女風’은 서풍을 뜻한다. 『周易』에서兌의 방위는 서쪽이고, 소녀를 상징한 데서 이르는 말이다. 청나라 黃生이 지은 『義府』 卷下 「少女風」에 “태는 소녀이고 방위는 서쪽이므로, 이는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것을 말한다. 兌爲少女, 位西方, 此謂風從西來耳.”라 하였다.

靈犀²⁹⁶)만이 다만 비취 서로 통해주네

靈犀只許照相通

장동에서 또 장암과 시를 지음 長洞又與莊菴拈韻

객지의 야윈 모습 염불승과 같고
 푸른 등잔 아래 시혼을 불사르네
 기이한 인연은 삼천의 모임을 충분히 이었고
 일찍이 약속하여 서석산에 머물렀네
 밤에 부는 맑고 차가운 바람은 귀를 놀라게 하고
 여러 근심 봄 얼음에²⁹⁷) 기탁하네
 불러 손잡고 다시 꽃다운 곳을 찾아 가고 싶으니
 이길 수 없는 향수를 어찌 하리오

旅榻癯容念念僧
 詩魂相守耿青燈
 奇緣剩續三川會
 宿約曾留瑞石層
 警耳清冷生夜籟
 攪愁多少付春冰
 招携更欲尋芳去
 無奈鄉心自不勝

재첩시 再疊

객창에서 소갈병에 막걸리가 생각나는데
 동풍이 나그네에게 불어오네
 눈두덩은 졸려 볼수록 무거워지고²⁹⁸)
 시구를 맞이할수록 어깨쪽지는 높아지네²⁹⁹)
 흥건한 화묵에 벼루³⁰⁰)를 갈고

病渴羈窓夢濁醪
 東風有意送征袍
 眉稜引睡看看重
 肩胛迎詩得得高
 花墨淋漓開鳳味

296) 靈犀 : 靈妙한 무소뿔을 말한다. 무소뿔은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어 양방이 서로 관통하는 것에서, 두 사람의 의사가 서로 투합 됨을 비유할 때 쓴다.

297) 여러 근심 봄 얼음에 : 『書經』 「君牙」에 “마음에 걱정하고 조심하는 것이 마치 범 꼬리를 밟은 듯하고 봄 얼음을 밟는 듯하다. 心之憂危, 若蹈虎尾, 涉于春水.” 하였다. 매우 조심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

298) 눈두덩은 …… 무거워지고 : 甝나라 僧 有規의 詩에 “글을 읽자 하니 眉骨이 무겁고, 잠자리에 드니 뼈마디가 편안하구나. 자느라고 해의 조만도 몰랐어라, 서쪽 창에 남은 햇빛 벌써 얼마 없구려. 讀書已覺眉稜重, 就枕方欣骨節和. 睡去不知天早晚, 西窓殘日已無多.” 라는 내용이 있다.

299) 어깨죽지 높아지네 : 蘇軾의 「贈寫眞何秀才」에 나귀를 타고 灞橋를 지나가는 孟浩然을 읊어 “또 보지 못했는가, 눈 속에 나귀를 탄 孟浩然이 눈썹을 찌푸리고 시를 읊으며 쫓긋한 어깨가 산처럼 높네. 又不見雪中騎驢孟浩然, 皺眉吟詩肩聳山.” 하였다. 즉 사람들은 나귀 탄 길손이 어깨 움츠리고 있는 모습만 볼 뿐이고 그 길손이 길을 가며 보는 경치마다 모두 새로운 시로 읊는다는 사실은 모를 것이라는 뜻이다.

질푸른 채전에 닭 털붓을 시험하네
아끼는 그대 시사의 풍류가 있으니
도처에서 함께 하여도 피곤한 줄 모르네

彩箋深碧試鷄毛
憐君詩社風流在
隨處招携不覺勞

한식날 송산의 고씨 종형을 곱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음 寒食往哭松山高從兄歸路作

고달프게 산골짜기 찾아가 사립문을 두드리니
정원에 주인은 없고 살구꽃만 흩날리네
가련하여라 한식날 송산으로 가는 길이어
두견새 소리에 구슬피 홀로 발길 돌리네

峽裡辛勤叩竹扉
庭園無主杏花飛
可憐寒食松山路
杜宇聲中悵獨歸

장동에서 춘파·나사·장암 등 여러 벗들과 시를 지음 長洞與春坡懶史莊菴諸益拈韻

시혼들이 자리를 둘러 한 등불을 밝히고
웃으며 蠻牋³⁰¹을 펼치니 눈 표면처럼 평평하네
시냇가 늙은이 청옥장을 짚고 오는 소리 남기고
雲樵³⁰²는 돌아가 영지를 꿈꾸네
살구나무에 낀 연기는 꽃의 마음을 두루 덮어주고
대나무에 걸린 달은 푸른 그림자에 비껴서 배회하네
다시 추풍을 맞으며 다음 약속을 남겨두니
梁園³⁰³과 瑞石山³⁰⁴에서 함께 시를 쓰세나

詩魂圍坐一燈明
笑展蠻牋雪面平
川老登音青玉杖
雲樵歸夢紫芝莖
杏煙籠歷紅情惱
竹月徘徊翠影橫
更待秋風留後約
梁園瑞石共題名

300) 벼루 : 원문의 '鳳唼'은 벼루의 이름이다. 宋 때 龍焙山은 마차 나는 봉황이 고개를 숙여 물은 마시는 형상과 같았는데, 그 봉황의 부리에 해당하는 곳에 걸이 玉같이 고운 蒼黑色의 돌이 있어, 그 돌로 만든 벼루를 蘇軾이 鳳唼라고 이름 한 데서 온 말이다.

301) 蠻牋 : 시를 쓰는 종이. 고려의 만진이 유명하여 중국에까지 알려졌다.

302) 雲樵 : 李時憲이 성인이 되어 스승으로 모셨던 霞石 成近默의 삼중숙부 成山柱를 말한다.

303) 梁園 : 西漢 梁孝王의 동산 이름이다. 숲이 매우 넓고 궁실이 많았으며, 梁孝王이 이곳에서 신하들과 잔치를 열거나 사냥을 즐겼다. 이 시에서는 전라남도 담양에 梁山甫(1503~1557)가 조성한 瀟灑園을 가리킨다.

304) 瑞石山 : 광주광역시에 있는 무등산 국립공원을 가리킨다. 이 산의 정상에 瑞石臺가 있다.

재첩시 再疊

바야흐로 병든 아이와 고향으로 돌아오니, 첫 구에서 이를 언급했다. 方與病兒還故第一句及之耳

강남으로 돌아가려는 제비인양 바빠
 새끼를 거느리고 길에 드니 고향 산천이 아득하네
 이별에 임해 더욱 저물어가는 봄을 아쉬워하며
 가련한 늙은이들 희끗희끗해진 머리를 바라보네
 골짜기 새는 맑게 지저귀며 객을 만류하고
 들관 나비는 어지러이 날며 게을리 꽃향기 찾네
 한 바당의 시사 풍류가 넉넉하니
 이별 후 남은 정은 鳳陽³⁰⁵에 남아있네

歸意江南鶯與忙
 將雛路入故山長
 臨分更惜春垂暮
 憫老相看鬢化蒼
 谷鳥吟晴能挽客
 野蝴蝶亂懶尋香
 一牀詩社風流足
 別後餘情在鳳陽

장암과 인봉 그리고 고씨 조카사위가 산재를 찾아와 운을 들어 수창함
莊菴與寅峯高甥來訪山齋拈韻唱酬

취몽 중에 봄 시름 가눌 길 없었는데
 동풍이 불어오니 벗들이 찾아왔네
 지난 밤 함께 청명절을 맞았고³⁰⁶
 오늘 다시 월출산을 맞이하네
 여흥이 더욱 시상에 드러나니
 기쁜 정 도리어 꿈인가 의심하네
 늙어가며 특별한 인연 다시 만나 이루니
 우는 새와 날리는 꽃잎에 뜻이 절로 한가롭네

無賴春愁醉夢間
 東風吹送故人還
 前宵共作清明雨
 此日重逢月出山
 餘興更於詩上見
 歡情却訝夢中攀
 老去奇緣成再會
 啼鳥飛花意自閑

재첩시 再疊

동산에 봄이 다하고 꽃이 질 때

山園春盡落花時

305) 鳳陽 :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이다.
 306) 原註에 원문의 ‘雨’는 ‘節’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주렴 밖에 장마는 빗줄기를 드리우네
 흥취는 벗이 찾아온 후에 넉넉해짐을
 평소 자나 깨나 이전부터 알았네
 승경을 기꺼이 삼공과 바꾸겠는가³⁰⁷⁾
 시사에서 오직 네 벗을 따르리라
 이 산을 벗어나면 도로 속세니
 어망에 기러기 걸릴까 두려워라³⁰⁸⁾

簾外(雨+兼)(雨+鐵)雨脚垂
 興味客來然後足
 平生夢覺以前知
 名區肯與三公換
 詩社惟將四友隨
 一出此山還世路
 魚網猶恐見鴻罹

장암과 월출산에 오름 與莊菴登月出山

선경을 다시 밟으니 이미 반은 신선이 된 듯
 곧장 九井峰에 올라 天皇峰을 향하네
 하늘 땅 안에 도도히 흐르는 물이어
 인간사 그 사이에 둥둥 떠 있는 배와 같네
 조화의 신공은 動石³⁰⁹⁾을 뜨게 하는 것이요
 煉丹의 소식은 연기를 없게 만드는 것이라네
 무슨 이유로 백발은 나날이 늘어나는가
 참된 세상과 참된 인연의 뜻 정성스러워라

重踏靈區已半仙
 直登九井上峰前
 乾坤以內滔滔水
 人世其間泛泛船
 造化工夫浮動石
 煉丹消息有無煙
 頻來白髮緣何事
 眞界眞緣意惓然

307) 삼공과 바꾸겠는가 : 宋代 戴復古가 後漢의 隱士 嚴子陵의 고사를 소재로 읊은 시 「釣臺」에 “어떤 일에도 욕심 없이 오직 하나의 낚싯대뿐, 삼공의 자리도 이 강산과 바꿀 수 없고 말고. 평소 광무제를 잘못 알고 지낸 탓에, 세상 가득 허명을 야기했을 뿐이랴오. 萬事無心一釣竿, 三公不換此江山, 平生誤識劉文叔, 惹起虛名滿世間.”라는 내용이 나온다. 『石屏詩集』 卷6.

308) 어망에 …… 두려워라 : “물고기 그물 쳤더니 기러기가 걸렸네. 魚網之設, 鴻則離之.”라는 말이 있는데, 뜻밖의 재앙을 만날까 두렵다는 뜻이다. 『詩經』 「邶風·新臺」.

309) 動石 : 월출산 구정봉 아래에 動石이 있다. 참고로 古代 전설상의 仙人 皇初平이 15세 때 양치기로 있다가, 어느 날 한 도사를 따라 金華山에 들어가 신선술을 연마하였다. 40여 년이 흘러 그의 형 初起가 동생을 찾아 金華山에 이르렀다. 두 형제가 그 동안에 쌓인 회포를 풀고 나서 初起가 양들의 행방을 묻자, 初平이 金華山 동편 푸른 초원에 흠어져 있는 흰 돌들을 가리키며 “양들아, 일어나라.”라 하자 돌들이 순식간에 수만 마리의 양으로 변했다고 한다. 『神仙傳』 卷2.

야화 夜話

쭉대머리에 비녀 꽂지 않고 갓끈도 매지 않은 채
 골짜기에서 마음껏 술 취했다가 도로 깨어나네
 큰 봉새가 날아오를 공명의 길 이미 잃었으니³¹⁰⁾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시례를 누가 진하리
 텅 빈 방에서 고요히 보니 밝은 기운 생겨나고³¹¹⁾
 흐린 눈으로 세밀히 베끼며 푸른 등불을 돋운다
 그대가 돌아가면 다시 凝香閣에 올라 바라보며
 푸른 하늘 구름 봉우리를 작은 정자에서 기록하리라

蓬髮不簪又不纓
 谿山任放醉還醒
 功名已失鵬博路
 詩禮誰傳鯉對庭
 虛室靜觀生夜白
 昏眸細寫剪燈青
 君歸更上凝香望
 寸碧雲岑記小亭

장암의 귀향을 송별함 別莊菴歸鄉

산 속 동굴 외로운 구름 날아가지 않는데
 녀을 잃고 송별하니 꿈속에서도 희미하네
 하물며 우리들 이렇게 늙어가는 터에
 오늘 갑자기 돌아가는 이별을 어찌 견디랴
 십 리 시내가 개니 꽃다운 풀에 빗방울 맺히고
 한 동이의 술 다하니 海山이 빛나네
 梁園과 瑞石의 약속 거듭 남기고³¹²⁾
 명하니 서서 서풍이 불면 만나기를 기대하네

峒裡孤雲爲不飛
 消魂斷送夢依微
 吾儕況是同衰暮
 此日那堪遽別歸
 十里川晴芳草雨
 一樽酒盡海山暉
 梁園瑞石重留約
 佇待西風共授衣

310) 원문의 ‘博’은 ‘搏’의 誤記로 보인다.

311) 텅 빈 방에 밝은 빛 생겨나고 : “저 뚫린 벽을 보면 빈방 안에 흰빛이 있고, 거기에는 길한 징조가 깃들여 있다. 瞻彼闕者, 虛室生白, 吉祥止止.”라 하였다. 사람의 정신이 맑아 욕심이 없으면 도심이 절로 생긴다는 것을 말한다. 『莊子』 「人間世」.

312) 약속 거듭 남기고 : 이 시의 일곱 수 앞 「長洞與春坡懶史莊菴諸益拈韻」에 “다시 추풍을 맞으며 다음 약속을 남겨두니, 양원과 서석산에서 함께 시를 쓰세나. 更待秋風留後約, 梁園瑞石共題名.”라 하였다.

석표에게 화답함 和石瓢

윤중민³¹³이 호를 금양으로 고쳤다. 尹鍾敏改號琴陽

산골짜기 구름과 안개로 바위 문이 잠겼는데	峒雲谿霧鎖巖門
해남의 손님이 水竹 마을에 찾아오셨네	海客來尋水竹村
반나절 玄談 ³¹⁴ 을 나누니 상서로운 기운이 생겨나고	半日玄談生紫氣
한 해가 지나니 양 귀밑머리 푸른 자취 사라지네	隔年雙鬢掃青痕
마음을 비워 온건해지니 운산이 고요하고	襟虛穩得雲山靜
오래 앉아 있으니 서서히 돌 의자 따뜻해지네	坐久微廻石榻溫
늙어 가도 문장의 뜻 아직 그대로 있으니	老去文章志猶在
그대는 招魂歌를 지을 필요 없으리라	故人不用賦招魂

두 번째 시 其二

꿈결에 아득히 바다 어귀에 다다르니	一夢迢迢到海門
그대의 집이 白蓮社 마을에 있구려	故人家在白蓮村
고금을 논하니 시 지은 후 나눈 대화요	高論往古詩餘話
긴 노래를 行草로 쓰니 술 마신 후의 흔적이네	行草長歌酒後痕
남시 도구는 부질없이 강가의 丈夫 ³¹⁵ 를 따르니	釣具漫隨江上丈
누가 예의 그물 ³¹⁶ 로 洛水가의 溫處士 ³¹⁷ 를 부르리오	禮羅誰致洛涯溫

313) 윤중민(1798~?): 본관 해남. 자가 蒲叔, 호는 杏南 石瓢, 후에 琴陽으로 고쳤다. 이시현과 함께 다산초당에서 修學.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314) 현담: 老莊과 『周易』에 의거한 심원한 담론을 말한다.

315) 강가의 丈夫: 唐代의 隱士이며 詩人인 陸龜蒙을 말한다. 그의 호는 江上丈人·江湖散人·天隨子·甫里先生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는 일찍부터 俗人들과 교류하지 않고, 배 한 척을 마련하여 거기에다 항상 書冊·茶竈·筆牀·釣具 등을 싣고 江湖 사이를 이리저리 유람하며 지냈던 데서 온 말이다. 그는 시인 皮日休와 유독 親交가 있어 그와 서로 시를 唱和했던 바, 그들이 서로 唱和한 시를 모은 『松陵唱和詩集』이 전한다. 『耒耜經』 『笠澤叢書』 등 여러 저서가 있다. 『新唐書』 卷196 「隱逸列傳·陸龜蒙」.

316) 예의 그물: 원문의 ‘禮羅’는 그물로 새나 물고기를 잡듯이 예로써 인재를 맞아들여 등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唐代 韓愈가 지은 「送溫造處士序」에 “대부 烏公이 河陽에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石生을 인재라 하여 예로 그물을 만들어, 그물질하여 幕下로 데려갔고, 몇 달이 못 되어 溫生을 인재라 하여 석생을 중대로 삼고 예로 그물을 만들어 또 그물질하여 막하로 데려갔다.” 하였다.

317) 洛水가의 溫處士: 唐代 洛水의 남쪽에서 은거한 溫造를 말한다. 그가 낙수 남쪽에서 은거하면서 명성과 지조를 가다듬으니, 烏重胤이 河南의 막하로 불렀다. 그 뒤 누차 승진되어 벼슬이 禮部

瓊琚³¹⁸와 玉佩의 새로운 소리가 들리니
 남국의 詩賦³¹⁹가 풍류의 녀을 돌아오게 하네

瓊琚玉佩新聲在
 南國風騷返樂魂

백희에게 화답함 和百悔

바다 근처 고을 남녘 더위는 사람을 괴롭히나
 근심 잊고 앉아 맑은 거문고 가락과 묵향에 취해있네
 황매우³²⁰가 지나가니 동산이 막 개이고
 푸른 소매에 바람이 살랑거리며 들로 흐르려하네
 객을 만류하여 소나무 물가에서 바둑을 두고
 아이를 불러 돌난간에서 일제히 노래 부르게 하네
 성긴 밭 사이 산 빛은 해질녘 대자리에 비치고
 푸른 나무와 누대는 그림 속에서 노니는 듯

南暑惱人近海州
 淸琴醉墨坐忘憂
 黃梅雨過園初霽
 綠袂風微野欲流
 挽客留棋松水下
 呼兒齊詠石欄頭
 疎簾山色斜陽篔
 碧樹樓臺畫裡遊

우 又

푸르스름 얇게 낀 구름에 이미 해가 기우니
 향로 피운 고요한 책상에서 온갖 생각이 희미해지네
 즐거운 마음으로 숲 속의 새들과 말을 나누니
 한적한 마음은 산 구름을 좇아 날아가네
 강산의 고택에 아름다운 글은 어디에 있는가
 平泉莊의 꽃과 돌³²¹이 진실로 어긋날까 두렵네

輕陰蒼薄已斜暉
 靜几薰爐百念微
 樂意相關林鳥語
 閑情共逐峒雲飛
 江山古宅文何在
 花石平泉誠恐違

尙書에 이르렀다.

318) 瓊琚 : 보배로운 구슬로 상대방의 시문을 뜻한다. 『詩經』 「木瓜」에 “나에게 모과를 주거늘 경거로써 갚는다. 投我以木瓜 報之以瓊琚”라 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319) 詩賦 : 원문의 ‘風騷’는 風謠와 詩騷를 말한다. 風은 『詩經』의 「國風」이고, 騷는 屈原의 「離騷」가 유명하다. 騷는 韻文의 한 體로 詩가 변하여 騷로, 騷가 변하여 辭가 되었다.

320) 황매우: 매실이 익을 무렵 내리는 비로 보통 6월 중순부터 7월 초순에 걸쳐 내리는 장맛비를 말한다.

321) 平泉莊의 꽃과 돌 : 唐代 사람인 李德裕의 별장인 平泉莊은 기이한 화초와 나무·돌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했다.

봄이 온 후로 향기로운 꽃들로 오히려 자족하니
 붉은 석류는 막 여위고 푸른 파초는 살지네

春後芳菲猶自足
 紅榴初瘦綠蕉肥

우 又

푸른 나무 드리운 누대에 저녁노을 비치니
 다로에 향불³²² 사그라지자 연기 희미해지네
 나뭇잎에 피꼬리가 즐겁게 놀고 있고
 처마 끝에 빙빙 돌며 새끼 제비 날고 있네
 고요함 속에 세월은 오히려 함께하지 않으니
 세간의 많은 일이 모두 서로 어긋났구나
 고심하며 시 짓느라 수척해 졌다고 말하지 말라
 처지를 즐기며 道로 살찌우리라

碧樹樓臺映晚暉
 茶爐香歇篆煙微
 葉心款洽嬌鶯在
 簷角低回乳燕飛
 靜裡光陰猶不與
 世間多少摠相違
 苦思休說緣詩瘦
 樂處將看道勝肥

석표에게 화답함 和石瓢

무더위에도 흰머리는 사라지지 않고
 가을바람에 몇 가닥 나부낌을 견디지 못하네
 옹의 마음은 이미 산 구름에 덮여 살고 있으니
 객의 꿈에서 몇 번이나 해학을 수고로이 불렀던가
 가을 소리는 오동나무 밤비에 문득 놀라고
 쇠약해진 모습은 버드나무 아침 안개처럼 줄어드네
 그리움은 다만 이별하는 말에 있으니
 이별 후엔 꿈에서도 만나기 어려우리

大暑猶難鬢雪消
 西風不耐數莖飄
 翁心已被山雲住
 客夢幾勞海鶴招
 秋響翻驚梧雨夜
 衰容減却柳煙朝
 相思只在臨分語
 別後難憑夢境遙

322) 향불 : 원문의 '篆煙'은 전자 모양으로 꼬불꼬불 올라가는 香爐의 연기를 말한다.

유재에게 부침³²³) 寄留齋

이년 동안 강가의 서신 더디니
 일찍이 인정받은 뜻 남으로 와서 저버렸네
 부질없이 봄날을 맞이하여 끊어진 꿈을 꾸다가³²⁴)
 도리어 가을 날 슬픈 시를 쓰게 하네
 고명한 이치를 완미하니 오히려 즐거워지고
 영욕의 정을 잊으니 저절로 편안해지네
 생각건대 아득히 멀리 높은 산과 바닷가에서
 분명 귀밑머리가 지난날 보다 희어지리라

二年江國信書遲
 孤負南來早受知
 漫遣春婆成斷夢
 却令秋士有悲辭
 高明玩理猶堪樂
 榮辱忘情即自怡
 可想超超嶠海上
 分明鬢髮勝前時

13) 壬子(1852)

즉흥시 偶吟

산 아래 대나무 숲속 집에 외로운 안개 피어나고
 가벼운 바람과 가랑비가 많기도 하여라
 이는 청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니
 두견화 소식이 곧 찾아올 줄 알겠네

山下孤煙竹裡家
 輕風微雨近何多
 知是清明無幾日
 打探消息杜鵑花

323) 유재 신관호가 철종 즉위년(1849)에 금위대장을 지냈는데 부정한 경로로 의원을 궁중에 들였다는 이유로 전라도 녹도로 위리안치 되었을 때 보낸 詩이다.

324) 봄날을……꾸다가 : “東坡老人이 昌化에 있으면서 등에 큰 바가지를 지고 田野에 行吟하고 다닐 때, 70세나 되는 한 노파가 동파에게 ‘한림학사로 있었던 옛날의 부귀는 일장춘몽이시오.’ 라 하자, 동파가 그 말을 옳게 여겼는데, 이때부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노파를 춘몽파라고 불렀다.” 라 하였다. 『侯鯖錄』.

「운곡잡영」325)에 빗대어 백운 14경을 지음 擬雲谷雜詠賦得白雲十四景

1

청산 어느 곳인들 구름이 날지 않으리오	靑山何處不雲飛
오직 한가한 옹이 함께 돌아올 분	只是閑翁與共歸
구름은 절로 무심하고 옹은 절로 즐거워하니	雲自無心翁自樂
평생 옳음도 잊고 또 그름도 잊어버리네	百年忘是復忘非
위는 백운동이다. 右白雲洞	

2

‘자이’는 다만 내 마음의 한가로움일 뿐	自怡只是我心閑
고개 너머 돌아가는 구름도 모두 상관하지 않네	嶺上歸雲摠不關
천년토록 華陽居士 ³²⁶⁾ 시어이거늘	千載華陽詩上語
아득한 정은 오히려 청산을 저버릴까 두렵네	遐情猶恐負靑山
위는 자이당이다. 右自怡堂	

3

단정히 홀을 띠에 꽂고 서로 따르니 ³²⁷⁾	端然神笏插相從
洙泗 ³²⁸⁾ 의 강단에서 예를 강론하는 모습 흠족히 보네	洽觀洙壇講禮容

325) 운곡잡영 : 『朱子詩集』卷6에 실려 있는 「雲谷雜詩十二首」를 말하는데, 12수는 登山·值風·翫月·謝客·勞農·講道·懷人·倦游·修書·宴坐·下山·還家이다.

326) 華陽居士 : 陶弘景으로 남북조시대 宋나라와 梁나라 사이의 이름 난 의약학자이자 道家이다. 자는 通明이고 華陽隱居라 自號하였다. 『詔問山中何所有賦詩以答』에, “산중에는 무엇이 있느냐. 산 위에는 흰 구름이 많아라. 그저 나 혼자 즐길 뿐, 그대에게 줄 수는 없도다. 山中何所有, 嶺上多白雲. 只可自怡悅, 不堪持贈君.”라 하였다.

327) 원문의 ‘神’은 ‘紳’의 誤記로 보인다.

328) 洙泗 : 洙水와 泗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 두 강의 사이에서 孔子가 제자를 데리고 학문을 강론했기 때문에 후세에 洙泗를 儒家的 對稱으로 삼았다. 『禮記』 「檀弓·上」에 “내가 그대들과 수사의 사이에서 선생님을 섬겼다.”라 하였다.

애석하게도 삼한시대에 석가의 가르침을 거쳐
 함부로 천불로 千佛峰이라 이름하였네
 위는 천불봉이다. 右千佛峯

可惜三韓經釋教
 漫將千佛號千峰

4

停仙臺 우뚝 서서 맑고 그윽한 지경이니
 신선이 세상에 머무른다면 바로 이곳이리
 蓬海에서 난새 타고 생황을 부는³²⁹⁾ 신선 부를 수 없어
 백운에 밝은 달만 공연히 아득하도다
 위는 정선대이다. 右停仙臺

仙臺兀兀境清幽
 世若留仙此淹留
 蓬海鸞笙招不得
 白雲明月空悠悠

5

거칠고 춥고 외롭고 야윽은 모두 마땅함을 따르니
 들 물 빈산에 한 줄기 가지만을 허락하였네
 어찌 백운동 동산에 백 그루를 심는 것과 같으리오
 변화하지도 속되지도 않고 더욱 맑고 빼어나도다
 위는 백매원이다. 右百梅園

荒寒孤瘦摠隨宜
 野水空山許一枝
 何似雲園園百樹
 非繁非俗更清奇

6

꿈틀거린 듯 백 척 늙은 용의 비늘³³⁰⁾

蜿然百尺老龍鱗

329) 난새를 타고 생황을 부는 : 원문의 ‘鸞笙’은 仙人이 부는 笙簫의 美稱으로, 난생을 분다는 것은 곧 仙境에서 노니는 것을 의미한다. 李白의 「古風」에 “학의 등에 올라탄 한 선객이, 날고 날아 하늘을 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소리 높이 외치어, 내가 바로 안기생이라고 하네. 좌우에는 백옥 같은 동자가 있어, 나란히 자란생을 불어 대누나. 客有鶴上仙, 飛飛凌太清. 揚言碧雲裏, 自道安期名. 兩兩白玉童, 雙吹紫鸞笙.”라 하였다. 『李太白集』 卷1.

330) 용의 비늘 : 원문의 ‘龍鱗’은 원래 임금의 비위를 말하는데 이 시에서는 소나무의 껍질의 뜻으로 쓰였다.

푸른 구름 모여 사방의 이웃을 보호하네
 고요 속에 삼뢰의 음향이 절로 생겨나니
 귀 뿌리에 늘 八音³³¹⁾의 화기가 맴도네
 위는 만송강이다. 右萬松岡

蒼翠雲屯護四隣
 靜裡自生三籟韻
 耳根常作八音春

7

구름 안개가 천 그루 대나무에 걸쳐있고
 오슬오슬한 바람소리에 달그림자 차도다
 세모에 산속에서 봉새의 약속 남겨두니
 푸른 대나무 열매가 비로소 붉게 익어가네³³²⁾
 위는 운당곡이다. 右簣簞谷

雲幢烟節束千竿
 風韻颼颼月影寒
 歲暮山間留鳳約
 紫瓊初熟碧琅玕

8

동백나무 길 끼고 산골 물가를 거슬러 가니
 녹음이 드리워져 사철이 봄이로다
 가장 좋은 것은 원림의 쓸쓸한 해질녘에
 눈 속에 불처럼 붉게 막 꽃이 필 무렵이더라
 위는 산다경이다. 右山茶徑

挾路油茶溯澗濱
 綠陰留作四時春
 最愛園林荒落日
 雪中如火爛紅新

9

취한 볼에 향기를 드러내어 색의 품격이 고상하니

醉臉露香色品高

331) 八音 : 악기를 만드는 여덟 가지의 재료, 金·石·絲·竹·匏·土·革·木을 말한다.

332) 푸른 대나무 열매 : 원문의 '琅玕'은 硬玉의 하나로 짙은 녹색 또는 청백색을 띠는데 여기서는 대나무의 푸른 빛깔을 가리킨다. 杜甫의 「鄭駙馬宅宴洞中」에 “그늘진 골 주인집에 열은 연무 끼었는데, 객이 머문 여름 대자리는 푸른 낭간이로다. 主家陰洞細煙霧, 留客夏簾青琅玕.”라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1.

산인은 세상의 호걸에게 양보하려 하질 않네
가을은 분주하기에 적절하니
세모에 약초 캐는 노고가 없으리
위는 모란포이다. 右牧丹圃

山人不肯讓時豪
西風剩得分株法
歲暮仍無採藥勞

10

봄날의 공을 모두 옮겨 이곳에 기탁하니
온통 푸른 숲에 한 산만이 붉네
산인의 탁상에 차술과 차통이 있으니
백발옹에게 남은 인생 여유롭네
위는 영홍체이다. 右映紅砌

輸盡春功寄此中
千林共碧一山紅
茶鐺竹榼山人榻
太侈殘年白髮翁

11

맑은 시내 한 구비 돌아 푸른 병풍 열리니
우뚝 솟은 바위 모퉁이 물을 등지고 흘러가네
그 사이 停仙臺에 있던 신선이 이미 떠나가니
달 밝을 때에 홀로 백운이 낀 누대에 오르네
위는 창하벽이다. 右蒼霞壁

清谿一曲翠屏開
斗起巖稜背水廻
中有停仙仙已去
月明獨上白雲臺

12

단풍 숲 푸른 산에 물살이 빠르게 흐르니
작은 누각에 숨어있던 우레가 울며 지나가네
유리 수면에 나는 구슬 흩어져 들어오니
평온히 백 길의 그윽한 못을 이루도다
위는 홍옥담이다. 右紅玉潭

紅樹青山水急流
隱雷鳴過小樓頭
飛珠散入琉璃面
穩作平潭百丈幽

13

한 구비 맑은 계곡에 백 척의 단이 있으니
 한가로이 돌난간으로 걸음을 옮기네
 단풍나무 숲 깊숙한 곳에 그늘 짙으니
 물 기운 속은 오월에도 차가워라
 위는 풍단이다. 右楓壇

一曲清谿百尺壇
 閑來移步石欄干
 楓林深處繁陰重
 水氣中間五月寒

14

가림벽을 뚫고 맑은 시냇물 끌어 오니
 섬돌 따라 졸졸 띠처럼 길게 흘러들어오네
 蘭亭의 옛 修稷³³³ 풍류와는 달리
 시 한 수에 술 한 잔 함께 할 이 없구나
 위는 곡수이다. 右曲水

引出清谿穿響牆
 循除瀼瀼施紳長
 蘭亭舊稷風流遠
 一詠無人共一觴

총영 攄詠

소나무와 계수나무 깊은 골목에 담쟁이덩굴 문
 한 구역을 단장하여 작은 동산을 얻었네
 천 봉우리는 고요히 서서 마음의 고요함을 지켜보고
 만 폭포는 시끄러이 돌아 흘러 세속의 소란함을 씻어내네
 동주는 華陽居士가 보내준 시에서 이름 지었고
 집은 王麻詰의 輞川圖³³⁴속 마을에 있네

松桂巷深薛荔門
 一區粧得小邱園
 千峰靜立觀心靜
 萬瀑喧迴洗俗喧
 峒號華陽持贈物
 家在麻詰畫圖村

333) 蘭亭의 옛 修稷 : 중국 會稽 山陰에 있던 蘭亭에서 東晉 때 會稽內史로 있던 王羲之를 비롯하여 孫綽·謝安 등 당시의 명사 42인이 그곳에 모여 禊祭를 행한 뒤에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며 놀았던 고사가 있다. 『蘭亭考』 卷1.

334) 王麻詰의 輞川圖 : 王麻詰은 唐代 시인 王維를 가리키고, 輞川圖는 王維의 별장인 輞川의 스무 가지 勝景을 그린 산수도이다. 宋 秦觀이 병으로 몸져누워 있을 때 그의 벗 高符仲이 輞川圖를 빌려 주면서 이것을 보면 병이 금방 나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감상한 지 며칠 만에 병이 나았다고 한다. 『淮海集』 卷34 「書輞川圖後」.

琴書의 유업으로 생애가 만족스러우니
무릉도원에서 자손을 기르는 것이 부럽지 않네

琴書遺業生涯足
不羨桃源長子孫

회사의 '泮居' 운을 들어 우연히 읊음 拈晦沙泮居韻偶吟

세월이 흘러 어느덧 오십의 나이
백발에도 성인이 남긴 경서만을 끼고 있네³³⁵⁾
시혼은 한때의 그림자와 함께 지키고
병든 몸은 노학의 모습과 닮아 보네
일신의 계획에 어찌 반드시 득실을 논하리오
마음공부로 오히려 스스로 허령함을 지켜야 하리
산에서 고요히 지내니 항상 일이 없어서
집을 푸르게 두른 친봉우리를 마주할 뿐 일세

洽到光陰半百齡
白頭猶復抱遺經
詩魂共守寒梅影
病骨爭看老鶴形
身計何須論得喪
心工猶自保虛靈
山居靜寂常無事
只對千峯繞屋青

치천으로 가는 길에 治川途中

흐르는 세월은 사람과 더불어 늙어간 적이 없으나
아직도 산골에 더디 오는 춘광을 아끼네
술을 마시면 약간 취기가 돌 때 만족스럽고
꽃을 보면 막 피어나기 전이 좋아라
허명한 들 물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연약한 버들 바람은 얼굴에 불어와 스치네
진종일 청산에서 왔다 갔다 하니
아침 서쪽의 산 그림자가 저물녘 동쪽으로 옮겨가 있네

流年曾不與人衰
尙愛春光峽裡遲
飲酒頗宜微醉後
看花須趁未開時
虛明野水澄心在
嫩弱楊風拂面吹
去來盡日青山裏
朝西峯影暮東移

335) 성인이 …… 끼고 있네 : 唐 韓愈의 「寄盧仝」에 “『春秋』의 삼전은 높은 다락에 묶어 놓고, 성인이 남긴 경만 안고 시종 연구하였네.春秋三傳束高閣 獨抱遺經究終始”라는 내용이 있다. 『韓昌黎集』 卷5.

처음 제비를 봄 初見燕子

삼월삼짇날 三月三日

해마다 살구꽃 피는 봄을 따라 와
무슨 생각으로 사람에게 지지배배 우는가
어여쁜 새의 깃은 늘 그대로이거늘
응당 주옹의 백발을 보고 웃으리라

年年來趁杏花春
底意喃喃說與人
憐渠鳥羽常依舊
應笑主翁白髮新

장흥 부사 김헌순³³⁶⁾을 위한 만사 挽長興府使金獻淳

다른 사람 대신 쓰다. 代人作

쌍오리 신은 지방관 한양으로 조회 갔는데
봉해의 신선들이 학을 타고 불렀네
아 우리 어진 수령 돌아올 수 없으니
남은 백성은 흉년에도 다시 어찌할 수 없으리

雙鳧飛鳥玉京朝
蓬海群仙鶴背招
嗟我賢侯歸不返
餘民飢歲更無聊

두 번째 시 其二

목숨이 하늘에 달려있단 말은 참으로 속임이 없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은 의지할 곳 없다고 부르짖네
영각의 남쪽 처마³³⁷⁾ 아래를 바라보니
하룻밤 사이에 계수나무가 까닭없이 말라버렸네

有命在天信不誣
呼號無賴小民愚
須看鈴閣南榮下
桂樹無端一夜枯

세 번째 시 其三

336) 김헌순(1793~1852) : 본관은 安東이며 조선후기에 지방관 장흥 부사를 지냈다.

337) 남쪽 처마 : 원문의 '南榮'은 郭璞의 「上林賦注」에, “南榮은 지붕의 남쪽 처마이다.” 라 하였다. 그렇다면 처마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위로 솟구친 부분을 榮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일러 榮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붕을 빛나게 꾸미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종 유언에 별다른 말이 없었으니
 일찍이 인명³³⁸을 백년하청에 맡긴 것이라네
 죽은 아우를 위해 칠십일 사당에 곡하더니
 천리 길 달려온³³⁹ 자식들 어찌 하리오

臨命遺辭不及他
 曾將人壽付清河
 七旬哭廟惟弟故
 千里見星奈兒何

네 번째 시 其四

외람되이 선계에 의거하여 신계를 만들고
 게다가 인정 베풀어 백성을 교화하였네
 오늘 汭陽江³⁴⁰ 가에서 흘리는 문물은
 상여 앞에 찾아와 고인을 곡하는 마음이라네

猥憑先契契新成
 況作仁春化裡氓
 此日汭陽江上淚
 輻前來哭故人情

**운초가 춘성³⁴¹으로부터 관산 관아에 와서 머물며 자주 시를 보내주니 그 운에 화
 답하여 보내드림 樵自春城轉客冠衙頻以詩寄示和其韻以呈**

시 속의 사람을 꿈속에서 만나니
 십년 사이에 수염과 눈썹이 희끗해졌네
 남해를 따라 객이 된 지 오래되었건만
 서풍 따라 가을 날 돌아왔네
 이년 동안 거의 소양각에서 취했다가
 천리 떨어진 월출산에 다시 찾아왔네
 여러 편의 훌륭한 시문을 자주 보내오니
 그대를 향한 다정한 마음 아끼지 않으리

詩中人接夢中顏
 蒼白鬚眉十載間
 南海因循爲客久
 西風容易送秋還
 二年幾醉昭陽閣
 千里重過月出山
 數疊瓊瑠頻寄字
 多情不向故人慳

338) 인명 : 『藝文類聚』 卷8 「水部·河水」와 『太平御覽』 卷61 「地部·河」 등에 주나라 시로 소개된 逸詩의 구절이 실려 있는데, 그 詩에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랴?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되기에. 俟河之清, 人壽幾何.”라 하였다.

339) 달려온 : 원문의 ‘見星’은 『禮記』 「奔喪」에 “오직 부모의 상에는 셋별을 보고 길을 떠나고 저녁 별을 보고 멈춘다. 唯父母之喪, 見星而行, 見星而舍.”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340) 汭陽江 : 지금의 탐진강으로 전라남도 장흥군과 강진군 일대를 흐르는 하천이다.

341) 춘성 : 春川의 옛 지명이다.

석표[윤종민]에게 화답함 和石瓢

서른 날 병든 몸 장빈³⁴²⁾에서 힘드니
시료가 쓸쓸하여 금낭이 가난하네
반판 바둑으로 시름 속에 여름을 보내고
한번 오는 꽃과 새들로 꿈같은 봄을 지냈네
금서에 부끄러운 나는 산중의 객이요
낚시하는 날이 많은 그대는 바닷가 사람이네
오늘 기정에서의 흥취는 모두 부질없으니³⁴³⁾
이미 늙은 찌꼬리 자주 마음을 하소연 하네

三旬病榻困漳濱
詩料蕭然錦橐貧
半局楸枰愁送夏
一番花鳥夢經春
琴書愧我山中客
漁釣多君海上人
此日旗亭渾漫興
黃鸝已老訴情頻

우 又

찌꼬리 개울가 우거진 숲에서 울고
청산이 집에 가득하니 가난하지만은 않네³⁴⁴⁾
근심 보내고 함부로 다보를 평하고
소갈병에도 헛수고로 술을 꿈꾸네
나는 청안의 선비와 깊은 약속을 어기며
세상에서 덧없이 백발이 되었구려
멋진 그대 노년에도 풍아를 간직하였으니
일어나 운대의 바위를 자주 비로 쓰네

幽草黃鸝小澗濱
青山滿屋不全貧
遣愁無賴評茶譜
病渴虛勞夢麴春
吾背襟期青眼士
世間容易白頭人
愛子暮年風雅在
起向雲臺掃石頻

342) 장빈 : 병이 들어 요양하며 은거하는 강가라는 의미로, 後漢의 劉楨이 “나는 고질병 신음하는 몸이라, 맑은 장수 물가에 몸을 숨겼네. 余嬰沈痼疾, 竄身清漳濱.”라 하였다.

343) 흥취는 …… 부질없으니 : 杜甫의 「江上值水如海勢聊短述」에 “나는 성질이 아름다운 시구를 지나치게 좋아해, 남을 놀래키지 못하면 죽어도 마지않는데, 늘그막의 시편은 다 부질없는 흥취일 뿐이니, 봄이 오매 꽃과 새들은 너무 시름하지 말거라 .爲人性癖耽佳句, 語不驚人死不休, 老去詩篇渾漫興, 春來花鳥莫深愁.”라 하였다.

344) 가난하지만은 않네 : 杜甫의 「南鄰」에 “錦里 선생은 烏角巾을 머리에 쓰고, 동산에서 토란과 밤 거두니 전혀 가난하지 않네. 빈객을 자주 보아 아이들은 기뻐하고, 뜰에서 먹이 쪼아 새들은 길이 들었네. 錦里先生烏角巾, 園收芋栗不全貧. 慣看賓客兒童喜, 得食埭除鳥雀馴.”라는 구절이 있다.

재첩시 再疊

백운으로 내 그대와 함께 돌아가니
 깊고 깊은 작은 골에 세속의 기운³⁴⁵⁾ 드무네
 뒤늦게 임친을 깨달은 마음 거리낌이 없고
 일찍이 명리를 추구한 계책 온전하지 않았네
 낡은 거문고 가락 다하니 벗이 찾아오고
 외로운 학 울며 지나가니³⁴⁶⁾ 신선을 꿈꾸네
 시료 부족하여 아직 마치지 못했는데
 산 빛과 물빛이 서로 잘 어우러져있네

白雲吾與爾同歸
 小峒深深俗韻稀
 晚覺林泉心不累
 早求名利計全非
 古琴彈盡來知己
 孤鶴鳴過夢羽衣
 詩料闌珊收未了
 山光水色勢相圍

삼첩시 三疊

우리들의 풍취는 모두 부질없어
 푸른 눈 거듭 비벼 봐도 희끗희끗한 수염뿐이네
 인간사 세상에 흐르는 물과 같은데³⁴⁷⁾
 산 고개 너머로 돌아가는 구름 무슨 일로 바쁘나
 쇠약하고 병들어 깨어나질 못하니 학골처럼 가련하고
 새로운 시 짓고자 하나 거북의 창자만을 찾을 뿐이네³⁴⁸⁾

吾黨風襟儘是枉
 青眸重拭鬢蒼蒼
 人間流水如斯逝
 嶺上歸雲底事忙
 衰病未蘇憐鶴骨
 新詩欲就搜龜腸

345) 세속의 기운 : 陶淵明의 「歸園田居」에 “窺₁어서부터 세속에 적응할 정취 없고, 성정이 본래 산림을 좋아하였네. 少無適俗韻, 性本愛邱山.”라 하였다.

346) 외로운 학 울며 지나가니 : 蘇軾의 「後赤壁賦」에 “돌아와서 배에 올라 중류에 이르러 배가 그치는 대로 가서 쉴 제, 때는 한밤중이라 사방이 적적한데, 마침 외로운 학 한 마리가 강을 가로질러 동쪽에서 날아오더니, 날개는 수레바퀴만 하고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끼룩끼룩 길게 소리 내어 울며 나의 배를 스쳐서 서쪽으로 날아갔다. 反而登舟, 放乎中流, 聽其所止而休焉, 時夜將半, 四顧寂寥, 適有孤鶴, 橫江東來, 翹如車輪, 玄裳縞衣, 戛然長鳴, 掠予舟而西也.”라는 구절이 있다.

347) 물과 같은데 : 孔子가 일찍이 냇가에서 흐르는 물을 가리켜 이르기를, “가는 것이 이와 같을지, 밤낮을 쉬지 않는구나. 逝者如斯, 夫不₂舍晝夜.” 한 데서 온 말인데, 이는 곧 잠시도 쉴 새 없이 운행하는 道體의 本然을 감탄한 것이다. 『論語』 「子₃₄₅」.

348) 거북의 창자 : 원문의 ‘龜腸’은 南朝 宋나라 때 檀珪가 몹시 곤궁한 나머지, 일찍이 녹을 구하기 위해 王僧虔에게 보낸 편지에 “매미의 배와 거북의 창자가 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다. 굶주린 범은 으르렁대기 때문에 사람이 선뜻 고기를 던져 주지만, 배고픈 기린은 물어뜯지 못하니, 누가 터럭이나 떨어뜨리겠는가. 蟬腹龜腸, 爲日已久. 饑虎能嚇, 人遽與肉, 餓麟不噬, 誰爲落毛.”라 한 데서 온 말인데, 매미는 이슬만 마셔서 배속이 텅 비고, 거북은 굶주림을 견디다 창자가 가늘어졌다

백년의 경제를 그대는 묻지 말라
산 아래 누런 띠로 둘러진 한 채의 초당뿐이니

百年經濟君休問
山下黃茅一草堂

소치가 또 찾아와 모여 다시 시를 지음 349) 小痴又來會更拈韻

솔 그늘이 평상에서 옮겨가니 황대로 걸어가서
남은 먹물 남은 종이 그 안에서 펼치네
石瓢의 기쁨은 시에 드러나고
小痴의 풍취는 그림 속에 나타나네
斷雲은 천봉우리의 비가 되어 내리고350)
虛籟351)는 흘러 반 골짜기의 우레가 되었네
시료가 부족하여 시를 짓지 못하니352)
매미 울고 찌꼬리 답하며 재촉하는 듯

松陰移榻步簧臺
賸墨餘箋就裏開
瓢老襟期詩上見
小痴風雅畫中來
斷雲讓作千峰雨
虛籟流成半壑雷
搜得枵腸吟未了
蟬鳴罵答若相催

원효초당 옛터에서 옛날을 회상함 元曉草堂古墟懷古

어렸을 적에 원효초당에 올랐는데
백발 되어 해질녘 옛터에서 거니네
효자의 눈물 흔적 무덤가 나무와 늙어가고
선승의 이름 자취 洞天과 장구하리
선명한 국화는 유독 쓸쓸하고
배회하는 옛 제비들은 교외로 날아드네

童年記得早升堂
白首遺墟步夕陽
孝子淚痕封樹老
仙僧名跡洞天長
寒花的歷偏蕭索
舊鶯徘徊入莽蒼

는 데서, 전하여 매우 곤궁한 지경에 처함을 비유한다.

349) 정민의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의 책 243쪽에 소개된 이 시의 마지막 7·8句가 필자가 저본으로 삼은 원문과 다르게 나와 있다. 搜得枵腸吟未了, 蟬鳴罵答若相催. → 永日臨風吟未了, 蟬聲繚亂短章.

350) 원문의 '讓'는 '穰' 또는 '釀'과 통한다.

351) 虛籟 : 空山에서 바람 없이 일어나는 소리를 이른다.

352) 정민의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의 책 243쪽에 소개된 이 시의 마지막 7·8句가 필자가 저본으로 삼은 원문과 다르게 나와 있다. 搜得枵腸吟未了, 蟬鳴罵答若相催. → 永日臨風吟未了, 蟬聲繚亂短章.

한 누각의 흥폐를 어찌 물으리오
 세월은 빠름을 참으로 깨닫네

一閣廢興何足問
 光陰儘覺箇中忙

운초에게 화답함 和雲樵

국화 필 때 만나자던 약속 맑은 가을에 저버리니
 가까운 이별이 어찌 먼 이별의 근심과 같겠는가
 남해의 모래 바람 떠나는 기러기를 따르고
 오호의 안개비 한가로운 갈매기를 꿈꾸네
 도화 핀 운산 길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면
 눈 내리는 밤 월야에 배를 돌리지 말게나
 매화와 버들 피는 계절 간절히 기다리나니
 예양강가에서 한 동이 술로 함께 취해 보세나

黃花留約負清秋
 近別何如遠別愁
 南海風沙隨旅雁
 五湖煙雨夢閑鷗
 紅桃尚記雲山路
 暮雪休回月夜舟
 佇待春光梅柳節
 一罇共醉納江頭

과산이 석표와 석오윤직각³⁵³가 수창한 시를 외워 전해주자 그 두 시에 보운하여 석표에게 보냄 坡山誦傳石瓢石梧尹直閣酬唱詩步其二韻寄瓢老

잔설에 얼어붙은 참새 차가운 이끼를 쪼고
 밤새도록 바위 문은 물을 향해 열려있네
 시사에서 거문고 타고 술 마시자던 약속 저버리고
 벗 대신에 제비와 기러기만 날아오네
 시혼이 적적하니 매화가 다투어 즐고
 병든 몸 머리털 성기니 학이 시샘하는 듯
 坡山의 소매 안에서 석표의 시구 전하니
 강가 누대에서 석오와 함께 술을 마신 듯하네

霽殘凍雀啄寒苔
 終夕崑扉向水開
 詩社空留琴酒約
 故人替作燕鴻來
 吟魂寂寂梅爭睡
 病髮蕭蕭鶴欲猜
 坡老袖中瓢老句
 江樓如共石梧杯

353) 윤직각 : 본명은 尹致英(1803~1856), 본관은 海平, 자는 觀汝, 호는 石梧이다. 1835년(헌종1)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847년(헌종13) 문과에 급제하였다. 벼슬이 승정원 좌승지, 규장각 검교와 직각 등을 역임하였다.

두 번째 시 其二

석오가 귀양을 가서 '상강자고'의 시구를 지었는데 석표가 과거에 떨어지고 돌아오자 초련에서 말했다. 石梧遷謫有湘江鷓鴣之句石瓢下第而歸故初聯云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가지 소소하게 울리고	竹枝風動響疎疎
남국의 새로 지은 노래 멀리까지 전하지 못하네	南國新翻聽不遙
일 겁 湘江 ³⁵⁴ 에서 자고새 ³⁵⁵ 를 슬피하고	一劫湘江悲鷓鴣
몇 번이나 淸灞 ³⁵⁶ 에서 서리 맞은 가죽옷 ³⁵⁷ 에 힘들어 했던가	幾番淸灞困霜貂
추운 겨울 매화 핀 집에서 밤마다 그리워하고	天寒梅屋相思夜
세 밑에 자 ^芝 歌 ³⁵⁸ 를 부르며 홀로 아침에 영지를 캐네	歲暮芝歌獨採朝
웃으면서 백운동의 산 아래 집에서	堪笑白雲山下宅
노년의 생활 어초에 의탁하리라	衰年經濟付漁樵

세 번째 시, 파산에게 화답함 其三和坡山

백년을 허송하니 여생이 많지 않음을 괴로워하니	百年鼎鼎苦無多
세모에 金丹 ³⁵⁹ 도 늙음을 어찌 하라	歲暮金丹奈老何

- 354) 湘江 : 堯임금의 두 딸로 舜임금의 왕비가 된 娥皇과 女英이 舜임금 사후에 湘江에서 슬피 울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때 흘린 눈물방울이 대나무에 얼룩져서 淸湘斑竹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博物誌』 卷8.
- 355) 자고새 : 중국 남방에 서식하는 새 이름인데, 이 새는 항상 '길이 험난해서 갈 수 없다'는 뜻으로 "行不得也哥哥"라 운다 하여 고인들의 시문에 흔히 자고의 울음소리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 356) 淸灞 : 長安의 南郊로 흐르는 灞水를 가리킨 것으로, 唐 韓愈의 「縣齋有感」에 "서책을 싸 들고 도성을 떠나서, 눈물을 머금고 청과를 건넜었네. 懷書出皇都 銜淚渡淸灞"라 하였다. 곧 한유가 일찍이 博學宏詞科에 합격은 하였으나 쉬이 보임이 되지 않자, 당시의 재상에게 무려 세 차례나 서신을 올려서 보임을 요청해 보았지만 끝내 들어 주지 않으므로, 마침내 京師를 떠나서 河陽으로 돌아갔던 일을 회상한 것이다. 『韓昌黎集』 卷2.
- 357) 가죽옷 : 戰國時代 洛陽人 蘇秦이 合縱策을 주장하면서 제후를 설득하러 돌아다닐 적에, 조나라의 대신 李兌로부터 '검은 담비 가죽옷'과 황금 100鎰을 받고서 秦나라에 들어갔는데, 오래도록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죽옷도 모두 해지고 황금도 다 떨어져서 피폐해진 몸골로 초라하게 돌아온 '裘敝金盡'의 고사가 전한다. 『戰國策』 「趙策1·秦策1」. 이 시에서는 석표 윤종민이 과거 낙방하여 초라한 모습으로 귀향하기에 이렇게 쓴 듯하다.
- 358) 紫芝歌 : 秦 말기에 東園公·綺里季·夏黃公·甬里先生 등 네 노인이 폭정을 피해 商山에 들어가서 은거하였다. 이때 그들이 지어 불렀다는 노래이다. 『樂府詩集』 卷58 「琴曲歌辭」.
- 359) 金丹 : 선인이 먹는 불로불사의 약을 말한다. 晉 葛洪의 『抱朴子』 「金丹」에 "먹으면 신선이 되는 金丹에는 삼년 먹으면 신선이 되는 一轉之丹에서부터 사흘만 먹으면 곧 신선이 되는 九轉之丹에

차마 흰 귀밑머리 쓸어 내기도 어려우니
 다만 마음의 거울을 거듭 닦을 뿐이네
 분매의 녀이 돌아와 엷은 향기를 더하고
 향아리의 술은 봄이 되자 작은 거품이 일어나네
 얇은 비단 창에 추위가 뼈 속으로 스며드니
 언제쯤 뇌우에 북이 용으로 변하리오³⁶⁰⁾

巨耐鬢霜難掃除
 只將心鏡付重磨
 盆梅魂返添微馥
 甕酒春生起小波
 薄薄窓紗寒逼骨
 幾時雷雨動龍梭

운초의 앞 운에 화답하여 제석에 지어 보냄 和雲樵用前韻除夕詠寄

관아 동쪽에 억구산이 있다. 府東有億九山

묵노니 강진에서 몇 해를 지냈는가³⁶¹⁾
 관산에서 또 돌아가지 못하는 근심을 시로 지었네
 선달 산초향은 개미처럼 둥둥 떠 있고
 봄날 부평초는 갈매기처럼 두둥실 떠있도다
 다시 남쪽 풍속에 친히 임하니 백발이 더해지고
 줄곧 鄉愁에 얽매이니 외로운 배 있네
 멀리서도 오늘밤 객지 꿈속에서
 億身이 되어³⁶²⁾ 億九山에 오를 것을 알겠네

守歲金陵問幾秋
 冠山又作未歸愁
 椒香臘盡浮浮蟻
 萍水春生泛泛鷗
 南俗再親添白髮
 鄉心一繫有孤舟
 遙知此夜羈幽夢
 化億身登億九頭

이르는 아홉 종류의 金丹이 있다.”라 하였다.

360) 북이 …… 변하리오: 썸의 陶侃이 어렸을 때, 雷澤에서 그물질하다가 북을 하나 건져 벽에 걸어 놓았더니, 잠시 후에 천둥치고 비가 내리면서 그 북이 절로 용으로 변하여 날아가 버렸다는 고사가 있다. 『晉書』 「陶侃傳」.

361) 지냈는가 : 원문의 ‘守歲’는 除夕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새해 아침이 밝아 오는 것을 기다려 맞는 것을 말한다.

362) 億身이 되어 : 唐代 柳宗元의 「與浩同看山寄京華親故」에 “갈날과 흡사한 바닷가의 뾰족한 산들, 가을이 되니 곳곳마다 나의 예를 굿는구나. 이 몸이 천백억 化身이 될 수 있다면, 산꼭대기 날아 올라가 고향을 바라보련마는. 海畔尖山似劍鉞, 秋來處處割愁腸. 若爲化得身千億, 散上峰頭望故鄉.”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柳河東集』 卷42.

또 자술함 又自述

봄을 맞이하는 마음 가을을 만난 듯
 나이를 먹자 다시 이 빠지는 근심에 쌓이네
 들관의 학과 함께 여윈 몸으로 춥게 지내며
 강 갈매기에게 묻고자 한가로이 따듯한 곳을 찾네
 도도히 흐르는 물처럼 한평생 부질없고
 둥둥 떠가는 배처럼 세월은 일순간 흘러가네
 설사 살면서 오늘 저녁이 없다면
 우리들은 희어진 머리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리

逢春懷思似逢秋
 添齒還成損齒愁
 瘦骨徑寒同野鶴
 閑盟尋暖問江鷗
 百年浮世滔滔水
 一瞬流光泛泛舟
 假使人間無此夕
 吾儕曾不媿霜頭

14) 癸丑(1853)

잠 못 이루는 밤에 읊음 夜無眠起而詠

인생 백년 바쁜 시절 뒤돌아보니
 주야로 나누면 또 반이 지났네
 늙어서 잠 못 이루는 괴로움 말하지 말라
 홀로 장수하는 사람은 五更도 길구나

人生百歲轉頭忙
 晝夜中分又半強
 老來休說無眠苦
 獨壽人間五夜長

회사에게 화답함 和晦沙

선명하여라 용주[창평] 성곽 바깥 집으로
 꿈속에 그대 찾아 길 떠났네
 매화의 혼은 진중히 겨울을 지나 찾아오고
 대나무의 소리는 쓸쓸히 밤에 들려오네
 琴譜는 그대 따라 세세하게 평해지고

的歷龍洲郭外舍
 夢中雲樹意中程
 梅魂珍重徑冬至
 竹語蕭森入夜生
 琴譜憑君評細瑣

仙家の 글은 나를 좇아 분명하게 읽혀졌지
 무료하게 걸상에 말없이 앉아 있다가
 쇠잔한 성 새벽 호각소리에 놀라 일어났지

仙書從我讀分明
 無聊一榻無多話
 驚起殘城曉角聲

병중에 명율을 들어 ‘蓬’자를 얻음 病中拈明律得蓬字

4월 四月

애석하여라 떠돌이 같은 인생이여³⁶³⁾
 붉은 빛 해가 지니 푸른빛 자욱하네
 비 내린 파초 잎의 미끌린 윤기를 자주 보고
 바람맞은 난간의 저녁 꽃향기를 오히려 아끼네
 나무둥지를 만들다가 꾀꼬리 깃털 다 빠지고
 꽃가지 향기 다하니 나비의 꿈 자취 공허하네
 무료하게 지내는 요사이 병든 산옹은
 꽃 사이에 단정히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네

可惜人生似轉蓬
 千紅日謝翠濛濛
 細潤常看蕉葉雨
 晚芳猶愛欄花風
 鶯木巢成毛羽老
 蝶枝香盡夢痕空
 無聊近日山翁病
 端在芳華斷送中

또 운을 잡음 又拈韻

한쪽에는 약 그릇 한쪽에는 화로
 차고 따뜻함에 따라 마음껏 기거하네
 팔 힘의 얕고 깊음을 알고자 글자를 써 보고
 눈의 정기를 알아보고자 책을 읽어보네
 눈 쌓인 늙은 매화는 향기를 토해내기 어렵고
 바람맞은 여윈 대는 그림자가 절로 성기네
 노쇠와 질병은 한 몸에서 나오니
 양 귀밑머리 더욱 쓸쓸해짐을 금하지 못하겠네

半邊藥碗半邊爐
 調得寒溫任起居
 腕力淺深聊寫字
 眼精多少試看書
 老梅逢雪香難吐
 瘦竹臨風影自疏
 衰病由來同一體
 不禁雙鬢更蕭如

363) 떠돌이 같은 인생이여 : 원문의 ‘轉蓬’은 杜甫의 「風疾舟中伏枕書懷三十六韻奉呈湖南親友」에 “구르는 썩 같아 근심이 심하고, 약을 먹으며 병으로 신음하노라 .轉蓬憂悄悄, 行藥病泔泔.”라 하였다.

우 又

베개 하나 이불 하나 그리고 화로 하나
 병든 몸 맑고 고요하게 지내니 스님 생활과 같네
 참된 본성을 길러 다스리고 시율을 담론하며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성현의 글을 읽도록 권하네
 적적한 봄날에 두건새가 울며 지나가고
 듬성듬성 내리는 비에 낙화가 다 날리네
 봄이 되어 얼마간 변화한 일들 찾아오니
 봄바람에 취해 잠들었다 깨어난 뒤와 같구나

一枕一衾復一爐
 病居清寂似僧居
 養治眞性談詩律
 勸課兒曹讀聖書
 杜宇啼過春寂寂
 落花飛盡雨疎疎
 春來多少繁華事
 醉睡東風覺後如

새소리를 듣고 지음 聞禽語有作

바위산 한 쪽으로 물이 거둑 돌아 흐르니
 陝西省과 渭水³⁶⁴의 사이로 거처를 옮긴 듯하네
 골짜기 새는 때때로 촉나라를 그리며 울고
 백운은 곳곳에 진나라 산처럼 피어나네
 아침에 丹鳳³⁶⁵이 울기를 바랐던 곳에서
 도리어 저물녘에 靑牛³⁶⁶ 타고 관문 나서는 꿈을 꾸네
 해가 지니 長安이 어느 곳인가
 푸른 終南山으로 돌아가길 바라노라

巖巒一面水重環
 移宅如歸隴渭間
 谷鳥時時啼蜀國
 白雲處處似秦山
 有懷丹鳳朝鳴地
 却夢靑牛暮出關
 日下長安何處是
 終南翠色望中還

우 又

364) 陝西省과 渭水 : 원문의 ‘隴’은 섬서성의 異稱이고, ‘渭’는 위수를 말한다.

365) 丹鳳 : 황제의 詔書를 가지고 오는 使臣, 또는 詔書를 뜻한다. 商羊은 전설상의 새로, 큰비가 내리기 전에 항상 한쪽 발을 굽히고 일어나 춤을 춘다고 한다. 즉 중국 황제로부터 반가운 조칙이 오고 백성들이 기다리던 비가 내렸다는 뜻이다.

366) 靑牛 : 老子가 서쪽으로 떠나갈 때 函谷關의 關令 尹喜가 멀리 바라보니 紫色 기운이 떠 있는 것이 보였는데, 과연 얼마 뒤에 노자가 푸른색 소[靑牛]를 타고 관문을 지나가더라는 전설이 있다. 『列仙傳』 上.

玉井峰 머리맡엔 달이 지러하고
 백운동 서쪽 발두둑엔 풀이 우거졌네
 청산도 봄이 가는 것을 한스러워하여
 두견새 소리 빌려 밤마다 우는구나

玉井峰頭月欲低
 白雲西畔草萋萋
 靑山亦有春歸恨
 借得鶉聲夜夜啼

또 병석에서 감회에 젖음 又詠病懷

병석의 열흘은 구년과 같아
 약간의 검은 머리조차 모두 서리처럼 희어졌네
 바닷가 마을에서 삼년 동안 지겹도록 병치레하며
 산가를 중수하느라 녀 달 동안 힘들었네
 봄을 떠나보내는 한은 두견새와 함께 깊어가고
 빗속의 시름은 피꼬리와 더불어 마주하네
 쓸쓸히 모든 생각이 재처럼 차가워지니
 구름은 저절로 무심하고 물도 저절로 흐르네

病裡一旬似九秋
 若干蒼髮盡霜頭
 支離海國三年疾
 重作山家四月憂
 杜宇共深春後恨
 黃鸝並對雨中愁
 索然萬念俱灰冷
 雲自無心水自流

파산이 서울에서 관북 영흥부까지 거의 4천리를 왕래하며 귀로에 들렸다. 내가 마침 병중으로 억지로 일어나 운을 불러서 먼 여정의 노고를 위로함
 坡山自京抵關北永興府來往幾四千里歸路歷入余適在病枕強起呼韻以慰遠行之勞

변방 밖의 강하와 변방 밖의 산
 눈으로 보는 것이 어찌 귀로 듣는 한적함과 같으리오
 외로운 등불에 백발은 꽃과 늙음을 닮고
 만 리를 돌아온 사람이 달과 함께 돌아왔네
 나그네 꿈 靑海³⁶⁷의 눈에 얼마나 놀랐는가
 병든 혼은 일찍이 鬼門關³⁶⁸에 이르렀네

塞外江河塞外山
 眼看何似耳聞閒
 孤燈白髮花爭老
 萬里歸人月共還
 羈夢幾驚靑海雪
 病魂曾到鬼門關

367) 靑海：咸鏡道 北靑의 옛 이름이다.

368) 鬼門關：중국 廣西省에 있는 변방 요새로, 산세가 험준한 데다 瘴癘가 만연하는 등 풍토가 험악하여 生還하는 자가 드물었으므로 “열에 아홉은 못 돌아오는 귀문관. 鬼門關十人九不還”이라는

흥진은 이로부터 요란한 곳³⁶⁹⁾일 터이니
 반 속세에서 헛되이 애쓸 것을 한탄하지 말게나

紅塵自是擾擾界
 莫恨虛勞半世間

우 又

그대에게 釋王山³⁷⁰⁾을 물으며
 지나온 여정 들으며 한나절을 한가로이 보냈네
 斷俗門³⁷¹⁾에 이르러 속세를 벗어났다가
 昇仙橋 기둥에 시를 짓고 이름 남기고 돌아왔네
 삭풍은 摩天嶺³⁷²⁾에 이르지도 않았고
 변방의 달은 겨우 진수관을 지났네
 백발에 응당 푸른 바다의 눈을 더했을 터이니
 왕래하는 사이에 한 봄을 헛되이 보냈으리

憑君爲問釋王山
 歷路云成半日閑
 斷俗臨門逃世去
 昇仙題柱記名還
 朔風未上摩天嶺
 邊月纔過鎮水關
 白髮應添青海雪
 一春虛勞往來間

우 又

옛 변방이 아스라이 시야에 들어오니
 가며 가며 또 도성의 동쪽으로 향하네
 관북지방의 얼음과 눈은 삼천리요
 남쪽지방의 문장은 오십옹이라네
 龍興江³⁷³⁾에 뜬 달을 보며 시를 짓고
 봉새가 나는 바닷가 바람에 술취했지

古塞迢迢入望中
 行行又發洛城東
 北關冰雪三千里
 國南文章五十翁
 詩就龍興江上月
 酒醉鵬起海邊風

俗謠까지 유행했다 한다. 『舊唐書』 「地理志4.」

369) 요란한 곳 : 韓愈의 「把酒」에 “요란스럽게 명성을 치달리는 자들이야, 어느 누가 하루라도 한가할 수 있으리오. 나는 여기에 와서 어울릴 사람 없으니, 술잔 들고 한가롭게 남산의 경치를 대하노라. 擾擾馳名者, 誰能一日閑. 我來無伴侶, 把酒對南山.”라 하였다. 『韓昌黎集』 卷9.

370) 釋王山 : 함경남도 안변의 석왕사가 있는 설봉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371) 斷俗門 : 설봉산 아래 석왕사에 있는 산문이다.

372) 摩天嶺 : 함경남도 단천시에서 함경북도 김책시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373) 龍興江 : 함경남도 고원군 운곡면의 각고산 남쪽에서 발원하여 영흥평야를 관류하며 송진만으로 흘러드는 강이다.

은근히 객을 위로하는 쌍성의 수령이
 기녀 홍일점을 선발해주었네

慇懃慰客雙城宰
 爲選歌娥一點紅

상주거사에게 화답함 和尚州居士

휘장을 치고³⁷⁴ 도를 구한지 십여 년에
 호해로 벗을 찾아 은거지를 찾아왔네
 끈이 세 번 끊어질 정도로 周易³⁷⁵의 이치를 익혔고
 二程³⁷⁶의 요결을 마음으로 주고 받았네
 山門에서 책 읽는데 봄 그늘 고요했고
 석실 등불 아래 밤비가 싱글었네
 말세³⁷⁷에 호학을 아는 이 없으니
 일생의 즐거움을 어떻게 물을까

下帷求道十年餘
 湖海尋朋訪隱居
 玩理殘編三絕易
 傳心要訣二程書
 山門携笈春陰靜
 石室懸燈夜雨疎
 叔世無人知好學
 一生自樂問何如

**석표가 찾아오자 소동과 시운을 들어 함께 여러 편을 지어 파산 사우에게 보냄
石瓢至拈坡詩韻共賦數篇寄坡山詞友**

무슨 일을 도모하다 만 리 길에서 돌아왔나
 궁도에 계획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스스로 웃네
 삭풍이 부니 청려장³⁷⁸에 늙은 몸을 의지하고
 변방에 달이 뜨니 흰 모시옷 입고 추위에 놀라네
 劍外³⁷⁹에서 嚴尹³⁸⁰의 걸상에 자주 올랐고³⁸¹

何事經營萬里歸
 窮途自笑計全非
 朔風扶老青藜杖
 邊月驚寒白苧衣
 劍外頻登嚴尹榻

374) 휘장을 치고 : 董仲舒가 일찍이 '휘장을 깊이 내려치고 방 안에 들어앉아 글을 강독하면서 下帷講誦' 제자들을 가르칠 적에 3년 동안이나 밖을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정진했던 데서 온 말로, 전하여 깊이 들어앉아 독서에 전념하는 것을 비유한다.

375) 周易 : 원문의 '編三絕'은 韋編三絶로 孔子가 만년에 『周易』 읽기를 좋아해서 가족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말로, 열심히 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것을 뜻한다. 『史記』 卷47 「孔子世家」.

376) 二程 : 중국 宋의 유학자인 程顥, 程頤 형제를 아울러 부르는 이름이다. 程顥(1032~1085)는 자는 伯淳, 호는 明道先生이다. 그의 아우 程頤는(1033~1107)는 자가 正叔이고, 洛陽 伊川 사람이기 때문에 흔히 伊川先生으로 불렸다.

377) 말세 : 叔은 끝[末]이라는 뜻이므로 원문의 '叔世'는 末世 혹은 衰亂한 세상을 말한다.

378) 청려장 : 명아주 줄기로 만든 지팡이를 말하는데, 흔히 隱者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말한다.

廬山에서 遠公³⁸²⁾의 사립문을 거둬 찾았네
 먼 유람 길에 확 트인 흉금을 한껏 얻으니
 시 짓느라 여윈 몸³⁸³⁾ 道로 살찌우셨네³⁸⁴⁾

廬岑更訪遠公扉
 壯遊剩得襟懷豁
 詩瘦旋看道勝肥

우 아

누구를 위해 석표옹은 시를 읊고 돌아갔나
 가을 물 같은 님 바로 그대³⁸⁵⁾가 아닌가
 지기를 그리며 옛 칼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좋아하는「縑衣」³⁸⁶⁾ 시를 읊조리네
 젊어선 명승지를 찾아 변방³⁸⁷⁾까지 다 다녔고
 늙어선 선서를 안고 대 사립문을 닫았네
 기억하노니 계곡 남쪽에 배를 정박하던 날

爲誰瓢老詠而歸
 秋水伊人子也非
 知己由來看古劍
 中心所好賦縑衣
 早耽名勝窮榆塞
 晚抱僊經掩竹扉
 記取溪南停棹日

379) 劍外 : 劍閣山 이남 지방으로, 지금의 四川省, 즉 蜀지방을 가리킨다.

380) 嚴尹 : 杜甫의 옛 친구인 당시 成都府尹 겸 劍南西川節度使를 지낸 嚴武를 말한다. 그는 杜甫가 성도에서 어려운 객지살이를 할 때 큰 후원자가 되어 초당을 마련하도록 해주었다.

381) 곁상에 자주 올랐고 : 자신을 귀하게 대우해 준다는 의미로, 東漢 때 陳蕃이 豫章太守가 되었을 때 다른 빈객들은 일체 접대하지 않으면서, 오직 南州의 高士인 徐穉가 올 때만 곁상 하나를 옆에 놓아두고서 서치를 맞이하였으며, 서치가 떠난 뒤에는 그 곁상을 즉시 치웠다고 한다. 『後漢書』 卷66 「陳蕃列傳」.

382) 遠公 : 晉나라의 고승 慧遠을 말한다. 廬山의 東林寺에서 白蓮社를 결성한 뒤 山門을 나서지 않고 徒衆과 정토 수행에 전념하였다. 『梁高僧傳』 卷6.

383) 시 짓느라 여윈 몸 : 원문의 ‘詩瘦’는 詩를 괴로이 읊다가 파리해진 것을 말한 것으로, 杜甫의 「暮登四安寺鐘樓寄裴十迪」에 “그대 괴로운 생각 시 때문에 여윈 줄 아노니, 친구에게 만사를 게을리하노라. 知君苦思緣詩瘦, 太向交游萬事慵.”라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6.

384) 道로 살찌우셨네 : 曾子가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니, 덕이 있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퍼져서 태연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성실히 하는 것이다. 富潤屋, 德潤身, 心廣體胖, 故君子必誠其意.”라 하였다. 『大學章句』 「傳6章」.

385) 그대 : 원문의 ‘伊人’은 그리운 이를 나타낸다. 『詩經』 「蒹葭」에 “긴 갈대 푸르는데, 흰 이슬이 서리가 되었네. 바로 그 사람이 물 저편에 있도다. 물길 거슬러 올라가나, 길이 험하고 멀기도 하네. 물길 따라 쫓아가려 하나 물의 가운데에 완전히 보이네. 蒹葭蒼蒼, 白露爲霜. 所謂伊人, 在水一方. 溯洄從之, 道阻且長. 溯游從之, 宛在水中央.”라 하였다. 갈대가 아직 시들기 전에 이슬이 서리로 변하였고, 만나고 싶은 伊人은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도저히 만날 길이 없어 애석하게 여기는 뜻이다.

386) 縑衣 : 『禮記』 「縑衣」에 “현인을 좋아하기를 치의처럼 하고, 악인을 미워하기를 항백처럼 하면, 벼슬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도 백성들이 조심할 줄 알게 될 것이며, 형벌을 시험하지 않고도 백성들이 모두 복종할 것이다. 好賢如縑衣, 惡惡如巷伯, 則爵不瀆而民作慝, 刑不試而民咸服.”라 하였다.

387) 변방 : 원문의 ‘榆塞’는 山海關의 별칭으로, 북쪽 변방 요새를 가리킨다.

붉은 꽃이 막 시들고 푸른빛이 막 돌아났지

紅葩初瘦綠初肥

또 흥금의 시를 지음 又題襟

내가 더듬더듬³⁸⁸⁾ 귀의할 곳 없음을 부끄러워하니
 삼성³⁸⁹⁾의 유래는 예로부터 사비³⁹⁰⁾를 삼가는 것이네
 후배가 감히 선배의 공업을 논하리오마는
 금인이 반드시 고인의 옷을 입을 필요는 없네
 세간의 희비는 술에 취하고 깨는 것과 같고
 고요한 천지는 사립문을 열고 닫는 것과 같네
 단전을 길러 깊이 자신을 사랑하니
 옥지의 맑은 물처럼 윤택해지려 하네³⁹¹⁾

慙余撻植偃無歸
 三省由來戒四非
 後輩敢論先輩業
 今人不必古人衣
 世間憂樂醅醒酒
 靜裡乾坤開闔扉
 養得丹田深自愛
 玉池清水欲生肥

우 오

홀로 한가한 구름을 짝하여 함께 돌아오니
 시시와 비비를 모두 잊었네
 누워서 바람 소리를 들으니 귀가 맑아지고

獨伴閑雲與共歸
 都忘是是復非非
 臥聽虛籟能清耳

388) 더듬더듬 : 원문의 ‘撻植’은 맹인이 지팡이로 땅을 짚으면서 어렵게 길을 찾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 臆測으로 생각하여 행동함을 비유한다. 揚雄의 『法言』 「修身篇」에 “맹인이 지팡이로 땅을 짚으면서 길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을 뿐이다. 素撻植索塗, 冥行而已.”라 하였다.

389) 삼성 : 증자의 세 가지 반성이다. 증자가 “나는 하루에 세 가지로 자신을 반성하노니, ‘남을 위해 도모함에 충성스럽지 않았던가? 벗과 사귀에 신의가 있지 않았던가? 전수받은 것을 복습하지 않았던가?’이다.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라 하였다. 『論語』 「學而」.

390) 사비 : 안연이 공자에게 仁을 묻자, 공자가 이르기를,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仁이다. 克己復禮爲仁”라 하므로, 안연이 다시 그 조목을 묻자, 공자가 이르기를, “예가 아니거든 보지를 말고, 예가 아니거든 듣지를 말고, 예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거든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한 데서 온 말이다. 『論語』 「顏淵」.

391) 옥지의 …… 윤택해지려 하네 : 蘇軾의 「次韻定慧欽長老見寄八首」 중 세 번째에 “羅浮山은 만 길이나 높아서, 내려다보면 扶桑山이 낮다 하니, 朱明洞에 조용히 앉았노라면, 옥지가 절로 윤택해지겠네. 羅浮高萬仞, 下看扶桑卑. 默坐朱明洞, 玉池自生肥.”라 하였다. 朱明洞은 도교에서 말하는 十大洞天 가운데 일곱째 洞天이다.

일어나 빈 호리병을 두드리니 ³⁹²⁾ 옷이 젖으려 하네	起擊空壺欲濕衣
소나무 물가에서 돌 평상을 쓸어 바둑을 두고 ³⁹³⁾	松水碁聲開石榻
대나무 숲속에서 사립문을 닫고 다구에 차를 뺑네 ³⁹⁴⁾	竹林茶臼掩荊扉
집이 가난해도 늘상 독서를 좋아하니	家貧好讀唯常事
쌀독은 비었으나 오히려 나를 살찌게 하네	糠竅猶看使我肥

계간의 조카에게 소동파의 시운을 들게 함 使溪良姪拈坡韻

선가는 공적하고 도가는 허하니	禪家空寂道家虛
바른 학문은 원래 성인의 학문 만한 것이 없네	正學元無聖學如
한 몸의 어짊과 어리석음은 오직 내게 있고	一己賢愚惟在我
반평생의 곤궁과 영달은 그것과 관계 없네	半生窮達不關渠
부박한 황금을 좇는 금세를 슬퍼하니	黃金浮薄悲今世
늙도록 힘써 옛글을 읽노라	白首辛勤讀古書
운산에 앉아 깊숙이 문을 닫고	坐處雲山深閉戶
천석에 소요하며 여생을 보내리라	徜徉泉石送年餘

우 아

함부로 백발이 되도록 허송세월 보낸다면	無端白髮送年虛
-----------------------	---------

392) 빈 호리병을 두드리니 : “罍의 王敦이 항상 술을 마신 후 曹操의 “늙은 말 마구간에 었드렸지만 천 리 달릴 뜻 여전하네. 열사는 나이가 많아도, 장대한 뜻 끝이 없네. 老驥伏櫪, 志在千里. 烈士暮年, 壯心不已.”라는 시구를 노래하며 침 뱉는 병을 두들겨 박자를 맞추니 그 병이 온통 흠집투성이가 되었다고 한다. 『晉書』 卷98 「王敦列傳」.

393) 바둑을 두고 : 宋 蘇軾의 「觀棋」에 “나는 본디 바둑을 둘 줄 몰랐다. 한번은 혼자서 여산의 白鶴觀을 유람하였는데, 觀 사람들이 모두 문을 닫고 낮잠을 자서, 물 흐르는 시냇가 老松 숲에서 바둑 두는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에 기분이 좋아져 나도 모르게 바둑을 배우고 싶어졌다. 予素不解棋, 嘗獨游廬山白鶴觀. 觀中人皆闔戶晝寢, 獨聞棋聲于古松流水之間. 意欣然喜之, 自爾欲學.”라 한 데서 따온 말이다. 『蘇東坡傳詩集』 卷41.

394) 다구에 차를 뺑네 : 唐代 柳宗元の 「夏晝偶作」에 “남쪽 고을 더위에 술에 취한 듯, 책상에 기대 자고 난 뒤 북쪽 창을 여네. 정오에 사방이 고요한 듯 느껴지더니, 산동이 대숲 저편에서 다구를 뺑네. 南州溽暑醉如酒, 隱几熟眠開北牖. 日午獨覺無餘聲, 山童隔竹敲茶臼.”라 하였다.

아마도 만년에 궁산에서 후회하리라
 스스로 평생을 돌아보면 네게 할 말이 없으니
 내 삶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방초와 낙화를 평상에서 자주 쓸어내고
 백운과 명월 아래서 얼마나 글을 논했던가
 금인은 오히려 남을 책하는 데 밝지만
 그대는 젊어서 여유있게 학문에 힘쓰라

晚悔窮山乃有如
 自顧平生無語汝
 不知何許可稱渠
 芳草落花頻掃榻
 白雲明月幾論書
 今人猶解於人責
 勉子年光有裕餘

석표가 다시 들르자 소동파의 운을 잠음 石瓢重過拈坡韻

빈 뜰에 낙엽을 쓸고 성긴 울타리를 거닐며
 병든 몸으로 바람 맞으며 애써 버티네
 늦가을 누런 국화는 객에게 웃음을 남기고
 인간의 백발은 나를 속이지 않네
 술잔을 들고 어찌 취하지 않으랴
 즐겨 명리의 굴레에 얽매는 바가 되었거늘
 세모에 금단의 소식 끊어지니
 다만 내 몸 받들어 참된 성품 얻으리

空庭掃葉步疎籬
 病骨臨風強自持
 秋後黃花留客笑
 人間白髮不吾欺
 寧將盃酒無何醉
 肯作名韁有所縶
 歲暮金丹消息斷
 捧身只得我真頤

우 又

반은 무궁화 반은 대나무 울타리
 계산의 한 면은 그림 속인 듯
 피고 지는 꽃에 마음이 끌려 번뇌하고
 눈앞을 지나 사라지는 새에게 현혹 당했네
 천지 사이에 생을 기탁하니
 형체 밖에 걸핏하면 매여 있네
 평생 한적하게 삼계³⁹⁵를 초월하여
 貞하면 길하다는 유래를 頤卦에서 보리라³⁹⁶

半是槿籬半竹籬
 溪山一面畫圖持
 關心開落花爭惱
 過眼消沈鳥見欺
 天地之間生也寄
 形骸以外動焉縶
 百年閑適超三界
 貞吉由來可觀頤

베개 밑에서 육유의 운을 잡음 枕上拈陸韻

긴 밤 잠들지 못해 시간을 세는 차가운 밤	長宵無寐數寒更
창 밖 서릿바람에 뺨골이 오싹하네	窗外霜風到骨驚
사람을 속이려는 자루 속 쥐 소리 끊어졌다 이어지고	橐鼠欺人聲斷續
잠자는 숲 속 까마귀 그림자 또렷하네	林鴉對夢影分明
베개 밑에 병 조리하며 호흡을 조절하니 ³⁹⁷⁾	枕邊調病還調息
세상에 명성을 구하는 것은 명성을 허무는 일이네	世上求名是壞名
가슴 속 淸疾 ³⁹⁸⁾ 사라지게 할 수 없어	胸裡淸疾消不得
차술을 항상 데워 손으로 자주 따르네	茶鑪常煖手頻傾

운초가 보내온 「무이십운」³⁹⁹⁾ 차운시에 화답함 和雲樵次武夷十韻見寄

강남의 산수는 특별히 신령스러워	山水江南境特靈
푸르고 푸르러 그지없이 맑네	點蒼流綠不勝淸
이제 시인의 글귀를 보내오니	而今輸與詩人句
玉珮 瓊琚 ⁴⁰⁰⁾ 가 더욱 소리를 울리네	玉珮瓊琚更有聲

두 번째 시 其二

395) 삼계 : 불교에서 欲界·色界·無色界를 三界라 이른다.

396) 頤卦에서 보리라 : 원문의 ‘觀頤’는 『周易』 「頤卦」에 “이는 정하면 길하니, 길러 주며 스스로 음식을 찾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頤貞吉, 觀頤, 自求口實.”라는 구절에서 온 것으로, 바른 도로 남을 기르고 자신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이다.

397) 호흡을 조절하니 : 원문의 ‘調息’은 천지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원기를 흡입하고 목은 숨을 내쉬어 호흡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服氣·胎息·調息·吐古納新 등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398) 淸疾 : 한의학에서 火病으로 인한 불면증을 말한다.

399) 무이십운 : 朱子가 지금의 복건성 무이산 계곡의 아홉 구비 경치를 노래한 「武夷九曲歌」에 차운하였다.

400) 玉珮와 瓊琚 : 모두 옥으로 만들어서 패용하는 장식을 말한다. 이는 시문을 칭찬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韓愈는 「祭柳子厚文」에서 柳宗元의 문장을 칭찬하며 “옥패와 경거로 그 소리를 크게 낸다. 玉珮瓊琚, 大放厥辭.”라 하였다.

나그네 길 아득하여 배를 대지 못하고	客路悠悠不繫船
동천의 밝은 달 또 남천에 뜨네	東川明月又南川
나그네 시름 어느 곳인들 시료가 아니리	羈愁無處非詩料
보내온 매화가지 ⁴⁰¹⁾ 시들고 버들개지 흘날리네	梅驛殘花柳渡煙
관동에서 지내다 남쪽에서 노닌 까닭에 말한다. 自關東轉而南遊故	

세 번째 시 其三

남쪽 시골 다시 월출산을 지나니	炎徼再過月出峯
십년 귀밑머리 더욱 쇠한 모습이네	十載鬢髮便衰容
南屏山의 金鯽 ⁴⁰²⁾ 이라는 글자를 응당 아니	南屏金鯽應識字
흡사 전생을 살핀 듯 생각이 만 갈래네	似省前生意萬重
다시 강진으로 왔기에 말한다. 再到金陵故云	

네 번째 시 其四

돌아가려는 마음을 예양강 배에 매어두고	歸心一繫汭江船
남쪽 요리 ⁴⁰³⁾ 실컷 대한 지 이년이 되었네	厭對南烹抵二年
타향이라 나그네의 고통 있다고 말하지 마소	莫道殊鄉爲客苦
남호의 연월 또한 사랑스러우니	南湖煙月亦堪憐
관산에 와서 머무르는데 관산에 예양강이 있다. 來留冠山冠山有汭陽江	

401) 보내온 매화가지 : 원문의 '梅驛'은 매화를 전달해 주는 驛使라는 뜻으로 소식을 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역사는 공문서나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南北朝시대 宋의 陸凱가 강남에서 매화 한 가지를 장안에 있는 范曄에게 부쳐 보내 준 고사가 있다.

402) 南屏山의 金鯽 : 蘇東坡의 「去杭十五年夏游西湖用歐陽察判韻」에 '내가 남명산의 금즉어를 안다. 我識南屏金鯽魚'는 내용이 나온다. 我識南屏金鯽魚, 重來拊檻散齋余. 還從旧社得心印, 似省前生覓手書. 葑合平湖久芙漫, 人經丰歲尙凋疏. 誰憐寂寞高常侍, 老去狂歌憶孟諸.

403) 남쪽 요리 : 원문의 '南烹'은 남쪽 지방의 방식으로 요리한 음식이다. 韓愈의 「初南食貽元十八協律」에 "내가 남방으로 귀양을 왔으니, 남방의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하지. 我來禦魑魅, 自宜味南烹."라 하였다. 여기서는 남쪽 지방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시 其五

성곽을 둘러싼 층대의 백 길 바위
 강가의 꽃과 풀이 푸르게 드리웠네
 좋은 밤 다시 披香閣⁴⁰⁴에 오르니
 만 송이 연꽃이 月一潭에 피어있네

관청의 동쪽에 석대가 있고 또 피향각이 있다. 府東有石臺又有披香閣

繞郭層臺百丈巖
 江花江草碧毵毵
 良宵更上披香閣
 萬朵芙蓉月一潭

여섯 번째 시 其六

강을 거슬러 푸른 산 깊은 곳을 찾으니
 깊숙한 절간이 바로 보림사네
 만나질 한가로이 노니는 이 몸
 선방에서 무심을 이야기해도 무방하리

관청의 북쪽에 보림사가 있다. 府北有寶林寺

泝江尋到碧山深
 窈窕梵宮是寶林
 半日浮生閑自在
 不妨禪榻話無心

일곱 번째 시 其七

푸른 산에 단풍 숲 백운동 물줄기
 물가 사립문 일부러 닫지 않네
 작은 배 타고 흥겨울 날을 기다렸다가
 한 동이 술에 함께 취해 맑고 한가하리

한 번 방문 하리라는 약속이 있어서 말한다. 有一訪之約故云

靑山紅樹白雲灣
 臨水柴門故不關
 爲待小舟乘興日
 一樽共醉做清閑

여덟 번째 시 其八

서리 내린 후 바위와 비 내린 후 여울에서

霜後巖巒雨後灘

404) 披香閣 : 조선시대 장흥부의 관아로 披香樓라고도 불리었다.

겨울바람 불자 때로 다시 편지글을 펴 보네
 부질없이 편지⁴⁰⁵로 거듭 약속을 남겼거늘
 국화가 다 지고 또 세밑이네
 약속을 어겨서 말한다. 違約故云

溯風時復展書看
 謾將尺素重留約
 落盡黃花又歲寒

아홉 번째 시 其九

침침한 눈으로 줄곧 편지를 펼쳐보니
 주옥 같은 몇 편의 시를 자주 부쳐왔네
 나의 效顰⁴⁰⁶시를 그대는 웃지 말게나
 거친 시도 속마음을 토로한 것이라네

昏眸直向綵牋開
 多少瓊章數寄廻
 我欲效顰君莫走
 荒詞猶是吐心來

열 번째 시 其十

마른 창자를 다 더듬어도⁴⁰⁷ 마음이 쓸쓸하여
 문을 나서 한바탕 웃으며 긴 내를 바라보네
 외로운 기러기 보일락 말락 어디로 돌아가는가
 만 리 구름이 만 리 하늘을 열어 주네

搜盡枯腸意索然
 出門一笑見長川
 孤鴻明滅歸何處
 萬里雲開萬里天

405) 편지 : 원문의 ‘尺素’는 ‘서신’을 말한다. 쯤나라 陸機의 「飲馬長城窟行」에 “멀리서 온 손님, 잉어 두 마리 전해 주네. 아이 불러 요리하라 부탁했더니, 그 속에서 나온 한 자 비단 글. 客從遠方來, 遺我雙鯉魚. 呼兒烹鯉魚, 中有尺素書.”의 구절이 있다.

406) 效顰 : 춘추 시대 越나라의 미인 西施가 심장병을 앓아서 이맛살을 찡그리자, 그 모습도 매우 아름답게 보였으므로, 이웃의 추녀가 찡그린 모습을 흉내 냈더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피해 버리고 보지 않았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莊子』 「天運」. 여기서는 雲樵의 詩를 내가 본받아 화답하여 짓는다는 뜻이다.

407) 마른 창자를 다 더듬어도 : 唐代 시인 盧仝의 「走筆謝孟諫議寄新茶」에 “첫째 잔은 목과 입술을 적서 주고, 둘째 잔은 외로운 시름을 떨쳐 주고, 셋째 잔은 메마른 창자를 더듬어서, 뱃속엔 문자 오천 권만 남았을 뿐이요, 넷째 잔은 가벼운 땀을 흐르게 하여, 평생에 불평스러운 일들을, 모두 털구멍으로 흩어져 나가게 하네. 다섯째 잔은 기골을 맑게 해 주고, 여섯째 잔은 선령을 통하게 해 주고, 일곱째 잔은 다 마시기도 전에 또한 두 겨드랑이에 맑은 바람이 이는 걸 깨닫겠네. 一椀喉吻潤, 二椀破孤悶, 三碗搜枯腸, 惟有文字五千卷, 四碗發輕汗, 平生不平事, 盡向毛孔散. 五椀肌骨清, 六椀通仙靈, 七椀喫不得, 也唯覺兩腋, 習習清風生.”라 한 데서 온 말인데, 창자를 더듬는다는 것은 곧 술이나 차를 마셔서 詩思를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앞의 시에 차운하여408) 춘파와 회사에게 부침 又用前韻寄春坡晦沙

龍州409)의 성 밖 대나무 울타리
고사의 풍류를 자나 깨나 간직하네
청산의 약속을 내 자신이 저버렸지만
무단히 백발이 그대들을 속일 수 있으랴
술잔을 뱃속에 부어도 끝내 갈증 나고
시구로 마음을 애태우나 이 또한 엄매이네
그리운 마음에 처음 끊어진 꿈을 다시 찾느니
모두 잊고 성정을 기르는 것만 못하리

龍洲城外竹君籬
高士風流寤寐持
有約青山吾自負
無端白髮爾能欺
酒杯澆腹終須渴
詩句勞心是亦糜
餘思更尋初斷夢
不如相忘任情頤

첫눈을 보고 소동파의 운을 잠음 見初雪拈坡韻

해마다 시월이면 첫눈이 날리니
세모까지 어김없이 눈이 내리리
일찍 가을 기러기 보내어 겨울소식을 전하고
잠시 우는 까치 바라보며 돌아갈 때를 엿보네
천 갈래 산줄기를 백발로 뒤덮으니
하룻밤에 온통 늙어버린 청산이 아니던가
흰 눈으로 차를 달여 폐부의 갈증을 푸니
맑은 한기가 영켜 겹옷을 뚫고 들어오네

年年十月見初飛
歲暮爲期動不違
早遣霜鴻傳信至
俄看噪鵲覘幾歸
能驕白髮千莖是
全老青山一夜非
借汝烹茶醒肺渴
清寒凝徹透重衣

우 又

찬 까마귀 울며 흩어지니 잎이 어지러이 날리고
세찬 겨울바람의 기세가 어긋나지 않네

寒鴉啼散葉紛飛
朔氣憑陵勢莫違

408) 앞 시를 차운하여 : 앞 시는 「石瓢重過拈坡韻」을 가리킨다.

409) 龍州 : 전라도 창평의 옛 지명이다.

온 나무에 머지않아 꽃이 필 테고
 온 산도 순식간 푸른빛의 봄소식을 전하리
 문을 닫고 누워 있으니⁴¹⁰⁾ 누구에게 물을꼬
 穿履先生⁴¹¹⁾이 나만이 아니리
 너를 대하여 봄 경치를 잊고서⁴¹²⁾
 좋은 밭으로 반찬 삼고 옷 삼으리

萬樹無何結花至
 千山有頃掃青歸
 閉門深臥誰相問
 穿履先生我獨非
 對汝欲超煙花界
 瓊田爲餐更爲衣

아이에게 보임 示兒

젊은 날 학문할 때 모든 경서에 힘써야 하니
 자식에게 남긴 황금바구니⁴¹³⁾ 부끄러워하리
 선인들은 항상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거늘
 후생들은 자신의 총명함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네
 독서는 마땅히 힘써 궁구해야 할 것이요
 학업은 모름지기 엄격하게 과정을 세워야 하네
 너의 본보기는 여지껏 내게 있으니
 어느덧 늙어 성취가 없음을 후회하리라

青年做學勉全經
 遺子黃金媿一簞
 前輩常言無鹵莽
 後生不怕有聰明
 讀書宜用心推究
 爲業須嚴立課程
 爾鑑從來其在我
 居然白首悔無成

410) 누워 있으니 : 後漢의 현사 袁安이 한 길 높이로 폭설이 내린 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밖에 나가서 양식을 구하지도 않고 차라리 굶어 죽겠다면서 혼자 집에 누워 있었던 고사가 있다. 『後漢書』 卷45 「袁安列傳」. 여기서 은거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411) 穿履先生 : 청빈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東郭先生을 가리키는데 『史記』 卷126 「滑稽列傳」에 “東郭先生은 오랫동안 궁거에서 대조하고 있으면서 매우 빈곤하여 굶주리며 추위에 떨었는데, 옷은 헤지고 신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눈길을 다닐 적에도 신이 위 덮개만 있고 밑창은 없어서 밭로 땅을 다 밟고 다녔으므로, 길 가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웃었다. 東郭先生久待詔公車, 貧困飢寒, 衣敝履不完, 行雪中, 履有上無下, 足盡踐地, 道中人笑之.”라 하였다.

412) 봄 경치 : 원문의 ‘煙花’는 연기를 띤 봄꽃을 말한 것으로, 봄의 경치를 말한다. 杜甫의 「傷春五首」의 첫 수에 “관새의 거리는 삼천리요, 연화는 일만 겹이로다. 關塞三千里, 煙花一萬重.”라는 표현이 있다. 『杜少陵詩集』 卷13.

413) 황금바구니 : 漢代 경학자인 韋賢이 네 아들을 두어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막내 아들 玄成은 특히 明經으로 벼슬이 승상에 이르렀으므로, 당시 鄒魯의 속담에 “바구니에 가득한 황금을 자식에게 남겨 주는 것이 한 경서를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 遺子黃金滿簞, 不如一經.”라 했던 데서 온 말이다. 『漢書』 卷73 「韋賢傳」.

동려가 밤에 이르자 소동파의 시운을 잠음 桐廬至夜 拈坡詩韻

늦가을 이미 다하고 소춘⁴¹⁴이 지나니
 산이 추위를 맞아⁴¹⁵ 눈이 내릴 듯하네
 인간 세상은 도도히 흘러 모두 꿈 같고
 세월은 흐르고 흐르는 물과 같네
 문장은 석 잔 술에 호기롭고
 협사는 바람결에 검가를 슬피 부르네
 흰머리로 만나 세 밑을 맞이하니
 마음을 논한 시 외에 말할 것이 없네

高秋已盡小春過
 山意衝寒雪意多
 人世滔滔渾是夢
 光陰去去有如波
 文章豪氣三杯酒
 俠士悲風一劍歌
 白首相逢逢歲暮
 論心詩外不論他

두 번째 시 其二

유람의 뜻⁴¹⁶을 병중에 은근히 흘려보내고
 흥금을 열고 마주하니 많은 말 필요 없네
 서풍이 머릿결에 불어와 눈빛을 이루고
 고요히 글을 논하니 저절로 물결이 이네
 세 밑에 비분강개한 시를 만나니
 양춘에 누가 郢門歌에 화답 하리오
 鼎席⁴¹⁷에 앉은 세 사람 三更⁴¹⁸에 불을 밝히고
 淸狂⁴¹⁹의 술잔을 들고 그대들에게 맡기리

筇屐慙慙病裡過
 開懷相對語無多
 西風吹髮因成雪
 秋水論文自起波
 暮歲相逢燕市筑
 陽春誰和郢門歌
 三分鼎席三更燭
 杯酒淸狂一任他

414) 소춘 : 음력 10월의 별칭이다. 『初學記』에 “겨울철에 陽氣가 발동하면서 만물이 귀의할 곳을 얻게 되는바, 그 기운이 봄처럼 따뜻하게 되기 때문에 小春 혹은 小陽春이라고 한다.”라 하였다.

415) 추위를 맞아 : 杜甫의 「小至」에 “벼랑엔 선달 기다려 버들가지 피려하고, 산에는 추위 맞아 매화가 피려하네. 岸容待臘將舒柳, 山意衝寒欲放梅.”라 하였다.

416) 유람의 뜻 : 지팡이 짚고 나막신 신고 떠나는 유람을 말한다.

417) 鼎席 :三公 곧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자리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세 명이 모여 앉은 자리를 말한다.

418) 三更 : 밤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1시까지이다.

419) 淸狂 : 마음이 깨끗하여 청아한 맛이 있으면서도 그 언행이 규범에 어긋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세 번째 시 其三

인간세상 담소하며 보내기 어려우니
오늘밤은 일 년 중에서도 풍미가 넘쳐나네

人世難逢笑語過
今宵風味一年多
□□□□□□□
□□□□□□□

차 일곱 잔⁴²⁰을 마신 후 거친 술⁴²¹ 생각나고
세 편 시를 읊은 후에 또 길게 노래하리
紅塵의 세상에서 淸閑의 세상을 묻는다면
우리의 자부심을 누구에게 양보하리

茶七碗餘思薄酒
詩三疊後且長歌
紅塵若問淸閑界
自許吾人肯讓佗

네 번째 시 其四

만물을 관조하며⁴²² 고요 속에 세월을 보내니
연하가 이곳에도 많다고 하겠네

靜觀光陰靜裡過
煙霞此地亦云多
性天□失調寒暑

마음속의 평정이 무너져 파문이 이네
丹竈⁴²³의 신묘한 방술을 연단술에서 찾고
청산의 영험한 약은 자지가에 담겨 있네
평생의 수양은 오직 나로 말미암으니
丹田을 지킬 뿐 다른 것을 바라지 않네

胸海翻看起浪波
丹竈神方求煉術
青山靈藥有芝歌
百年自養惟由我
保得丹田不願佗

420) 차 일곱 잔 : 唐代 盧仝의 「七碗茶歌」에 “다섯 잔째에는 피부와 뼈가 맑아지고, 여섯 잔째에는 신령한 곳으로 통하고, 일곱 잔째는 마시지 않고도 두 겨드랑에 바람이 난다. 五碗肌骨淸, 六碗通仙靈, 七碗契不得, 惟覺兩腋, 習習輕風生.”라 하였다.

421) 거친 술 : 蘇軾의 「薄薄酒」에 “뭉고 싱거운 술도 차 마시기보다는 낫고, 굵고 거친 베라도 치마 없는 것보다는 낫다. 薄薄酒勝茶湯, 粗粗布勝無裳.”라 하였다.

422) 고요히 관조하며 : 宋代 程顥의 「秋日偶成」에 나오는 구절로, 그 시에 “한가하매 조용하지 아니한 일이 없고, 잠을 깨자 동창에는 해 이미 붉게 떴네. 만물을 살펴보니 나름대로 삶 즐기어, 사시의 좋은 흥취 사람과 똑같구나. 형체 있는 하늘과 땅 밖으로 도 통하고, 변해 가는 바람 구름 속으로 생각 드네. 부귀해도 안 넘치고 가난해도 즐겁나니, 남아 일생 이 경지면 그게 바로 호옹이리. 閑來無事不從容, 睡覺東窗日已紅. 萬物靜觀皆自得, 四時佳興與人同. 道通天地有形外, 思入風雲變態中. 富貴不淫貧賤樂, 男兒到此是豪雄.”라 하였다.

423) 丹竈 : 仙藥을 만들 때 사용하는 화덕이란 뜻으로, 宋 姚寬의 『西溪叢語』에 “王甫가 어느 도인을 만나서 어느 곳으로 따라갔는데, 소나무 밑을 지나자 폐허가 된 단조가 하나 있었다.” 하였다.

또 주희의 시운을 잡음 又拈朱詩韻

주객 두셋이 모인 자리에	兩三賓主席
백발로 깊은 골짜기에 앉았네	白髮坐深深
귀 기울여 남쪽자기의 소리를 듣고	耳側子綦籟
마음 비우고 백아 ⁴²⁴ 의 거문고 가락을 듣네	心虛伯牙音
차가운 산 저녁 희오리 바람에 놀라고	山寒驚夕颿
잎 떨어진 나무 성긴 그늘을 아끼네	木落愛疎陰
차가운 벼루에 한 흡의 먹물을 갈아	凍硯磨升墨
시를 쓰며 ⁴²⁵ 흥금을 쏟아내네	草玄瀉素襟

파산이 찾아오니 소동파의 시운을 잡음 坡山至 拈坡詩韻

바닷가에서 몇 년 동안 푸른 자라를 낚았는고 ⁴²⁶	幾年海上釣蒼鰲
늙어도 여전히 고아한 기품을 보겠네	白首猶看氣味高
시는 봄 하늘에 들어가니 운치가 뛰어나고 ⁴²⁷	詩入春空多態度
글은 가을 물로 돌아가니 파도가 일렁이네	文歸秋水起波濤
눈 속에 흥취는 대안도 때문이 아니요	雪中有興非緣戴
구름 외에는 도홍경에게 줄만한 것이 없네	雲外無持可贈陶

424) 백아 : 전국 시대 거문고의 명인인데 자신의 음악을 잘 이해해 주던 鍾子期가 죽자 거문고의 현을 끊어버리고 다시 연주하지 않았다고 한다.

425) 시를 쓰며 : 원문의 ‘草玄’은 『太玄經』의 작자인 揚雄이 시세에 영합하지 않고 진지하게 진리의 탐구에 몰두했던 것을 칭찬하는 말이다. 前漢 哀帝 때 董賢 등의 간신들이 국정을 농단하였는데, 당시에 이 간신들에게 붙으면 심지어 二千石의 벼슬을 받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揚雄은 이러한 시세에 휩쓸리지 않고 홀로 은거하면서 『太玄經』의 草稿를 잡았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草玄라는 말은 功利에 대한 욕심 없이 저술에 몰두하는 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이시현이 시를 쓰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426) 푸른 자라를 낚았는고 : 唐 開元 연간에 李白이 일찍이 한 재상을 알현하면서 海上釣鰲客이라 자칭하자, 재상이 물기를 “선생이 창해에 임하여 큰 자라를 낚으려면 무엇을 낚시와 낚시줄로 삼겠는가? 先生臨滄海, 釣巨鰲, 以何物爲釣絲.”라 하니, 이백이 말하기를 “무지개를 낚시줄로 삼고, 밝은 달을 낚시로 삼겠소. 以虹霓爲絲, 明月爲鉤.”라 하므로, 재상이 또 물기를 “미끼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何物爲餌”라 하니, 李白이 말하기를 “천하에 의기 없는 장부를 미끼로 삼겠소. 以天下無義氣丈夫爲餌”라 하였다. 『莊子』 「外物」 『侯鯖錄』 卷6.

427) 시는 …… 뛰어나고 : 韓愈의 「醉贈張秘書」에 “그대의 시는 풍류 운치가 하도 많아, 성대함이 봄 하늘의 구름 같구려. 君詩多態度, 藹藹春空雲.”라 한 데서 온 말이다.

일곱 잔의 향기로운 차에 마음이 담박해지니
 세 되의 술에 어찌 동쪽 언덕을(428) 사모하지 않으리

七椀香茶心淡泊
 三升何必戀東臯

우 又

땅에서는 코기리와 무소가 끊기고 바다에는 자라가 끊겨
 무지개는 천 길이요 눈은 하늘 높이 쌓였네
 대 가지에 얼음 맺히니 추위에 시어가 생기고
 솔 끝에 바람 스치니 밤에 파도가 치는 듯하네
 때로 아이들에게 권할 공부 과정을 찾는네
 문득 촌로를 만나 밭 갈고 옹기 굽는 일을 묻네
 갑자기 세모에 찾아 온 파산 나그네
 신을 끌고 힘들게 눈 언덕을 밟고 왔네

陸斷象犀海斷鼈
 文虹千丈雪天高
 竹枝氷封寒生語
 松頂風過夜有濤
 時勸兒曹尋課業
 却逢村老問耕陶
 俄來歲暮坡山客
 穿履辛勤踏雪臯

우 又

한 점의 해산은 푸른 자라(429)가 떨어진듯
 선부의 높다란 서른여섯 洞天(430)이 자리했네
 한가한 가운데 자주 신선의 세계(431)를 꿈꾸고
 병든 와중에 팔월의 바다를 그리워하네

海山一點落青鼈
 僊府洞天六六高
 閑中頻夢三清界
 病裡回思八月濤

428) 동쪽 언덕 : 원문의 ‘東臯’는 동쪽 언덕을 말한다. 陶淵明의 「歸去來辭」에 “동쪽 언덕에 올라 조용히 풍월을 즐기고, 맑은 물에 임하여 詩를 짓는다. 登東臯以舒嘯, 臨清流而賦詩.”라 하였다.

429) 푸른 자라 : 三神山을 가리키는데, 보통 館閣의 뜻으로 쓰인다. 발해 동쪽에 있는 岱輿·員嶠·方壺·瀛洲·蓬萊의 다섯 神山이 潮水에 밀려 표류하자, 天帝가 각각 3마리씩 모두 15마리의 거대한 자라로 하여금 이 산들을 머리에 이고 있게 하였는데, 뒤에 龍伯國의 거인이 6마리를 낚아 갔으므로 대여와 원교의 두 산은 西極으로 떠내려가고, 방호와 영주와 봉래의 세 산만 남았다고 한다. 『列子』 「湯文」.

430) 서른여섯 洞天 : 道家에서 신선이 사는 곳이라고 말한다. 『述異記』에 “인간의 36동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은 10개이고 그 나머지 26개는 『九微誌』에 나오기는 하나 세상에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431) 신선의 세계 : 원문의 ‘三清’은 도교에서 이른바 三尊이 거하는 최고의 仙境을 말한다. 삼존은 玉清境洞眞教主인 元始天尊과 上清境洞玄教主인 靈寶天尊과 太清境洞神教主인 道德天尊을 가리킨다. 삼존을 三清라고도 한다.

화려한 시문을 민첩하게 짓는⁴³²⁾의 문장에서 옛 위나라의 조식을 보고 繡虎文章看古魏
 소를 그리는⁴³³⁾ 풍치에서 오늘날의 도홍경이 있네 畫牛風致有今陶
 만년의 살림은 연하로도 만족하니 暮年經濟煙霞足
 도리어 金門⁴³⁴⁾에 은거한 東方朔과 枚臯⁴³⁵⁾가 우습네 却笑金門隱朔臯

우 又

신선의 누대는 해오산을 압도하고 仙子樓臺壓海鼇
 동천의 구름 아침에 흩어지니 玉峯의 높이네 洞雲朝散玉峯高
 주막에서 노래하며 王之渙⁴³⁶⁾을 머물게 하고 旗亭後唱留之渙
 종이를 새로이 재단하며 薛濤⁴³⁷⁾를 떠올리네 牋面新裁憶薛濤

432) 화려한 시문을 민첩하게 짓는 : 삼국 시대 魏의 曹植이 일곱 걸음을 걸을 동안 시를 지어냈으므로 사람들이 ‘繡虎’라 불렀던 데서 나온 말로, ‘繡’는 수를 놓은 것처럼 화려한 글을, ‘虎’는 호랑이처럼 민첩한 솜씨를 뜻한다.

433) 소를 그리는 : 산림에 은거하여 유유자적하는 것을 말한다. 南北朝 때 隱士 陶弘景이 梁武帝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소 두 마리를 그려 올려 자신의 뜻을 나타냈는데, 한 마리는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그림이고, 한 마리는 머리에 금으로 만든 굴레를 썼으나, 사람이 고삐를 잡고 채적으로 모는 그림이었다. 이를 본 梁武帝는 그를 招致할 수 없음을 알고 그대로 버려두었던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南史』 卷76 「隱逸列傳下·陶弘景」.

434) 金門 : 漢의 궁문인 金馬門의 약칭으로 보통 대궐이나 조정을 가리킨다. 金馬門은 본디 학사들이 待詔하던 곳이었는데, 전하여 조정을 가리킨다. 漢代 東方朔이 郎官으로 있었는데, 동료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모두들 선생을 보고 미쳤다고 한다.”라 하니, 동방삭이 “나와 같은 경우는 이른바 조정안에 은거하여 세상을 피해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옛날 사람들은 깊은 산속에 숨어 살면서 세상을 피하였다.” 하였다. 그리고는 술에 취해서 읊기를, “세속에 침체되어 있으면서 금마문에서 세상을 피해 사노라. 궁궐 속에서도 세상을 피해 살면서 자신의 몸을 보전할 수 있는데, 깊은 산속의 초가집 아래에서 살 필요가 있겠는가.”라 하였다. 『史記』 卷126 「滑稽列傳」.

435) 東方朔과 枚臯 : 원문의 ‘朔臯’는 漢武帝 때 문장과 재치 있는 해학으로 이름난 東方朔과 枚臯의 병칭이다. 枚臯는 『漢書』 卷51 「枚臯傳」에 “매고는 동방삭보다 부를 더 잘 지었다.……임금이 느낀 바가 있을 때마다 매고에게 부를 짓도록 하였는데, 글을 워낙 빨리 짓는 솜씨라서 매양 분부를 받은 즉시 지었으므로, 그는 부를 지은 것이 많았고, 사마상여는 글을 잘 짓되 더디었으므로, 지은 것은 적지만 내용은 매고의 글보다 정교했다. 臯爲賦善於朔也.……上有所感, 輒使賦之, 爲文疾, 受詔輒成, 故所賦者多, 司馬相如善爲文而遲, 故所作少而善於臯.”라는 내용이 있다.

436) 王之渙(688~742) : 唐代 詩人. 絳州 사람으로 자는 季凌이다. 벼슬은 冀州衡水縣主簿 文安縣尉를 지냈다. 高適과 王昌齡 등과 교류했고 성격이 호방하며 항상 검을 가지고 다녔다. 그의 시는 당시의 樂工이 제작한 歌曲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서북 변방의 풍광을 잘 묘사했다. 대표작으로 「登鶴雀樓」, 「涼州詞」 등이 있다. (중국역대인물 초상화).

437) 薛濤 : 唐代的 여류 시인으로 자는 洪度이며, 薛陶라고도 한다. 만년에 成都의 浣花溪에 우거하면서 진홍색의 채색 종이를 짧게 잘라 그 위에 시를 적어 넣곤 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 종

연나라 조나라의 슬픈 노래 ⁴³⁸)는 검축에 서러있고	燕趙悲歌多劍筑
요순의 남겨진 풍속은 밭 갈고 그릇 굽는 곳에 남아있네	唐虞遺俗有耕陶
우리들이 즐겼던 것은 일찍이 무엇이었던가	吾儕所樂曾何事
시를 짓거나 시냇가 언덕에서 휘파람 부는 것이었네	賦或臨流更嘯臯

또 육방옹의 시에서 ‘승’자 운을 들어 함께 화답함 又拈陸放翁詩得曾字共和

일찍이 짚신에 풀옷 걸치고 문을 닫았더니	扉履草衣閉戶曾
마음이 도리어 병든 스님 같네	情懷却似病寮僧
혼령은 공연히 三生石 ⁴³⁹)을 말하는데	精魂空說三生石
마음은 오히려 한 심지의 등불을 밝히네	心海猶明一炷燈
미로에서 항상 어둠 속에 던져진 자신을 보고	迷路常看投墜入
높은 곳에 사니 또한 낮은 데서 오를 것을 잃었네	高屣還失自卑升
랜시리 백발에 어리석은 노인이 되어	無端白髮成痴老
스스로 세상 모든 일에 무능함이 부끄럽네	自愧人間百不能

이를 薛濤箋이라고 불렀다 한다. 『資暇錄』 卷下 「薛濤箋」.

438) 연나라 조나라의 슬픈 노래 : 옛날 연나라와 조나라 지역에는 氣概가 꺾이지 않고 慷慨하며 激昂하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므로 ‘燕趙風’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荊軻가 연나라의 개백정이나 筑을 잘 연주하는 高漸離와 술집에서 어울려 비분강개한 심정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노닐다가 (秦始皇을 쫓아 죽이기 위해 자객으로 떠나간 고사가 유명하다. 『史記』 卷86 「刺客列傳」.

439) 三生石 : 三生은 불교의 용어로, 前生·今生·來生을 가리킨다. 唐 李源이 일찍이 洛陽 惠林寺에 있을 적에 승 圓澤과 매우 친밀하게 지냈는데, 하루는 둘이 배를 타고 南浦에 놀러 갔다가, 비단 배자를 입고 물을 끄는 한 부인을 보고는 圓澤이 울면서 이원에게 말하기를, “저 부인이 임신한 지 3년이 되었는데, 내가 의당 그의 아들이 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2년 뒤의 中秋日 달밤에 杭州 天竺寺 뒤에서 공과 다시 서로 만나기로 하자.”라 하였는데, 圓澤이 그날 밤에 과연 죽었고 그 부인은 과연 그날 아이를 낳았다. 이원은 그로부터 12년 뒤에 과연 그곳을 찾아가 보니, 葛洪川 가에서 한 목동이 소 땀을 두드리며 노래하기를, “나는 삼생석 위의 그 옛날 정혼이거니, 음풍농월하는 건 굳이 논할 것도 없네. 친한 벗이 멀리 찾아주매 진정 부끄럽지만, 이 몸은 달라졌으나 본성은 그대로 있다오. 三生石上舊精魂, 賞月吟風不要論. 慚愧情人遠相訪, 此身雖異性長存.”라 하여, 서로 친구였음을 확인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삼생석은 곧 친구 간의 재회를 의미한다.

우 又

일찍이 『楞嚴經』 440)을 어찌 암송했던가	楞嚴一經誦何曾
모습은 여전히 죽반승 ⁴⁴¹⁾ 과 같구나	貌樣還同粥飯僧
감히 애초에 玄關 ⁴⁴²⁾ 의 빗장도 열지 못했는데	未敢玄關初啓鑰
어찌 석실에서 끝내 佛法 ⁴⁴³⁾ 전수를 논하리오	那論石室竟傳燈
글을 숭상하는 풍조는 이로부터 흥하고 망함이 빈번했고	文風自是頻興替
세상의 도는 예로부터 오르고 내림이 있네	世道由來有降升
세모에 오두막에서 자신을 한탄할 뿐	歲暮窮廬徒自歎
형클어진 백발에 학업에 무능함을 뉘우치네	白紛工業悔無能

우 又

일찍이 시사에서 청유하자던 약속	詩社清遊有約曾
향상을 마주하니 선승과 같네	香床對若入禪僧
오늘 아침 비는 그대들을 만류하기에 좋건만	好機留客今朝雨
간밤의 등불 아래 꽃이 피는 기이한 꿈을 꾸었네	奇夢占花去夜燈
광야에서 누가 닷 섬 들이 표주박 ⁴⁴⁴⁾ 을 거두어 줄까	曠野誰收瓢五石

440) 『楞嚴經』 : 본이름은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10권. 唐의 般刺蜜帝을 번역.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세존과 阿難의 문답으로 시작하여 깨달음의 본성과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하고 如來藏이 무엇인가를 밝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관음신앙이라 하고 楞嚴陀羅尼를 설한 다음, 보살의 수행 단계, 중생이 수행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에 대해 그 원인과 종류를 밝혔다.

441) 죽반승 : 수행은 하지 않고 죽과 밥만 축내는 승려를 가리킨다. 宋 陸游의 「歎息」에 “국가의 도록은 웅당 증흥할 때이건만, 나는 정녕 죽반승 같음을 탄식하노라. 國家圖錄合中興, 歎息吾寧粥飯僧.”라 하였다.

442) 玄關 : 玄妙한 道의 문을 말하고, 또 도를 닦는 집의 문을 지칭하기도 한다. 唐詩에, “수풀 밑에 玄關을 닫았네.”라 하였다.

443) 佛法 : 원문의 ‘傳燈’은 등불을 전한다는 것인데 곧 불가에서 불법을 전하는 것을 가리키는바, 불법은 마치 밝은 등불과 같아 어두움을 깨뜨려 열어 준다는 뜻에서 이렇게 일컫는다.

444) 닷 섬 들이 표주박 : 惠子가 莊子에게 말하기를, “魏王이 나에게 큰 박 종자를 주기에 심었더니 박이 열렸는데, 닷 섬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여서 거기에 간장을 담아 쓰자니 용량에 비하여 견고하지가 못해 지탱을 못할 것이고, 쪼개서 바가지로 쓰자니 너무 험하고 커서 마땅히 쓸 만한 곳이 없소 ……” 하자, 莊子는 물건은 어느 물건이든지 쓰는 사람이 쓰기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莊子』 「逍遙遊」.

동고에서 부질없이 세 되 술만을⁴⁴⁵⁾ 그리워하네
 부끄럽게도 작은 재주 오히려 졸렬하니
 남이 열에 능하다면 나는 하나에 능할 뿐

東臯空戀醞三升
 堪羞小枝猶拙
 人十其能我一能

우 又

석표와의 기이한 인연 시사에서 맺었고
 파산옹의 습기는 齋僧⁴⁴⁶⁾에게 들었네
 오늘 시는 이전 시구에 화운하려는 것이니
 오늘밤도 간밤의 등불을 밝혔네
 세모에 뜻밖에도 만났다가 헤어지니
 궁도에 어찌 다시 부침이 있으리오
 곤궁하게 백발이 된 운산의 늙은이
 東嘔⁴⁴⁷⁾을 흉내 내며 무능함을 부끄러워하네
 석우는 석표이다. 파산어른에 앞서 이곳을 들렀기에 말한다.
 石友石瓢也 先坡老過此 故云

詩社奇緣石友曾
 坡翁習氣聞齋僧
 今題只和前題句
 此夜還張去夜燈
 歲暝居然成聚散
 窮途豈復有沈升
 龜腸鶴髮雲山老
 效得東嘔愧不能

우 又

천 바위 빼어난 빛이 일찍이 나를 지켜주니
 내가 仙人⁴⁴⁸⁾ 같다면 그대는 老僧

千巖秀色護余曾
 我似癯仙爾老僧

445) 세 되 술만을 : 隋末에 王通의 아우 王績이 어린 나이에 孝廉으로 천거되어 六合縣丞이 되었으나 술을 너무 즐긴 탓으로 정무에 방해가 되자, 스스로 병을 칭탁하고 향리로 돌아가 버렸다. 그 후 唐 고조 武德 연간에 문하성의 待詔로 들어가자, 그의 아우인 王靜이 그에게 말하기를 “대조가 즐겁습니까? 待詔可樂否”라 하자, 그가 말하기를 “대조는 봉록이 박하고 더구나 쓸쓸한 자리임에랴. 다만 날마다 좋은 술 서 되씩 내려 주는 것이 조금 그리울 뿐이다. 待詔俸薄況蕭索, 但良醞三升, 差可戀耳.”라 한 데서 온 말이다. 『唐才子傳』 卷 8「隱逸」.

446) 齋僧 : 佛供을 올려 고인의 명복을 비는 승려라는 뜻이다.

447) 東嘔 : 越나라 미인 西施가 위장이 아파 얼굴을 찡그리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동쪽에 살던 못생긴 여인이 이를 흉내 내었던 데서 온 말로, 주체님께 남의 흉내 내는 것을 꼬집는 말이다.

448) 仙人 : 원문의 ‘癯仙’은 산수 사이에 은거하는 仙人을 가리킨다. 옛날 巴工 사람이 자기 굴원에 대단히 큰 굴이 있으므로, 이를 이상하게 여겨 쫓겨어 보니, 그 굴 속에 鬚眉가 하얀 두 노인이

대울타리의 다조는 단조를 겸하고
 석실의 書燈은 佛燈과 같네
 눈은 三白⁴⁴⁹의 징험을 따라 내리고
 봄기운은 이미 一陽⁴⁵⁰을 향해 올라오네
 쉼위의 누에는 힘이 다하여 두 잠⁴⁵¹ 뒤에도
 실이 마르고 목이 말라 토해내지 못하네

竹籬茶竈兼丹竈
 石室書燈似佛燈
 雪意從他三白驗
 春心已向一陽升
 薪蠶力盡重眠後
 絲渴喉乾吐未能

파산과의 연구⁴⁵² 與坡山聯句

운림에 해 저물려하니		雲林歲欲暮
氷月이 찬 강에 있네	파산	氷月在寒江 坡
鍾子期和 伯牙 ⁴⁵³ 는 산과 물이요		山水同鍾伯
司馬徽와 龐德公은 누가 주인이고 객인가 ⁴⁵⁴	자이	主賓孰馬龐 怡
슬픈 노래는 검축을 논하고		悲歌論劍筑
고운 글귀는 옥돌을 다듬은 듯	파산	佳句琢珉珏 坡
첫눈이 겨우 골짜기를 덮으니		初雪纔藏壑
시냇물은 징검다리를 넘지 못하네	자이	殘流未出砵 怡
어찌하여 그대 머리는 희어졌는가		緣何君髮素

서로 마주 앉아 바둑을 두면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 449) 三白 : 동지 이후 세 번째 돌아오는 戌日을 臘日이라고 하는데, 납일 전에 세 번 눈이 내리는 것을 三白이라고 한다. 이때 내리는 눈이 보리농사에 가장 좋기 때문에 상서라고 한 것이다.
- 450) 一陽 : 동지가 되면 밑에서 一陽이 始生하는 地雷復卦를 이루게 되는데, 이는 땅속에서 우레가 울리는 것을 상징한다.
- 451) 두 잠 : 누에가 알에서 깨어나 3일 정도 밤, 낮으로 뽕잎을 먹이면 첫 번째 잠을 자게 된다. 첫 잠을 자고 허물을 벗고 나면 2살이 된다. 그리고 2일반 정도 키우면 1cm이상자라며 두 번째 잠을 자게 된다.
- 452) 연구 : 한 사람이 각각 한 구석을 지어 이를 합하여 만든 詩. 중국 한나라 무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 453) 鍾子期和 伯牙 :知音의 벗이라는 말이다. 春秋時代 伯牙가 거문고를 타면서 高山에 뜻을 두자 鍾子期가 “높디높기가 마치 태산과 같도다! 峨峨兮若泰山”라 하였고, 또 流水에 뜻을 두자 “넓고 넓기가 마치 강하와 같도다! 洋洋兮若江河”라 하였다. 『列子』 『湯文』.
- 454) 司馬徽와 …… 객인가 : 後漢 末 隱士 龐德公은 일찍이 諸葛孔明이 존경하여 배알을 하기도 했던 高士다. 荊州刺史 劉表의 간곡한 요청도 뿌리친 채, 가족과 함께 襄陽의 鹿門山에 들어가서 약 초를 캐며 살았는데, 역시 당시의 고사였던 司馬徽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침 그가 성묘하러 산에 올라가고 집에 없자 司馬徽가 대신 주인 행세를 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高士傳』 下 『後漢書』 卷83 「逸民列傳·龐公」.

만나 보니 마음으로 따르게 되네	파산	既觀我心降 坡
매화 핀 밤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梅夜幾多思
차 내리는 아침 홀연히 발자국소리	자이	茶朝忽有聲 怡
문장의 기운은 추수처럼 다투어 이어지고		氣爭秋水筆
흥취는 剡溪의 배를 타고 ⁴⁵⁵⁾ 밀려오네	파산	興入剡溪舡 坡
이윽고 문방사우를 가져오니		文友俄招四
검은 무지개 문득 쌍으로 피어나네	자이	墨虹忽起雙 怡
흰 눈은 북쪽 성곽에 쌓이니		白雪收北郭
붉은 해가 동창에 떠오르네	파산	紅日覺東窓 坡
흉년에 안개 낀 이랑을 갈고		歲儉耕煙畝
차가운 날씨에도 달빛을 낚네	자이	天寒釣月雙 怡
현묘한 이치를 찾아 道家書 ⁴⁵⁶⁾ 를 펼치고		究玄披道帙
붓을 휘둘러 경서를 논하지 않네	파산	揮素掩經幢 坡
처세에는 어려움 많으니		處世多難險
몸가짐 또한 삼가야 하리	자이	持身且慎愷 怡
진세를 피해 깊은 골짜기에서 지내고		逃塵栖邃壑
속세가 싫어 부서지는 물소리 듣네	파산	厭俗聽飛淙 坡
심한 형벌 ⁴⁵⁷⁾ 은 초나라 구슬이 부끄럽고		三刑羞荊璞
九章 ⁴⁵⁸⁾ 은 초나라 향초를 슬퍼하네	자이	九章泣楚苙 怡
차의 향기는 약사발에 맺혀있고		茶凝調病碗
난초의 향기는 독서등에 향기롭네	파산	蘭藝讀書釭 坡
속된 말은 모두 파 지방의 노래요 ⁴⁵⁹⁾		談俗皆巴俚

455) 섬계의 배를 타고 : 친구의 방문을 뜻하는 말이다. 쯤나라 王徽之가 폭설이 내린 밤에 술을 마시며 左思의 招隱 시를 읊다가 갑자기 剡溪에 있는 친구 戴逵가 생각이 나서 밤새 배를 저어 그 집을 찾아갔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世說新語』 「任誕」.

456) 道家書 : 원문의 ‘道帙’은 도가의 서적을 말한다. 『北山移文』에 “도가의 책이 영원히 배척되고 불법을 강론하는 자리가 오래도록 매몰되었다. 道帙長擯, 法筵久埋.”라 하였다. 『古文眞寶』 後集 卷2.

457) 심한 형벌 : 원문의 ‘三刑’은 초나라의 卞和라는 사람이 일찍이 楚山에서 玉璞을 얻어 이것을 초나라 厲王과 武王 2대에 걸쳐 왕에게 바쳤으나, 그때마다 玉人の 잘못된 판정에 의해 왕을 속였다는 죄목으로 양쪽 발꿈치를 다 베어냈다. 그 후 文王이 즉위하자 변화가 이 옥박을 안고 초산에서 3일 밤낮을 운 끝에 드디어 왕명에 의해 그 옥박을 다시 조사하게 한 결과 마침내 보옥을 얻게 되었다. 『韓非子』 「和氏」. 후에 진하여 재능 때문에 화를 입게 되는 것을 비유한다.

458) 九章 : 『楚辭』 「九章·懷沙」에 “모서리 깎아 둥글둥글 돌아가는 세상이여, 나는야 멧뚝한 법도 바꾸지를 앓았어라. 刑方以爲圓兮, 常度未替.”라는 말이 있다.

빈 말은 허황된 말에 가깝네	자이	說空近幻嗒 怡
맑은 마음은 거문고 가락에 쌓이고		淸心琴裡蓄
큰 뜻은 붓끝에 표현되네	파산	大義筆端扛 坡
먹고 마시는 일 ⁴⁶⁰ 이 내 본분이나		飲啄雖吾分
밭 갈고 고기 잡는 일도 큰 일이 되었네	자이	耕漁亦化厖 怡
인을 품고 공연히 골짜기를 지킬 뿐		懷仁空守壑
나라를 경영할 계책이 없네	파산	無計可經邦 坡
유쾌함은 술 취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으니		一快無如醉
술병을 두드리고 ⁴⁶¹ 다시 술을 따르네	자이	擊壺更倒缸 怡

한창려의 「상서사」시를 차운하여 파산에게 줌 次韓昌黎湘西寺詩韻贈坡山

살아온 세월 이미 반백년	行年已半百
세상살이 쉽고 어려운 일을 겪었네	世路闕夷險
높은 곳을 내려와 그윽한 골자기로 돌아와	下喬還幽谷
감자 먹는 것 ⁴⁶² 도 점차 익숙해졌네	啖蔗或佳漸
작은 간교함은 큰 어리석음이니 ⁴⁶³	小點是大痴

459) 파 지방의 노래요 : 원문의 ‘巴厘’는 바지방의 민간 가요. 또는 자기가 지은 시문에 대한 겸칭이다.

460) 마시고 먹는 일 : 원문의 ‘飲啄’은 食啄과 비슷한 말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뜻하며, 『莊子』 「養生主」에 公文軒과 右師의 대화 가운데 나온다. 右師가 말이 하나 잘려나가는 형벌을 받은 후에 외발로 나타나자 公文軒이 깜짝 놀라며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인지를 묻자 右師는 사람이 아닌 하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며, “뭇 가의 꿩은 열 걸음 만에 한 입 쪼아 먹으며, 백 걸음 만에 한 모금 마시지만, 새장 속에서 길러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神態는 비록 왕성해지겠지만, 새의 본성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澤雉十步一啄, 百步一食, 不斲畜乎樊中, 神雖王不善也.”라 하였다. 즉 右師는 인간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에 순응해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自由임을 강조하였다.

461) 술병을 두드리고 : 『王敦列傳·擊壺歌』에 晉의 王敦은 술 마시면 늘 여의로 단지를 두드리며 曹操의 “늙은 말이 구유에 었드려 있으나 뜻은 천리 밖에 있네. 열사는 늙었지만 장대한 포부 그치지 않았네. 老驥伏櫪, 志在千里. 烈士暮年 壯心不已.”라는 시구를 불렀다 한다. 『晉書』 卷98.

462) 감자를 먹는 것 : 원문의 ‘啖蔗’는 감자를 맛본다는 뜻으로, 晉 顧愷之가 사탕수수를 꼬리 부분부터 맛보자,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물으니 “점점 더 좋은 맛을 보려고 해서이다 漸入佳境”라 하였다. 『晉書』 卷9 2 「文苑列傳·顧愷之」.

463) 작게 …… 것이니 : 韓愈의 「送窮文」에, “韓愈가 일찍이 다섯 窮鬼, 즉 智窮·學窮·文窮·命窮 交窮을 몰아내려고 하자 그 궁귀들이 말하기를 ‘그대가 우리들을 몰아서 내쫓으려고 하니, 작게는 약으나 크게는 어리석도다. 驅我令去, 小黠大癡.’라고 하면서 끝내 떠나려고 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그들을 도로 맞아들여 상좌에 앉혔다.”라 한 데서 온 말이다.

양피 한 장으로 완엄과 바꾸었네 ⁴⁶⁴⁾	一羊易琬琰
어찌 이 기룡을 면할 수 있을까	那能免斯譏
긴 밤 홀로 앉아 생각에 잠기네	永夜思獨儼
이 구름 낀 산 속이 좋기만 하여	好是雲山裡
깊숙한 벼랑에 집을 지었네	窈窕架崖广
일찍 과거시험의 뜻을 버리고	早棄公車業
몸을 피해 더욱 자취를 감추었네	逃身跡更斂
맑은 물에서 머리를 감으며	浴髮臨清流
허리띠 느슨해도 조이지 않네	衣帶懶不檢
겨울에는 따뜻한 개울가를 찾고	冬暖到谿缸
여름에는 서늘한 대자리에서 매미소리 듣네	夏涼聞蟬篔
공손히 선인의 집을 지키며	恭守先人廬
가업 ⁴⁶⁵⁾ 에 욕됨이 없기를 바라네	堂構庶無忒
내가 노래하면 그대가 화답하고	我唱君且和
품평하며 교정을 받네	品題受訂貶
인을 행함에 ⁴⁶⁶⁾ 사양한 적이 없고	爲仁曾不讓
시를 논함에 ⁴⁶⁷⁾ 아첨하지도 않네	論詩亦無諂
안개가 그대의 얼굴 ⁴⁶⁸⁾ 에서 생겨나고	煙霞生眉宇

464) 양피 …… 바꾸었네 : 원문의 ‘琬琰’은 周의 弘璧과 함께 西序에 보관되어 있던 진귀한 보옥으로 뛰어난 문장을 뜻하고, 양피는 보잘것없는 시문을 뜻한다. 韓愈의 『送窮文』에, “귀한 옥을 가져다가 한 장의 양피와 바꾼다. 携持琬琰, 易一羊皮.”라는 내용이 있다.

465) 가업 : 원문의 ‘堂構’는 肯堂肯構의 준말로, 가업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書經』 『大誥』에 “아버지가 집을 지으려 하여 이미 설계까지 끝났다 하더라도, 그 자손이 집터도 닦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집이 완성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若考作室, 既底法, 厥子乃不肯堂, 矧肯構.”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466) 인을 행함에 : 『論語』 『衛靈公』에 “仁을 행해야 할 때에는 스승에게도 사양하지 않는 법이다. 當仁不讓於師”라 하였다.

467) 시를 논함에 : 『論語』 『學而』에 “子貢이 ‘가난하되 아첨함이 없으며, 부유하되 교만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자, 孔子가 ‘괜찮으나,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며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자만 못하다.’ 하였다. 子貢이 『詩經』에 ‘절단해 놓은 듯하고 다시 그것을 간 듯하며, 쪼아놓은 듯하고 다시 그것을 간 듯하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함일 것입니다.” 하자, 孔子가 ‘賜는 비로소 더불어 시를 말할 만하구나. 지나간 것을 말해주자 올 것을 아는구나.’ 하였다.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子貢曰, 詩云, 如切如磋, 如琢如磨, 其斯之謂與. 子曰, 賜也, 始可與言詩已矣, 告諸往而知來者.”라 하였다.

468) 그대의 얼굴 : 원문의 ‘眉宇’는 남의 얼굴을 높여 부르는 말. 芝眉 또는 芝宇라 하기도 한다. 唐나라 元德秀의 자가 紫芝인데, 房瑄이 매양 이를 보고 탄식하여 “紫芝의 얼굴을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名利의 마음이 다하게 한다. 見紫芝眉宇, 使人名利之心都盡.”라 하였다. 『唐書』 『元德秀傳』.

책 향기는 얼굴에서 피어오르네
 白雪歌⁴⁶⁹)는 끝내 화답하기 어렵고
 좋은 옥은 전혀 티가 없네
 웅장함을 다투려고 감히 鴻溝⁴⁷⁰)를 가르며
 먹을 대하고 섬현을 나누리오⁴⁷¹)
 한사가 책상에 함께 있으니
 향기가 모두 부족하지 않네
 계산은 새로 그린 菖溪⁴⁷²)요
 설월은 지난 밤의 섬계네
 아름다운 모임 다시 기약할 수 없으니
 맑은 유람도 이미 족하질 않네
 어떻게 오래 머물게 하여
 이처럼 유유자적한 세월을 보낼까
 백운에서 한가로이 지내니
 홍진에도 물들지 않네
 사흘 밤을 침상에서 취했다 깨어나니
 푸른 등도 함께 가물가물 하네

書香上牙臉
 白雪終難和
 良玉儘無玷
 爭雄敢割溝
 對墨類分陝
 寒士共一榻
 芬葩儘不儉
 溪山新畫菖
 雪月舊夜刻
 勝會更不期
 淸遊亦已歎
 那得長淹留
 如是送荏苒
 白雲閑自在
 紅塵却不染
 三宵醉醒榻
 青燈共賸賸

469) 白雪歌 : 宋玉이 지은 「對楚王問」에 다음과 내용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 郢中에서 처음에 「下里巴人」이란 노래를 부르자 그 소리를 알아듣고 화답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고, 다음으로 「陽阿薤露」를 부르자 화답하는 사람이 수백 명으로 줄었고, 다음으로 「陽春白雪歌」를 부르자 화답하는 사람이 수십 명으로 줄었던 바, 곡조가 더욱 높을수록 그에 화답하는 사람이 더욱 적었다 한다. 『文選』 卷45.

470) 鴻溝 : 중국 河南省 滎陽縣에 있는 운하 이름이다. 漢과 楚가 천하를 다툰 때 장량의 계책으로 鴻溝 서쪽은 漢이 동쪽은 楚가 관할하기로 하였다. 장량은 항우에게 이 제의를 받아들여 한 후 그 약속을 어기고 다시 항우를 공격하여 천하의 대세를 결정지었다. 『史記』 卷8 「高祖本紀」.

471) 섬현을 나누리오 : 원문의 '分陝'은 陝西省의 陝縣을 分界로 삼아 다스린 것을 이른 말이다. 周 초기에 周公과 召公奭이 섬현을 分界로 삼아서 다스렸던바, 주공은 섬현 이동 지방을 다스리고, 소공은 섬현 이서 지방을 다스렸다.

472) 菖溪 : 趙孟頫의 고향에 있는 호수 이름으로, 趙孟頫는 이곳에 蓮花莊이라는 별장을 지었다. 元末의 시인 虞堪이 조맹부의 「菖溪圖」를 보고 지은 시에 “宋나라 王孫이 지금은 元나라 한림학사가 되어, 스스로 菖溪를 그리고서 輞川과 같다 하네. 王孫今代玉堂仙, 自畫菖溪似輞川.”라는 구절이 있다. 『希澹園詩集』.

동려에게 부침 寄桐廬

푸르고 푸른 산 빛에 황혼녘 달빛이 은은한데⁴⁷³⁾
외로운 꿈에 아득히 홀로 문을 닫네
한 그루 오동나무는 그대의 집이고
백년의 상재는 나의 고향⁴⁷⁴⁾ 이라네
반평생을 부질없이 보낸 강호의 자취
흰머리 천 가닥은 나그네의 흔적이네
가끔 연조의 슬픈 노래 부르고
시로 뜻을 표현하여 진원을 쏟아내네

蒼蒼山色月黃昏
孤夢迢迢獨掩門
一樹梧桐知子屋
百年桑梓是我村
虛捐半世江湖跡
爲白千莖客旅痕
往往悲歌燕趙語
詩能言志瀉眞元

우 又

해질녘 까마귀 떼 나무에 가득하니
그대는 눈 속에 문을 깊이 닫네
누추한 거처를 남양의 오두막⁴⁷⁵⁾이라 부르고
옛 시사는 여전히 학사의 마을에 전해오네
둥지는 속 제비는 삼년 동안 그대 이야기 하건만
만 리 길 떠난 기러기는 돌아올 흔적이 없네
고목에도 춘심이 남아 있음을 보아야 하니
천도는 돌고 돌아 다시 일원이 되네

落日群鴉壓樹昏
桐廬深閉雪中門
僑居因號南陽宅
舊社猶傳學士村
巢燕三秋常客語
江鴻萬里未歸痕
須看古木春心在
天道回環更一元

473) 황혼녘 달빛이 은은한데 : 北宋의 隱士 林逋가 매화를 읊은「山園小梅」에 “맑고 맑은 물 위에 성근 그림자 가로 비끼고, 황혼 녘 달빛 속에 은은한 향기 떠도누나. 疎影橫斜水清淺, 暗香浮動月黃昏.”이라는 명구가 나온다.

474) 고향 : 원문의 ‘桑梓’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가정의 고향이라는 말이다. 桑梓는 뽕나무와 가래나무를 뜻하는데, 『詩經』 「小雅·小弁」에 “아버지가 심어 놓으신 뽕나무와 가래나무도, 반드시 공경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러 뭘 분으로는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이 없으며, 의지할 분으로는 어머니 말고 다른 사람이 없는 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維桑與梓, 必恭敬止. 靡瞻匪父, 靡依匪母.”라는 말이 나온다.

475) 남양의 오두막 : 唐 劉禹錫의 「陋室銘」에 “南陽은 제갈공명의 오두막이요, 西蜀은 양자운의 정자로다. 南陽諸葛廬, 西蜀子雲亭.”라 하였다.

황정이 벼슬살이 3년 만에 부모님을 뵈러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기에 방옹의 차운시를 지어 보냄 篋亭宦遊三載歸覲還鄉云拈放翁韻以寄

갈옷 벗은 지 ⁴⁷⁶⁾ 몇 년 동안 일찍 벼슬을 못하더니	釋褐經年早未官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금의환향의 기회를 잃었지	還鄉却失錦衣歡
떠날 때 학발이더니 노쇠한 몸에 놀랍고	離違鶴髮驚衰晚
베틀 ⁴⁷⁷⁾ 의 옷 보내 약관의 출세를 꿈꾸었지	斷送鴛機夢弱冠
낙수의 청운은 조석으로 지나던 길이요	洛水靑雲朝暮路
吳州의 명월 ⁴⁷⁸⁾ 은 예나 지금이나 둥글어라	吳州明月古今團
저 북해에 회오리바람 타고 날아올라	待他北海扶搖起
분발하여 봉새처럼 하늘 만 리 날기를 기다리네	奮擊鵬天萬里翰

두 번째 시 其二

아버이 늙고 집이 가난하여 ⁴⁷⁹⁾ 관직을 가리지 않았고	親老家貧不擇官
전성의 봉양 ⁴⁸⁰⁾ 으로 오직 반포 ⁴⁸¹⁾ 의 즐거움을 바라네	專城惟冀哺烏歡
저 黃山谷 ⁴⁸²⁾ 을 사랑하여 몸의 의리 ⁴⁸³⁾ 를 말하였고	愛他山谷稱身服
林宗 ⁴⁸⁴⁾ 을 흠모하여 갓을 꺾어서 썼었지	休慕林宗折角冠

476) 갈옷을 벗은 지 :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하게 되면 갈옷을 벗으므로, 이것을 釋褐이라 한다.

477) 베틀 : 원문의 ‘鴛機’는 鴛鴦의織機라는 말로, 베틀의 美稱이다.

478) 吳州의 명월 : 吳州는 중국 蘇州의 별칭이다. 李白이 江東으로 가는 張舍人이란 벗을 보내며 지은 「送張舍人之江東」에서 “吳州에서 달을 보거든 천리 밖의 날 생각해 주오. 吳州如見月, 千里幸相思.”라는 내용이 나온다.

479) 아버지이 …… 가난하여 : 『孔子家語』 「致思」에 “집안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늙은 자는 관직을 가리지 않고 벼슬해야 한다. 家貧親老者, 不擇官而仕.”라 하였다

480) 전성의 봉양 : 고을 수령이 되어 녹봉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專城之養이라 하여 매우 영화롭게 여겼다.

481) 반포 : 원문의 ‘哺烏’는 反哺烏라고도 하며 까마귀를 가리킨다. 까마귀는 다 자라면 그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봉양하여 은혜를 갚는 새라고 하여, 효성스러운 자녀를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

482) 黃山谷 : 黃庭堅(1045~1105). 北宋의 시인으로, 자는 魯直이다. 蘇軾의 詩學을 계승하였고, 杜甫를 높였다. 蘇軾과 더불어 蘇黃으로 칭해지며 북송의 대표시인이다. 12세기 전반은 황정건의 시풍이 세상에 풍미하였는데, 황정건이 江西 출신이었기 때문에 ‘강서시파’라 불렸다.

483) 몸의 의리 : 원문의 ‘身服’은 『楚辭』 「招魂」에, “내 어려서 청백 염결하였음이여, 몸소 의리를 행하여 마지않았도다. 朕幼清以廉潔兮 身服義而未.” 라는 내용이 보인다.

484) 林宗 : 後漢 界休사람 郭太를 말한다. 林宗은 그의 字이다. 일찍이 낙양에서 놀 때 河南尹이었던 李膺과 함께 깊이 사귀어 명성을 떨쳤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전승한 사람이 많았는데 李膺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넌에 사람들이 바라보고 신선이라고 하였다. 『後漢書』 「高士傳」. 郭太의 모자

높다란 나무에 그늘 깊어지니 봄이 곱디곱고
오래된 매화에 낮이 돌아오니 달이 둥글디 둥글어라
이 년을 남쪽에서 옹을 그리워하였는데
어찌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었으리

喬木蔭生春艷艷
古梅魂返月團團
二年南國相思老
飛去何當有羽翰

세 번째 시 其三

관장이 낮은 벼슬이라고 말하지 말라
박봉⁴⁸⁵으로도 집안의 기쁨을 다할 수 있다네
고관⁴⁸⁶과 시종신⁴⁸⁷은 비단 띠에 빛나고
눈빛 같은 호랑이 수염을 용관⁴⁸⁸에 꽂았네
푸른 깃발 그림자 번쩍이니 못 산이 진동하고
새벽 호각 소리 울리니 성첩에 모이네
해자⁴⁸⁹를 둔 것은 남북한 산성에서 왔으니
작은 金城이 나라의 작은 기둥이네⁴⁹⁰

管將休言是薄官
斗祿猶堪盡室歡
鵠印橫金生錦帶
虎鬚如雪插戎冠
翠旗影閃群山動
曉角聲盤畫堞團
設險由來南北漢
金城一片小邦翰

가 비에 흠뻑 젖어서 한쪽 차양이 꺾였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멋지게 생각한 나머지 일부러 한쪽 차양을 꺾어서 쓴 뒤 郭太의 자를 붙여 ‘林宗巾’이라고 불렀다는 고사가 있다.

485) 박봉 : 원문의 ‘斗祿’은 박봉을 뜻한다. 한 말이나 한斛의 쌀이란 의미에서 斗斛之祿이라고도 한다. 晉 陶淵明이 팽택 현령으로 있을 적에 군에서 파견한 督郵의 시찰을 받게 되었다. 이에 아전이 陶淵明에게 의관을 갖추고 독우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자, 陶淵明이 탄식하면서 “내가 쌀 다섯 말 때문에 허리를 꺾어 향리의 어린아이에게 굶질거릴 수는 없다. 我不能爲五斗米, 折腰向鄉里小兒.”라 하였다. 이윽고 수령의 인끈을 풀어놓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晉書』 卷94 「陶潛列傳」. 뒤에 韓愈가 이 말을 변용하여 「祭十二郎文」에서 “서울에서 객지 생활을 하며 박봉의 관직을 구했다. 旅食京師, 以求斗斛之祿.”이라 함으로써 처음으로 成語처럼 사용하였다.

486) 고관 : 원문의 ‘鵠印’은 金印과 같은 뜻으로, 고관대작이라는 뜻이다. 전설에 의하면, 山鵠 비슷한 새가 땅에 떨어져 변한 둥근 돌 속에 금인이 들어 있었는데, 後漢의 張顥가 이것을 얻어서 나중에 太尉의 관직에까지 올랐다고 한다. 『搜神記』 卷9. 나중에는 관직을 얻을 기쁜 징조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487) 시종신 : 원문의 ‘橫金’은 魚佩 없이 金御仙花帶만 차는 직책으로, 보통 시종신을 가리킨다.

488) 戎冠 : 무관이 쓰는 官帽이다. 宋 王安石의 「賈魏公挽辭」에 “일찍부터 유복에다 승상의 인수를 찾고, 재차 용관 쓸 때에는 시종의 초를 꽂았네. 儒服早紆丞相紱, 戎冠再插侍中貂.”라 하였다.

489) 해자 : 원문의 ‘設險’은 『周易』 「習坎卦·彖辭」에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은 하늘의 험함이요, 산천과 구렁은 땅의 험함이다. 그래서 왕공이 시설을 험하게 해서 나라를 지키나니, 험한 이치를 때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그 뜻이 크다고 할 것이다. 天險, 不可升也. 地險, 山川丘陵也. 王公設險, 以守其國, 險之時, 用 大矣哉.”라는 말이 나오는데, 程傳의 註에 “성곽을 쌓고 그 주위에 못을 파서 험하게 만들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한다.”라 하였다.

490) 나라의 …… 기둥이네 : 원문의 ‘邦翰’은 나라를 지키는 인재를 말한다.

이 높은 고개의 령이 성장이기에 말하였을 뿐이다. 此高嶺令爲城將故云耳

네 번째 시 其四

내가 타고난 직책은 무엇인가
 천석 연화와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라네
 삼을 키워 산인의 옷을 짓고⁴⁹¹⁾
 칙을 거뒀 도사의 갓을 삼네
 橘園에서 바둑 두는 신선에 가깝고
 낡은 부들방석에 앉아 있는 스님의 모습이네
 백운은 靑城⁴⁹²⁾ 자락에 붙어 있는 것과 같으니
 지는 달과 반짝이는 별 보며 설한을 꿈꾸리
 위는 자신을 읊은 것이다. 右自詠

天生授職我何官
 泉石煙霞與共歡
 藝麻自製山人服
 採葛新裁道士冠
 弈近棊仙臨橘局
 形同梵釋老蒲團
 白雲猶屬靑城路
 落月翻星夢雪翰

다섯 번째 시 其五

흰머리에 무료히 仙官을 꿈꾸며
 세상살이 원이 넘도록 기쁜 일 만나기 어렵네
 머지않아 눈이 어두워 글도 못 볼 것이고
 성근 머리카락은 갓도 이기지 못하리
 구름 창에 잠깨어 고서를 뒤적이고⁴⁹³⁾
 다조에 연기 사라지면 龍團茶를 끓이네⁴⁹⁴⁾
 때때로 停仙臺로 올라다보니⁴⁹⁵⁾
 신선이 되어 날아오르기 어려워라

白首無賴夢仙官
 人世難逢強半歡
 未幾昏眸妨識字
 無多薄髮不勝冠
 雲窓睡罷尋蠹簡
 茶竈煙消煮龍團
 時向停仙臺上望
 飛昇難得化羽翰

491) 원문의 ‘藝’은 ‘藝’의 오기로 보인다.

492) 靑城 : 唐代 杜甫의 「丈人山」에 “청성에서 나그네살이 하게 되면서, 청성 땅에는 칙을 빨지 못하였네. 自爲靑城客, 不唾靑城地.”라 하였다. 『杜詩詳注』卷10. 여기서는 청성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이 시구를 끌어다가 백운동에 살고 싶은 자신의 뜻을 밝힌 것이다.

493) 고서 : 원문의 ‘蠹簡’은 좀먹은 죽간이라는 말로, 고서나 낡은 책을 의미한다.

494) 龍團茶 : 鳳龍團茶의 준말로, 宋代 에 최상품으로 여겼던 茶의 이름이다.

495) 停仙臺 : 자이당 이시현이 사는 백운동원림에 있는 누대이름이다.

행남496)[윤종민]에게 화답함 和杏南

흰 구름 푸른 벽 시냇가 동쪽 누대	白雲蒼壁靚東樓
북에서 시 쓰고 남에서 바둑 두는 게으름 거두지 않네	北硯南碁懶不收
세모에 술 마신 후 크게 노래했지만	酒後高歌逢暮歲
초가을부터 줄곧 병고에 시달렸지	吟來一病自新秋
잠든 대나무에 밤이 돌아오니 텅 빈 단이 고요하고	夜歸睡竹空壇靜
갓 피어난 매화에 봄이 드니 작은 골짜기 그윽하네	春入封梅小洞幽
우스워라 거칠고 호방한 호해의 선비	可笑羸豪湖海士
靑邱497)의 문장가라고 자랑하네	文章習氣傲靑邱

춘파 회갑 수연시와 서문 春坡回甲擘宴詩并小序

계축년(1853)⁴⁹⁸) 三川에 사는 春坡翁이 춘추 61세로 11월 3일⁴⁹⁹)이 회갑⁵⁰⁰)을 맞이하였다. 생일⁵⁰¹) 아침 그의 자손 셋이 상의하여 잔칫상⁵⁰²)을 마련하고 술과 음식을 베풀어 백세를 기원하는 잔을 올렸다. 곤양의 여러 군자들이 서로 글을 지어 덕을 상고하며, 남극⁵⁰³)의 흐르는 빛을 칭송하고, 조정⁵⁰⁴)에서 벼슬한 것을 하례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건대 춘파옹은 명문가의 遺老로서 나이가 육순이 넘어 백발이 되도록 아무런 병이 없었다. 지금과 옛날을 두루 생각해 보건대 잔치자리에서 만감이 교차하여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덕⁵⁰⁵)에 감사드리며, 형제간의 우애⁵⁰⁶)가 돈독함을 감탄하였다. 잔을 멈춰 술 마시는 것을 그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려 한지 한참 되었다. 필시 축수를 기쁘게 여기지 않고, 또한 天壽를 누린 것을 스스로 기약한 것은 아니리라. 그러나 춘파옹이 장수는 오늘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나는 오래전부터 예측할 수 있었다.

춘파옹의 성품은 인후하고 행실이 단정하며 부친의 가르침을 받아 집안의 가풍을 잘 이었기에 故家の 전형이 여기에 있고, 후손들의 의척이 여기에 있으며, 한 고을

496) 행남 : 石瓢 尹鍾敏의 호이다.

497) 靑邱 : 우리나라의 이칭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동쪽에 있고 동방은 五行에 있어 청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 것이다.

의 자긍심이 여기에 있고, 퇴미해 가는 세상의 표준이 여기에 있으며, 신명의 보답이 여기에 있으니, 덕 있는 집안의 장수한 노인을 사양하고자 한들 가능하겠는가? 『시경』에 말하기를 “선인 군자여! 어찌 만년을 누리지 않으리오507.”라 하였으니 삼가가 이 시로써 길이 축수의 말을 대신한다.

봄바람이 비로소 불어 매화가 꽃망울을 이미 터뜨리는 즈음에, 自怡 병든 아우 靖原508) 이시현은 답털 붓으로 「筵韻三疊」으로 화답한다.

昭陽赤奮若之歲，三川春坡翁，春秋六十一，臘月載生明爲周甲。懸弧之朝，其賢胤三人，謀與羅長筵，設酒食，稱百年之觴，鷓陽諸君子，相與徵詞攷德，頌南極之流輝，賀東華之增算。竊想于時，坡翁以故家遺老，年踰六秩，白髮無恙。俛仰今昔，當筵噓噫，感「蓼莪」之劬勞，嘆荊樹之憔悴。停觴輟飲，黯然欲涕者久之.. 必以不稱壽爲喜，而亦不以得壽自期矣。然坡翁之享遐壽，不待此日之爲壽，而愚已卜之者久矣。翁之性質仁厚，操履端確，承襲庭訓，克趾世美。故家之型範在是，後昆之儀則在是，一鄉之矜式在是，頽世之標準在是，神明之報施在是，德門之壽翁，雖欲辭，其可得乎。詩曰“淑人君子，胡不萬年。”謹以是詩，遙替侑觴之詞。時東風初動，梅蘂已吐，自怡病弟靖原李時憲，試鷄毛筆，和筵韻三疊。

- 498) 계축년 : 원문에 나오는 ‘昭陽’은 십간의 ‘癸’이고, ‘赤奮若’은 십이지의 ‘丑’인데 모두 古甲子이다.
 499) 3일 : 원문의 ‘哉生明’은 음력으로 매월 2일 또는 3일이다. 이때에 달빛이 생기기 시작하므로 哉生明이라 한다. 『書經』 「武成」, 원문의 ‘載’는 ‘哉’의 오기로 보인다.
 500) 회갑 : 원문의 周甲은 61세 때의 생신으로 60 甲子를 다 지내고 다시 낳은 해의 干支가 돌아왔다는 의미이다.
 501) 생일 : 원문의 ‘懸弧’는 아들이 태어난 것을 말하나, 여기서는 생일의 뜻으로 쓰였다. 옛 풍습에 아들이 태어나면 문에 활을 거는데, 남아는 활을 쏘는 도리가 있음을 상징한 것이라 함. 『禮記』 「內則」
 502) 잔칫상 : 원문의 ‘長筵’은 크고 긴 대나무 자리인데, 흔히 잔치 때에 길게 배열한 자리를 이른다.
 503) 남극 : 老人星은 남쪽 하늘에 항상 추분 절기에 나타나는 南極老人星을 가리킨다. 古語에 의하면, 이 별이 나타나면 천하가 태평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兵亂이 일어난다고 하며, 또 옛사람들이 이 별을 長壽의 상징으로 삼아서 壽星이라 이름하기도 했던 데서 전한다. 여기서는 상대방을 축복하는 뜻으로 이른 말이다.
 504) 조정 : 원문의 ‘東華’ 중국의 중앙 관서가 東華門, 즉 도성의 東門 안에 있었던 데에서 조정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505) 부모님의 은덕 : 원문의 ‘劬勞’는 낳아 주고 길러 주신 부모님의 은덕을 말한다. 『詩經』 「小雅·蓼莪」에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고 길러 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던가. 哀哀父母, 生我劬勞.”라 하였다.
 506) 우애 : 원문의 ‘荊樹’는 京兆의 田眞 삼 형제가 분가하려고 재산을 분배하다가 堂 앞에 있는 紫荊樹 한 그루를 나눌 길이 없어 베어서 세 조각으로 나누기로 하였는데, 다음 날 가서 보니 나무가 시들어 있었다. 이에 사람이 나무만 못함을 반성하고 다시 재산을 합치고 나무를 베지 않기로

시를 지어 말하기를
 장수는 사람마다 누릴 수 없는 것이거늘
 어진 이가 장수해야 장수라 칭찬할 만 하네
 회갑에 연잎 위를 걷는 거북⁵⁰⁹⁾을 칭송하고
 회갑에 죽마고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鶴南飛」⁵¹⁰⁾곡이 거문고로 연주되고
 靑牛⁵¹¹⁾가 서쪽으로 나가 畫廚⁵¹²⁾에 오르네
 고가의 전형이 그대에게 남아 있으니
 장수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더함을 축하하네

詩曰
 壽乃人人所未能
 仁人兼壽壽堪稱
 回庚且頌龜蓮步
 暮甲幾多竹馬朋
 仙鶴南飛琴譜在
 靑牛西出畫廚登
 故家型範留遺老
 非賀年增賀德增

두 번째 시 其二

인간의 장수는 숙인⁵¹³⁾이라야 능하니
 일찍이 춘파가 축수 받을 줄 알았네

人間遐壽淑人能
 早識春坡此壽稱

- 하자 나무가 다시 살아났다. 라는 내용이 있다. 『續齊諧記』 여기서 는 형제간의 우애를 의미한다.
- 507) 선인군자여 …… 앞으리오 : 『詩經』 「國風曹·鳩鳴」에 “ 뻐꾸기가 뽕나무에 있는데, 새끼는 개암 나무에 있도다. 선인군자여, 이 나라 사람들을 바로잡으리라. 나라 사람들을 바로잡으니, 어찌 만 년을 누리지 않으리오. 鳩鳴在桑, 其子在椽. 淑人君子, 正是國人. 正是國人, 胡不萬年.”라 하였다.
- 508) 靖原 : 지금의 강원도 原州를 말한다. 이시현의 본관이 原州이다.
- 509) 연잎 위를 걷는 거북 : 長壽를 의미한다. 朱子가 「壽母生朝」에 “龜蓮을 올려 천년의 장수를 기 원하고 영원히 梟藻로 하여금 한 집안을 풍요롭게 하게 하네. 願上龜蓮千歲壽, 永令梟藻一家肥.”라 하였다.
- 510) 「鶴南飛」 : 蘇軾이 적벽 아래서 생일잔치를 할 때, 문득 강가에서 툽소 소리가 들려왔다. 李委라 는 사람이 소식을 위해 「鶴南飛」라는 新曲을 만들어 이날 분 것이라고 한다. 『蘇東坡詩集』 卷21 「李委吹笛」.
- 511) 靑牛 : 노자가 서쪽으로 길을 떠나 函谷關에 거의 이르렀을 때 關令 尹喜가 누대에서 사방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보라색 기운이 관문 위로 떠올라 尹喜가 眞人이 올 것이라 예측하였더니 과 연 얼마 뒤에 노자가 靑牛를 타고 왔다는 고사에서 따온 것이다. 『列仙傳』.
- 512) 畫廚 : 晉代의 명화가인 顧愷之가 일찍이 자기가 평소 보배로이 여겨 아껴 온 그림들을 한 상 자에 가득 담고 前面에 封題를 풀로 붙여서 桓玄에게 보냈는데, 桓玄이 몰래 그 상자의 後面만 열어서 그림을 다 꺼낸 다음, 처음과 똑같이 봉함하여 다시 고개지에게 돌려보내면서 상자를 열 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고개지가 상자를 열어 보니 봉제는 처음과 똑같은데 그림들만 모 두 없어졌으므로, 곧장 말하기를 “신묘한 그림이 신령과 통하여 변화해서 날아간 것이니, 이 또한 사람이 신선 되어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妙畫通靈, 變化而去, 亦猶人之登仙.” 하고, 전혀 괴 이하게 여기는 기색이 없었다는 데서 온 말이다. 『晉書』 卷92 「顧愷之列傳」.
- 513) 숙인 : 『詩經』 「曹風·鳩鳴」에 “뻐꾸기가 뽕나무에 둥지를 틀었나니, 새끼가 일곱 마리로다. 우리 훌륭한 군자님이며, 그 말과 행동이 한결같도다. 鳩鳴在桑, 其子七兮. 淑人君子, 其儀一兮.”라 하였 다.

이날 아침 회갑 날에
 잔치에 하례하러 손님과 벗들 모여드네
 못 신선들 계보에 응당 이름이 실리겠고
 은사의 명부에도 자취가 오르리라
 덕문의 아름다운 기운이 상서롭게 빛나고
 삼지천⁵¹⁴ 흐르는 물에 눈 파도가 더해지네

是日全朝周甲子
 當筵嘉祝會賓朋
 群仙牒上名應載
 逸士篇中跡可登
 佳氣德門祥旭麗
 三川流動雪波增

세 번째 시 其三

잔칫날 당일에 하례할 수 없어
 세 수 시로 축수를 대신하네
 청운에 오르지 못한 임천의 선비가
 호해에서 백수의 벗을 그리워하네
 달이 밝아져 오늘밤부터 채워지고⁵¹⁵
 매화의 혼이 봄에 드니 두 陽이 오르네⁵¹⁶
 고령에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여
 瑞石山 봉우리에 눈빛이 더하네

當日長筵賀不能
 詩追三疊替觴稱
 林泉未附靑雲士
 湖海相憐白首朋
 桂魄明從今夜滿
 梅魂春入二陽登
 高年志氣身俱健
 瑞石層巒雪色增

친척형 송원 신기숙씨를 추만함 追挽松園愼戚兄箕叔氏

병석이라 봄추위를 겁내니
 흰 눈이 오래된 골짜기를 덮도다
 날 저문데 穎上의 객이
 흠날리는 눈 속에 멧집⁵¹⁷을 찾네

病枕怯春寒
 白雪埋古峒
 日暮穎上客
 趨雪訪茅棟

514) 삼지천 : 전라남도 창평면에 흐르는 냇물이다.

515) 달 : 원문의 '桂魄'달을 뜻하는 말이다.

516) 두 양이 오르네 : 『周易』에서 선달의 괘가 地澤 臨괘인데 下卦에 陽爻가 두 개 있는 것을 이른다.

517) 멧집 : 紫陽은 宋 때의 학자 朱子의 별호이다. 朱子가 북건성 무이산에 武夷精舍를 이루고 나서 지은 「武夷精舍雜詠」 가운데 「精舍」라는 제목으로 “거문고와 책을 벗한 사십 년에, 몇 번이나 산 중객이 되었던고? 하루에 멧집이 이루어지니, 어느덧 나의 친척이로다. 琴書四十年, 幾作山中客.

내가 松園과 종유했거늘
 지난 삼년 꿈처럼 지나갔네
 내일 아침이 祥期⁵¹⁸ 날이니
 산 넘고 물 건너⁵¹⁹ 심히 총망하였네
 세월은 참으로 무정하니
 나에겐 고질병만 남아 있구나
 나의 삼년 병 차례로
 마침내 곡하고 보내지도 못했네
 송원은 나의 외가로
 친척 중에 伯仲 사이였네
 지난 날 회포를 헤아려 보니
 어찌 나만 애통 하리오
 빛나고 빛나는 영소의 집에서
 지위와 덕이 세상의 칭송을 받았네
 大海⁵²⁰에 봉새가 날개를 펼치듯 하고
 長楸⁵²¹에 천리마를 달렸네
 古宅에는 시례가 있으니
 家學이 대대로 어둡지 않으리
 근래에 영락하여 눈물만 나오니
 적막함을 누구에게 말하리오
 鹿門⁵²²에서 아름다운 자취를 찾아왔고
 松塢에서 읊조리는 소리를 들었네
 옛집의 남은 노인 가운데

云余松園從
 三霜遽一夢
 明朝是祥期
 跋涉甚惓惓
 日月儘無情
 覺來有餘痼
 緣我三年病
 遂失一哭送
 松園我外鄉
 於親是伯仲
 俛仰今昔懷
 豈獨斯人慟
 赫赫澹素宅
 位德世稱中
 溟渤搏鵬翮
 長楸展驥韜
 故宅有詩禮
 家學世不慚
 近日零替淚
 寂寞向誰控
 鹿門訪韻躅
 松塢聽吟呀
 故家遺老在

一日茅棟成，居然我泉石。”라 하였다.

518) 祥期 : 喪中の 제사를 지내는 동안. 祥에는 대소가 있는데, 소상은 暮年祭를, 대상은 三年喪을 가리킨다.

519) 산 넘고 물 건너 : 원문의 ‘跋涉’은 行路의 어려움을 말하는데, 잡초가 우거진 길을 가는 것을 跋, 물을 건너는 것을 涉이라 한다. 『詩經』 「鄘風·載馳」에 “대부들이 발섭하고 뒤쫓아 오는지라 내 마음 시름겹네. 大夫跋涉，我心則憂.”라 하였다.

520) 大海 : 원문의 ‘溟渤’은 溟海와 渤海의 합칭으로, 보통 大海를 가리킨다.

521) 長楸 : 가래나무가 자란 길을 말한다. 曹植의 詩에 “동교 길에서 닭싸움하고, 장추 사이에서 말 달리네. 鬪鷄東郊道，走馬長楸間.”라 하였다. 『曹子建集』 卷6 「名都篇」.

522) 鹿門 : 鹿門山을 가리키는데, 중국 호북성 양양현에 있다. 後漢의 은자 龐德公이 처자식을 데리고 이곳으로 들어가 은거하였다. 『後漢書』 卷83 「逸民列傳·龐公」.

오직 공이 무리 중에 빼어났네	惟公獨異衆
여윈 학처럼 고상한 거동에 ⁵²³⁾	倩儀看瘦鶴
자손 ⁵²⁴⁾ 의 훌륭한 자질이 남았네	美質有毛鳳
바람 앞에 촛불처럼 재촉을 받아	風燭淹相催
조화의 희롱 ⁵²⁵⁾ 을 당했구나	旋作化兒弄
인간 세상 한 순간 ⁵²⁶⁾ 일 뿐	人世儘駒隙
천지는 초과리가 담긴 한 항아리 ⁵²⁷⁾ 와 같구나	天地一醯甕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니	惟有無從淚
구름 낀 날처럼 흐릿하구나	雲日却霧霧
가풍을 찾을 곳이 없으니	家風無處尋
鄉土중 누구를 천거할거나	鄉土有誰貢
짧은 글로 내 마음을 다하지 못하니	短章未盡意
추만의 글로 이만 줄이노라	追挽說認認

15) 甲寅(1854)

병석에서 일어나 문을 나감 病起出門

갑인년(1854) 2월 甲寅二月

병든 몸 서른 날 집을 나가지 않다가 病榻三旬不出家

523) 원문의 倩은 淸의 오기로 보인다.

524) 자손 : 원문의 ‘鳳毛’는 父祖처럼 뛰어난 재질을 소유한 자손을 가리키는 말이다. 『世說新語』「容止」.

525) 조화의 희롱 : 唐代 문장가인 杜審言이 병이 심했을 적에 宋之問·武平一 등이 찾아가서 문병을 하자, 그가 말하기를, “조화 소아의 괴롭힘을 몹시 당하고 있다. 甚爲造化小兒所苦”라 하였다.

526) 인간 세상 한 순간 : 『莊子』「知北遊」에 “하늘과 땅 사이의 우리 인생이란 마치 하얀 망아지가 담장 사이의 틈을 지나가는 것처럼 순간일 따름이다. 人生天地之間, 若白駒之過隙, 忽然而已.”라 하였다.

527) 초과리가 담긴 한 항아리 : 원문의 ‘醯鷄’는 식초단지에 생기는 작은 초과리와 같은 하루살이 벌레이다, 『莊子』「田子方」에 “공자는 道에 있어 혜계를 열어준 사람과 같다. 그분이 식초단지의 뚜껑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천지의 위대한 참모습을 모를 뻔하였다. 丘之於道也, 其猶醯鷄與. 微夫子之發吾覆也, 吾不知天地之全也.”라 하였다. 곧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와 다름없음을 비유하였다.

지팡이에 의지해 비틀거리며 걸어보네
 마을 아이들은 괴이한 모습에 다투어 웃고
 들녘 늙은이들은 희어진 머리에 놀라네
 호접초의 가느다란 싹 새로 돌아나고
 두견화의 연분홍 꽃 막 피어나도다
 무료해도 봄을 찾는 흥은 넉넉하니
 홀로 앞산을 지나 물가에 이르네

扶藜試脚步欹斜
 村兒爭笑形容怪
 野老相驚鬢髮華
 細綠新長蝴蝶草
 軟紅初發杜鵑花
 無聊尚足尋春興
 獨過前山到水涯

당인의 시운을 잡음 拈唐人詩韻

무단이 병에 시달려 애통하고 근심스러우니⁵²⁸⁾
 어찌 꽃 찾아 마음껏 노닐까
 靈丹⁵²⁹⁾을 얻지 못해 운당 벽상시를 거둬 탄식하며
 瘴海⁵³⁰⁾에서 울무 실은 배 만나기 어렵네
 일찍 날아 온 나비는 짧은 꿈을 찾고
 반쯤 떨어진 매화는 동으로 흘러 가네
 훗날 몸 건강해지고 봄 깊어지는 날이면
 늙은 몸으로도 날마다 누대에 오를 수 있으리

一病無端作隱憂
 探芳那得任清遊
 靈丹重歎篋簪壁
 瘴海難逢葦筏舟
 蝴蝶早來尋短夢
 梅花半落付東流
 待他身健春深日
 白首猶能日上樓

예전 백 그루의 매화가 지금 몇 송이만 개화하여 감흥시를 지음 古有百本梅今存數朶開花感而吟

백 그루가 있었는데 몇 송이만 새로 피고
 푸른 이끼가 老松⁵³¹⁾을 반쯤 좀 먹었네

百本有存數朶新
 莓苔半蝕老龍鱗

528) 애통하고 근심스러우니 : 원문의 ‘隱憂’는 『詩經』 「柏舟」에 “두둥실 떠 있는 저 잣나무 배여, 또한 흐르는 물에 떠 있도다. 말뚱말뚱 잠을 이루지 못하여 애통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는 듯하노라. 汎彼柏舟, 亦汎其流. 耿耿不寐, 如有隱憂.”라 하였다.
 529) 靈丹 : 신선이 고아서 만든 불로장생의 영험한 약.
 530) 瘴海 : 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생기는 瘴毒이 있는 해안 지역을 가리킨다.
 531) 老松 : 원문의 ‘龍鱗’은 용의 비늘처럼 생긴 소나무의 껍질을 비유한 말이다.

맑은 모습은 오직 내 마음의 벗이니
 백발 된 네 주인을 아는가 모르는가
 氷霜⁵³²을 견디고 기력이 남았으니
 가로 비긴 별과 달 사이로 정신이 드러나네
 사랑스럽도다 저 平泉의 경계⁵³³ 겸하고 있으니
 오 대째⁵³⁴ 봄이면 산가에서 피고 지네

淸標儘是吾心友
 白髮知否爾主人
 耐得氷霜餘氣力
 橫斜星月見精神
 愛他兼有平泉誠
 開落山家五世春

즉흥시 偶吟

내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나 묻노니
 홍진에서 헛되이 늙어 흰머리가 새롭네
 연나라 조나라에는 검축을 노래하는 선비 많고
 초나라 진나라에는 운산 곳곳에 은거하는 선비 많네
 뜻에 맞으니 임천이 항상 싫지 않고
 세상일 잊으니⁵³⁵ 魚鳥와 친할 줄 아네
 이제부터 길이 매화 집 문을 닫고
 홀로 선경 안고 숙된 이웃을 사양하리

問我作何等樣人
 紅塵虛老白頭新
 逢場劔筑多燕趙
 隨處雲山入楚秦
 可意林泉恒不厭
 忘機魚鳥解相親
 從今永閉梅花屋
 獨抱仙經謝俗隣

앞 시의 운을 써서 회사에게 부침 用前韻寄晦沙

늙어서야 벗이 있어야 함을 알고

白首方知有故人

532) 氷霜 : 겨울에 피는 매화의 고결한 모습을 의미한다.

533) 平泉의 경계 : 平泉은 唐나라 때의 재상 李德裕의 별장인 平泉莊을 말한다. 이덕유는 「平泉樹石記」를 지을 정도로 이곳의 樹石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平泉山居戒子孫記」에서 “후대에 이 평천을 파는 자는 내 자손이 아니며, 평천의 나무 하나 돌 하나를 남에게 주는 자는 훌륭한 자제가 아니다. 後代鬻平泉者, 非吾子孫也. 以平泉一樹一石與人, 者 非佳子弟也.”라며 자손을 경계하는 글을 남겼다. 『事文類聚·續集』 卷9 「居處部·園池」. 여기서 이시현이 선조의 뜻을 지켜 백운동원림을 잘 보존한다는 말이다.

534) 오 대째 : 이시현이 선조로부터 백운동원림을 이어 받은 지 5대째이다.

535) 세상일을 잊으니 : 원문의 ‘忘機’는 세상일을 모두 잊고 은퇴하여 담박한 생활을 즐기는 것을 말한다. 『列子』 「黃帝篇」에 機巧心이 하나도 없는 바닷가의 주민에게 갈매기가 수도 없이 날아와 함께 노닐었다는 ‘鷗鷺忘機’의 이야기가 전해 온다.

그리움을 병 든 후에 새삼 다시 깨닫네	相思更覺病餘新
펜시리 『河魚蘼蕪』 ⁵³⁶⁾ 의 초나라 노래를 불러보고	河魚蘼蕪空號楚
『晞露蒹葭』 ⁵³⁸⁾ 의 진나라 노래를 불러보네	晞露蒹葭所謂秦
나비의 그림자가 와서 내 꿈을 흐려놓고	蝴蝶影來渾我夢
매화의 혼이 끊어지니 누구와 친할까	梅花魂斷與誰親
아름다운 玉井峰 머리말의 달빛이	娟娟玉井峰頭月
다만 한가한 창에 밤마다 이웃이 되네	只作閑窓夜夜隣

산으로 돌아가는 운담거사를 송별하는 시와 서문 送別雲潭居士還山詩序

거사는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자취를 말하면 한가한 구름처럼 일정한 거처가 없고, 그 마음을 말하면 맑은 연못처럼 고요하다. 이에 自號하기를 ‘운담거사’라 하여 스스로를 晞髮子⁵³⁹⁾나 행각승⁵⁴⁰⁾의 부류에 견주었다.

아! 거사는 금남의 귀한 자손으로 장주의 유명한 고을에 살면서도 명리에 담박하여 가업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강개하고 척당한⁵⁴¹⁾ 기개와 절개를 자처하였으니 대개 옛날의 빼어난 험객이요 기이한 선비였다.

나이가 겨우 스물에 이미 먼 유람을 좋아하여 우리나라 수 천리를 돌며 발자취가 명산대천에 두루 미쳤다. 때로 술을 마신 후 크게 노래하거나, 노래와 통곡⁵⁴²⁾으로 서로 화답하니 연시의 비분강개한 자가 아니겠는가? 여름 갈옷에 서리 내려야 객지에서 돌아올 생각을 하니 초나라 요새의 꿈을 꾸는 자가 아니겠는가? 때로는

536)

537) 『河魚蘼蕪』: 춘추 시대에 楚나라는 宋의 蕭邑을 포위하였다. 楚의 대부인 申叔展은 소음의 대부인 還無社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다급한 현재 상황을 알리고 싶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어서 비유적으로 말을 건넨다. 먼저 신숙전은 환무사에게 麥鞠은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으며, 환무사는 없다고 대답하였다. 신숙전은 다시 山鞠窮은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으며, 환무사는 없다고 대답하였다. 맥궁과 산국궁은 모두 추위를 이겨내는 약초로써 비유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도 환무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자 신숙전은 다시 “물고기 배가 상하면 어찌하면 좋은가? 河魚腹疾奈何”라 말을 하니, 말의 의미를 알았다고 한다. 『春秋左前』 「宣公12年」.

538) 『晞露蒹葭』: 『詩經』 「蒹葭」에 “긴 갈대 푸르는데, 흰 이슬이 서리가 되었네. 바로 그 사람이 물 저편에 있도다. 물길 거슬러 올라가나, 길이 험하고 멀기도 하네. 물길 따라 쫓아가려 하나 물의 가운데에 완연히 보이네. 蒹葭蒼蒼, 白露爲霜. 所謂伊人, 在水一方. 遡洄從之, 道阻且長. 遡游從之, 宛在水中央.”라 하였다. 곧 갈대가 아직 시들기 전에 이슬이 서리로 변하였고, 만나고 싶은 伊人은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도저히 만날 길이 없어 애석하게 여기는 뜻이다.

백련사 부들방석에 앉아 병발⁵⁴³을 지키니 바로 維摩⁵⁴⁴의 뛰어난 제자요, 花宮⁵⁴⁵의 석실에서 금단을 스스로 제련하니, 바로 葛仙⁵⁴⁶의 道友와 같았다.

遠志와 小草⁵⁴⁷로 伯休⁵⁴⁸처럼 저갓거리에 숨어서 약을 팔았던 자가 아니겠는가? 누룩⁵⁴⁹과 술잔으로 嵇康과 阮籍⁵⁵⁰처럼 醉鄉⁵⁵¹으로 달아난 자가 아니겠는가? 이 몇 가지를 보면 운담 거사는 아마도 은거를 겸한 사람이리라. 유람에 지친 나머지 바야흐로 고향으로 돌아와 상재를 돌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자형수를 안고⁵⁵² 형제들과 즐겁게 지내고자 하였다. 아, 지난날에는 무심히 산봉우리에서 나오는 구름⁵⁵³이 되더니, 오늘날에는 물이 모이는 연못이 되니 구름과 연못 사이에서 거사를 아는 이는 바로 ‘백운산인’일 것이다.

居士不知何許人也，語其跡則閑雲之無定也，道其心則澄潭之有止也。乃自號曰‘雲潭居士’，聊以自比于晞髮雲水之類。噫！居士以錦南之華胄，居長州之名鄉，澹然名利，不屑家人業，慷慨倜儻，氣節自許，蓋古之絕俠奇士也。年纔弱冠，已喜遠遊，寘東土數千里，足跡迨將遍於名山勝水之間矣。而或酒後高歌，歌哭相答，非作燕市之悲者耶，暑葛霜碓，羈旅思歸，非作楚塞之夢者耶。而或蓮社蒲團，瓶鉢相守，則維摩之高弟也，花宮石室，金丹自煉，則葛仙之道友也。遠志小草，非伯休之隱藥肆者耶，麴蘖杯杓，非嵇阮之逃醉鄉者耶。於斯數者，居士殆將并隱者歟。倦遊之餘，方欲復路故山，睽桑梓而起敬，抱荊樹而同樂。噫。昔焉作出岫之雲，今焉作歸水之潭。雲潭之間，知居士者，其白雲山人也哉。

539) 晞髮子 : 宋末元初의 義士인 謝翱羽(1249~1295)의 號이다. 恭帝 德祐 年間に 元과 군대가 남하하자 집안 재산을 文天祥 휘하에 기부하고 鄉兵 수백 명을 이끌고 투신하여 咨議參軍이 되었으며, 宋이 멸망 이후에도 이름을 바꾸고 각지를 다니며 계속 元에 저항하였다.

540) 行脚僧 : 원문의 ‘雲水’는 구름 따라 물 따라 떠돌아다니는 行脚僧이다.

541) 척당한 : 뜻이 크고 기개가 있음. 李白의 『金陵聽韓侍御吹笛』에 “한공이 옥 짓대를 불어서, 초연한 기개로 기이한 소리를 내매, 그 소리 바람에 실려 종산을 감싸니, 온 골짜기에 용의 울음소리로다. 韓公吹玉笛, 倜儻流英音. 風吹繞鍾山, 萬壑皆龍吟.”라 하였다.

542) 노래와 통곡 : 白居易의 『勸酒』에,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춘명문 밖에 하늘이 밝아 오는데, 시골벽적 노래하고 곡하는 이들 죽음과 삶 반씩이로세. 君不見, 春明門外天欲明, 喧喧歌哭半死生.”라 하였다.

543) 병발 : 승려들이 갖고 다니는 물병과 바리때를 말한다. 전하여 승려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544) 維摩 : 維摩詰을 가리키는데 석가와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석가의 교화를 도운 毘耶離城의長者인데,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자신도 병이 들었다고 자리에 누운 뒤, 병문안을 온 여러 보살들에게 不二法門의 『維摩經』을 설했다고 한다.

545) 花宮 : 仙境 또는 佛寺를 이른다.

546) 葛仙 : 葛洪(283~343?)을 말한다. 연단술을 익혀서 신선이 되었다고 하여 葛仙이라고 한다. 晉의 丹陽 句容 사람으로, 자는 稚川, 자호는 抱朴子이다. 어려서부터 많은 책을 섭렵하고 신선술을 익혔다. 뒤에 羅浮山에 들어가 저술과 연단에 전념하였다. 저서로는 『抱朴子』 『金匱藥方』 『神仙傳』 『集異傳』 등이 있다.

세속의 기이한 선비요 음중의 신선 ⁵⁵⁴)이니	塵中奇士飲中仙
한 기운 푸른 노을이 자줏빛 연기와 이어지네	一氣靑霞接紫烟
밤마다 산중의 원숭이와 학처럼 ⁵⁵⁵ 홀로 지냈고	幽獨山間猿鶴夜
해마다 해상의 제비와 기러기 ⁵⁵⁶)처럼 만날 수 없었네	消磨海上燕鴻年
그대에게 금단의 비결을 묻고자 하니	憑君欲問金丹訣
나를 위해 한가로이 좋은 인연 ⁵⁵⁷)을 논해주시게나	爲我閒論白業緣
요사이 객지의 창에서 고향을 꿈꾸며	近日羈囚鄉國夢
돌아가고픈 마음이 물처럼 깊은 못으로 달리네	歸心如水赴深淵

547) 遠志와 小草 :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는 것을 말한다. 晉 桓溫이 遠志小草라는 약초의 뜻을 묻자, 郝隆이 “산속에 있을 때는 원지라고 부르고 세상 속으로 나왔을 때는 소초라고 부른다.”고 대답하여, 謝安을 부끄럽게 한 고사가 전한다. 『世說新語』 「排調」.

548) 伯休 : 後漢 때 韓康의 자이다. 장안의 저잣거리에 몸을 숨기고 30년 동안 똑같은 값으로 약을 팔아 생활하였는데, 아녀자에게까지 이름이 알려진 것을 알고는 霸陵의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조정의 부름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後漢書』卷 113.

549) 누룩 : 殷 고종이 제상 부열에게 “내가 술이나 단술을 빚으려고 할 때에는 그대가 누룩이 되어 주고, 내가 양념을 섞어서 국을 끓이려 할 때에는 그대가 소금과 매실 같은 조미료가 되어 주오. 若作酒醴, 爾惟麴蘖, 若作和羹, 爾惟鹽梅.”라 당부한 말이 『書經』 「說命·下」에 나온다.

550) 嵇康과 阮籍 : 魏末晉初 때에 老莊의 無爲自然을 답론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던 시인이다.

551) 醉鄉 : 술에 취했을 때 온갖 걱정을 잊는 별천지의 경계. 唐代 王績의 「醉鄉記」에 보인다.

552) 자형수를 안고 : 옛날에 田眞의 형제 3인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고 나니 오직 紫荊樹 한 그루만 남았다. 이것을 셋으로 쪼개서 나누자고 의논하고서 다음날 그 나무를 베러 가 보니 나무가 이미 말라 버렸다. 전진이 크게 놀라 아우들에게 말하기를, “이 나무의 뿌리가 하나인지라, 장차 쪼개 나누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마른 것이니 우리는 나무만도 못하다.” 하고는, 나누었던 재산을 다시 합하여 형제간에 아주 화목하게 살았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續齊諧記』. 여기서는 형제간의 우애를 의미한다.

553) 산봉우리에서 나오는 구름 : 陶淵明의 「歸去來辭」에 “구름은 무심히 산봉우리에서 나오고, 새는 날기에 지쳐서 돌아올 줄을 안다. 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라 하였다.

554) 음중의 신선 : 杜甫의 「飲中八仙歌」에 唐 때 술로 유명하였던 賀知章·李白·汝陽王·璣·李適·崔宗之·蘇晉·張旭·焦遂 등 여덟 사람을 노래하였다. 『古文眞寶·前集』 8卷.

555) 학처럼 …… 학처럼 : 南朝시대의 문인 孔稚圭의 「北山移文」에, 은거를 그만두고 벼슬하러 떠난 周顒을 나무라며 “혜초 장막 텅 비어 밤의 학이 원망하고, 산인이 떠나가니 새벽 원숭이가 놀라더라. 蕙帳空兮夜鶴怨, 山人去兮曉猿驚.”라 하였다. 은자의 거처를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556) 제비와 기러기 : 원문의 ‘燕鴻’은 제비와 기러기를 가리키는데, 제비는 여름 철새이고, 기러기는 겨울 철새여서 서로 만날 수가 없으므로, 전하여 서로 거리가 멀거나 만나기 어려운 처지를 비유한다. 李白은 「擬古」제12수에서 “월나라 제비는 바다 해를 좋아하고, 연나라 기러기는 북녘 구름 생각하네. 越燕喜海日, 燕鴻思朔雲.”라 읊었다.

557) 좋은 인연 : 白業은 불교의 말로 善業과 같다. 『五燈會元』 「東土初祖菩提達磨大師」에 “백업을 삼가 부지런히 닦고 三寶를 護持하라.”라 하였다

유재가 무주로 양이⁵⁵⁸)된 곳에 부침 寄留齋茂朱量移所

유배지의 생활 ⁵⁵⁹)이 근래에 어떠한지요	居停髭髮近何如
산속이 물가보다 나으리라 멀리서 생각합니다	遙想山居勝水居
새봄에 우레 치며 내리는 비 ⁵⁶⁰)에 귀를 기울이고	傾耳新春雷雨作
선달에 바닷가에서 보낸 편지를 눈을 비비고 보시겠지요	拭眸殘臘海天書
자주 ⁵⁶¹) 모이자던 남쪽 고을의 약속 저버려 부끄러울텐데	南鄉慙負源源會
갈수록 소원해지는 북쪽 소식을 어찌 견디리오	北信那堪去去踈
성군께서 옥환 내리실 ⁵⁶²) 날 멀지 않으리니	聖代賜環知不遠
어두운 밤에 金鷄 ⁵⁶³)가 울기를 기다리소서	金鷄留待夜烏餘

두 번째 시 其二

기쁜 내 마음이 문득 망연자실해지니	權如心事却茫如
임금 가까이 가면 내 거처와 멀어지기 때문이라	就近君行遠我居

558) 양이 : 섬이나 변방으로 멀리 유배되었던 사람의 죄를 參量하여 내지로 配所를 옮기는 것이다. 신관호는 철종 즉위년(1849)에 위리안치 되었다가 철종3년(1852)에 무주로 양이 되었다가 철종8년(1857)에 해배되었다.

559) 생활 : 원문의 ‘髭髮’은 수염과 머리털로 풍모를 뜻하나 이 시에서는 ‘생활’의 의미로 쓰였다. 程頤가 涪州로 귀양 갔다가 돌아왔을 때 기색, 용모, 수염, 머리털이 모두 예전보다 낫기에 門人이 “어떻게 하여 이럴 수 있었습니까?” 하자 정이가 대답하기를 “학문의 힘이다. 무릇 학문이란 患難과 貧賤에 처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법이니, 부귀영달에 처하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라 하였다. 『心鏡』 卷2.

560) 우레치며 내리는 비 : 원문의 ‘雷雨’는 각각 위엄과 은혜를 뜻하는 말로, 황제가 辭免令을 내린 것을 말한다. 『周易』 「解卦象」에 “우레 치고 비가 내리는 것이 해이다. 군자는 이 상을 보고서 잘못을 저지른 자를 사면하고 죄 지은 자를 너그럽게 처리한다. 雷雨作解. 君子以, 赦過宥罪.”라 하였다.

561) 자주 : 원문의 ‘源源’은 순임금이 천자가 된 뒤에 이복형인 象을 庫 땅에 봉해 주고서 ‘늘 보고 싶어 자주 찾아오게 하였다. 欲常常而見之, 故源源而來.라 하였다.’ 『孟子』 「萬章·上」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562) 옥환 내리실 : 신하가 사면을 받고 다시 조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荀子』 「大略」에 “임금이 조정을 떠난 신하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결별하는 뜻을 보일 때에는 한쪽이 떨어진 패옥을 보내고,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일 때에는 고리가 완전히 이어진 옥환을 보낸다. 絕人以玦, 反絕以環.”라 하였다.

563) 金鷄 : 머리를 황금으로 장식한 닭을 가리킨다. 天鷄星이 사면을 주관한다는 설에 의거해서, 사면하는 조서를 반포할 적에는 대나무에 금계를 매달아서 儀仗 남쪽에 세워 두었던 고사가 전한다. 『新唐書』 卷48 「百官志3」

병을 앓으니 벗을 그리는 마음은 배가 되니
 바람 맞으며⁵⁶⁴ 보내온 편지를 때때로 다시 읽네
 연못의 용이 마땅히 돌아갈 것은 오래지 않을 줄 알겠으니
 廐馬⁵⁶⁵를 보내와 그대를 부를 날 멀지 않으리
 한번 단란한 모임 이루지 못한 채 천리 이별하니
 오년 남짓 경영을 헛되이 저버리네

吟病倍深懷故友
 溯風時復讀來書
 澤龍當復知非久
 廐馬徵寅儘不踈
 一會未團千里別
 經營虛負五年餘

세 번째 시 其三

몸은 마르고 마음은 재가 되어 멍하니 앉아있으니
 쓸쓸한 나의 산거를 묻지 말지어다
 나비 날아와 병석에서 공연히 꿈을 찾고
 기러기 끊겨⁵⁶⁶ 정인에게 편지를 부칠 수 없네
 두견새 울며 지나니 봄이 적적하고
 살구꽃 다 날리니 빗방울 뚝뚝 떨어지네
 하늘가에 그리운 편지⁵⁶⁷를 부치고 싶어서
 새 시를 다 썼으나 못다 한 마음 남네

形槁心灰坐窅如
 懶散休問我山居
 蝶飛病榻徒尋夢
 雁斷情人不寄書
 杜宇啼過春寂寂
 杏花飄盡雨疎疎
 天涯欲付相思字
 寫罷新詩意有餘

564) 바람 맞으며 : 원문의 ‘遡風’은 『詩經』「大雅·桑柔」의 “저 바람을 향해 선 듯하다. 如彼遡風”에서 보인다.

565) 廐馬 : 內廐馬의 준말로 임금이 거동할 때 쓰는 가마와 말을 맡아보는 내사복시서 기르는 말을 가리킨다.

566) 기러기 끊겨 : 원문의 ‘雁斷’은 소식이 끊어졌음을 가리킨다. 『蘇建傳蘇武』에 “소무가 에 잡혀 에 유폐되었을 때 사신을 보내 소무를 요구하였으나, 흉노는 그가 이미 죽었다고 핑계하므로 사신이, 천자가 上林院에서 사냥하다가 기러기를 잡았는데 그 발에 소무의 편지가 매여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니, 흉노가 놀라 소무를 내주었다.”라 하였다. 『漢書』卷54.

567) 편지 : 원문의 ‘相思字’는 書信을 가리키기도 하며, 이별한 시름이나 친한 이를 그리는 정을 뜻하기도 한다. 당 나라 때 장안에 사는 郭行先의 딸 紹蘭이 장사꾼인 任宗에게 시집갔는데, 임종이 장사를 하러 나가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다. 소란이 제비가 쌍쌍이 노는 것을 보고는 제비에게, “너는 저 바다 동쪽에서 오니 갈 때에는 반드시 湘 땅을 지나갈 것이다. 네가 가는 편에 남편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하자, 제비가 허락하는 듯이 오르락내리락하였다. 이에 相思라는 글자를 써서 제비 다리에 묶어 주었다. 임종이 荊州에 도착하였을 때 제비가 날아와서 어깨에 앉았는데, 제비 다리에 쪽지가 매여져 있었다. 이에 펴 보니 바로 아내가 보낸 것이었다. 『開元天寶遺事』.

황정과 이별하며 줌 贈別篁亭

푸른 나무에 꾀꼬리 울고 제비가 장막에 들어가니
정인은 낙화에 만나자던 기약을 저버리지 않았네
이별 후 청산의 꿈속에서 삼년을 그리워하고
가랑비에 술동이 대하고 사월의 시를 짓노라
정겨운 말에⁵⁶⁸⁾ 밤 깊으니 오랜 병을 잊고
이별 후 날로 멀어지면 그리움 사무치리
이별의 갈림길에서 닢이 배로 녹으니⁵⁶⁹⁾
백발은 내 젊을 적 모습이 아니라네

綠樹鶯啼燕入帷
情人不負落花期
靑山夢裏三年別
細雨樽前四月詩
軟語夜深忘久病
離筵日隔怯相思
臨岐倍作銷魂地
白髮非吾少壯時

석표와 잡영⁵⁷⁰⁾ 10수를 지음 與石瓢賦得雜詠十首

6월 비 내리는 날에 六月雨中

긴 여름 물소리 동천에 가득하고
홍진의 소식 귀에 전해오지 않네
풍류를 석표옹에게 의지하면서
백수토록 시를 논한 지 이십년이라네

長夏水聲鎖洞天
紅塵消息耳無傳
風流賴得瓢翁在
白首論詩二十年

두 번째 시 其二

한 달 줄곧 내리던 비 그친 하늘
산 밖에 모래 바람 객에게 전해오네
근래에 넘친 영산강의 물
피해가 신해년 보다도 심하다고 하네⁵⁷¹⁾

三旬一雨兩餘天
山外風沙有客傳
近日潑山江上水
壞衰洽過在辛年

568) 정겨운 말에 : 杜甫의 「贈蜀僧闍丘師兄」에 “밤이 이슬토록 도란도란 얘기하다 지는 달을 보니 마치도 황금 쟁반.夜闌接軟語 落月如金盆”이라는 표현이 있다. 『杜少陵詩集』 卷9.

569) 닢이 배로 녹으니 : 梁나라 江淹의 「別賦」 첫머리에 “암담하게 사람의 혼을 녹여 내는 것으로 이별하는 그 일이라고 하겠다. 黯然銷魂者, 唯別而已矣.”라는 말이 나온다.

570) 잡영 : 여러 가지 사물이나 계절의 느낌을 읊은 詩歌를 말한다.

수해가 신해년(1851) 가을 물 보다 심한 까닭에 언급하였다. 水害甚於辛亥秋水故云

세 번째 시 其三

물 빠진 깊은 흔적은 작은 뜰을 침식시키고
 맑은 물 속 백석은 심령을 열어주네
 무단이 줄곧 내린 비 도움이 없지는 않아
 앞산을 함께 씻어주어 더욱 푸르게 느껴지네

落漲痕深嚙小庭
 清流白石啓心靈
 無端一雨非無助
 並洗前山更覺青

네 번째 시 其四

사립문 닫지 않은 채 이끼 낀 뜰을 쓸고
 푸른 빛 산가에 걸음걸음 신령스러워라
 병든 후 쇠한 몸으로 무더위를 지내노니
 귀밑머리에 남은 검은 머리 사라짐을 견디지 못하네

竹門不掩掃苔庭
 草色山家步步靈
 病後衰容經溽暑
 不堪雙鬢掃餘青

다섯 번째 시 其五

글은 절로 지리하나 칼날은 절로 날카로우니
 애오라지 참선하며⁵⁷²⁾ 마음을 단련하네
 나이 들어 다만 전인의 비결을 믿노니
 홀로 선경을 안고 구름 속에 누워있네

書自支離劒自雄
 聊觀鼻白煉心紅
 老來只信前人訣
 獨抱仙經臥雲中

571) 원문의 ‘懷는 ‘壞’의 誤記로 보인다.

572) 참선하며 : 원문의 ‘觀鼻白’은 鼻端白을 觀하는 것으로 불교 수행법의 하나이다. 『楞嚴經』 卷5에 “世尊이 나와 拘絺羅에게 ‘코끝에서 나오는 흰 연기를 보는 참선법 觀鼻端白’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이 나온다.

여섯 번째 시 其六

도덕경을 다 읽었으나 웅지를 지키지 못한데

讀罷聘書不守雄

오얏 동산으로 옮긴 육련이 붉게 피었네

李園移得陸蓮紅

도덕경을 받은 이날 관윤(573)을 만나

受經此日逢關尹

삼경에 자기 속에서 현담을 나누네

三夜談玄紫氣中

육련이 막 피었는데 석표 윤중민이 마침 이르렀기에 짓다. 陸蓮初發 尹瓢適至故云

일곱 번째 시 其七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전혀 분간도 못하고

花開花謝渾無分

베개 밑에 항상 취해 잠든 흔적이 남았네

一枕常留醉睡痕

저물면 바위 사이에서 자고 아침이면 산봉우리에서 나오니

暮宿巖間朝出岵

변다한 일을 싫어하는 농산의 구름(574)이여

猶嫌多事隴頭雲

여덟 번째 시 其八

일생의 삼분의 이가 이미 지나니

歲色三分已二分

쇠한 모습에 병든 흔적만 더하네

衰容添得病餘痕

물노니 무슨 일로 쇠한 모습이 되었는가

問余受用曾何事

청산 한 쪽에서 구름을 지고 살았기 때문이라네

一面青山一擔雲

573) 관윤 : 秦의 함곡관 수을 지낸 尹禧를 말한다. 『列仙傳』에 윤희가 함곡관 누대에 올라가 사방을 관망하다가, 南極老人星의 자줏빛 기운이 서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앞으로 성인이 이곳을 지나갈 것이다.” 하였는데, 과연 靑牛를 탄 노자를 만나서 『道德經』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574) 농산의 구름 : 宋代 羅大經은 古僧의 「悟道」에 인용하여 “진중일 찾아봐도 봄이 보이지 않아서, 농산의 구름 속을 두루 밟고 다녔어라. 돌아와서 웃으며 매화 향기 맡아보니, 가지 위에 봄이 이미 무르익었네. 盡日尋春不見春, 芒鞋踏遍隴頭雲 歸來笑撚梅花嗅, 春在枝頭已十分.”라 고쳐 읊었다고 한다.

아홉 번째 시 其九

굶주림에 ⁵⁷⁵⁾ 바싹 여위니 시료도 말라 없어지려 하네 눈앞의 바람과 꽃 ⁵⁷⁶⁾ 잡으려 애쓰지 말고 한가로이 방우도나 함께 그리세	龜腸搜盡不勝枯 詩料珊瑚轉欲無 莫把風花心力費 優閑合作放牛圖
---	--

열 번째 시 其十

일 년 내내 병들어 모습은 초췌하나 사그라진 재 같은 마음에 생각이 끝이 없네 『주역』에 방점 찍던 ⁵⁷⁷⁾ 주사는 모두 닳고 고요한 천지에서 여도를 증험하리	周年一病病容枯 灰死心頭念念無 點易研朱朱已盡 靜裡乾坤驗驪圖
--	--

용정 이씨 노인의 시에 화답함 和龍井李老詩

초야에 은거하니 풍류도 저절로 한가롭고 반쯤 드리운 산 숲에서 새가 우네 용이 옛 우물로 돌아오니 마을사람들이 환호하고 학이 강 하늘에 돌아오니 도인의 얼굴이라 하네	野隱風流也自閑 一林啼鳥半簾山 龍歸古井村人號 鶴返江天道士顏
---	--

575) 굶주림에 : 원문의 ‘龜腸’은 南朝 宋 때 檀珪가 몹시 곤궁한 나머지, 일찍이 祿을 구하기 위해 王僧虔에게 보낸 편지에, “매미의 배와 거북의 창자가 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다. 굶주린 범은 으르렁대기 때문에 사람이 선뜻 고기를 던져 주지만, 배고픈 기린은 물어뜯지 못하니, 누가 터럭이나 떨어뜨리겠는가. 蟬腹龜腸, 爲日已久. 饑虎能嚇, 人遽與肉, 餓麟不噬, 誰爲落毛.”라 한 데서 온 말이다. 즉 매미는 이슬만 마셔서 배속이 텅 비고, 거북은 굶주림을 견디다 창자가 가늘어졌다는 데서, 전하여 매우 곤궁한 지경에 처한 것을 비유한다.

576) 바람과 꽃 : 邵雍의 「川擊壤集序」에 “비록 생사와 영육이 눈앞에 전전해도 흉중에 들어온 적이 없으니 사시 바람, 꽃, 눈, 달이 한 번 눈을 스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雖死生榮辱, 轉戰於前, 曾未入於胸中, 則何異四時風花雪月一過乎眼也.”라는 구절이 나온다.

577) 주역에 방점 찍던 : 붉은 주사 먹물로 비점과 관주를 치면서 『周易』을 읽는다는 뜻이다. 宋代 陸游의 「閉門」에 “주사를 갈아 『周易』에 점을 찍고, 술을 마시며 「離騷」를 읽는다. 研朱點周易, 飲酒讀離騷.”라 하였다.

깊신 신고 항상 명월협(578)을 찾고
 돛단배 타고 백운만(579)에 자주 찾아 왔었네
 바둑판에서 신선의 바둑 두는 것을 가장 좋아하니
 시냇가의 성긴 소나무 아래서 옛 벗을 꿈꾸네

草屨常尋明月峽
 溪帆頻到白雲灣
 星枰最愛仙碁着
 流水踈松夢舊班

두 번째 시, 자술함 其二自述

마음이 한가로우면 한가롭지(580) 않을 곳이 없으니
 강호에 얽매이지 않고 산에도 얽매이지 않네
 세상 일 돌아보면 백안이 많으나
 옛 친구들 헤아려보면 모두 백발이 되었네
 화죽을 심은 세 갈래 길(581)에서 나이 들어가고
 뽕과 삼(582)이 있는 구곡만에 봄이 찾아오네
 병든 몸 가을바람에 회복되려고 하니
 연호 속에서 신선(583)의 반열에 오른듯하네

心閑無處不閑閑
 不在江湖不在山
 世路回頭多白眼
 舊遊屈指盡蒼顏
 年深花竹三分逕
 春入桑麻九曲灣
 病骨秋風蘇欲健
 蓮壺如上羽衣班

과거 보는 날 무료하여 소동파의 시운으로 3수를 지음 科日無聊 拈坡詩韻賦得三首

8월 19일 창평 과거시험 날 八月十九昌平試日

시사가 모인 과장(584)에 해가 이미 기울니
 초가을 내리는 비에 왜나무 꽃(585)이 피었네

試士荊園日已斜
 新秋雨色動槐花

578) 명월협 : 중국 상천성 광원시에 있는 유명한 협곡으로 李白이 노래한 「蜀道難」의 배경지이다.

579) 백운만 : 이시현이 살고 있는 백운동원림 말한 듯하다.

580) 한가롭지 : 원문의 '閑閑'은 『詩經』 「十畝之間」에 “십 묘의 사이에 뽕을 따는 자가 한가롭고 한가로우니, 장차 그대와 더불어 돌아가리라. 十畝之間兮, 桑者閑閑兮, 行與子還兮.”라 하였다.

581) 세 갈래 길 : 은자의 정원을 뜻한다. 陶淵明의 「歸去來辭」에 고향 집의 풍경을 읊으며 “삼경은 황폐해 가지만 술과 국화는 여전히 남았어라 .三逕就荒, 松菊猶存.”이라 하였다.

582) 뽕과 삼 : 朱子の 「武夷權歌」에 “九谷도 다할 즈음에 눈앞이 활짝 열리니 뽕과 삼은 우로에 젓고 평평한 시내 보여라. 九曲將窮眼豁然, 桑麻雨露見平川.”라 하였다. 『朱子大典』 卷9.

583) 신선 : 원문의 '羽衣'는 깃털로 만든 옷을 이르는데, 신선이 학이나 새처럼 훨훨 날아다닌다 하여, 신선이나 도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584) 과장 : 원문의 '荊園'는 科場을 말한다.

585) 왜나무 꽃 : 왜나무가 필 때는 과거 시험이 있는 때를 뜻한다. 옛날에 음력 7월이 되면 과거 시

문장가가 만드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아니요
공거⁵⁸⁶)가 오히려 모두 대가는 아니라네
헛되이 자신을 높이려면 차라리 출사하지 말지니
다행히 합격하더라도 자랑하지 말라
가련토다 예로부터 동헌에서 나온 계책들로
얻은 영웅들⁵⁸⁷)이 모두 백발이라니

文章未必能經國
貢舉猶非盡大家
虛竊自高寧不就
休將幸捷肯相誇
可憐從古臨軒策
賺得英雄摠髮華

두 번째 시 其二

용주는 창평의 옛 이름이다. 龍洲昌平故號

오늘을 위해 달려왔는데⁵⁸⁸) 형세가 이미 기울어지니
이십년 돌아보며 눈물 속에 꽃을 바라보네
초나라 연기에 얼마나 요현⁵⁸⁹)몽을 꿔었으며
진나라 달에 춤추는 소매를 헛되이 엿보았네
백발로 헛되이 돌아가니 남은 건 후회 뿐
청산을 저버리지 않음은 자랑할 만 하여라
용주 과장의 화나무를 세 번이나 보았는데
허약한 내 모습⁵⁹⁰) 가을 되니 세월이 덧없네

此日駸駸已轉斜
廿年回首淚看花
楚煙幾斷瑤絃夢
秦月虛窺舞袖家
白髮空歸餘者悔
青山不負足堪誇
龍洲槐色三經眼
蒲柳秋容感歲華

힘이 있었다. 이 때 화나무에 꽃이 누렇게 피기 때문에 唐 때 속어에 “화나무에 꽃이 누렇게 피면 과거 보는 선비가 바쁘다. 槐花黃, 舉子忙.”라 하였다.

586) 공거 : 知貢舉로,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시관을 말한다.

587) 얻은 영웅들 : 과거를 통해 훌륭한 인재를 많이 얻었으나, 모두 머리가 하얗게 된 늙은이란 뜻이다. 곧 머리가 다 쇠도록 진사과에 골몰하여 늘그막에야 겨우 합격하였다. 역량을 지닌 인재가 너무 늦게 합격하면 이는 국력의 노화를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불공정한 과거가 야기할 수 있는 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蘇軾이 「賺了英雄」에서 “唐太宗이 장구한 계책을 세웠으나, 얻은 영웅은 모두 흰머리 늙은이였네. 太宗皇帝眞長策, 賺得英雄盡白頭.”라 하였다. 『古今事文類聚·前集』卷27 「賺了英雄」.

588) 달려왔는데 : 원문의 ‘駸駸’은 ‘달려오다’의 뜻이다. 梁나라 劉勰의 「銘箴」에 “오직 장재의 「劍閣銘」을 보건대, 그 재능이 탁월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빠른 발로 치달려서 뒤에 떠나 먼저 도착하였으니, 민한 지역에 그 명이 새겨진 것도 온당한 일이었다고 하겠다. 惟張載劍閣, 其才清采. 迅足駸駸, 後發前至, 勒銘岷漢, 得其宜矣.”라 하였다. 『文心雕龍』

589) 瑤絃 : 거문고 줄이라는 뜻인데 춘추 시대에 초나라 사람 伯牙는 거문고 타는 솜씨가 좋았다. 백아가 거문고를 타면서 뜻이 泰山에 있으면 백아의 친구 鍾子期가 그 소리를 듣고 “우뚝하여 마치 태산과 같구나.” 하였고, 얼마 뒤에 다시 뜻이 流水에 있으면 종자기가 “넘실넘실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구나.” 하였다.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다시는 자신의 거문고 소리를 들어 줄 사람이 없다고 여겨 거문고를 부수고 줄을 끊어 버렸다고 한다는 고사가 있다. 『列子』 「湯問」.

세 번째 시 其三

누런 왜나무 그림자 아래에 길은 비스듬하고
 홀로 동쪽 울타리⁵⁹¹⁾ 향해 국화 소식 묻네
 비와 바람에 바빠 명리를 좇던 내 모습이
 시내와 산에 은거하는 사람이 되려하네
 일찍이 과거를 포기했다면 차라리 즐거웠을 터
 만년에 선방을 얻으니 절로 자랑스럽네
 백수로 연하에서 늙어 가리라 마음먹으니
 나귀 타고⁵⁹²⁾ 영화를 즐기는 꿈을 다시 꾸지 않으리

黃槐影下路橫斜
 獨向東籬問菊花
 風雨奔忙名利容
 溪山隱約畫圖家
 早拋學業寧爲快
 晚得仙方竊自誇
 白首煙霞甘送老
 騎驢不復夢樂華

백회가 보여준 운에 화답함 和百悔示韻

시는 평온하지 못한 마음을 빌어서 울리고⁵⁹³⁾
 울림은 백회를 좇아 후회에서 생겨나네
 지난해의 나그네 근심이 올해도 이어지니
 삼경에서 오경이 되도록 고향을 꿈꾸네
 동쪽 골짜기 운산에서의 약속을
 남쪽 고을 설월에서 애써 회포를 풀었네
 십년 동안 노래하며 검축을 연주하다 만난 곳

詩以不平假以鳴
 鳴從百悔悔中生
 客愁去歲仍今歲
 鄉夢三更到五更
 東峽雲山知有約
 南州雪月強爲情
 十年歌筑相逢地

590) 허약한 내 모습 : 원문의 ‘蒲柳’는 창포와 갯버들의 합칭으로, 일찍 늙고 쇠하는 허약한 체질을 비유하는 말이다. 쯤의 顧悅之가 簡文帝와 동갑이었는데도 이른 나이에 머리칼이 하얗게 세자 황제가 그 이유를 물으니 “신은 포류와 같은 체질이라서 가을이 가까워지기만 해도 벌써 낙엽이 지고 맙니다. 蒲柳之姿, 望秋而落.”라 대답한 고사가 전한다. 『世說新語』 「言語」.

591) 동쪽 울타리 : 陶淵明의 「飲酒」 25수 중 다섯 번째 시에 “동쪽 울 아래에서 국화꽃을 따면서, 유연히 남쪽 산을 바라보노라. 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는 명구가 있는 것에서 유래하여, 중앙 절의 閑雅한 정취를 표현하는 시어로 쓰게 되었다.

592) 나귀 타고 : 唐의 孟浩然은 눈발이 휘날리는 灞橋 위를 나귀 타고 지나갈 때 가장 멋진 詩想이 떠올랐다고 하는데, 蘇軾의 「贈寫真何充秀才」에 “그대는 또 보지 못하였는가 눈 속에 나귀 탄 孟浩然을, 시 읊느라 찌푸린 눈썹 산처럼 솟은 두 어깨를. 又不見雪中騎驢孟浩然, 皺眉吟詩肩聳山.”이라는 명구가 있다. 『蘇東坡詩集』 卷12.

593) 시는 …… 울리고 : 불평한 울림 不平鳴은 韓愈의 「送孟東野序」에 “대체로 사물이 화평함을 얻지 못하면 우나니, 본래 소리가 없는 초목을 바람이 흔들어서 울게 하고, 본래 소리가 없는 물을 바람이 출렁이게 해서 울게 한다. 大凡物不得其平則鳴, 草木之無聲, 風撓之鳴, 水之無聲, 風蕩之鳴.”라 한 내용이 있다. 『韓昌黎集』 卷19.

연나라 누대와 조나라 성을 멀리 여기지 않았네

不遠燕臺與趙城

우 又

양상한 가지와 언 대나무 북풍에 우니
고달픈 시어는 유독 병석에서 생기네
백발이 되도록 만났는데 저무는 해에 놀라고
청등아래 잠 못 이루며 차가운 밤을 헤아리네
잔설에 매화 마을 찾겠노라 소식을 전해왔는데
설달이 다가오니 장차 유시⁵⁹⁴)의 정을 펴려하네
나는 효빈 할테니 그대 달아나지 말게나
오연시⁵⁹⁵) 짓는 문장력이 부족하여 부끄럽네

老柯凍竹北風鳴
苦語偏從病枕生
白髮有期驚暝歲
青燈不寐數寒更
雪殘欲訪梅村信
臘近將舒柳市情
我且效嘔君莫走
文章媿乏五言城

선달 아침에 우연히 읊음 臘朝偶吟

선달 아침 맑은 햇살이 찬 겨울을 녹이네
나무 끝의 춘심이 눈송이와 다투네
버들눈 싹트니 아지랑이 소식 있을테고
매화 뺨⁵⁹⁶)의 흰 점은 달의 모습이어라
어느새 한 해⁵⁹⁷)가 거침없이 지나가고

臘朝晴旭破寒冬
木末春情鬪雪封
柳眼開青烟有信
梅顚點白月爲容
轉頭歲色堂堂去

594) 유시 : 漢나라 때 長安의 저자 이름이다. 唐 王維의 「春日與裴迪過新昌里訪呂逸人不遇」에 “도원에서 줄곧 세속과 단절해 있다기에, 유시 남쪽으로 은사를 찾아왔네. 桃源一向絕風塵, 柳市南頭訪隱淪.”라는 구절이 있다. 『全唐詩』 卷128.

595) 오연시 : 원문의 ‘五言城’은 唐代 劉長卿이 五言詩에 유독 뛰어나서 五言長城으로 자칭했던 데서 온 말이다.

596) 매화 뺨 : 원문의 ‘梅顚’는 한창 부풀어 오르는 매화의 꽃봉오리를 형용하는 말로, 아름답기가 여인의 뺨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柳眼’은 막 돌아나기 시작하는 가느다란 버들잎을 형용하는 말로, 잠에서 막 깨어나 떨어지기 시작하는 사람의 눈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참고로 宋代 李清照의 「蝶戀花」에 “따스한 햇살 맑은 바람이 처음으로 추위를 깨뜨리니, 버들 눈과 매화 뺨, 벌써 춘심이 동하누나. 暖日晴風初破凍, 柳眼梅腮, 已覺春心動.”라 하였다.

597) 한 해 : 한 해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마치 속은 듯한 느낌이 든다는 말로, 唐 薛能의 「春日使府寓懷二」에 “청춘이 나를 배반하고 버섯이 가버리니, 흰머리가 날 속이며 야속하게 돌는구나. 青春背我堂堂去 白髮欺人故故生”라는 시구를 원용한 표현이다. 『全唐詩』 卷559.

머잖아 춘광이 점차 짙어지리라⁵⁹⁸⁾
 부끄러워라 지리하게 병들어 신음하는 몸
 일 년 내내 범범히 홀로 자신을 근심하네

屈指韶華冉冉濃
 可媿支離吟病骨
 終年凡凡獨愁農

16) 乙卯(1855)⁵⁹⁹⁾

병중에 읊음 病中偶吟

나이 들어 초췌함이 날로 더하니
 거울 속 모습이 더욱 밋상이네
 마음이 병드니 항상 눈썹 찌푸려지고
 이가 흔들리니⁶⁰⁰⁾ 유독 무시를 당하네
 여윈 매화는 밝은 달에 수줍은 듯 비치고
 앙상한 버들가지 동풍에도 싹을 틔우려하지 않네
 오히려 새봄을 겁내며 추위에 처량하여⁶⁰¹⁾
 문을 닫고 선승의 경지에 들어가네

衰年憔悴日相增
 鑒裏形容轉可憎
 心病常逢眉蹙頻
 齒搖偏受古侵凌
 瘦梅明月還羞照
 禿柳東風不肯憑
 尙怯新春寒惻惻
 閉門因作入禪僧

598) 춘광 : 원문의 ‘韶華’는 아름다운 계절의 경치, 보통 춘광을 가리키는 詩語이다. 李白의 「秋浦吟」에 “소년이 어떻게 언제나 소년일 수 있으랴, 바다 물결도 뽕나무 밭으로 변하는 것을. 영고성쇠가 화살처럼 급히 뒤바뀌나니, 하늘이 어찌 너희들만 특별히 봐주려 하겠는가. 항상 청춘 시절에 놀러 있으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들 기다리는 것은 오로지 백발에 주름살뿐이리니. 少年安得長少年, 海波尙變爲桑田. 枯榮遞傳急如箭, 天公豈肯爲君偏. 莫道韶華鎖長在, 白頭面皺專相待.”라 하였다. 『李太白集』 卷7.

599) 문집의 원문에는 干支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앞의 詩가 선달에 지어졌으며, 「病中偶吟」에 ‘東風’ 이나 ‘新春’ 의 詩語로 미루어보아 乙卯(1855)년에 지어진 詩로 여긴다.

600) 이 흔들리니 : 韓愈의 「祭十二郎文」에 “나는 나이 40도 안 되어서 머리털이 쇠해지고 치아가 흔들리더니, 금년에 들어서서는 쇠한 머리가 혹은 희어지고, 흔들리던 치아가 혹은 흔들려 빠진다.”고 한 데서 온 말이다.

601) 처량하여 : 韓愈의 「秋懷」에 “가을 기운 날로 처량하고, 가을 하늘 날로 차갑다. 秋氣日惻惻, 秋空日淒淒.”라 하였다.

속리거사 정시면이 편지와 시를 보내오고 또 「백운동도」를 그려주었기에 벽에 걸고 생각을 붙여 그 운에 화답하여 줌
俗離居士鄭君時縣寄書兼詩且畫白雲洞圖揭壁以寓思云和其韻贈之

한 쪽의谿山은 작은 별천지니
그림 속에서 지난 날 노닐던 곳을 알겠네
골짜기에 꽃과 대나무 길이 나뉘어 그윽하고
봉우리에 구름과 노을이 스며들어 점점이 떠있네
나그네는 일찍이 천리의 기러기를 따르니
오래된 맹세 아직도 이십년 갈매기를 꿈꾸네
그림을 살피다 혹 그림 속 주인 생각하여
희끗희끗한 머리의 늙은이를 그려 넣어야 하리

一面谿山小別區
畫時省識往時遊
峒分花竹深深在
峰入雲霞點點浮
客旅曾隨千里雁
宿盟猶夢廿年鷗
按圖尙想圖中主
添作衰翁半白頭

우 又

백운동(602)과 월출산 각각의 명승지에
하늘이 내 몸을 풀어 놓아 마음대로 노니네
푸른 골짜기에 몸을 맡기니 곳곳이 선경이요
홍진에 머리를 돌리니 덧없는 세상이네
시내 건너편 벼를 부르니 순록이 오고
바닷가에서 맹우를 찾으니 떠있는 갈매기 있네
십년 그리워하며 천리를 꿈꾸었는데
반은 산 고개를 돌고 반은 호숫가에 있었네

雲莊月出各名區
天放吾人任自遊
碧峒棲身仙在在
紅塵回首世浮浮
隔谿喚友來馴鹿
傍海尋盟有泛鷗
十載相思千里夢
半歸嶺上半湖頭

602) 백운동 : 원문의 '雲莊'은 구름과 안개가 가리어 둘러싼 莊園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白雲洞園林을 가리킨다.

유영(603)의 시에 차운함 次柳營韻

장수의 누대에 가는 버들 움 트니	元帥樓臺細柳春
비단 자리에 갖옷과 관대가 더욱 청신하네	錦筵裘帶更清新
꽃 앞에 물총새는 나그네를 함께 끌고	花前翠杓同携客
장막 안의 미녀(604)는 사람을 취하게 하네	帳裏紅裙解醉人
마음에 기탁하여 술 마시며 지은 시는 절로 즐거우나	觴詠寓心堪自樂
귀에 요란한 생황 소리는 모두 참 즐거움이 아니라네	笙歌聒耳揔非眞
轅門鎖(605)에 날마다 한가로이 일이 없어	轅門鎖日閑無事
燕喜堂(606)에 제비는 자주 기뻐하네	燕喜堂中燕喜頻

앞 시의 운을 써서 한거를 읊음 用前韻詠閑居

늙어가는 마음 봄을 만나니 기뻐	老去情懷喜見春
봄바람이 귀밑머리 병 끝에 새롭네	東風鬢髮病餘新
꽃의 노비가 되어 즐거이 가꾸고	栽培甘作花奴僮
제비의 주인이 되어 바빠 맞이하고 보내네	迎送煩爲鷺主人
헤엄치는 물고기 보며(607) 도걸을 찾고	卽觀游魚尋道訣
지저귀는 새에게 천진(608)을 말하게 하네	却令啼鳥說天真
춘광은 이미 삼분의 이가 지났는데	韶華已惜三分二
한식과 청명에 비가 자주 내리네	寒食清明兩雨頻

603) 유영 : 細柳營. 장군의 진영, 또는 군기가 엄정한 군영을 일컫는데, 漢 文帝 때의 명장인 周亞夫가 흉노를 방어하기 위하여 細柳에 군영을 세웠는데 군율이 매우 엄정하였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604) 미녀 : 원문의 '紅裙'은 붉은 치마를 입은 기녀나 미녀를 뜻한다. 白居易의 「山石榴花」에 “붉게 타는 등불 일 천 십지요, 붉은 치마 입은 기녀 한 무리로세. 絳燄燈千炷, 紅裙妓一行.”라는 구절이 나온다. 『白樂天詩後集』 卷8.

605) 轅門鎖 : 장수가 머무는 진영의 문, 軍營이나 鎖營을 가리킨다..

606) 燕喜堂 : 전남 강진군 병영에 있었던 官樓閣으로, 1688년 閔遲가 지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第37卷 「康津縣」.

607) 헤엄치는 물고기 보며 : 莊子가 惠子와 함께 호수의 다리 위에서 물고기가 한가롭게 헤엄치는 것을 보며 물고기의 즐거움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던 고사에서 온 말인데, 마음을 사물 밖에 붙이고 소요 자적하는 것을 뜻한다. 『莊子』 「秋水」.

608) 천진 :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자연 그대로 깨끗하고 순진함.

유수 신석오(609)가 산거에 찾아와 읍시 2수를 보내주기에 화답하여 드림
 柳帥申石渢 見訪山居 且寄示二律 和以贈之

1

꽃필 무렵 만나자던 약속 꽃 시들어 찾아오니 화려한 일산 너풀너풀 푸른 물에 비치네 봄 아지랑이는 아직 남았는데 한식날 비내리고 늦은 향기 여전히 사랑스러운데 棟花風(610)이 부네 謝石(611)이 찾아오니 마음이 게으르지 않고 韋莊(612)이 객을 맞이하니 병도 부질없네 산골의 해가 어느덧 돌아가기를 재촉하여 주막(613)에서 함께 장화하자던 약속 저버렸네 이날 산골에 비가 내리려 하여 돌아가기를 심히 재촉하였으므로 언급한 것이다. 是日山日欲雨歸旆甚 促故云	軟紅留約到殘紅 華蓋翩翩碧水中 春靄尚餘寒食雨 晚香猶愛棟花風 謝石登臨心不倦 韋莊延候病因空 山日駸駸歸意促 孤負旗亭唱和同
---	--

2

청운이 집에 가득하니 별서가 사치스럽고 산 중턱에 수죽은 화려하게 빛나네 바람 앞에 온통 장군의 나무요 비 내린 뒤에 동주의 꽃은 별로 없네 늘그막에 만나 백발에 놀라며 한 동이 술에 함께 취해 붉은 노을을 시름하네	滿戶青雲壁屋奢 半山水竹有光華 風前渾是將軍樹 雨後無多洞主花 晚歲相逢驚白髮 一樽共醉惱紅霞
---	--

609) 신석오 : 申命渢(1798~1870)을 말한다. 石渢은 그의 호이다. 1851년(철종 2) 전라우도수군절도사를 지냈다.

610) 棟花風 : 곡우 절기의 마지막 花信風. 이를 고비로 하여 봄은 다 가고 여름이 온다.

611) 謝石 : 東晉의 정치가. 謝安의 아우. 383년, 征討大都督이 되어, 전진의 符堅의 대군을 조카인 謝玄과 함께 淝水에서 무찔렀다.

612) 韋莊 : 唐末의 시인 韋應物의 4세손이다. 당시 사회의 혼란 황폐한 상태를 묘사하고 유랑생활의 감정을 읊은 감상적인 작품을 썼다. 7언 고시「秦婦吟」이 유명하며, 入蜀 후 지은 詞「詩餘」는 晚唐 이후 성행하던 이 형식에 신국면을 개척했다.

613) 주막 : 원문의 '旗亭'은 주막을 이르는 말로, 주막에 깃발을 걸어두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구름 창에 잠 깨니 시가 이르러
세 번 거듭 읽으니 시가 옷깃에 스며드네

雲窓睡罷郵筒至
三復瓊章襲正葩

재첩시 再疊

1

울긋불긋 피꼬리 울고 제비는 지지배배
담소 중에 봄빛은 더디어라
野客의 저녁밥은 별다른 맛이 없으나
장군의 險韻詩⁶¹⁴에 멋진 풍류가 있네
책상을 맞이하니 깊은 병이 사라지고
세 잔 술에 취하니 온갖 근심 사라지네
어찌하면 백년토록 오늘처럼
친구와 함께 꽃과 대나무를 노래할꼬

鶯啼燕語翠交紅
春晷遲遲笑談中
野客盤飧無別味
將軍競病有嘉風
逢迎一榻沈痾祛
醒醉三杯萬念空
那得百年如是日
賞花題竹故人同

2

붉은 꽃잎과 짙푸른 잎이 화려함을 다투니
산 속에서 봄을 타고 경치를 감상하네
객을 불러 興慶草에 취하고
그대를 위해 吉祥花를 피우리라
호남 고을 궁벽한 곳에 노년의 벗이 찾아와
서울에서 지은 老霞의 새로운 시를 읊조리네
이별 후 남은 정에 아름다운 시구 떠올라

殘紅濃綠競侈奢
山裡乘春玩物華
喚客醉醒興慶草
爲君開落吉祥花
湖鄉晚契尋窮巷
洛社新詩誦老霞
別後餘情生麗句

614) 險韻詩 : 원문의 ‘競病’은 險韻을 달아서 시를 짓는 일을 말한다. 梁나라의 曹景宗이 개선하자 武帝가 잔치를 베풀고, 신하들에게 聯句를 짓게 하여 마지막 차례인 조경종에게 험운인 ‘競病’ 두 글자만 남았는데, 조경종은 붓을 잡고 단번에 다음의 시를 썼다. “갈 때는 아녀들이 슬피했는데, 돌아오매 피리 북 다뒀 연주하네. 길 가는 사람에게 묻노니, 콧거병 그 사람과 과연 어떤고. 去時兒女悲, 歸來笳鼓競. 借問行路人, 何如霍去病.”

붓을 놀려 꽃종이에 天葩⁶¹⁵)를 피우네

彩牋飛墨暎天葩

시구 중에 노하시집의 구절이 있으므로 언급 한 것이다. 行中有老霞詩集 故云

삼첩시 三疊

1

유수에 낙화가 붉게 떠다니고

流水落花泛泛紅

누대에 녹음이 은은하여라

樓臺掩暎綠陰中

과초 잎은 소리 없는 비에 윤택해지고

蕉心細潤無聲雨

보리 이삭에 解慍風⁶¹⁶)이 점차 불어오도다

麥穗漸吹解慍風

술은 한가한 근심을 흔들어 기나긴 시름 없애주고

酒攪閑愁消永日

새는 침침한 내 눈 속여 먼 하늘로 날아가네

鳥欺昏眼度長空

오직 구름 깊고 궁벽한 산거가 한스럽고

雲深惟恨山居僻

담소할 사람 없이 병상에 누워있네

談笑無人病榻同

2

산가에 꽃들이 가지가지 화려하니

色譜山家種種奢

봄날 자족하며 향긋한 꽃을 완상하네

春來自足玩芳華

그윽한 향초를 섞어 심으니 풀빛이 짙고

幽香雜植濃青草

울긋불긋 나뉜 꽃 앞서거니 뒤서거니 피네

紅紫中分早晚花

병이 많아 약초밭만 가꾸며

多病只宜修藥圃

못난 재주로 요행히 산수⁶¹⁷)에서 늙어가네

不才猶幸老煙霞

615) 天葩 : 천연의 아름다운 꽃을 말하는데, 전하여 뛰어난 재주를 뜻한다. 韓愈의 「醉贈張祕書」에 “동야는 세속을 경동시키니 天葩가 뛰어난 향기를 발한 때문일세. 東野動驚俗, 天葩吐奇芬.”라 하였다.

616) 解慍風 : 분노하는 마음을 풀어 주는 바람이라는 뜻으로, 순임금이 지었다고 하는 「南風歌」에 “술술 부는 남풍이여, 우리 백성들의 울분을 풀 수 있겠도다. 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慍兮.”라 하였다. 『孔子家語』 「辨樂解」.

617) 산수 : 원문의 ‘煙霞’는 안개와 노을의 뜻이나 여기서는 고요한 산수의 경치를 말한다.

대대로 내려온 家業이 詩書에 남아
 책상에서 葩灑⁶¹⁸의 글을 살펴보네

傳家舊業詩書在
 點檢牀頭灑葩

석오의 「영보당」 시와 「죽사동」 시에 차운함 次石渃永保堂韻竹寺洞韻

가래나무 언덕배기 곁에 몇집을 지으니
 부모를 그리는 마음⁶¹⁹ 늙어도 얼어지지 않네
 젊을 적 공명의 꿈은 전원생활에 어긋나고
 만년의 살림으로 농서를 베끼네
 기장 밭에 가을이 무르익으니 몸소 시제 올리고
 부추 밭에 봄이 깊으니 손수 호미질 하네
 백발이 되도록 강산에서 시부를 지으며
 천 권 서적을 세 번 남짓 읽었네

楸邱側畔結茅廬
 孺慕情懷老不踈
 早歲功名違菜夢
 暮年經濟抄農書
 黍田秋熟躬時薦
 萑圃春深手自鋤
 白首江關詞賦在
 猶將千卷讀三餘

우 又

1

永保堂을 지어 길이 사모하는 마음 깃들이니
 어질다고 할 만 하네
 새벽이면 지금의 잘못된 습속을 쓸어내고
 밤이면 고인의 책을 읽노라
 날이 차면 매화를 벗삼고
 해가 저물면 대나무와 이웃하네
 늙도록 마음을 비우고 은거하며

有堂寓永慕
 一搆可言仁
 晨掃非今俗
 夜書讀古人
 天寒梅友在
 歲暮竹君隣
 白首空歸臥

618) 葩灑 : 『詩經』과 『書經』을 말한다. 韓愈가 「進學解」에서 『詩經』을 두고 평하기를 “詩는 바른먼서 아름답다. 詩正而葩”라 하였고, 揚雄의 『法言』에서 “『書經』의 뜻이 넓고 아득하다. 商書灑灑爾”라 하였다.

619) 부모를 그리는 마음 : 원문의 ‘孺慕’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그리듯이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사모하는 것을 말한다.

밭 사이에서 일민이 되리라

위는 영보당이다. 右永保堂

田間作逸民

2

竹寺村의 주인에게 묻노니

몇집 짓고 은거한 지 몇 년이 되었는고
 한 그루 나무 청량한 바람은 내 뜻에 맞고
 두어 칸 맑고 깨끗한 집은 몸 두기에 족하네
 노년에 희끗희끗한 머리 피하기 어려우나
 고요한 곳에서 속세의 생각을 없앨 수 있네
 언덕너머 종소리에 속인의 귀를 깨끗이 하고
 밭 사이로 떨어지는 비취색에 修仁山을 보네

‘수인’은 산의 이름이다. 修仁山名

위는 죽사동이다. 右竹寺洞

竹寺村中問主人

誅茅歸隱幾經春
 一樹清涼猶適意
 數椽瀟灑足安身
 衰年難禁莖莖雪
 靜處能消念念塵
 隔岸鐘聲清俗耳
 滴簾翠色見修仁

석오대감께 부치는 짧은 편지 시 寄石浯台短柬詩

푸른 나무 붉은 석류에 비가 막 개었는데
 삼가 대감의 근황은 어떠하십니까?
 근래에 무더위로 병이 더욱 심해져
 날이 맑아졌으나 묵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밝은 달 둥글게 뜨니 밤 꿈에 그리워하고
 맑은 바람 불어오는데 벗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열흘간 소식이 막혔는데 더 오래될까 염려되어
 동생 편에 보내며 이만 줄입니다

碧樹紅榴雨霽初
 伏惟台體近何如
 近因酷暑沈痾重
 縱遇新晴宿約虛
 明月憑圓思夜夢
 清風待惠故人書
 旬阻信猶嫌久
 送弟慇懃不備餘

지난번 진영에서 함께 지하의 연구시에 화운하였다. 비록 ‘江部’에서 한 운이 빠졌으나 사람은 많고 운자가 부족하여 사람마다 얻은 운자가 네 자에 불과했다. 여운이 돌아와서도 시들지 않아 다시 모든 운을 없애고 애오라지 ‘喚仙’ 두 글자를 들어서 당일의 미진함을 웃으며 말함 向於柳營共和池荷聯句雖沒江部一韻人多韻少每人所得不過四箇韻字餘意歸而未衰更沒其全韻聊供喚仙當日未盡之笑云

연꽃 가는 버들 연못이 아름다워	細柳荷池勝
먼 강에서 물줄기를 끌어 왔네	分流引遠江
물은 오월의 거울처럼 서늘하고	水涼五月鑑
땅은 육순의 밭 언덕처럼 궁벽하네	地僻六旬隴
맑은 바람 부는 정자는 이웃하기 좋고	好傍清風榭
밝은 달 떠오르니 배를 띄울만 하네	可容明月艫
연못은 燕喜堂 앞에 있고 또 북처럼 아름다운 배가 있다. 荷池在燕喜堂前且有如梭畫舫	
원수는 날마다 취중 시를 짓고	日哦元帥醉
때로 여러 객들을 불러 모으네	時會衆賓唵
장막 안에 패설이 오가고	入幕生蠻語
잔치 자리에 기생의 발소리 들리네	步筵聽妓趂
시든 붉은 연꽃잎은 빗물 받치는 우산 ⁶²⁰ 인 듯	退紅擎雨蓋
나부끼는 흰 연꽃잎은 바람에 날리는 깃발인 듯	飄白馭風幢
푸른 연뿌리는 꿀처럼 달고 ⁶²¹	翠藕甘如蜜
푸른 연줄기로 빛은 술은 항아리 술 보다 낫네	碧筩釀勝缸
천연의 모습은 으뜸이요	天然許第一
아리따운 자태는 천하 무쌍이네	綽約若無雙
푸른 잎에 기대어 물고기의 등을 감추고	依綠藏魚脊
붉은 꽃을 엿보니 백로의 꿈무니를 드러낸 듯	窺紅出鷺肛
시간은 어느덧 흘러	偷機漏箭促

620) 빗물 받치는 우산 : 蘇軾의 「贈劉景文」에 “연꽃은 다하여 이미 빗물 받치는 일산이 없거니와, 국화는 쇠잔해도 아직 서리 갈보는 가지가 남아 있네. 荷盡已無擎雨蓋, 菊殘猶有傲霜枝.”라 하였다. 『東坡全集』卷18「贈劉景文」.

621) 꿀처럼 달고 : 韓愈의 「古意」에 “태화봉 꼭대기의 옥정에 자란 연은, 꽃이 피면 열 길이요 뿌리는 배만 한테, 차갑긴 눈서리 같고 달기는 꿀 같아서, 한 조각 입에 넣으면 고질병이 낫는다네. 太華峯頭玉井蓮, 開花十丈藕如船. 冷比雪霜甘比蜜, 一片入口沈痾痊.”라 하였다. 『韓昌黎集』卷3.

달빛이 검광에 쏟아지네	回照鈿光攢
대장군의 막사 ⁶²²)를 어지러이 헤치고 들어가	紛披靑油幕
백옥 등잔으로 어둠을 밝히네	艷明白玉釭
수선화와 백중을 닮았만하고	水仙堪伯仲
언덕의 지초는 옥돌처럼 곱네	岸芷品珉玕
물에 비치니 붉은 모습 단정하고	照水紅粧靚
바람이 부니 푸른 소매 나부끼네	臨風翠袖扛
연꽃 완상에 북쪽 손님 놀라니	遊賞驚北客
연못 정자는 남쪽 당의 으뜸이라	池榭擅南邦
진흙에서 나와도 ⁶²³) 몸이 물들지 않고	出淤身無染
낮은 곳에 처한들 뜻을 굽히지 않네	處卑志肯降
정신은 도연명의 국화 ⁶²⁴)와 통하고	神傳陶令菊
운치는 「이소」 향초와 같네	韻入楚騷芷
物性은 곧고 정결하여	爲物貞而潔
사람처럼 성실하고 정성스럽네	如人慤且慤
저 군자의 칭호를 사랑하노니	愛渠君子號
나 같은 야인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누나	愧我野人腔
채색 비단 잘라 만든 隋苑 ⁶²⁵)을 부끄럽게 하고	羞剪綵隋苑
계곡에 모인 월나라 배를 채색해놓은 듯하네	採溪會越舡
이슬방울은 가벼이 스스로 뒹굴고	露珠輕自轉
바람맞은 잎은 서로 서걱거리네	風葉戰相撞
천년 묵은 거북이 ⁶²⁶)는 연잎에 올라 놀고	巢葉龜齡壽

622) 대장군의 막사 : 원문의 ‘靑油幕’은 대장군의 막사를 가리키는데, 청유라는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

623) 진흙에서 나와도 : 周敦頤의 「愛蓮說」에 “나는 유독 연꽃이 진흙탕 속에서 나왔어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맑은 잔물결에 씻기면서도 오염하지 않은 것을 사랑한다. 予獨愛蓮之出於淤泥而不染, 濯清漣而不夭.”라는 말이 나온다.

624) 도연명의 국화 : 원문의 ‘陶令’은 陶淵明을 가리킨다. 그의 「飲酒」에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따다가, 유연히 남쪽 산을 바라보누나. 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 한 데서 온 말이다. 『陶淵明集』 卷3.

625) 隋苑 : 隋煬帝가 강소성 揚州 서북쪽에 세운 園名으로 매우 호화롭고 사치스러웠는데, 隋苑·上林·西苑이라고도 한다. 수 양제는 대업 1년에 둘레가 300리나 되게 西苑을 쌓은 다음, 그 안에 方丈·蓬萊·瀛洲 등 모든 산을 만들고 臺觀·宮殿을 화려하게 늘려 지었으며, 온갖 꽃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꽃이 지면 사람들을 시켜 채색 비단을 잘라 剪綵 꽃과 잎을 만들어서 나뭇가지에 붙이게 했다고 한다. 『續世說』.

향기에 취한 물고기는 배를 살찌우네	飽香魚腹腴
鏡湖 ⁶²⁷)는 진실로 아름답고	鏡湖誠媚麗
太華峯 ⁶²⁸)은 지극히 광대하네 ⁶²⁹)	太華儘鴻龐
모양을 견주니 陸郎이 품은 굴 ⁶³⁰) 비슷하고	較樣陸郎似
말하는 모습은 양귀비 ⁶³¹)와 같네	解言妃子儂
바람 부는 누대는 울창한 숲을 끼고 있고	風臺擁鬱鬱
돌 틈 사이로 물은 졸졸 흐르네	石溜瀉淙淙
화려한 누각은 대나무 언덕에 서있고	畫閣臨篁塢
화려한 배는 돌 징검다리에 매어 있네	彩舫倚石砥
장군은 힘운시를 좋아하고	將軍好競病
빈객은 孟嘉와 龐鄧을 모으네	賓僚會孟龐

맹가⁶³²)와 방통과 등우⁶³³)는 모두 참군이 되었다. 孟嘉龐鄧俱爲參軍

626) 천년 묵은 거북 : 五總龜라 부르는데, 거북이 천년 묵으면 연잎에 올라가 노닌다 한다. 『史記』卷128 「龜策列傳」.

627) 鏡湖 : 唐 玄宗 때 賀知章이 벼슬을 그만두고 향리로 돌아가자, 玄宗이 鏡湖의 노래 하나를 하사한 고사가 있는데, 李白의 「對酒憶賀監」에 “조칙으로 경호의 물을 하사하시어, 그대의 대소에 영광이 되게 하셨도다. 勅賜鏡湖水, 爲君臺沼榮.”라는 표현이 나온다.

628) 太華峯 : 唐代韓愈의 「古意」에 “태화봉 정상 옥정의 연꽃이여, 활짝 피면 열 발이고 뿌리는 배와 같지. 太華峯頭玉井蓮, 花開十丈藕如船.”라 하였는데, 그 주에 “샘 가운데 잎이 천 개인 흰 연꽃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신선이 된다.”라 하였다.

629) 광대하네 : 원문의 ‘鴻龐’은 광대하고 후중하다는 뜻으로, 大地를 비유하는 말이다. 歐陽脩의 「廬山高瞻同年劉中允歸南」에 “위로는 푸른 하늘에 잇닿아 가물가물하고, 아래로는 흥망한 후토를 누르고 있네. 上摩青蒼以曠曠, 下壓后土之鴻龐.”라는 말이 나온다. 『文忠集』 卷5.

630) 陸郎이 품은 굴 : 삼국 시대 오라 陸績 그가 6세 때 袁術을 만났다. 원술이 굴을 내오자 세 개를 품속에 간직하다 하직 인사할 때 굴이 땅에 떨어졌다. 원술이 말하기를, “陸郎은 손님인데 굴을 품에 넣었는가?” 하니, 육적이 대답하기를,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였다. 『三國志』 卷57 「吳」.

631) 양귀비 : 원문의 ‘解言妃’는 말을 알아듣는, 곧 양귀비를 가리킨다. 唐 현종이 太液池에 千葉白蓮花가 활짝 피었을 때 귀척들과 주연을 베풀고 그 꽃을 완상하다가 좌우 신하들에게 양귀비를 가리키며 이르기를 “어찌 말할 줄 아는 나의 이 꽃만이야 하겠느냐. 爭如我解語花”라 했던 데서 온 말이다. 『說郛』 卷52.

632) 맹가 : 晉末 桓溫 정승의 참모였다. 孟嘉가 일찍이 桓溫 의 참군으로 있을 때, 한번은 桓溫이 9월 9일에 龍山에서 잔치를 열어 막료들이 모여 즐겁게 놀았는데, 그때 마침 西風이 불어 孟嘉의 모자가 날아갔는데도 孟嘉는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에 桓溫이 孫盛에게 글을 지어 孟嘉를 조롱하게 하자 孟嘉가 곧바로 화답하였는데, 그 글이 매우 아름다워 모두들 찬탄하여 마지않았다는 고사에서 연유한 것이다. 후에 이 고사로 인하여 중앙절에 높은 곳에 올라가 모자를 떨어뜨리는 풍류가 생겨났다고 한다. 『晉書』 卷98 「孟軻列傳」.

633) 등우 : 後漢 사람으로 13세에 장안에 유학할 당시 光武帝를 만나 서로 절친하게 지냈다. 그 후 光武帝가 병사를 일으켜 河北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자 光武帝가 매우 기뻐하여 말하기를, “나는 마음대로 관직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대가 멀리서 나를 찾아온 것은 벼슬하고 싶어서 인가?” 하니, 鄧禹가 대답하기를, “벼슬은 원치 않습니다.” 하였다. 光武帝가 묻기를, “그렇다면 무

색향보를 품평하고자
 화려한 붓을 꺼내네
 鶴報門으로 이끌고 와서
 燕喜堂에 올라 긴 눈썹을 칭송하네
 육련이 피어나니 도관을 묻고
 푸른 주발에서 선공을 꿈꾸네
 시사에 단아한 풍치가 있으니
 군졸들이 월급을 덜어 내네
 喚仙亭에서 사흘 밤을 읊고
 돌아와 골 깊은 月出山에 누웠네

欲品色香譜
 並抽花筆杠
 招携來報鶴
 燕喜頌眉龍
 陸紅問道觀
 鉢綠夢禪控
 詩社有風雅
 軍供減月桴
 喚仙三夜詠
 歸臥月山筵

환선은 정자 이름이고 연희는 당 이름인데 학보문이 있다. 喚仙亭名燕喜堂名有鶴報門

17) 丙辰(1856)

환선정에서 주수⁶³⁴ 석오의 「부용」시에 화답함 喚仙亭和主帥石梧芙蓉韻

장군의 아름다운 누각에 꽃방석 마련하니
 마침 부용이 물에서 피어날 때라네
 열 길의 푸른 진흙에 어찌 감히 물들꼬
 온 연못에 붉은 단장 참으로 보배로워라
 천연히 圓光佛을 드러내며
 담박하게 도인을 찾아 들어가네
 천 년 전 濂溪⁶³⁵가 모두 말하였으니

將軍畫閣設華茵
 正值芙蓉出水辰
 十丈青泥那敢染
 一潭紅粉也堪珍
 天然現出圓光佛
 澹若相尋入道人
 千載濂翁惟說盡

엇을 하고 싶은가?” 하니, 鄧禹가 대답하기를, “단지 명공의 위덕이 사해에 베풀어지기를 바라고
 제가 작은 힘이나마 다하여 공명을 죽竹帛에 남기고 싶을 따름입니다.”라 하였다. 『後漢書』 卷1 「
 鄧寇列傳」.

634) 주수 :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

635) 濂溪 : 周敦頤를 말한다. 자는 茂叔이며, 濂溪는 그의 堂號다. 그가 廬山 蓮花峯기슭에 자리 잡고 살면서 그 앞에 흐르는 시내를 潁水라 이름하고 성현의 도를 즐기며 청아한 나날을 보냈다 한다. 『宋史』 卷427.

光風霽月⁶³⁶)이 너의 전신이었으리

霽月光風爾前身

석오에게 화답함 和石渚

1

江淮의 도둑⁶³⁷) 육십이 다 되었는데
 풍류와 시문이 풍진에서 벗어났네
 궁마를 등한시하니 元凱⁶³⁸)가 아닌가
 유리처럼 맑고 깨끗하니 伯仁⁶³⁹)과 같네
 호쾌한 풍류⁶⁴⁰)를 배풀어 객을 위로하고
 꽃과 새를 시켜 사람의 근심을 풀어주네
 두 해 병들어 누워 있으나 마음은 물과 같고
 城南 가득한 밤 기운에 은의 기운을⁶⁴¹)을 알아보네

裘帶江淮洽六旬
 風流騷雅出風塵
 等閒弓馬非元凱
 清澈琉璃是伯仁
 謾設歌壺聊慰客
 却令花鳥解愁人
 二年臥闔心如水平
 一氣城南夜識銀

2

636) 光風霽月 : 宋代 黃庭堅의 「濂溪詩序」에 “용릉의 周茂叔은 인품이 너무도 고매해서, 흥중이 쇠락하기가 마치 맑은 바람이요 갠 달과 같았다. 胸中灑落如光風霽月”라는 말이 나온다.
 637) 도둑 : 원문의 ‘裘帶’는 緩帶輕裘를 줄인 말로 도둑을 가리킨다. 晉의 羊祜가 군대를 맡고 있으면서 갑옷을 입지 않은 채 항상 가벼운 옷에 허리띠를 느슨히 풀어 놓고 있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晉書』 卷34 「羊祜傳」.
 638) 元凱 : 南北朝시대 晉나라 杜預의 자. 그가 羊祜의 뒤를 이어 군대를 맡아서는 양호가 한 것처럼 갑옷을 입지 않은 채 항상 가벼운 옷을 입고 허리띠를 느슨히 풀 채 지냈으나 군사들이 정제 되어 못나라를 평정하였다. 『晉書』 卷34 「杜預傳」.
 639) 伯仁 : 南北朝시대 晉나라 周顥의 자.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才辯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나중에 王敦이 거병했을 때 목숨이 위태롭던 왕돈의 종형인 王導를 위하여 그도 모르게 변명해 주어 살린 일이 있었다. 『晉書』 卷69 「周顥傳」.
 640) 호쾌한 풍류 : 원문의 ‘歌壺’는 호쾌한 풍류를 비유한 말이다. 晉나라 王敦이 술이 거나하게 취할 적마다 “늙은 준마는 마구간에 엎드려 있어도 뜻이 천리 밖에 있고, 열사로 늙어도 웅장한 마음이 끊이지 않네. 老驥伏櫪, 志在千里, 烈士暮年, 壯心不已.”라고 노래하면서 如意杖으로 唾壺를 두드린 데서 온 말이다. 『世說新語』 「豪爽」.
 641) 은의 기운 : 杜甫의 「題張氏隱居」에 “탐욕하지 않으니 밤엔 금은의 기운을 알아보고, 피해를 멀리하니 아침엔 사슴 떼가 노는 걸 본다. 不貪夜識金銀氣, 遠害朝看麋鹿遊.”라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1.

靑油⁶⁴²의 화려한 누각에 붉은 별이 빛나고
 申伯⁶⁴³이 남으로 오니 산이 신령스럽네
 호해⁶⁴⁴는 해마다 풍년이 들고
 봉수대는 밤마다 평온함을 알리네
 버드나무 그늘에서 병졸⁶⁴⁵들이 즐고
 난간 모퉁이 높이 부는 바람에 푸른 소매 나부끼네
 승평한 나날을 오직 필묵으로 표현하려
 때때로 붓을 들어 우국⁶⁴⁶의 시를 쓰네

靑油畫閣耀朱星
 申伯南來見嶽靈
 淮海年年逢稔熟
 烽臺夜夜報安寧
 柳陰日轉蒼頭睡
 欄角風高翠袖醒
 賁飾昇平惟翰墨
 時插花筆寫雲屏

3

춘광을 보낸 지 또 열흘
 백발에 무료히 흥진을 비웃네
 술이 나와 하루를 보낼 수 있고
 시는 스승에게도 仁을 양보하지 않네
 스스로 산 너머 흰 구름⁶⁴⁷을 부끄러워하고
 붉은 누각 꿈 속의 사람을 번거롭게 여기네
 桃花水⁶⁴⁸에 낚싯대 드리우자는 약속을 남기니
 기쁜 마음 금할 길 없네⁶⁴⁹

斷送春光又一句
 白頭無賴笑紅塵
 酒能與我同消日
 詩若於師不讓仁
 自愧白雲山外物
 煩爲朱閣夢中人
 一竿留約桃花水
 不禁流涎尺許銀

642) 靑油 : 장수의 軍幕에 바르는 기름.

643) 申伯 : 1851년에 전라우도수군절도사를 지낸 石渚 申命淳을 가리킨다.

644) 호해 : 원문의 ‘淮’는 淮水, ‘海’는 黃海와 南海를 통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江蘇·安徽·山東·河南 4개성의 접경과 당지만, 『書經』 「禹貢」에는 “회해는 양주 淮海惟揚州”라 하였는데, 여기서는 江海 혹은 湖海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645) 병졸 : 원문의 ‘蒼頭’는 푸른색 수건으로 머리를 싸맨 사졸이나 노복을 가리킨다. 노복들이 푸른색 수건을 머리에 썼다.

646) 우국 : 원문의 ‘雲屏’은 조정을 지키는 사람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이 시에서는 憂國의 의미로 썼다.

647) 산 너머 흰 구름 : 南朝 齊나라 高帝가 산중에 은거하는 陶弘景에게 산중에는 무엇이 있는냐고 묻자, 도홍경이 「詔問山中何所有 賦詩以答」이라는 시를 지어 “산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산등성이 위에 흰 구름 많아, 다만 스스로 기뻐할 뿐, 임금님께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山中何所有, 嶺上多白雲. 只可自怡悅, 不堪持贈君.”라 하였다. 『太平廣記』 卷202 「高逸·陶弘景」.

648) 桃花水 : 복사꽃 필 무렵에 얼음이 녹고 비가 내려서 불어난 하천의 물을 가리킨다.

649) 기쁜 마음 …… 없네 : 원문의 ‘流涎’은 杜甫의 「飲中八仙歌」에 “여양왕은 서 말 술 마시고야 조정에 나가고, 길에서 누룩 수레만 만나도 침을 흘리고, 주천군에 옮겨 봉해지지 못함을 한한다

백발이 무단히 성성했거늘
나의 영약 九轉丸⁶⁵⁰을 구하기 어렵네
인간이 三才에 참여하니 부양할 수 있고
천지가 득일하니 더욱 맑고 편안하네
태평한 세상에 이 늙은이가 살아가며
산수에서 취했다가 다시 깨어나네
질푸른 풀과 시든 꽃은 짙고 옅은 색이요
거울 속 피꼬리들은 그림 속의 병풍이네

無端白髮已星星
九轉難求我藥靈
人事參三能俯仰
乾坤得一更清寧
太平之世生斯老
山水其間醉復醒
濃綠殘紅深淺色
鏡中鶯鶯畫中屏

석표에게 화답함 和石瓢

봄빛에 아쉬운 이별 문을 나와 전송하니
꽃의 뜻은 얇어지고 버들 그늘 짙어지네
그대와 술자리 많지도 않았는데 청산이 저물고
나의 시 아직 못 마쳤는데 간밤의 비⁶⁵¹가 어둡네네
지나간 우환을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여생을 한적하게 보내며 마음을 보존하리
벗들을 만날 때 마다 흥금을 터놓는데
한밤중 성긴 발 사이로 달이 지네

悵別春光出送門
花情輕薄柳陰繁
無多君酌青山暮
未了吾詩宿雨昏
過境憂歡何足說
餘生閑適也心存
每逢友友論襟話
夜入踈簾落月盆

네. [汝陽三斗始朝天 道逢麴車口流涎 恨不移封向酒泉] ”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술을 몹시 좋아함을 뜻이다. 『杜少陵詩集』卷2. 여기에서는 신명순이 이시현에게 함께 낚시가지는 약속을 남기어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의미로 쓰였다.

650) 九轉丸 : 도가의 仙丹으로 太清神丹이라고도 한다. 쑤나라 葛洪의 『抱朴子』 「金丹」에 “먹으면 신선이 되는 금단에는 삼년 먹으면 신선이 되는 一轉之丹으로부터 사흘만 먹으면 곧 신선이 되는 九轉之丹에 이르는 아홉 종류의 금단이 있다.”라 하였다.

651) 간밤의 비 : 원문의 ‘宿雨’는 ‘지난밤 비’라는 뜻이다. 王維의 「田園樂」에 “붉은 복사꽃은 다시 지난밤 비를 머금었고, 푸른 버들은 또한 봄 연기를 띠었도다. 桃紅復含宿, 柳綠更帶春煙.”라는 내용이 있다. 『王右丞集』卷14.

석표에게 화답함 和石瓢

입춘⁶⁵²) 비바람에 날이 어둑어둑하니
 객을 붙잡아 책을 보며 중문을 닫네
 「백설가」로 노래의 뒤 뜻을 잇고
 붉은 노을이 선달 남은 자취에 떨어지네
 옛 유람은 어제 같은데 묵은 자취가 되었고
 이번 이별에 밤이 지나면 또 꿈속에서나 만나리
 흐드러진 봄날에 다시 만날 기약 기다리니
 봄바람에 꽃피는 달 밤 푸른 담쟁이넝쿨 뻗어있으리

三陽風雨日昏昏
 挽客看書掩重門
 白雪留連歌後意
 紅霞涓滴臘餘痕
 舊遊如昨猶陳跡
 此別經宵又夢魂
 且待春爛期再會
 東風花月碧蘿垣

봉헌 이기수⁶⁵³)에게 부치는 편지 시 寄鳳軒李基洙詩書

가을바람에 별이 드문 빗소리 들리는데
 반가워 거꾸로 신을 신고 정중히 글을 받았습시다
 병환이 나아지셨다니 기쁘고
 돌봐주시는 정성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이는 약을 먹고 가을에 건강해졌으며
 며느리는 해산날⁶⁵⁴)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조만간 한번 만나 편안히 담소하기로 하며
 총총히 몇 줄 글로 이만 줄입니다

西風星帶雨聲至
 欣倒忽承鄭重辭
 謹審美痾旋有喜
 況兼寶眷更相宜
 迷兒服藥當秋健
 嘉婦弄璋計日期
 早晏一逢方討穩
 數行草草不宣儀

652) 입춘 : 원문의 '三陽'은 1월, 또는立春 절기를 말한다. 『周易』에 의하면 11월 「復卦」에 一陽이 처음 생기고, 12월 「臨卦」에 二陽이 생기고, 1월 泰卦에 三陽이 생긴다.

653) 이기수 : 이시헌의 차남 이정흠의 장인을 말한다. 본관은 廣州이다.

654) 해산날 : 원문의 '弄璋'은 아들을 얻은 기쁨을 말한다. 『詩經』「斯干」에 “아들을 낳으면……구슬을 가지고 놀게 하고 乃生男子……載弄之璋”라는 말과 또 “딸아이를 낳으면……오지 실패를 가지고 놀게 한다. 乃生女子……載弄之瓦”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시헌의 손자 이환영이 1856년에 태어났다.

2. 自怡先生集卷之中

죽사동 산당화 竹寺洞山棠花

두어 떨기 산당화 비단 병풍 두른 듯
 빼어나게 그윽함이 미인의 자태와 같네
 시로 읊어 우리 장군의 사랑을 입었고
 배양되어 많은 군자 처사들이 옮겨 심었네
 약질이라 간밤의 비 근심하나
 은은한 향기가 미풍에 실려오네
 색보를 논한들 사치스럽지 않아
 아름다운 시구로 단장하니 더욱 빼어나네

數朶棠花錦障披
 幽閑絕似美人姿
 品題得我將軍重
 培養多君處士移
 弱質也應愁宿雨
 微香猶解引輕颺
 如論色譜非爲侈
 麗句粧成更特奇

화운한 시를 붙임 附和韻

석오 石潑

자태가 중후하여 수놓은 비단을 두른 듯
 산당화가 해당화의 자태보다 훨씬 아름답네
 오늘의 꽃구경 좋은 줄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지난 봄비에 옮겨 심지 못함을 한스러워하네
 서글퍼라 해질녘 유난히 아름다운 모습
 가냘픈 꽃잎 미풍에 흔들거려도 무방하네
 시냇가 섬돌에 예사로이 피어 있으나
 문득 시인의 각별한 관심을 입었네

逞態重重錦繡披
 山棠絕勝海棠姿
 早知今日看花好
 恨未前春得雨移
 怊悵偏宜當落日
 輕盈不妨漾微颺
 沿溪傍砌尋常有
 忽被詩人別樣奇

시인의 각별한 관심 詩人別樣奇⁶⁵⁵⁾

봄빛에 실려와 비단 색을 두르고
 산꽃이 부끄러이 대하니 야인의 자태로다
 성긴 울타리에 두란⁶⁵⁶⁾과 섞어 심어
 작은 오솔길 대숲 가에 피어났네
 난간에 햇살이 비치면 어여쁜 미소를 띠었다가
 밭에 바람 불어오면 슬며시 근심하네
 오늘 저녁 장군의 객으로 함께 기뻐하니
 시료의 그윽한 정은 모두 너의 기특함이어라

春色輸來錦色披
 山花羞對野人姿
 杜蘭雜植疏籬在
 叢竹傍開小逕移
 微笑巧承當檻日
 幽愁偏怯拂簾颺
 同懽此夕將軍客
 詩料閑情摠爾奇

죽사동에서 같은 날 운을 잡음 竹寺洞同日拈韻

이 마음 편하지 않은 곳 없으니
 작은 누각에 와서 함께 즐기네
 술 마신 뒤 긴 봄날을 소일할 만 하나
 병 끝이라 차가운 골짜기바람이 두렵네
 들꽃은 말없이 시구를 이루고
 산새는 무심하니 어찌 관청의 일을 알리오
 玄都에 다시 올지⁶⁵⁷⁾ 기필할 수 없으니
 이별할 때 붉은 복사꽃을 보고 또 보네

此心無處不閑安
 小閣來同一榻歡
 酒後堪消春日永
 病餘猶怕谷風寒
 野花不語能成句
 山鳥無心詎識官
 重到玄都難可必
 紅桃臨別再看看

655) 詩人別樣奇 : 詩題가 바로 앞 시의 끝 구절 5字 [詩人別樣奇] 와 같아 편집의 오류로 보인다.

656) 두란 : 자목련을 말한다.

657) 玄都에 다시 올지 : 원문의 ‘玄都’는 劉禹錫의 「遊玄都觀」에 “복숭아 심은 도사는 어디로 돌아갔는고, 전에 왔던 劉郎이 지금 또 왔다오. 種桃道士歸何處, 前度劉郎今又來.”라 하였다.

화운한 시를 붙임 附和韻

석오 石渚

청산을 맨발로 걸으니 참으로 편안하고
 흥금을 털어놓고 회포를 푸니 더욱 기쁘네
 지난봄의 작은 집은 여전하건만
 비 내린 후 잔화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네
 거문고와 술을 사랑함이 내 뜻과 같거늘
 백발에 비녀와 인수가 무슨 벼슬인가
 풍악소리와 꽃단장은 전연 나와 무관한 일이니
 시의 뜻을 논하며 술의 뜻을 느끼네

謝屐青山分外安
 襟顏相許得重歡
 前春小屋能如舊
 經雨殘花不耐寒
 青眼琴樽同我志
 白頭簪紒是何官
 歌絃脂粉渾閑事
 詩意相論酒意看

근수루에서 운을 잡음 近水樓拈韻

간밤에 이루지 못한 시구를 남겨두었는데
 이곳 누대에 오르니 시의가 더욱 깊어지네
 성을 돌며 길푸른 초목을 노래하고
 누각에 누워 담박하게 먼 숲을 대하네
 날마다 예 방식대로 모여 즉흥시를 짓느라
 짐시도 한가로운 마음 □□□하기에 어렵네
 어떻게 하면 같은 골목의 느릅과 버들 되어
 해마다 함께 할 수 있을런지

留得前宵未了吟
 登樓是處意重深
 巡城步綴濃青草
 臥閣平臨澹遠林
 連日偶成因循會
 片時□難快閑心
 那能榆柳同門巷
 相伴年年昨似今

화운한 시를 붙임 附和韻

석오 石渚

왜 하필 승경을 찾아 힘들게 시를 지으을까
 읊조리고 나니 비로소 깊이 취하네
 鶯花의 부귀는 봄비에 새롭고

選勝何須竟苦吟
 吟然後始醉相深
 鶯花富貴新春雨

정자 있는 연못에 해질녘 숲이 비치네
 어찌 이 자리에서 한가함을 시비할까
 한번 취하고 한번 깨어나며 마음을 논하네
 남淮의 도둑 벼슬(658)은 모두 임금의 은총인데
 예나 지금이나 보답하지 못해 부끄럽네

樓榭池塘夕照林
 閑是閑非寧此席
 一醒一醉且論心
 南淮裘帶皆恩賜
 報答多慙過去今

주헌(659)의 발에 내리는 비 簾軒簾雨

한가한 뜻은 경치와 도모을 따르나니
 봄비와 상관없이 차가움이 흡사 가을 같네
 나비는 어지러이 맴돌아 내 꿈과 하나되고
 꾀꼬리 쌍상이 낮게 날며 제 시름에 젖네
 꽃은 발 그림자를 엿보며 붉은 잠을 즐기고
 산은 대자리 무늬(660)에 떨어져 푸른빛을 띠려하네
 산인에게 마음속 뜻을 물으니
 강을 가로지르는 외로운 학이요 강에 떠있는 갈매기라 하네

閑情隨境與隨謀
 春雨不關冷逼秋
 亂蜨低迴渾我夢
 雙鷗併濕任渠愁
 花窺簾影紅耽睡
 山滴簾紋翠欲流
 若問山人心內趣
 橫江孤鶴泛江鷗

화운한 시를 붙임 附和韻

하루에 만나절도 도모하기 어려운데
 우연히 만난 기미가 가을처럼 담박하네
 마음 속 헤어지고 만남은 짐짓 말에 남아있으니
 마음 밖 한가롭고 번거로움을 근심하지 않으리

一日猶難半日謀
 逢場氣味澹如秋
 意中離合姑留說
 腔外閑繁不欲愁

658) 남淮의 도둑 벼슬 : 남淮는 전라좌도우수영이 있는 해남을 가리킨다. 원문의 ‘裘帶’는 緩帶輕裘를 줄인 말로, 도둑을 가리킨다. 짚의 羊祐가 군대를 맡고 있으면서 갑옷을 입지 않은 채 항상 가벼운 옷에 허리띠를 느슨히 풀어 놓고 있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晉書』 卷34 「羊祐傳」, 여기서는 石渚 申命淳이 도둑 즉 전라우도수군절도사 벼슬을 지내고 있는 것이 임금의 은총이라 여기며 표현한 것이다.

659) 주헌 : 병마절도사나 그의 營門을 이르는 말이다.

660) 대자리 무늬 : 蘇軾의 「南堂」에 “땅을 쓸고 향 피우고 문 닫고 자노라니, 대자리 무늬는 물 같고 장막은 연기 같네. 掃地焚香閉閣眠, 簾紋如水帳如煙.”라 하였다.

가느다란 봄비에 꽃 그림자 게으르고
 기약 없는 낮술이 석양으로 이어지네
 다만 풍류로 남은 생을 마치려 하니
 오직 청산과 백구 뿐이네

春雨廉纖花影懶
 午盃約莫夕陽流
 除非歌管終餘老
 惟有青山與白鷗

재첩시 再疊

轅門⁶⁶¹에서 시 지을 때 다시 만날 약속하여
 봄 난초의 모임이 가을 국화 필 때 다시 이어졌네
 아침 비는 옮겨 심은 대나무에 해가 없는데
 새벽바람은 유독 낙화를 근심하게 하네
 시 한수로 회포를 푸니 이처럼 상쾌하고
 백년 세월 되돌아보니 이처럼 흘러가네⁶⁶²
 가인의 노랫가락에 주막⁶⁶³은 흥에 젖고
 매화꽃이 다 날리니 또 흰 갈매기 나네

詩疊轅門屬再謀
 春蘭更續菊英秋
 朝雨不妨移竹惠
 曉風偏爲落花愁
 開心一咏斯焉快
 回首百年逝者流
 旗亭亂以佳人曲
 飛盡梅花又白鷗

화운한 시를 붙임 附和韻

은하수의 깨끗함은 스스로 도모한 것이요
 玉帳⁶⁶⁴의 높은 노래는 이미 가을이네
 萬斛의 술 마신 흔적은 장사의 뜻이 아니요
 삼년 백성 위해 수척해져도 근심하지 않네
 실버들 드리운 마루의 제비 빼어나게 사랑스럽고
 비 내린 뜰의 꽃은 흐르는 듯 취하네

星河曠潔自爲謀
 玉帳高歌已是秋
 萬斛酒痕非壯志
 三年民瘠未成愁
 領絲堂鶯嬌如逸
 垂雨庭花醉似流

661) 轅門 : 군영의 문을 말한다.

662) 흘러가네 : 孔子가 시냇가에 있으면서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이고 낮이고 멈추는 법이 없도다. 逝者如斯夫, 不捨晝夜.”라 탄식한 말이 『論語』 「子罕」에 보인다.

663) 주막 : 원문의 ‘旗亭’은 깃발을 걸어 손님을 끄는 다락이라는 뜻으로, 酒樓의 별칭이다.

664) 玉帳 : 主將이 거처하는 막사인데, 옥처럼 견고하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明代 焦竑의 「玉帳」에 “옥장은 병가가 압승하는 방위로서 주장이 그 방위에 막사를 설치하면 옥장처럼 견고하여 침범할 수 없다.”라 하였다. 『焦氏筆乘續集』..

이 자리의 벗들은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강호의 묵은 약속 또한 갈매기에게 맹세하네

同席襟顏知我否
江湖夙契亦盟鷗

앞 시의 운을 써서 해남의 옛 수령을 송별함 用前韻送別海南舊使君

해남수령은 유종⁶⁶⁵이다. 海倅柳淙

인사는 예로부터 스스로 도모한 것이 아니니
오이꽃 지고 국화 피는 가을이도다
이 년 만에 해국에明珠가 되돌아왔는데⁶⁶⁶
삼월 춘성에 새끼 꿩이 시름하리
기약 없는 이합에 별은 북으로 흩어지고
일정하지 않은 浮沈 속에 물은 동으로 흐르네⁶⁶⁷
南溟은 이로부터 봉새가 치고 날아가는 길⁶⁶⁸이 되리니
강호에 머물며 그대를 알아보는 갈매기 기다리리

人事由來未自謀
蒹花旋失菊花秋
二年海國明珠返
三月春城乳雉愁
離合無期星北散
浮沈不定水東流
南溟自是鵬搏路
留待江湖識面鷗

다음 날까지 비가 내려 이어진 인연 翌雨續緣

꽃가지에 내린 숙우가 사람을 만류하니
양손 검무는 어린 기녀의 재주일세

花枝宿雨挽人曾
劍舞雙回少妓能

665) 유종(1815~?) : 본관은 文化, 자는 景浩이다. 1854년에 해남의 수령을 지냈다.

666)明珠가 되돌아왔는데 : 漢代 孟嘗이 合浦太守가 되었는데, 그 고을에서는 곡식을 생산하지 않고 바닷가에서 구슬만 생산하여 백성들은 그것을 팔아서 살아갔다. 그러나 먼저 온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구슬을 혹독하게 빼앗아 가서 구슬이 다른 바다로 다 옮겨가고 없어졌다. 맹상이 태수로 와서 이전의 악법을 다 고치고 어진 정치를 베풀었더니 1년이 못가서 다른 바다로 갔던 구슬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것을 ‘去珠還浦/라 한다. 여기에서는 해남의 수령 柳淙을 찬미하는 의미로 썼다.

667) 동으로 흐르네 : 중국의 모든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듯이 만사가 덧없이 흘러감을 뜻한다. 李白의 『襄陽歌』에 “양왕이 즐기던 운우의 정이 지금 어디에 있는고. 강물은 동쪽으로 흐르고 원숭이만 밤중에 우는 것을. 襄王雲雨今安在, 江水東流猿夜聲.”이라 하였다.

668) 南溟 …… 길 : 큰일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품은 것을 말한다. 『莊子』 『逍遙遊』에, “北에 큰 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鯨이라고 한다. 곤의 크기는 몇천 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번하여 새가 되면 鵬이 된다. 봉의 등의 길이가 몇천 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봉새는 태풍이 불면 비로소 南溟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데, 남명으로 날아갈 적에는 바닷물을 쳐 삼킨 리나 튀게 하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 리를 날아오르며, 여섯 달 동안을 난 다음에야 쉰다.” 하였다.

이 만남 기약하지 않았는데 기약이 절로 생겨
 꿈같은 봄날은 꿈에서도 기뻐할 수 없네
 짙고 옅은 단장은 원래 분별이 없는 법
 곱고 추한 모습에 어찌 애증을 드러내리오
 사흘 취했다 깨며 주빈이 즐거워하니
 노래와 관현의 연주와 상관없네

此會不期期自在
 一春如夢夢難憑
 淡濃元是無分別
 妍醜何須見愛憎
 三日醉醒賓主樂
 不關歌曲管絲凝

화운한 시를 붙임 附和韻

석오 石沔

이 연회를 거듭 베푸니 이미 어제가 아니고
 비가 그대를 만류하지 못하니 나도 어찌 할 수 없네
 이별곡을 함부로 연주하지 말지어다
 부평초나 별처럼 만났다 흩어지니 아득히 기약하기 어렵네
 예쁜 꽃과 게으른 버들이 봄을 맞으니
 시샘하는 비바람을 몹시도 미워하네
 채만의 춤과 봉선의 노래가 저녁 내내 이어지니
 가련한 근심이 마디마디 맺혔네

此筵重設昨非曾
 雨不留君我不能
 別管離絲莫漫奏
 萍逢星散杳難憑
 嬌花懶柳方春節
 猜雨妬風是赤憎
 彩舞仙歌終夕詠
 竟憐愁意箇中凝

해남의 기녀 채만과 봉선이 가무에 능했다. 海妓彩鸞鳳仙能歌舞

신안에 사는 신암을 위한 시와 서문 新安新菴詩並序

천하의 일은 귀함이 參名(669)과 責實(670)에 있으니 名과 實이 서로 부응하는 것을
 端이라 하고, 서로 부응하지 않는 것을 窾이라 하는데, 窾과 端의 사이에 名과 實이
 확립되어야 변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일마다 중국을 모방하여 산과 강과 군읍을 命名할때면, 강은 洛
 이나 漢이라 하고, 산은 峨嵋나 天台라 하며, 군읍은 襄陽이나 江陵이라한다.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도록 많으나 그 이름을 알 수 없으니, 이것은 端인가, 窾인가?

생각건대 우리 강진 고을도 ‘金陵縣’이라 칭하는데, 현의 북쪽에 新安이라는 마을이 있다. 대저 新安⁶⁷¹은 중국 금릉의 속현으로 晦菴 朱子의 옛 거처이다. 우리나라까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그 거리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거늘 우리 땅을 新安이라 명명한 것은 또 어디에서 취한 것인가? 혹 산과 강이 서로 비슷해서인가, 풍토와 기후가 서로 비슷해서인가? 내가 이를 보건대 남쪽 포구의 넓고 아득함이 금릉의 太湖가 된 것인가? 월출산의 빼어난 풍광이 신안의 紫陽⁶⁷²이 된 것인가? 회암의 옛집에 살고 회암의 글을 읽고 회암의 학문을 배우는 자가 또한 몇 사람이나 되는가?

신안에 사는 趙仁夏는 젊은 나이에도 기특한 재능이 있어 오경과 사서를 통달하여 경서에 밝은 선비가 되어 자주 鄉試⁶⁷³를 보았으나 아직 관직에 나아가지는 못했다.⁶⁷⁴ 그러나 功業에 더욱 힘쓰고 나이가 아직 젊으니 날개를 치고 어디까지 날아오를지 헤아릴 수 없는 자이다. 그가 작은 집을 새로 지어 가만히 신안 회암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新菴’ 두 글자를 편액 하고, 겸하여 近體詩 두 수를 지어 사모하는 마음을 기탁하였다. 돌아보건대 그 뜻이 이미 원대하여 章句⁶⁷⁵를 암송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취하였을 뿐 아니니, 앞서 이른바 ‘참명’과 ‘책실’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내가 그 뜻을 가상히 여기고 그 부탁을 마지못해 따르며 내 자신의 졸렬함을 잊고 그 운에 화답하여 또 한 마디 경계의 말을 두어 더욱 힘쓰게 하고자 한다. 주자는 婺源⁶⁷⁶에 三先生⁶⁷⁷을 위한 祠堂을 짓고 記文에 “세 분의 선생님을 공경하여 우러러보면 어찌 그 글을 읽고 그 뜻을 구하지 않으며 몸에 돌이켜 힘써 행하지 않겠는가?”라 하였다. 이제 ‘新菴’ 두 글자에 대해 이름을 돌아보고 뜻을 생각하며 마음속 가득한 경서⁶⁷⁸를 더욱 궁구하여, 배운 것을 강구하고 생각을 깊게 하니, 천지만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자신의 사사로움을 이겨 예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하여 풀이집에서 시작하여 천하에 이를 것인 바, 이는 伊尹⁶⁷⁹의 뜻이요, 顏淵의 학문이며, 주자가 이를 전하여 이 사람을 깨우치게 한 것이니, 어찌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겠는가? 그렇다면 이 땅의 아름다운 이름과 명실상부할 뿐만 아니라, 천년 뒤에도 암자 주인의 參名과 責實이 窺이 아니요 端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며, 또 여기에 있을 것이다.

天下之事，貴在參名責實，名實之相副謂之端，不相副謂之窳，窳端之間，名實立可辨矣。惟我東人，事事倣中國，至若名山水郡邑者，曰洛曰漢之於水也，曰峨嵋曰天台之[於]⁶⁸⁰山也，曰襄陽曰江陵之於郡邑，不可盡記而未知斯名也，端耶窳耶。顧我康之一邑，亦稱金陵縣，縣之北有新安村者。夫新安在中國金陵之屬縣，爲晦庵朱夫子之故居者也。於我東踰山越海，不知其隔幾千里，吾土之所以名者，又奚以取焉。其或流峙之有相似者耶。風氣之有相似者耶。以余觀乎斯，南浦之浩渺，其爲金陵之太湖者耶。月嶽之巖光，其爲新安之紫陽者耶。居晦菴之舊居，讀晦菴之書，學晦菴之學者，亦能有幾人耶。趙君仁夏，居於新安，年少妙藝，通五經四書，爲明經之士，屢舉鄉解，姑未釋褐，然工業愈勤，年紀尙少，鵬博前路，有未可量者也。新構數椽，竊有慕于新安晦菴之義，扁之以‘新菴’二字，兼構近體二首，以寓慕焉。顧其志既遠且大，不徒在誦章句，取芳名而已，向所謂參名責實，其不在斯乎。余嘉其志，俛從其托，忘拙而和其韻，復有誦一言而益勉者。朱夫子婺源三先生祠堂記有曰：“敬先生而瞻仰之，則曷不⁶⁸¹讀其書求其指，反諸身而力行乎。”今於新菴二字，顧名而思義，更究腹笥之經，講學致思，以窮天地萬物之理，勝其私以復焉。則善始於家，可以達之天下，乃所謂伊尹之志，顏淵之學，朱夫子傳之以覺斯人者，豈外乎吾人日用之間哉。然則非獨地之佳名相符，千載之後，菴主人之參名責實，不窳而端者，其在斯乎，其在斯乎。

669) 參名 : 이름을 붙이는 일.

670) 責實 : 거짓이 없이 사실에 부합되게 함.

671) 新安 : 주희의 본관은婺源으로 지금의安徽省의 한 현인데, 南北朝 시대에는 新安郡에 속했기 때문에 자신의 地望으로 신안을 사용하여 늘 ‘新安朱熹’라고 自署하였다.

672) 紫陽 : 安徽省의 山名인데, 朱熹가 그의 서실 이름을 ‘紫陽書室’이라 하였으므로 후인들이 주희의 별호로 삼았다.

673) 鄉試 : 원문의 ‘鄉解’는 鄉試와 같은 말이다. 각 도의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각각 주관하여 문과·무과와 생원·진사시의 초시를 보여서, 이에 합격하면 會試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674) 관직에 나아가지 : 원문의 ‘釋褐’은 처음 벼슬하여 관직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褐’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입는 옷이다.

675) 章句 : 『大學章句』와 『中庸章句』를 말한다.

676) 婺源 : 朱熹가 출생한 縣의 이름이다. 이곳이 주희의 출생지이며 講學하던 곳이였으므로, 후인들이 여기에 사당을 세워 그를 享祀하였다. 『朱子大全 附錄』 卷7.

677) 三先生 : 北宋의 대학자 周敦頤·程顥·程頤를 말한다.

678) 마음속 가득한 경서 : 원문의 ‘腹笥’는 「文苑列傳·邊韶」에 “배가 불룩한 것은 오경이 가득하기 때문이며 잠자면서도 경전의 일만 생각한다. 腹便便, 五經笥, 但欲眠, 思經事.” 『後漢書』 卷80 라는 구절에서 온 말로,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책, 혹은 博學多識을 뜻한다.

679) 伊尹 : 殷나라 湯王의 名宰相이다.

680) 문맥으로 보아 ‘於’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681) 不 : 원문에 ‘若’을 고친 흔적이 보인다.

시를 지어 말하기를

詩曰

1

산세가 빼어나고 물이 맑으니
 마음이 선해지고 눈앞이 맑아지네
 시렁에 꽂아 둔 고서를 점검하고
 밝은 창가에 떠오르는 새 달을 부르네
 내 생애 귀히 여기는 바는 경서 뿐
 먼 성현의 유래가 또한 지명에 남아 있네
 그대의 마음 깊고 원대함을 아니
 功業이 이 작은 집에 端을 이루리

山容秀發水容清
 心界還兼眼界晴
 點檢古書三架插
 招呼新月一窓明
 吾生所貴惟經術
 聖遠由來且地名
 知子衿期深遠大
 功成端在數椽成

2

新安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면
 어찌 우리나라 사람이라 칭하리오
 천년 뒤에 태어난 선비가
 이 집에서 성인을 사모하네
 휘장의 꼭대기가 먹빛이 되면⁶⁸²⁾
 화살이 과녁에 적중하리라⁶⁸³⁾
 南溟이 이곳임을 알겠거니

不識新安號
 胡爲稱我東
 士生千載後
 聖慕一堂中
 帳頂看成墨
 箭心在中紅
 南溟知此地

682) 휘장의 …… 되면 : 北宋의 제상 范仲淹이 젊어서 주야로 학업을 익히느라 휘장 꼭대기가 촛불의 그늘음으로 먹빛이 되었는데 其帳頂如墨色 그가 귀하게 되자 귀부인이 자손들에게 보여주면서 “너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부지런히 공부하느라 등불 그늘음이 남은 흔적이다. 此汝父少時勤學燈烟跡也.”라 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純正蒙求』 「君實枕圓純仁帳墨」.

683) 과녁에 …… 하리라 : 『孟子』 「萬丈」下的 ‘伯夷目不視惡色章’의 내용에 대해 黃子功이 “과녁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힘이지만 명중하게 하는 것은 힘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 세 사람 즉 伯夷, 伊尹, 柳下惠는 힘만 있고 지혜는 없다는 뜻입니까? 其至爾力 其中非爾力, 還是三子只有力無智否? 라고 묻자, 朱子가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이 편벽되므로 이르는 곳 역시 편벽된 것이다. 孔子 같은 경우는 화살마다 모두 홍심에 맞히지만 세 사람은 사람마다 각각 한쪽만을 맞히는 것이다. 不是無智, 知處偏, 故至處亦偏, 如孔子則箭箭中紅心, 三子則每人各中一邊.”라 대답하였다. 『朱子魚類』 卷58.

봉새가 날기 위해 긴 바람을 기다리네

鵬起待長風

암우의 시에 화답함 和菴嶼詩

1

서리 내리는 저녁 거문고와 술을 함께하며
 헤어지고 만난 지 어느덧 이십 년
 湖海에서 작별하며 흰 귀밑머리에 놀라고
 산고개의 구름을 뚫으며 꿈결에도 얼마나 괴로웠나
 병은 손님맞이할 줄 알고 완전히 사라졌고
 국화는 아름다운 사람 기다리느라 감히 시들지 못하네
 지난밤 심지를 돌아⁶⁸⁴ 문득 눈을 비비니
 그대 앞의 거친 술을 부끄러워하네

琴樽一榻暮霜天
 離合居然二十年
 鬢雪偏驚湖海別
 夢魂幾惱嶺雲穿
 病知迎客能全歇
 菊待幽人未敢翫
 剪燭前宵翻刮目
 糟糠却愧在君前

2

세모에 궁벽한 집에 앉아 탄식하노니
 젊었을 적의 志氣를 헛되이 저버렸네
 마른 좀 흐릿한 눈에 어른거려 싫으나
 해진 갓옷은 병든 몸에 걸쳐도 만족스럽네
 오랜 골짜기에 한적한 마음 구름이 항상 쫓고
 긴 하늘에 경계 너머 새가 훨훨 날아가네
 백수에 남은 인생 무슨 일을 할까
 공연히 약으로 몸을 보전할 뿐이네

窮廬坐歎歲暮天
 志氣虛捐少壯年
 乾蠹却嫌昏眼着
 弊貂猶足病軀穿
 閑情古壑雲常逐
 過境長空鳥去翩
 白首餘生何所事
 空將藥物護身前

684) 심지를 돌아 : 촛불이 오래 타서 길어진 심지를 자르는 것으로 밤이 깊음을 뜻한다. 唐 李商隱의 「夜雨寄北」에 “그 언제나 함께 서창의 촛불 심지 자르며, 파산의 밤비 내리던 때를 얘기할까. 何當共翦西窗燭, 卻話巴山夜雨時.”라 하였다.

신종의 「백회」시에 차운함 次愼從白⁶⁸⁵)悔詩韻

백회를 드리운 마음 후회가 가볍지 않으니	垂白悔心悔不輕
백회라 칭한데서 참된 마음 보네	因稱白悔見真情
요란한 백년 세월 전연 의지할 곳 없고	百年擾擾渾無賴
쓸쓸한 귀밑머리 어찌 이룸이 있으리	雙鬢蕭蕭底有成
세 가지 잘못 ⁶⁸⁶)을 한 이 몸 평생 눈물만 흘리며	三失人間終世淚
홀로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 ⁶⁸⁷) 누구와 더불어 행하리	獨亡海內與誰行
오십까지의 잘못을 알았으니 늦었다고 이르지 말라	知非五十休云晚
기쁘게 지금 蘧伯玉 ⁶⁸⁸)의 맑은 마음을 보네	喜見于今伯玉清

일속산방⁶⁸⁹)에 화답하여 부침 和寄一粟山房

벽옥의 지팡이소리 백운동을 울리더니	碧玉遊筇響白雲
서창에서 촛불심지 자르며 글을 자세히 논했네	西窓剪燭細論文
스승을 찾아뵈어 ⁶⁹⁰) 心訣을 전수 받고	樞衣苔上傳心訣
봉래산에서 약초를 캐니 못 향기에 젖었네	採藥蓬萊襲衆芬
泉石膏肓 ⁶⁹¹)이 어찌 내 삶이 아닐 것이며	泉石膏肓非歎我

685) 원문의 ‘白’은 ‘百’의 誤記로 보인다.

686) 세 가지 잘못 : 『書經』 「五子之歌」에 “한 사람이 세 가지 잘못을 하였으니, 원망이 어찌 밝은 데에 있겠는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도모해야 한다. 一人三失, 怨豈在明, 不見是圖.”라 하였다.

687) 아무도 없으니 : 司馬牛가 근심하면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만 홀로 없구나. 人皆有兄弟, 我獨亡.”이라 하였다.

688) 蘧伯玉 : 『莊子』 「則陽」에 “거백옥은 나이 육십이 되는 동안 육십 번이나 잘못된 점을 고쳤다. 蘧伯玉行年六十而六十化”라는 말이 나온다. 『淮南子』 「原道訓」에는 “나이 오십에 사십구 년 동안의 잘못을 깨달았다. 年五十而知四十九年非”라 하였다.

689) 일속산방 : 黃裳(1788~1863)의 서재 이름으로, ‘줍쌀만 한 집’이란 뜻이다. 黃裳은 다산의 강진 유배시절 예제자로, 그의 시는 추사 김정희에게도 크게 인정을 받았다고 전한다. 저서로는 『扈園遺稿』가 있다.

690) 스승을 찾아뵈어 : 원문의 ‘樞衣’는 옷자락을 치켜든다는 뜻으로, 윗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말한다. 『禮記』 「曲禮」에 “어른이 계신 방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옷자락을 공손히 치켜들고 실내 구석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가서 자리에 앉은 다음에 응대를 반드시 조심성 있게 해야 한다. 樞衣趨隅, 必慎唯諾.”라 하였다. 원문의 ‘苔上’은 곧 茶山을 일컫는다. 茶山의 생가인 與猶堂 현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당시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에 있다. 그 옛날에는 이곳을 沔川 또는 杜陵이라고 했다.

691) 泉石膏肓 : 마치 고질병 환자처럼 산수에 중독되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뜻으로, 자연의 승경에 대한 혹독한 애착심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田游巖이 唐 高宗에게 “신은 물과 바위에 대한 병이 이미 고황에 들고 연무와 노을에 고질병이 들었는데, 성상의 시대를 만나 다행히 소요하고 있습니다. 臣泉石膏肓, 煙霞痼

산과 바다의 魚鳥가 어찌 그대의 삶이 아니리
 쓸쓸히 일속산방 처마에 뜬 달빛 아래
 정정한 외로운 학이 무리 잃고 슬피하네

海山魚鳥屬之君
 蕭然一粟茅簷月
 獨鶴亭亭悵失群

다산의 「옥판봉」에 차운하여 삼가 정유상⁶⁹²)에게 보내고 짧은 서문을 아울러 지음
 次茶山玉版峰詩韻奉寄維桑并小序

지난 임신년(1812)에 籀翁⁶⁹³)이 다산초당에서 걸어와 월출산에 올랐는데, 돌길의 위험하여 天皇峯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백운동으로 들어 「玉版峰」 12운⁶⁹⁴) 시를 지으셨다. 그때 나는 어린 나이로 짚신과 우산을 들고 다산초당에서 스승을 모시고 星菴⁶⁹⁵) 등 여러 동학들과 함께 따르며 시를 읊조리는 곳에서 유희했는데, 그 일이 완전히 어제 같지만 순식간에 귀밑머리가 눈처럼 희어져 지난날을 그리워하며 탄식하니 문득 세상과 떨어진 듯하다.

丁維桑은 탁옹의 조카로서 문장은典雅하고 시는 운치가 있어 여유로운 故家의 풍취가 있었다. 지난 가을 남녘땅을 노닐다가 백운동 옛집으로 나를 찾아와 손을 잡고 옛 일을 이야기하는데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했다.

금년 봄 유상이 星菴 및 벼들과 다시 내게 들렀는데 내친 김에 월출산 정상에 오르고자 하였다. 나 또한 병든 몸을 무릅쓰고 흥에 겨워 옷자락을 떨치고 앞장서니, 호랑이와 교룡을 타고 곧 정상까지 오를 것 같았으나 겨우 중간쯤에 이르러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이 어지러웠다. 나는 병이 날까 겁이 났고 그대는 위험을 경계했기에 함께 중도에서 돌아왔다. 지난번 다산의 「옥판봉」 시 중에 “깊은 한을 안고 돌아와, 슬프게 九井峯을 바라보네” 라는 구절이 거듭 오늘을 위해 준비한 말이 되었다.

한 걸음에 시 한 수를 읊으며 망연히 산을 내려오다가 그 시에 차운하여 애오라지 옛일에 감응하고 한을 잇는 마음을 깃들였다. 星軒과 石瓢 등 벼들은 다리의 힘이 쇠하지 않아 나비처럼 날듯이 가파른 바위를 밟고 정상에 올라 두 사람이 따라 오지 못하는 것을 비웃으며 모두 이 한을 남겨두지 않고, 다시 억지로 차운시를 짓

疾, 既逢聖代, 幸得逍遙.”라 말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舊唐書』 卷192 「田游巖傳」.
 692) 정유상 : 다산 정약옹의 조카이다.

게 하고 금곡의 주수에 따라 벌을 내리듯이⁶⁹⁶⁾ 하였다.

往在壬申，籀翁步自茶山來登月山，石棧危險，不能天皇絕頂，轉入白雲洞，有玉板峰十二韻。時余以童年，攝屨擔簦，陪杖屨于茶山，與星菴諸益角卯相隨，遊戲吟哦之場，宛然如昨，而轉眄之頃，鬢絲如雪，懷舊感嘆，頓隔一塵。維桑以籀翁姪，文雅風韻，裕有故家風。去年秋，旅遊南下，訪余于白雲舊廬，握手道舊，白頭如新。今年春，與星菴諸益，再過余，因欲上月山絕頂。余亦強病乘輿，振衣前導，跨虎騰蛟，若將窮巔，纔到中腰，脚脆眼眩，我怯其病，君戒其危，相與半途而還。向來「玉板峰」詩中“及歸抱深恨，悵然瞻九井”者，重爲今日準備語也。一步一吟，惘然下山，因步其韻，聊寓感舊續恨之意。星軒石瓢諸益，脚力不衰，步蝶如飛，履巉崑凌絕頂，笑二客之不能從，儘不在此恨，如復強賦此韻，罰以金谷酒數。

우뚝 솟은 천황봉

亭亭天皇峰

월출산의 최고봉이라네

月出最高頂

천제의 거처인 三階⁶⁹⁷⁾가 가깝고

帝居三階近

佛骨⁶⁹⁸⁾은 오월에도 차갑네

佛骨五月冷

지난 날 소상옹[정약옹]은

往者莒上翁

사슴가죽 언치를 타고 험한 길을 내려왔네

鹿鞵下坑坵

저물녘 백운동에 들어오셔서

暮入白雲洞

구정봉 보지 못함을 한하셨네

恨不窺九井

그때 나는 총각머리였지만

時余髣髴髮

지금은 생선가시처럼 머리가 희어졌네

而今雪似鯁

승경을 찾아 작은 집에 왔다가

探勝小院至

693) 籀翁：丁若鏞의 號.

694) 「玉版峰」12韻：茶山이 지은 「玉版峰」의 12韻은 頂·冷·阱·井·鯁·境·領·珽·影·脛·逞·靜이다.

695) 星菴：尹斗緒의 후손인 尹鍾三을 말한다.

696) 금곡의 …… 내리듯이：金谷은 썸 때 부호로 유명했던 石崇의 園名인데, 석승이 일찍이 이곳에 빈객들을 모아 연회를 베풀었을 때, 각각 시를 지어서 회포를 서술하게 하고 혹 시를 짓지 못하면 술 서 말을 벌주로 마시게 했던 데서 온 말이다. 李白의 「春夜宴桃李園序」에, “만일 시를 짓지 못하면 금곡원의 주수에 따라 벌주를 마시게 하리라. 如詩不成, 罰依金谷酒數.”고 하였다.

697) 三階：하늘의 삼계로서, 즉 천자의 上階, 제후·공경·대부의 中階, 사서인의 下階를 말하는데, 삼계가 안정 되면 음양이 조화되어 천하가 태평의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漢書』「東方朔傳」.

698) 佛骨：부처의 사리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부처의 사리가 모셔진 절을 의미한다.

다시 신령스런 정상을 오르고자 하였네
 鏡布臺⁶⁹⁹에 도착하여 입을 행구니
 바람이 표연히 내 옷깃을 스치네
 못 봉우리들은 빼어남을 다투고
 반듯한 홀은 만개의 옥홀 중에서 뽑아낸듯하네
 산 정상엔 아직 눈이 덮여있고
 산허리는 구름 그림자에 잠겼네
 늠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머뭇거리며 병든 다리 쉬게했네
 마루 끝이 위험하다⁷⁰⁰는 경계도 있는데
 험한 길 내딛기를 어찌 다투랴
 고인과 천태산[월출산] 생각하니
 마음은 달려도 몸은 늘 고요하네

復欲窮靈境
 漱臨鏡布石
 飄然攝我領
 群峰競秀異
 端笏抽萬珽
 上頂猶雪封
 中腰鎖雲影
 凜然不能前
 盤桓休病脛
 垂堂尙有戒
 履險詎爭逞
 古人天台想
 神馳體常靜

「천황봉」 시에 화운함 和天皇峯韻

강남 만 리에 봄을 다 보내니
 눈길 가는 곳곳마다 일시에 새로워라
 대해를 굽어보니襟帶⁷⁰¹와 같고
 영주산을 마주하니 齒唇⁷⁰²를 이루네
 외로운 학이 동쪽에서 날아오니 선계가 가깝고
 여섯 마리 용⁷⁰³이 앞에서 인도하여 제왕의 수레가 순행하네
 인간세계에서 오르는 길을 막지 않고

輸盡江南萬里春
 騁眸隨處一時新
 俯臨溟渤爲襟帶
 平挹瀛洲作齒唇
 孤鶴東來仙界近
 六龍前導帝車巡
 人間不遮登臨路

699) 鏡布臺 : 월출산 천황봉과 구정봉에서 발원해 강진 성전면으로 흘러내리는 골짜기 이름이다.

700) 마루 끝 :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몸조심하라고 당부한다는 말이다. 원문의 ‘垂堂誠’는 『史記』 「司馬相如列傳」에 “재산이 천금인 집안의 자식은 마루 끝에 앉으면 안 된다. 家累千金, 坐不垂堂.”라는 속담이 나온다.

701) 襟帶 : 산천이 병풍처럼 주위를 에워싸 마치 옷깃이나 허리띠와 같다는 뜻으로 험악한 요새의 형세를 비유한 것이다.

702) 唇齒 : 입술[唇]과 이[齒]의 뜻으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관계를 비유한다.

703) 여섯 마리 용 : 임금이 타는 수레로, 전하여 임금이 있는 곳을 말한다. 옛날에 임금이 타는 수레는 말 여섯 마리가 끌었으므로, 말을 용이라고 칭하여 六龍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천에서 진면목을 반쯤 드러내네

快露中天半面眞

풍악산으로 유람 가는 이를 전송하는 시와 서문 送人遊楓嶽詩序

楓嶽山은 우리나라의 명산이니 먼 곳에 뜻을 두어 아득한 곳을 찾는 선비라면 누구인들 한번 가보고 싶은 소원이 있지 않으랴. 나는 월출산 아래에서 태어나고, 늙어가니, 월출산 역시하나의 명산이다. 『輿誌』에 월출산을 ‘소풍악’이라고 칭하였기에, 내가 월출산의 기이함을 사랑하여 풍악산을 한번 보고 그 장대함을 헤아려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어느덧 백발이 나를 속여 청산을 기약할 수 없게 되니 아, 슬프도다!

宗人 玄秀가 젊은 나이에 학문에 뜻을 두고 일찍이 당세 덕이 높은 스승의 문하에 올랐다가 물러나 西湖 가에 살면서 문을 닫고 경서를 궁구하며, 개연히 기이한 승경을 찾는 데 뜻을 두어 두세 명의 동지들과 표연히 행차에 나서 바람을 맞으며 속세를 바라보려 하니, 나는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되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서글웠다. 이에 선인들이 유람하고 기록했던 글을 취하여 한번 읽고 한번 탄식하며 臥遊⁷⁰⁴의 즐거움이 일어나 고요한 자리에서 눈을 감고 생각을 내달리니 마침내 神遊의 즐거움이 생겼다.

동쪽 바다와 서쪽 언덕은 신비하고 진귀함이 변화무쌍하여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일만 이천 봉우리의 진면목을 다 볼 수 없을지라도 無形에서 보고 不觀에서 형상화한다면 무형의 기이함이 有形보다 더 기이하고, 不觀의 신묘함이 快觀보다 더 신묘하리라. 이미 다 유람하고 나니 몸이 고요하고 마음이 한가로워 興公이 쓴 「天台山賦」⁷⁰⁵와 長康이 會稽山의 아름다움⁷⁰⁶을 찬미한 일 낱낱이 말할 수 있으니, 옛날 표연히 멀리 유람한 것을 또 어찌 부러워하겠는가?

그러나 보통사람들은耳目만 믿고 그 心神은 믿지 않으니 神遊의 황홀함이 실제 노니는 것과 비슷함을 어찌 알겠는가? 이미 선인들이 지은 글로 증험할 수 있고, 또한 그대의 행차로 질정할 수 있으니, 그대는 가서 보라! 그대의 행차로 인하여 거듭 묻게 될 것이다. 맑은 기운이 충만한 곳에 반드시 우뚝하고 기이함이 있으며, 그 곳에 재덕이 있는 선비가 나오는 법이다.

산을 보고난 후 또한 들을 보면 과연 몇 명의 인걸이 있어 이 산의 신령스러움에

걸맞을 것이니, 초나라 남쪽에 인제가 적고 바위가 많다는 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돌아와서 내게 알려 주면 나는 장차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니 동풍에 일어나는 수레의 먼지를 바라보며 기다리리라.

楓嶽左海名嶽也，寄遠搜冥之士，孰不有一見之願也。余生於老於月嶽之下，月嶽亦一名嶽也。輿誌稱小楓嶽，余愛月嶽之奇，擬一觀於彼而盡其大者也。轉眄之頃，白髮欺余，青山無期，吁其可慨也。宗人玄秀甫，妙年志學，早登當世攷德之門，退居西湖之上，閉戶窮經，慨然有搜奇之志，與二三同志，飄然有是行，遡風瞻塵，悵然若望登仙而不能及也。爰取前人游覽記識之文，一讀一歎，聊作臥遊之娛，因於靜榻，閉眼馳思，竟作神遊之逸。東溟西畔，影倒神秀，瓌奇變幻，不可名狀。萬二千峰，縱不得其真面，視於無形，形於不覩，無形之奇，奇於有形，不覩之妙，妙於快覩。游覽既周，體靜心閑，興宗⁷⁰⁷「天台」之賦，長康會稽之對，若將可以歷言之。嚮之飄然遠遊，又奚足以欽艷也。然常人信耳目，而不能信其心神，神遊恍惚，那知其能得彷彿者哉。既證以前人之作，且將以吾子之行質之也，子其往觀之哉。因子之行，申以有問焉。扶輿清淑之氣，意必有魁奇，材德之士，出於其間也。觀山之餘，且觀於其野，果有幾箇人豪，其能當茲山之靈，而不有楚南少人多石之恨否。子其歸而告余，余將側耳，東風望車塵而待也。

1

바닷가 자라 등⁷⁰⁸ 삼산 중에

鼇背三山海一涯

704) 臥遊 : 산수화를 감상하며 유람을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詩 書, 畫 三絶로 유명한 南宋의 은자 宗炳이 노년에 병이 들어 명산을 유람하지 못하게 되자, 그동안 다녔던 명승지를 그림으로 그려 걸어 놓고는 누워서 감상하며 노닐었던 고사가 전한다. 『宋書』 「宗炳傳」.

705) 興公 …… 「천태산부」 : 興公은 東晉의 문장가인 孫綽(314~371)의 字이다. 그가 일찍이 「天台山賦」를 짓고 나서 매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친구인 范榮期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卿은 시험 삼아 이 글을 땅에 던져 보라, 의당 금석 소리가 날 것이다.”라 하였다.

706) 長康이 …… 아름다움 : 長康은 晉의 명사 顧愷之의 字이다. 고개지가 회계 지방에서 돌아와, 그곳의 산천이 얼마나 아름다웠느냐고 묻는 어떤 사람의 말에 대답하기를, “일천 바위가 다투어 솟아 있고 일만 계곡에는 물이 급히 흐르는데, 그 위쪽에는 초목이 무성하여 마치 구름이 피어나고 노을이 뭉친 것 같았다. 千巖競秀, 萬壑爭流. 草木蒙籠, 若雲興霞蔚.”라 하여 회계산의 승경을 찬미하였다. 여기서는 정자가 자리 잡은 백운산의 아름다움을 회계산의 아름다움을 찬미한 고개지의 말을 빌려 드러낸 것이다. 『晉書』 「顧愷之列傳」.

707) 宗 : ‘公’의 誤記로 보인다.

708) 자라 등 : 동해에 있다는 가상의 신선이 사는 산을 말한다. 옛날 발해 동쪽의 五神山이 파도에 떠밀리자 상제가 다섯 마리의 자라로 하여금 자라 등으로 이를 떠받치게 했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列子』 「湯文」.

봉래산이 아름답기로 으뜸이어라
 조화옹의 조각 여기에 다하였으니
 인간 세상에 기이한 장관 더할 것이 없네
 온 나라 사람이 올라가고픈 소원 지냈거늘
 평생의 저버림이 한스럽네
 淮陽道⁷⁰⁹에서 전해오는 삼월 봄바람에
 오늘 그대에게 기대어 꿈 속에서 보리라

蓬萊佳處是真耶
 化翁雕飾於斯盡
 人世奇觀蔑以加
 萬國登臨同所願
 百年孤負正堪嗟
 東風三月淮陽道
 此日憑君夢境賒

2

崑崙山 한 줄기가 푸른 바닷가에 이어져
 동쪽 아홉 고을은 푸르름 다하지 않네
 어찌하면 永嘉의 솜씨 얻어서
 아름다운 賦를 지어 『山海經』⁷¹⁰에 실릴 수 있으리오

崑崙一脈入滄溟
 九郡東頭未了青
 那得思如永嘉手
 金聲一賦足山經

3

그대와 명산의 오랜 인연 알겠거니
 표연히 구름 밟고 仙界로 오른 것 같네
 일만 이천 봉의 달을 노래하며 돌아오면⁷¹¹
 서쪽 창에서 등불 심지 돋우며 앉아 이야기 나누리

知子名山有宿緣
 飄然雲屐似登仙
 詠歸萬二千峰月
 說與西窓剪燭筵

709) 淮陽道 : 강원도의 영서 지역인 춘천, 철원 지역을 가리킨다. 1263년(고려 원종4)에 명주도는 강릉도, 춘주도는 교주도라 개칭하였으며, 1314년(충숙왕1)에 교주도를 회양도라 고쳤다. 조선 시대에는 강원도에 포함되었다.

710) 『山海經』 : 기원전 3~4 세기경에 지어진 신화집으로, 漢代의 劉歆이 古本 32권을 18권으로 정리한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711) 노래하고 돌아오면 : 『論語』 「先進」에 “중집이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벗 대여섯 명과 아이들 예닐곱 명을 데리고 기수에 가서 목욕을 하고 기우제 드리는 무우에서 바람을 쐬 뒤에 노래하며 돌아오겠다.’라고 하니, 공자가 아! 감탄하시고 ‘나는 너의 뜻에 찬성하노라.’ 하셨다.” 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喟然嘆曰, 吾與點也.”라는 구절에서 온 말이다.

눈으로 본 적은 없으나 귀로 들었으니
마음의 배열을 입으로 말하네
잠깐 사이에 다시 오른 것 같으니
어찌 수고로이 정상에 오르리

眼曾不到耳曾聞
心上安排舌上云
俯仰之間如再陟
何勞踏破嶺頭云

이 한 수는 神遊를 자술하였다. 此一首自述神遊

산양의 이수재에게 화답하여 이별함 和別山陽李秀才

오랜 이별 후 만난 모습 자세히 묻고
국화 핀 울타리에서 흐릿한 눈을 비비네
산양의 객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니
훗날 객을 만나 말이 더욱 어눌할까 두렵네
검버섯 피어⁷¹² 늙은 나를 보고 놀라지 말게나
그대가 읊었던 「鳳頭」시를 아직도 기억하네
우리들 십년 세월 꿈에도 그리움을
집에 돌아가 重堂⁷¹³께 고하게나⁷¹⁴

久別儀容細問知
昏眸爲拭菊花籬
山陽有客心常感
怯後逢人語更遲
對我休驚鮫背老
憑君猶記鳳頭詩
吾儕十載相思夢
歸告重堂反面時

지난 을사년(1845)에 내가 산양[보성]에 갔을 때 이군은 겨우 다섯 살이었는데 능히 봉두일배의 구절을 읊었던 까닭에 제 둘째 연에서 언급하였다. 往在乙巳 余往山陽 李君始五歲 能詠鳳頭一拜之句 故第二聯及之

쌍정으로 둔우를 찾아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절구 2수를 남김 雙亭訪菴偶不遇留題 二絕

712) 검버섯 피어 : 원문의 '鮫背'는 복어의 등이란 뜻으로 노인의 피부에 복어의 얼룩무늬 같은 검버섯이 생긴 것을 말한다. 『爾雅』 「釋詁」에 “태배는 노인으로 장수하는 것이다. 鮫背 耆老 壽也”라 하였고, 郭璞의 註에 “태배는 등의 피부가 복어의 무늬처럼 검버섯이 핀 것이다. 鮫背, 背皮如鮫魚.”라 하였다.

713) 重堂 : 상대방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중당'은 봉헌군 이기수로 이시현의 둘째 며느리의 부친이다.

714) 고하게나 : 원문의 '反面'은 자식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부모에게 돌아왔음을 아뢰는 것으로, 『禮記』 「曲禮」에 “자식 된 자는 나갈 때 반드시 고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찾아뵈는다. 爲人子者, 出必告, 反必面.”라 하였다.

1

동서로 터를 잡고 산을 함께하니	占宅東西共一山
평평한 골짜기 사이로 흰구름 오락가락하네	白雲平壑捲舒間
가련타 오 년을 신음하던 나그네가	可憐五載吟呻客
西湖에서 만나질 한가로이 소요하네	營得西湖半日閑

2

늦가을 서호의 경치 빼어나	秋晚西湖景特奇
친구의 술잔인 듯 국화에 취하네	黃花擬醉故人卮
그대와 함께琴書를 논하지 못하여	琴書一榻猶難偶
문 앞에 ‘鳳’자를 써서 ⁷¹⁵ 더디 오는 학에게 알리네	題鳳門前報鶴遲

정유상의 「상풍」 시에 화답함 和維桑賞楓韻

단풍으로 이름 난 가을동산 풍경에	秋園勝賞以楓名
봄꽃 이어지니 정이 끝이 없네	來續春花未了情
청산은 서리 내린 후 온통 취하고	渾以青山霜後醉
성성한 내 백발은 거울 속에 비치네	侈余白髮鏡中行
쇠약한 몸은 급히 불어오는 서풍이 두렵고	扶衰最怯西風急
고운 단풍은 유독 밝은 석양빛에 머물렀네	矜艷偏留夕照明
오늘 천리 떠나는 객의 수레를 멈추게하고	此日停車千里客
붉은 나비에 의지하여 서울을 꿈꾸리라	憑將紅蝶夢京城

715) ‘鳳’자를 쓰며 : 원문의 ‘題鳳’은 鳳이라는 글자를 써 놓는다는 말인데, 鳳을 破字하면 凡鳥가 되는 데에서 기인하여, 특출하지 못한 凡人, 혹은 용렬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을 말한다. 晉나라 呂安이 천리 길을 달려 嵇康의 집을 찾아갔다가, 혜강은 마침 외출하여 만나지 못하고 그의 형 嵇喜만을 만나 보고는, 문에다 ‘鳳’이라는 글자 하나를 써 놓고 돌아갔다는 고사가 있다. 『世說新語』 「簡傲」. 여기서는 李時憲이 쌍정의 范岫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함을 표현한 것이다.

「감사」시를 화운함 和岬寺韻

황엽 가득한 백운골에 얽은 안개 피어나고
 황량한 옛 절에 한 줄기 샘이 흐르네
 승경에는 스님⁷¹⁶의 발자취 이어지지만
 법연에선은 꽃비⁷¹⁷ 내리는 모습 보기 어렵네
 나막신 신고 텅 빈 숲 밖에서 비석을 찾으며
 마을 내음 나는 작은 탑 앞에서 불공 드리네
 비둘기 떠난 청산에 신선은 돌아오지 않는데
 종소리는 아직도 이천 년을 기억하네

白雲黃葉起疎煙
 古寺荒涼一道泉
 勝界尙傳飛錫地
 法筵難見雨花天
 尋碑野屐空林外
 供佛村香小塔前
 鳩去青山仙不返
 鍾聲猶記二千年

는 내린 창가에 백 그루의 매화가 피니 춘파·회사·청불에게 절하며 드리고, 아울러
 짧은 편지를 보냄 百梅雪窓, 拜呈春坡·晦沙·淸拂, 下并短柬

인간 세상에 고뇌가 많아 사람이 살면서 늙고 병들기 쉬우니, 이를 벗어나 곧 신선
 일 터이나 세상에 어찌 신선이 있겠습니까? 남에게 물을 일도 아니요, 또한 남에게
 말할 일도 아닙니다. 굴 동산에 들어가니 가을 향기가 그리던 것과 같으니, 굴 동산
 주인이 즐기기에 족합니다. 이어서 한편의 절구로 나머지를 대신합니다.

人世多苦惱, 人生易衰病, 免此即仙也, 世豈有神仙. 不足向人間也, 亦不足向人言也.
 入橘山園, 秋香如思, 橘園主人, 弄此足矣. 繼以一絕, 多少不宣.

716) 스님 : 원문의 ‘飛錫’은 승려가 사방으로 떠다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釋氏要覽』에 “지금
 중들이 유람하는 것을 비석이라 하는데, 이는 고승 隱峯이 五台山을 유람하고 淮西로 나갈 적에,
 (錫杖을 공중에 던져 날게 하여 그 석장을 타고 갔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717) 꽃비 : 불교의 전설에 큰 法師가 說法을 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꽃이 마구 떨어졌다고 한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梁武帝 때 雲光法師의 고사를 들 수 있다. 양 무제는 불교를 무척 숭앙하던
 인물로 많은 승려를 모시고 있었다. 그 가운데 운광법사를 가장 존경하였는데, 그가 講經을 하면
 하늘에서 꽃이 내리고, 하늘 나라 음식이 공양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六朝事跡編類·樓
 臺門』 第4 「雨花臺」

푸른 꼭지에 노란 꿀 한 가지 꺾어
 그대에게 드리니 색과 향기만 특이한 게 아니라네
 벗의 풍미가 깊고 깊으니
 서쪽 창 눈 내리는 달밤에 아득한 그리움을 보내네

碧蒂黃腮折一枝
 贈君非獨色香奇
 故人風味深深在
 雪月西窓寄遠思

금릉 여섯 수 金陵六首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쓰다. 代人作

1

金陵⁷¹⁸의 아름다움은 우리 동방의 으뜸
 남쪽으로 이어져 이 웅장함을 보여주네
 사람은 천리 밖에 호수와 산을 얻고
 땅은 저 멀리 바다와 나뉘었네
 이제껏 邠俗⁷¹⁹의 농사⁷²⁰가 남아 있고
 예로부터 漢風의 순리가 전해오네
 黃鶴樓⁷²¹를 다시 단장하여
 신명한 태수가 마침내 공을 거두네

金陵佳麗擅吾東
 襟帶南來說此雄
 人得湖山千里外
 地分溟渤一望中
 至今稼穡餘邠俗
 從古循良有漢風
 黃鶴樓臺雕飾再
 神明太守竟收功

2

일천 산이 남으로 달리고 일만 물줄기 동으로 흐르는데
 외로운 성 하나 바닷가에 차지했네
 어촌의 구슬이 삼군 밖에서 돌아오고⁷²²)

千山南走萬流東
 一片孤城跨海雄
 蟻戶珠還三郡外

718) 金陵 : 강진의 옛 명칭.

719) 邠俗 : 周 文王의 조상인 公劉가 다스렸던 邠國의 풍속을 말한다.

720) 농사 : 원문의 '稼穡'은 심고 수확하는 것으로 농사짓는 것을 뜻하는데, 『詩經』 「大雅·桑柔」에 “가색을 좋아하여, 농민과 함께 일하면서 대식하노니, 이는 가색을 보배로 여기고, 대식하는 것을 좋아함이다. 好是稼穡, 力民代食, 稼穡維寶, 代食維好.”라는 말이 나온다.

721) 黃鶴樓 : 중국 호북성 武昌의 黃鶴山에 있는 높은 누각. 양자강을 조망하는 경치가 아름답고 李白·崔顥 등의 시로 유명하다.

琴堂의 봄이 五絃琴 소리⁷²³⁾에 고요하네
 집집마다 주렴에 桃花雨⁷²⁴⁾가 내리고
 곳곳마다 누대에 燕子風⁷²⁵⁾이 불어오네
 정사는 공평하고 백성은 화락한 이 좋은 날
 단청을 새롭게 하니 이 누구의 공인가⁷²⁶⁾

琴堂春靜五絃中
 家家簾幕桃花雨
 處處樓臺燕子風
 好是政平民和日
 重新丹牖問誰功

3

九浦의 동쪽 백 척 높은 외로운 성을
 새로이 단청하니 웅장함을 뽐내네
 달라진 경물이 시야에 들고
 새로워진 누대가 거울 속에 비치네
 난간에서 창해의 달을 부르고
 바닷가에서 浙江의 바람을 보내네
 우리 백성들 간절히 풍년을 원하니
 다시 三農⁷²⁷⁾으로 일 년 농사⁷²⁸⁾를 시험하네

百尺孤城九浦東
 一新丹牖便誇雄
 改觀雲物來望裡
 換面樓臺入鏡中
 欄角招呼滄海月
 潮頭捲送浙江風
 吾民至願惟豐在
 更把三農課歲功

722) 구슬이 …… 돌아오고 : 後漢 때 함포에서 구슬이 생산되었는데, 탐관오리가 많이 수령으로 오면서 잠시 구슬이 나오지 않다가, 孟嘗이 태수로 부임하여 청렴한 정사를 행하자, 다시 구슬이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고사가 전해 온다. 『後漢書』 『循吏·孟嘗傳』.

723) 五絃琴 소리 : 舜이 五絃琴을 만들어 타면서 南風詩를 지어 노래했는데, “남풍의 훈훈함이여, 우리 백성의 노역을 풀어줄 만하도다. 남풍이 제때에 불어오미여, 우리 백성의 재물을 풍부하게 하리로다. 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慍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 한 데서 온 말이다.

724) 桃花雨 : 복사꽃이 필 무렵에 내리는 봄비를 말한다.

725) 燕子風 : 제비가 날아다닐 때 일어나는 가벼운 바람을 가리킨다. 참고로 宋 孫應時的 「西溪僧舍晝臥」에 “연자풍이 미약한 긴긴 봄 낮에, 홀로 책을 들고 선방에 누웠도다. 燕子風微春晝長, 獨攜書卷臥禪房.”라 하였다. 『燭湖集』卷20 「西溪僧舍晝臥」.

726) 단청 …… 문네 : 『書經』 「梓材」에 “발을 다스림에 이미 부지런히 잡초를 제거했으면 퍼서 닭아 발두둑과 물길은 냇과 같으며… 재제를 만듦에 이미 부지런히 나무를 다스리고 깎았으면 단청을 칠함과 같다. 惟曰若稻田, 既勤敷菑, 惟其陳修, 爲厥疆畝, …… 若作梓材, 既勤樸斲, 惟其塗丹雘.”라는 말이 있다.

727) 三農 : 平地·高原·低濕 세 지대의 농사를 이르는 말. 『詩經』 「小雅·無羊」에 “목인이 꿈을 꾸니, 사람들이 물고기로 보였는데 …… 사람들이 물고기로 보이는 것은, 실로 풍년이 들 조짐이다. 牧人乃夢, 衆維魚矣, 衆維魚矣, 實維豐年.”라 한 데서 온 말이다.

728) 일 년의 농사 : 원문의 ‘歲功’은 일 년 농사의 수확을 말한다.

4

주렴이 드리워진 난간 동편에	珠簾側畔畫欄東
악곡이 태평하고 검무가 뛰어나네	歌曲昇平舞劍雄
남해의 龍蛇의 난 ⁷²⁹⁾ 안에서 다스리고	南海龍蛇治以內
서호의 魚鳥를 중앙에서 교화하였네	西湖魚鳥化之中
흔탁하고 변덕스런 지금의 풍속을 부끄러워하고	偷滄冷暖羞今俗
질박하고 근면한 고품을 흠모하네	敦朴和勤慕古風
누대가 흰칠하고 아름다울 ⁷³⁰⁾ 뿐만 아니라	非獨樓臺輪奐美
다시 政敎의 공이 날로 새로워짐을 알 수 있네	更看政敎日新功

5

아름다운 우리 고을은 浙東 ⁷³¹⁾ 과 비슷하여	嘉麗吾鄉似浙東
과도소리와 산 빛이 모두 빼어나네	潮聲山色勢全雄
한 고을 오래도록 태평성대를 누린 후	一邦久襲昇平後
먼 고을의 풍속이 성인의 교화에 함께 젖네	遐俗同霑聖化中
모래밭에 자는 갈매기와 백로에게 한가로운 땅이 있고	鷗鷺沙眠閑有地
바다를 누비는 고래와 봉새에게 세찬 바람이 없네	鯨鵬海徙烈無風
하물며 누대까지 중수하니	況兼臺榭重修日
滕王閣 ⁷³²⁾ 과 岳陽樓 ⁷³³⁾ 에도 공을 양보하지 않네	滕閣岳樓不讓功

729) 龍蛇의 난 :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을 말한다.

730) 흰칠하고 아름다울 : 원문의 ‘輪奐’은 규모가 크고 아름답다는 뜻으로, 건물이 낙성된 것을 축하할 때 쓰는 상투적인 표현이다. 晉 憲文子가 저택을 신축하여 준공하자 대부들이 가서 축하하였는데, 이때 張老가 말하기를 “규모가 크고 화려하여 아름답도다. 제사 때에도 여기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상사 때에도 여기에서 곡을 하고, 연회 때에도 여기에서 국빈과 종족을 모아 즐기리도다. 美哉輪焉 美哉奐焉. 歌於斯, 哭於斯, 聚國族於斯.”라 하니, 현문자가 장로의 말을 되풀이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자, 군자들이 축사와 답사를 모두 잘했다고 칭찬한 고사가 전한다. 『禮記』 「檀弓·下」.

731) 浙東 : 중국의 절강 남쪽 지역 湖南은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해서 宋의 절강지역에 견주어, 浙江 지역을 남북으로 나누어 그 이남을 浙東, 그 이북을 浙西라고 하듯, 호남 지역을 남북으로 나누어 그 이남을 절동, 그 이북을 절서라고 한 것이다. 호남을 중국의 절강 지역에 비유하는 말은 『承政院日記』에 보인다.

732) 滕王閣 : 唐 高祖 李淵 막내아들 元嬰이 홍주자사로 있을 때, 강서성 남창현에 지은 전각이다. 元嬰이 滕王에 봉작되어 있었기로 滕王閣이라 부른다. 王勃이 아버지를 뵈러 가는 길에, 꿈속에서 江神이 나타나 말하기를 ‘내일 滕王閣을 중수한 낙성식이 있으니 참석해 글을 지어 이름을 내라.’ 하기에, 王勃이 ‘여기서

땅은 바다의 동서 끝까지 뻗어	地維欲盡海西東
금릉 한 지역이 웅장한 요새와 같네	一片金陵鎖鎗雄
南極星 ⁷³⁴ 이 仁壽의에 임하니	南極星臨仁壽域
瀛洲山의 신선이 있는 듯 없는 듯 돌아왔네	瀛洲仙返有無中
「禹書」의 신비함은 천년토록 글자에 남아있고	禹書神護千年字
關廟 ⁷³⁵ 의 위엄은 만리풍에 떨치네	關廟威揚萬里風
하물며 태평하게 농사 지으니	況是昇平耕鑿日
康衢煙月 ⁷³⁶ 의 노래로 성인의 공덕에 보답하리	煙月歌謠答聖功

둔우의 시에 화답함 和菴嶼詩

분주한 세상에 온 마음이 한가로워	奔忙世界一心閒
깊은 바다 동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네	溟渤東西去復還
세 벗이 동행하면 손익을 볼 수 있으니 ⁷³⁷	三友同行看損益
독서 백편을 뜻대로 보태거나 깎질 않네	百篇隨意不增刪
호산은 절로 마음 속 안에 있으니	湖山自在襟懷內

남창까지는 7백 리인데 하룻밤 사이에 당도할 수 있습니까?’ 하니, ‘배에 오르기만 하면 내가 바람을 빌려 주리라.’ 하더라 하였다. 과연 王勃은 하룻밤 사이에 滕王閣에 이르러 滕王閣 詩와 序文을 지어 문명을 떨쳤다. (한서어사전, 2007. 7. 9., 국학자료원)

733) 岳陽樓 : 중국 湖南省 洞庭湖區 岳州府에 있는 府城의 서쪽문 누각이름이다. 동정호의 동안에 위치하여 호수를 한눈에 전망할 수 있고 풍광이 아름다운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唐의 開元연간(713~714)에 지방 장관이었던 張說이 당대의 여러 才士와 더불어 樓上에서 시를 읊고 즐긴 곳으로 유명하다.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734) 南極星 :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는 老人星을 가리킨다.

735) 關廟 : 關王廟인데, 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장수 관우의 신령을 모신 사당. 關羽는 자가 雲長으로 解州 사람인데, 촉한의 先主를 섬겨 前將軍에 제배되었다. 우리나라 선조 임진왜란 때 신령이 자주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사당을 세워 제사지내게 되었다. 그 사당은 승례문 밖과 흥인문 밖에 건립되었고, 안동·성주·강진·남원에도 역시 건립되었다

736) 康衢煙月 : 康衢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사통팔달의 큰길을 이르고, 康衢은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추는 모습으로 태평성대의 평화로운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737) 세 벗이 동행하면 : 원문의 ‘損益三友’는 『論語』 「季氏」에 공자가, “유익한 벗이 셋이고, 해로운 벗이 셋이다. 정직한 사람과 벗하고 성실한 사람과 벗하고 박학다식한 사람과 벗하면 유익하고, 편벽된 사람과 벗하거나 굽실거리기 잘하는 사람과 벗하거나 빈말 잘하는 사람과 벗하면 해롭다.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에서 온 말이다.

항상 서재에 머물러 날날이 살펴보네
이별 후 그림움을 병석에서도 읊으니
안개와 노을 같은 수염이 꿈속의 낮 같네

歷覽常留几案間
別後相思吟病枕
煙霞鬚髮夢中顏

운곡에 사는 사간 김권(738)의 시에 화답함 和雲谿金司諫權詩韻

1

굴화가 벗의 침상 웃으며 맞이하는데
주렴 밖 맑은 서리에 밝은 달빛 떨치네
嶺海에 수령이 부임해 오니
雲山에 백년의 장수처로 점을 치네
吳會(739) 땅의 순채국과 농어회로 꿈을 이루고
安豊縣의 닭과 개(740)처럼 좋은 일 있으리
백발 되어 만년에 기쁘게 만나니
서쪽 창에 촛불 심지 자르며 문장을 논하리

黃花迎笑故人牀
簾外清霜素月揚
嶺海俄看一麾去
雲山剩卜百年藏
蓴鱸吳會曾成夢
鷄狗安豊早有祥
白首晚契青眼在
西窓剪燭話文章

2

홍엽이 石床(741)에 어지러이 둘러져 있는데
벗의 소식에 마음이 기뻐 생기가 넘치네
三朝를 모시고 따르며 靑袍(742)로 늙고

紅葉續粉繞石床
故人信息喜神揚
三朝侍從靑袍老

738) 김권(1805~?) : 1825년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과 사간 벼슬을 지낸 뒤 낙향하였다.

739) 吳會 : 중국 회계군의 吳縣과 會縣의 병칭이다. 晉 張翰이 낙양에 들어가서 東曹掾 벼슬을 하다가,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고향인 吳中의 순채국과 농어회[鱸魚膾] 생각이 나서 곧장 사직하고 돌아간 고사가 있다. 『晉書』 卷92.

740) 安豊縣의 닭과 개 : 韓愈의 「董生行」에, 唐 貞元 연간에 壽州 安豊縣 사람 董生이 효성이 뛰어나 기르는 가축들도 감화를 받을 정도였는데, 어미 개가 먹이를 구하러 나가 돌아오지 않자 어미 닭이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었다고 한다. 『小學』 「善行篇」.

741) 石床 : 돌로 된 평상으로, 山寺의 바위나 禪榻를 가리켜 한 말이다.

742) 靑袍 : 唐代에 팔품이나 구품의 관원들이 입던 관복으로, 전하여 미관말직을 의미한다. 杜甫의 「徒步歸行」에 “청포 입은 조사 중에 가장 빈곤한 나는, 백발의 습유로서 도보로 돌아가노라. 靑袍朝士最困者, 白頭拾遺”

四部(743)의 詩書를 백발에도 간직하였네
달 아래 한쪽 언덕에 터를 새로 잡고
도성(744)에 상서로운 오색구름(745) 꿈꾸네
산 중턱 동서의 길을 그리워하며
「停雲」시(746)를 몇 번이나 소리 높여 외네

四部詩書白首藏
月下新占一邱業
日邊常夢五雲祥
相思半嶺東西路
莊誦停雲第幾章

물염정(747) 시 勿染亭韻

술 세 되(748)에 반드시 東臯를 그리워함이 아니요
오두미(749)는 오히려 陶淵明 어른을 욕되게 하였네
흐르는 물은 요란한 속세를 가장 깨끗하게 하고
청산은 누르지 않아도 진토에서 높이 벗어나네
名亭은 모두 이 지경에 걸맞게 느껴지니
저 막걸리를 따르는 것과 무관하게 취하네
‘勿染’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단서가 내게 있으니
지팡이를 수고롭게 하며 높은 곳에 오를 꿈 꾸지 마오

三升未必戀東臯
五斗猶爲點老陶
流水最能清俗鬧
青山不壓出塵高
名亭儘覺稱斯境
取醉無關酌彼醪
勿染由來端在我
登臨休夢一筇勞

徒步歸.”라 하였다.

743) 四部 : 經·史·子·集의 4부.

744) 도성 : 원문의 ‘日邊’은 도성의 별칭이다. 東晉의 明帝가 어렸을 적에 부왕인 元帝로부터 장안과 해日 중에 어떤 것이 거리가 먼지 물음을 받고 대답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世說新語』「夙惠」.

745) 오색구름 ; 원문의 ‘五雲’은 오색의 상서로운 구름이란 말인데 보통 제왕의 거소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746) 「停雲」시 : 친구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東晉 陶淵明의 「停雲」에 “좋은 친구가 멀리 있으니, 머리를 긁으면서 기다린다네.良朋悠邈，搔首延佇.” 라는 말이 있다.

747) 물염정 : 전라남도 화순군의 경승지인 ‘화순 적벽’ 상류의 물염 적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세워진 정자. 조선 중종(재위 1506~1544)과 명종(재위 1545~1567) 때에 성균관전적 및 구례·풍기군수를 역임했던 勿染 宋庭筍이 건립하였고, 그의 호를 따서 勿染亭이라 하였다.

748) 술 세 되 : 隋末에 王通의 아우인 王績이 어린 나이에 孝廉으로 천거되어 六合縣丞이 되었으나 술을 너무 즐긴 탓으로 정무에 방해가 되자, 스스로 병을 칭탁하고 향리로 돌아가 버렸다. 그 후 唐 高祖 武德 연간에 문하성의 待詔로 들어가자, 그의 아우인 왕정이 그에게 말하기를 “대조가 즐겁습니까? 待詔可樂否”라 하자, 그가 말하기를 “대조는 봉록이 박하고 더구나 쓸쓸한 자리입니다. 다만 날마다 좋은 술 서 되씩 내려 주는 것이 조금 그리울 뿐입니다. 待詔俸薄況蕭索。但良醞三升，差可戀耳。”라 한 데서 온 말이다. 『唐才子傳』卷8「隱逸」.

749) 오두미 : 아주 작은 녹봉을 말한 것으로, 陶淵明이 일찍이 彭澤丞으로 있을 때, 마침 군의 督郵가 현을 순시하게 되어, 아전이 陶淵明에게 의관을 갖추고 독우를 보아야 한다고 하자, 陶淵明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는 오두미 때문에 허리를 굽혀서 향리의 소인을 정성으로 섬길 수 없다.” 하고, 마침내 현령의 인끈을 풀고 던지고 현을 떠나버렸던 데서 온 말이다.

뜻을 펼쳐 우연히 읊음 述志偶吟

어떤 사람이 仙臺를 칭찬하고 다시 그 定穴을 보여주지 않으므로 이 시를 쓴다. 有人贊仙臺而更不示其定穴故作此詩

명당을 전하여 지켜온지 이백 년 ⁷⁵⁰⁾	傳守名區二百年
仙臺 ⁷⁵¹⁾ 의 주인이면서 속세의 인연 숭상하였네	仙臺爲主尙塵緣
蠶橋 ⁷⁵²⁾ 는 음덕이 흐르기에 스스로 부족 한데	蠶橋自欠流陰德
鹿嶂 ⁷⁵³⁾ 은 누가 吉阡을 보여줄꼬	鹿嶂誰能示吉阡
구하고자 하나 얻기 어려운 곳이니	欲得有求難得地
어찌할 수 없음을 하늘인들 어찌 하리	其何無可奈何天
매우 은밀하게 깊이 감춰진 곳	但將深秘深藏處
현명한 후손을 기다리노라	留待兒孫幾箇賢

미륵가 彌勒歌

월출산 서쪽 도갑사	月出山西道岬寺
옛 자취 아득하여 참으로 기이함이 많네	古跡滄茫多誕異
槽巖 ⁷⁵⁴⁾ 은 여전히 도선국사의 터를 전하고	槽巖尙傳國師墟
雙石에는 ‘長生’ 글자 완연하네	雙石宛然長生字
우뚝 선 벼랑바위 ⁷⁵⁵⁾ 이끼가 무성하여	雲根不動苔顏羸
꾸짖으며 지켜주는 神物과 같네	有如神物呵護備
문노니 문수보살 ⁷⁵⁶⁾ 과 미륵불은	問爾文殊彌勒佛

750) 지켜온 지 이 백년 : 백운동원림의 入洞主 李聃老가 후손에게 물려주어 李時憲의 代에 이르기 까지 200년을 말한다.

751) 仙臺 : 백운동원림에 있는 停仙臺를 말한다.

752) 蠶橋 : 典據를 찾지 못하였다.

753) 鹿嶂 : 典據를 찾지 못하였다.

754) 槽巖 : 구유바위. 월출산의 서쪽 기슭에 있다.

755) 벼랑 바위 : 원문의 ‘雲根’은 벼랑이나 바윗돌을 뜻하는 詩語이다. 杜甫의 「題忠州龍興寺所居院壁」에 “충주 고을은 삼협의 안에 있는지라, 마을 인가가 운근 아래 모여 있네. 忠州三峽內, 井邑聚雲根.”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註에 “오악의 구름이 바위에 부딪쳐 일어나기 때문에, 구름의 뿌리라고 한 것이다.”라 하였다.

756) 문수보살 : 대승불교의 보살 중의 하나. 諸佛의 지혜를 맡은 보살로, 석가모니불의 왼쪽에 위치하며, 오른 쪽의 보현과 함께 석가를 양쪽에서 보필하는 脇侍菩薩로 일컬어진다.

누가 조각하여 세우고 누가 넘어뜨렸는가
하늘 높이 솟은 바위 하나
깊은 골짜기에 누워 다시 일어나지 않네
양을 몰며 화양의 채찍을 받지 않으니
범으로 변하여 음산의 화살을 맞을까 두렵네
비에 젖고 햇볕에 마른 지 이천 년
해산에 비둘기 날아가고 학도 이르지 않네
귀로는 南郭子綦⁷⁵⁷⁾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입으로는 漕溪의 물을 마실 수 있네
머리 들어 산 밖의 속세를 보지 않지만
해와 달이 엮어진 동이⁷⁵⁸⁾ 속을 비취네
세상에는 蘇晉⁷⁵⁹⁾ 같은 풍류 없으니
누가 부처 앞에 무릎 꿇어 절하리
서호에 사는 선비 박효렴이
개연히 불상을 세우는 일 도모하였네
산처럼 무거워 만 마리의 소도 머리 돌리고⁷⁶⁰⁾
열흘 힘을 다하여도 일이 끝나지 않네
낭주의 수령이 듣고 탄식하며
흔연히 와서 도와주었네
하루아침에 丈六身⁷⁶¹⁾으로 우뚝 서니

誰所刻立誰所躓
[石+羅] 嵒岨礨一頑石
嵌空一臥不復起
驅羊不受華陽鞭
化虎怕逢陰山矢
雨淋日灸二千年
海山鳩去鶴不至
有耳獨聽子綦籟
有口能飲漕溪水
舉頭不見山外塵
日月肯照覆盆裡
蘇晉世無風流賢
誰向佛前來拜跪
西湖之士朴孝廉
慨然欲豎謀經始
萬牛回首邱山重
致力一旬功不已
朗州使君聞之嘆
欣然來到助一臂
一朝屹立丈六身

757) 南郭子綦 : 춘추 시대 隱士이다. 楚昭王의 庶弟로 자가 子綦인데 남쪽에 은거했으므로 그렇게 불렀다. 남쪽자기가 靑安에 기대고 앉아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며 멍하게 物我를 잊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顏成子游가 그 앞에 侍立해 있다가 “그렇게 몸을 고목처럼 만들고 마음을 식은 재처럼 만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남쪽자기가 “지금 나는 나를 잃었는데, 너는 알겠는가?” 하였다. 『莊子』 「齊物論」.

758) 엮어진 동이 : 원문의 ‘覆盆’은 엮어 놓은 동이라는 말로, 성군의 밝은 빛을 받지 못한 채 캄캄한 어둠 속에 놓여 억울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흔히 쓰는 표현인데 “해와 달과 별이라 할지라도 엮어 놓은 동이의 속까지 비취 주지는 못한다. 三光不照覆盆之內也”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抱朴子』 「辨問」.

759) 蘇晉 : 唐 玄宗 때의 문신인데 특히 술을 매우 즐겨 마셨으므로, 杜甫의 「飲中八仙歌」에 “蘇晉은 수발 앞에서 오랫동안 재계하는데, 취중에는 가끔 좌선을 도피하기 좋아했다네. 蘇晉長齋繡佛前, 醉中往往愛逃禪.”라 하였다.

760) 만 마리의 …… 돌리고 : 杜甫의 「古柏行」에 “가령 고대광실이 기울어져 들보와 기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언덕이나 산처럼 무거운 이 나무를 끌고 가려면 일만 마리의 소도 고개를 돌려 버리고 말 것이다. 大廈如傾要梁棟, 萬牛回首丘山重.”라는 표현이 있다. 『杜少陵詩集』 卷15.

761) 丈六身 : 1장 6척 높이의 佛像을 이른다.

모든 산이 낮아지고 모든 골짜기가 묻혀버렸네
 대지에 해가 뜨니 두 눈이 밝아지고
 망망한 운해가 멀리 눈에 들어오네
 어두운 거리가 크게 열리니 영문을 비추고
 법우가 티끌을 씻어내니 자운⁷⁶²이 가득하네
 가련토다 청산의 한 조각의 돌이어
 현회⁷⁶³에 이와 같이 때가 있네
 세모에 招隱操⁷⁶⁴의 시를 짓고자 하여
 갑자기 암거하는 선비를 불렀는가

群山爲低全壑濶
 大地日出雙眼明
 雲海茫茫入遠視
 昏衢大闢靈照門
 法雨洗塵慈雲墜
 可憐青山一片石
 顯晦有時乃如是
 歲暮欲賦招隱操
 幡然誰起巖下士

표제⁷⁶⁵ 고하진을 위한 만가 [절구시 3수] 挽表弟高廈鎮三絕

1

홀홀히 상서로운 기약 이미 하룻밤이 지나
 병상에서 회상하니 슬프고도 기쁘네
 詩魂으로 寒梅의 소식을 물으며
 눈 내리는 달밤 차가운 강⁷⁶⁶에서 「초혼가」를 읊네

忽忽祥期已隔宵
 病床回首意悽怡
 詩魂欲問寒梅信
 雪月江天賦楚招

2

762) 자운 : 부처의 자비로운 마음이 구름처럼 세상과 중생을 널리 덮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梁 簡文帝的「大法頌」에 “紫雲은 은택을 토해내고, 법우는 서늘함을 드리운다. 慈雲吐澤, 法雨垂涼.”라 하였다. 『漢魏六朝百三家集』 卷82下「大法頌」.

763) 현회 : 드러나거나 가려지는 것. 세상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과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764) 招隱操 : 淮南小山의 「招隱士」를 뜻한다. 바로 앞에 남산을 말한 것은 이 작품 가운데 “계수가 떨기로 남이여 산의 남쪽일세. 桂樹叢生兮山之陽”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淮南小山이란 漢나라 淮南王 劉安의 일부 문객에 대한 총칭이다. 회남왕이 문인들을 불러 모아 저술에 종사하여 각기 辭賦를 짓게 하고, 이를 분류하여 ‘大山’, ‘小山’이라고 하였다.

765) 표제 : 고종사촌 동생이나 이종사촌 동생을 말한다.

766) 눈 내리는 달밤 차가운 강 : 柳宗元의 「江雪」에 “일천 산에 새들의 날갯짓도 끊어지고, 일만 길에 인적도 보이지 않는데, 도롱이에 삿갓 쓴 노인 외로운 배에 몸을 싣고, 눈 내리는 차가운 강에서 홀로 낚시질 하구나. 千山鳥飛絕, 萬徑人蹤滅. 孤舟蓑笠翁, 獨釣寒江雪.”라 하였다.

더벽머리 적부터 늘 함께하며
 젊은 시절 詩書를 즐기 공부하였네
 늙어 떨어져 지내며 서글피 바라만 보았는데
 한번 이별 후 다시 기약할 수 없음을 어찌 건디라

自從髣髴共追隨
 恰到詩書少壯時
 垂老相離猶愴望
 那堪一別更無期

3

지난 봄 살구꽃 핀 날 이별하며
 병들어 지낸 오 년 나를 위해 가여워하였네
 비로소 강건하여 근심스런 날이 없으리라 여겼는데
 갑자기 변화하여 眞仙이 된 모습을 본단 말인가⁷⁶⁷)

前春相別杏花天
 爲我曾憐病五年
 始覺疆康無恙日
 溘然觀化是眞仙

실제 失題 3수 三首

1

온 하늘이 물처럼 끝없이 푸른데
 새로 기러기가 날며 빛나는 태양과 희롱하네
 농사는 심히 흉년 들어 바닷가 고을은 궁핍한데
 가을의 모습은 오히려 야인의 집처럼 담박하네
 술 세 되에 공연히 동쪽 언덕을 사모하며
 차 일곱 잔을 누가 간의에게 전해줄꼬
 다만 산옹이 도의 풍취를 자랑하니
 흰 구름과 푸른 벼랑이 그림 속에 아름다워라

一天如水碧無涯
 新雁翩翩弄日華
 歲事偏饑窮海邑
 秋容猶澹野人家
 三升空戀東臯酒
 七碗誰傳諫議茶
 獨有山翁誇道趣
 白雲蒼壁畫中奢

767) 갑자기 …… 말인가 :『莊子』「至樂」에 “支離叔과 滑介叔이 옛날 黃帝가 놀던 冥伯의 언덕과 곤륜산으로
 놀러 갔는데, 갑자기 골개속의 왼쪽 팔꿈치에 큰 혹이 생기니, 골개속은 마음속으로 놀라면서 언짢게 생각하
 는 듯하였다. 지리숙이 ‘자네는 그것이 언짢은가?’ 하니, 골개속이 대답하기를 ‘아닐세, 내가 어찌 이것을 언
 짢아하겠는가, 사람의 생명이란 있어도 빌린 것이며, 빌려서 살고 있으니 생명이란 먼지나 몸의 때와 같네.
 죽음과 삶은 낮과 밤이 교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네. 더구나 나는 그대와 함께 만물의 변화를 보고 있는데 마
 침 변화가 나에게 미쳤으니, 내 어찌 싫어할 것인가.’라 하였다.

2

언제나 하늘가 꿈에서 서로 그리니	幾時相憶夢天涯
얼굴과 머리 창연하여 반이 이미 세었네	顏髮蒼然半已華
가을빛 점차 높아져 나뭇잎이 누렇게 되니	秋色漸高黃葉樹
신선의 인연을 잠시 백운의 집에서 빌리네	仙緣暫借白雲家
시름 풀려면 반드시 석 잔의 술 ⁷⁶⁸ 로 해소되지 않으나	消愁未必三盃酒
심려 흘날리려면 오히려 한 잔의 차 ⁷⁶⁹ 만 필요하네	散慮猶須一碗茶
국화 떨기와 난초들이 한가로이 있고	叢菊叢蘭閑自在
주인의 맑은 뜻은 본래 사치스러움이 없네	主人清趣本無奢

3

운림 ⁷⁷⁰ 에서 걸어 나와 물가에 앉으니	步出雲林坐水涯
맑은 물에 하얗게 센 귀밑머리 비치네	澄潭照得鬢毛華
솔바람 소리는 오래도록 陶淵明의 집에서 나오고	松聲歲久陶翁宅
난초의 향기는 가을날 栗里 ⁷⁷¹ 의 집에서 피어나네	蘭馥秋生栗里家
시의 벌로 金谷酒 ⁷⁷² 를 감히 사양하고	詩罰敢辭金谷酒
신선의 풍취로 玉川 ⁷⁷³ 의 차를 마시고 싶네	仙風願取玉川茶
등나무 평상에 죽침을 배니 소연한 뜻이	藤床竹枕蕭然趣
화려한 시호와 금수에 뒤지지 않네	不讓時豪錦繡奢

768) 세 잔의 술 : 李白的 「月下獨酌」에 “성과 현의 술을 모두 다 마셨으니, 굳이 신선을 구할 것이 있으리요. 석 잔을 마시면 대도에 통하고, 한 말을 마시면 자연과 합하는걸. 賢聖既已飲, 何必求神仙. 三杯通大道, 一斗合自然.”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李太白集』 卷22.

769) 한 잔의 차 : 唐代 盧仝의 「茶歌」에 “첫째 잔은 목과 입술 적시고 둘째 잔은 외로운 고민 달래고 셋째 잔은 마른 창자 해쳐주니 오직 뱃속에는 문자 오천 권이 있을 뿐이네. 一碗喉吻潤, 二碗破孤悶, 三碗搜枯腸, 惟有文字五千卷.”라 하였다.

770) 운림 : 백운동 원림을 말한다. 원림 주변에 계곡이 흐른다.

771) 栗里 : 陶淵明의 고향 마을 이름이다. 그는 팽택령을 지나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대나무, 소나무, 국화가 있는 고향 栗里로 돌아가 「歸去來辭」를 지었는데, “세 오솔길은 황폐해졌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그대로 남아 있다. 三逕就荒, 松菊猶存.”라 읊었다. 『古文眞寶·後集』. 여기서는 이시현의 거처인 백운동원림을 말한다.

772) 金谷酒 : 李白的 「春夜宴桃李園序」에 ‘만약 시를 이루지 못하면 금곡의 벌주 수대로 벌을 받으리라. 如詩不成罰依金谷酒數’라는 말이 있다. 금곡은 쯤의 부호 石崇이 河陽에 둔 別莊 이름이다.

773) 玉川 : 唐의 詩人으로 號가 玉川子인 盧仝을 가리킨다.

실제 失題

해산과 아스라이 함께 도모하니
 그림 속이 꿈속의 가을인지 의심스럽네
 천석으로 이제 돌아와 병드니
 강호는 그대에게 아무런 근심이 없게 하리
 늘 아름다운 蘭香은 바위에 스며들고
 다만 桃花는 골짜기로 흐르리
 푸른 오동나무 남쪽 아래 집에 높이 누워
 연월과 맹세하며 沙鷗에게 묻네

海山迢遞與同謀
 畫裡疑夢裏秋
 泉石而今還有疾
 江湖於子儘無愁
 常憐蘭馥依巖在
 只恐桃花出澗流
 高臥碧梧南下宅
 一盟煙月問沙鷗

초의대사에게 짧은 서문과 오언 고시를 드림, 무술년(1838) 6월 15일
 贈草衣大師小序并五古戊戌 流頭

草衣는 해남의 유명한 스님인데 내가 그 명성은 들었지만 직접 만나보지 못함을 한스러워한지 오래되었다. 올해 여름 금선암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표연히 찾아왔다. 그 용모가 고요하고 그 말이 簡約하여 道가 있는 이라고 여겨져 물었더니 바로 ‘초의’라고 하였다. 東嶽을 유람하고 돌아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치였기에 어떤 사람이든 그 산에 오르면 시문을 쓸 만하다고 말하였다. 이는 반드시 아름답고 뛰어난 글귀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니 그 시문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보여주려 하지 않았고 더 요청하면 할수록 더욱 보여주려 하지 않아서 마침내 강요할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그 상자를 몰래 열어서 기행시⁷⁷⁴⁾ 몇 편을 구해 읽어 보았더니 音韻이 청창하고⁷⁷⁵⁾ 뜻이 고원하여 뜨거운 물건을 손에 쥐었다가 맑은 바람에 씻어내듯 쇠연하였다. 비록 큰 술의 고기 한 점을 먹은 것이 두루 맛보았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또한 표범의 한 무늬처럼 오히려 나머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또 짧은 편지 수십 통을 읽어 보았는데 都尉海居 洪顯周⁷⁷⁶⁾·參判紫霞 申緯⁷⁷⁷⁾·學士秋史 金正禧 제공들과 일찍이 주고받은 것들이었다. 그 삼공들은 문사가 뛰어나

荒墳⁷⁷⁸)을 덮을만하고, 필력은 鍾繇나 王羲之를 능가하여 조정에서 명망을 드러내고 예술계의 거장들이었다. 궁벽한 곳에 사는 일개 衲子인 초의가 어떻게 제공들의 관심을 받아 이처럼 진중하고 더욱 미더우며, 그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적지 않단 말인가?

그와 더불어 지낸 지 오래되자 교분이 더욱 깊어지고 정이 더욱 친밀해져서 숙원이 이미 이루어진 듯 기뻐고 새로운 감화를 받을 것에 기대되었다. 매번 숲길을 걷고 물가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 때마다, 때때로 따르며 가르침을 구하니 선사도 나를 싫어하지 않았다. 無上·大涅槃·圓明·寂照 등으로부터 아래로 백천 억겁의 輪回說에 이르기까지의 설법이 무르익어 결실 맺은듯하였다. 다만 내 식근이 미둔하고 특히 깨달을 기약이 없어서 한스럽고 한스러울 뿐이었다.

훗날 내가 지팡이 짚고 짚신⁷⁷⁹)을 신고 대둔산⁷⁸⁰)으로 선사를 찾아가 세 개의 서까래로⁷⁸¹) 지은 집⁷⁸²)에 칠 척의 책상 앞에서 몇 개월을 보내며 긴요하게⁷⁸³) 공부를 하니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었다. 선사가 기꺼이 나를 위해 주장자⁷⁸⁴)를 한 번씩 내리치며 진리를 깨닫게 해줌을 아끼지 않으니 이때에 마땅히 가릴 것을 가져다가 부채⁷⁸⁵)로 증명할 뿐이니 시로 잇는다.

草衣海南名釋也，余耳其名而恨無由目之者久矣。是歲夏讀書於金仙庵，一日有一上人飄然而至。其容寂其言簡，意以謂有道者，叩之乃草衣也。言遊東嶽而還岳，於域中名以最勝，若人之於若山，可謂遇著當題。是必瓌篇傑句，可以驚動人者，求觀其詩若文，斬不肯示，求愈勤而愈斬，因遂不之強焉。是夕肱其篋，得記行詩若干首讀之，音韻清壯，旨意高遠，灑然若執熱而濯清風。雖函牛一爨，未嘗遍，亦全豹一斑，猶可推餘。又得小簡數十幅，洪都尉海居·申參判紫霞·金學士秋史，諸公所嘗往復者也。之三公也，攜藻媿皇墳，揮翰邁鍾王，朝著之雅望，藝林之宗匠也。而草衣遐陬一衲，何以得諸公之錦注。若是其珍重益信，其所有之不淺眇也。與之寢處既久，契益深，情益密，喜宿願之已償，佇新熏之有得。每於林下經行水邊納涼，時從以求焉，師亦不我厭也。從無上大涅槃圓明寂照等，下至百千億劫輪迴底說，說得瀾翻花墜。顧余識根迷鈍，殊無證悟之期，恨恨。異日余將一枝筇兩不借，訪子于大茈山中，三條椽下，七尺單前，送了幾個月，喫緊做工夫，或庶幾焉。師其肯爲我，不惜拄杖卓一下歷，伊時當把將遮個便面爲證爾。繼之詩。

774) 초의선사가 금강산을 다녀온 후 쓴 기행시를 말한다.

775) 청장하고 : 詩文이나 書法 등의 기복이나 곡절을 이르는 말로, 돌다가 갑자기 꺾임을 이른다. 陸機의 「文賦」에 “銘은 박약하고 운운하며, 箴은 돈좌하고 清壯하다. 銘博約而溫潤, 箴頓挫而清壯.”라는 표현이 보인다.

시를 지어 말하기를
 부소산의 우리 집은
 산 아래 두서 칸의 작은 집인데
 매년 봄과 여름이면
 문득 산사에 가서 글을 읽었네
 절은 높은 산에 있었고
 별집 보다 많은 선방이 있었네
 스님은 항하의 모래⁷⁸⁶처럼 많았지만
 마음의 눈이 열린 스님은 한명도 없었네
 박쥐⁷⁸⁷나 아양⁷⁸⁸의 무리처럼
 뱃속에 밥이나 죽을 채우고
 송아지들을 많이 낳는데 급급하였네

詩曰
 我家扶蘇山
 山下數間屋
 每當春夏時
 輒向寺中讀
 寺在天麼裡
 多於蜜房簇
 僧如恒河沙
 無一開心目
 鳥鼠啞羊群
 臭袋充飯粥
 劫劫多生犢

『文選』卷7.

- 776) 洪顯周(생물년 미상) : 본관은 豊山. 자는 世叔, 호는 海居齋·約軒. 아버지는 洪仁謨이며, 우의정 洪奭周의 아우. 정조의 둘째딸 숙선옹주와 혼인하여 永明尉에 봉해짐. 1815년(순조 15) 지돈녕부사가 되었다. 저서로는 『海居詩集』이 있다. 시호는 孝簡이다.
- 777) 申緯(1769~1845) : 본관은 平山. 자는 漢叟, 호는 紫霞·警修堂이다. 申錫夏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申喞이고, 아버지는 대사헌 申大升이다. 어머니는 李永祿의 딸이다. 조선 후기의 문신. 화가. 서예가로 산수화와 함께 묵죽에 능하였으며, 이경·유덕장과 함께 조선시대 3대 묵죽화가로 손꼽힌다. 대표적 작품으로 「방대도」와 「묵죽도」가 전한다.
- 778) 皇墳 : 三皇의 墳書라는 뜻으로, 伏羲·神農·黃帝의 글을 말한다. 『孔安國』『尙書序』.
- 779) 窠신 : 원문의 ‘不借’는 窠신의 별칭이다. 천한 물건이므로 남에게 빌지 않아도 구비할 수 있다는 뜻에서 불차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 780) 대둔산 : 전라남도 해남 대흥사가 있는 두륜산의 이칭이다.
- 781) 세 개의 서까래 : 원문의 ‘三椽’은 서까래가 세 개란 뜻으로, 작은 집을 가리킨다. 원래는 ‘三條椽下’라 하여 禪僧들이 좌선하는 자리를 가리키며, 아울러 매우 청빈한 생활을 뜻한다. 선승들이 좌선하는 자리의 면적이 천장의 서까래 세 개의 폭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다.
- 782) 지은 집 : 해남 대흥사 두륜산에 초의가 직접 지은 一枝庵을 말한다.
- 783) 긴요하게 : 원문 ‘喫緊’은 본디 ‘긴요하다’·‘중요하다’라는 뜻이다. 『中庸章句』『第12章』에서 朱子가, 子思가 『詩經』의 위 시구를 인용한 뜻을 설명하면서 “이 절은 자사가 사람들에게 긴요하게 일러준 부분으로, 생기가 넘친다. 此一節, 子思喫緊爲人處, 活潑潑地.”라 한 말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 784) 주장자 : 禪家에서 설법할 때 구태여 말을 하지 않고 단지 拄杖子, 즉 지팡이를 들어서 대중에게 보임으로써 진리를 다 드러내 보인 것으로 간주한다.
- 785) 부채 : 원문의 ‘便面’은 부채의 이칭이다. 『漢書』『張敞傳』에 “自以便面拊馬”라 했고, 그 註에 顏師古는 “편면은 낮을 가리는 것인데 대개 부채의 유이다. 사람을 보고자 아니할 때 이로써 얼굴을 가리면 편면이므로 편면이라 한다.”라 하였다.
- 786) 항하의 모래 : 인도의 동쪽을 흐르는 갠지스 강을 漢音으로 恒河라고 한다. 불경에서 많은 수량을 말할 때에는 흔히 항하의 모래에 비유한다.
- 787) 박쥐 : 원문의 ‘鳥鼠’는 박쥐로 파계한 비구를 비유하는 말이다. 즉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라는 뜻이다.
- 788) 아양 : 병어리 염소. 지극히 어리석은 중이 선악의 계율을 분별치 못하여 죄를 범하고도 참회할 줄 모르는 것을, 죽으면서도 소리를 내지 못하는 염소에게 비유한 것이다.

금년 금선암에
 佛法을 전수 받을 인연⁷⁸⁹으로
 해남의 스님이 날듯이
 천리를 멀다않고 찾아 왔네
 일만이천 봉우리의 빛
 미간에 푸르름 손에 잡힐 듯하여
 등잔 앞에 바랑을 풀어 놓으니
 방에 가득 향기가 어리네
 문을 닫고 眞詮⁷⁹⁰을 외우니
 한 낮에도 못 마귀들이 굴복하고
 소나무 뿌리⁷⁹¹ 위에서 禪定에 드니
 毫光⁷⁹²이 산골짜기에 비치네
 문장은 곧 여가에 하는 일이요
 玄關⁷⁹³은 □蹴에 있네
 일찍이 불가와의 인연이 없어
 고심해도 깨닫지 못함을 부끄러우니
 반야의 칼을 빌려
 나의 六塵과 六根⁷⁹⁴을 끊으리

今年金仙庵
 機緣湊磕築
 翩翩海南釋
 千里來不遠
 萬二千峰色
 眉際翠可掬
 燈前解鉢囊
 滿室凝芬馥
 閉戶誦眞詮
 白日衆魔伏
 松根憩寂寞
 毫光照山谷
 文章乃餘事
 玄關在□蹴
 自慚無夙緣
 初機苦未熟
 願借般若劔
 斷我根塵六

가학치를 지남 過駕鶴峙

성의 동쪽에 한식날 살구꽃 피니
 마음껏 산에 오르고 시내를 건너네
 학을 탄 신선은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城東寒食杏花天
 隨意登山渡過川
 駕鶴仙人歸不返

789) 佛法을 전수 받은 인연 : 원문의 ‘機’는 根機, ‘緣’은 因緣을 말하는데 중생이 善根의 機가 있어 教法을 받는 인연이 된 것을 말한다.

790) 眞詮 : 眞諦와 같은 뜻의 불교 용어이다. 진제는 세속의 범도인 俗諦와 상대되는 말로, 出世間의 최상인 究竟의 진리를 뜻한다.

791) 소나무 뿌리 : 杜甫가 唐 때의 화가 韋偃이 그린「雙松圖」에 대해 노래한 「戲韋偃爲雙松圖歌」에 “소나무 뿌리에 앉아 조용히 쉬는 西域僧, 흰 눈썹 흰머리에 짐작이 하나 없네. 오른편 어깨 드리내고 두 발도 맨발인데, 솔잎 속의 솔방울이 스님 앞에 떨어지네. 松根胡僧憩寂寞, 龐眉皓首無住著. 偏袒右肩露雙脚, 葉裏松子僧前落.”라는 구절이 있다. 『杜少陵詩集』卷9.

792) 毫光 : 白毫光이라고도 하는데, 부처의 12상 가운데 하나로, 부처의 두 눈썹 사이에 있는 희고 빛나는 가는 터럭을 가리킨다. 깨끗하고 부드러우며 오른쪽으로 말린 데서 끊임없이 광명을 발한다고 한다.

793) 玄關 : 玄妙한 道의 문을 말하고, 또 道를 닦는 집의 문을 지칭하기도 한다.

794) 六塵과 六根 : 六塵은 色·聲·香·味·觸·法으로 六根을 통해 의식을 일으키는 六境을 말하며, 六根은 眼·耳·鼻·舌·身·意의 여섯 가지 기관이다.

해류에 구름이 끊겨 천년이 되었네

海流雲斷卽千年

사선정에서 머무름 宿四仙亭

삼월 금릉의 햇살 고우니
 동풍이 내게 불어와 호숫가 하늘에 이르네
 살구꽃 핀 성곽에 청명절 비가 내리니
 수양버들 늘어진 물가에 해질녘 연기가 피어나네
 이 곳은 본래 아름다운 지역으로 일컬어져
 많은 이들이 면라천에서 살았네.
 명구의 맑은 기운에
 얼마나 많은 현인들이 모였들었던가

三月金陵日色妍
 東風送我到湖天
 杏花城郭清明雨
 楊柳汀洲薄暮烟
 茲土素稱佳麗地
 居人多住綿羅川
 名區淑氣□海□
 鍾得由來幾碩賢

호산춘색도에 지음 題壺山春色圖

졸린 버들 사이로 붉은 살구꽃에 취하니
 홍루의 한쪽은 주막집 깃발 바람에 흔들리네
 호산의 봄빛은 단청한 듯한데
 늙도록 소갈병 든 웅이 헛되이 애쓰네

睡柳中間醉紅杏
 紅樓一面酒旗風
 壺山春色丹青裡
 白首徒勞病渴翁

산수화에 지음 題山水畫

탑과 암자는 구름 사이에 붙어 있고
 여섯 겹의 홍루는 만 길의 산에 있네
 산 동굴 속의 신선은 푸른 비단옷을 걸치고
 낚싯대를 그림 속 다리 난간에 드리우고 있네

龕菴寄在白雲間
 六疊紅樓萬仞山
 峒裡神仙碧羅袖
 一竿徒依畫橋欄

송단노인에게 씀 題松壇老人

술동이 비우니 취하여 마음이 넉넉해져
 한가로이 의자를 돌난간으로 옮기네

酒榼向空醉意寬
 閑來移榻石欄干

홀옷 걸치고 파초의 부채를 쓰지 않아도
슬바람을 사랑하니 얼굴에 시원한 바람 스치네

蘿衫不用芭蕉扇
爲愛松風拂面寒

연파어자도에 지음 題烟波漁子圖

일엽편주에 대 낚시를 드리우나
강의 물고기를 낚지 못해 물고기를 신지 못하네
이백은 고래를 타고 하늘나라로 갔으니
강남의 풍월을 한껏 신고 돌아오리

一竿竹一葉舟⁷⁹⁵⁾
不釣江魚不載魚
李白騎鯨飛上天
剩載江南風月歸

일연거사의 회갑연에 바치는 시와 서문 一淵居士回甲壽宴詩序

헌종 13년 정미⁷⁹⁶⁾년에 長巷 一淵居士의 춘추가 61세로, 모월 모일이 생일⁷⁹⁷⁾이다. 그 만이 鵬鶴·鴻龜 등 여섯 명이 서로 도모하여 긴 대자리를 벌여 놓고 春酒를 따르며 백세를 기원하는 축수를 올렸다. 이에 그의 형제들이 나란히 백발을 서로 비추고 자식과 손주들이 아울러 모시며 색동옷⁷⁹⁸⁾을 입고 섞여 서있으며 친지들이 방문하여 어른 아이 모두 두 손으로 잔을 들어 장수를 기원하는 축수를 차례대로 올렸다. 이윽고 『詩經』 「蓼莪」의 구절에 감동하고 桑榆⁷⁹⁹⁾에 해가 저물어 감을 탄 식하더니 잔을 멈추고 하례를 물리치며 초연히 한편의 읊시를 읊으니 좌중의 객들 중에서 번갈아 창화하는 이들이 모두 수복의 아름다움을 말하며 주인을 위해 장수를 빌었다.

때에 막내 龍淵 大有⁸⁰⁰⁾가 馳書⁸⁰¹⁾하여 내게 청하며 말하기를 “우리 백부를 아는 백부를 아는 자 白雲山人만 같은 이가 없는데 어찌 한마디의 말로 백부를 위해 축수하지 않습니까?” 하였다. 내 자신은 다만 비루한 사람으로 어찌 한 마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받은 붓을 깎지에 꽂고⁸⁰²⁾ 망연자실 하다가 한참 지난 후에야 이윽고 말하기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비록 옛날은 아니지만 제현들이 덕을 상고하여 미를 칭송하고 이름을 나열하여 致詞⁸⁰³⁾하며 모두 지나갔는데, 또 무슨 말로 혹은 붙이겠습니까? 우리나라 陽坡 鄭相公⁸⁰⁴⁾은 일찍이 좌우명으로 말하기를 ‘말을 다하지 않고 남겨 두어서 몸을 수양하고, 일을 다하지 않고 남겨 두어서 후인을 기다리며, 복을 다하지 않고 남겨 두어서 자손에게 주어라.’ 라 하였는데, 나는 이

795) 문집 원문에 여섯 글자만 있어서 어느 부분에 한 글자가 빠졌는지 알 수 없다.

796) 정미년 : 원문의 ‘強圉’는 천간의 네 번째인 丁을 말하고, ‘協洽’은 고간지의 지지에서 未에 해당한다.

- 797) 생일 : 원문의 ‘覽揆’는 衡量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楚辭』「離騷」에 “황고께서 나의 초도를 살피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내려주셨네. 皇覽揆余于初度兮, 肇錫余以嘉名.”라 했는데, 그 후로 覽揆는 생일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 798) 색동옷 : 원문의 ‘斑斕’은 색동옷을 말한다. 부모 앞에서는 나이가 많은 자식이라도 색동옷을 입는다. 老萊子は 나이 70에 부모가 생존, 五色斑斕한 옷을 입고 어린애 장난을 하였다 한다. 『高士傳』.
- 799) 桑榆 : 해가 질 때 햇빛이 뽕나무와 느릅나무의 꼭대기에 비치므로, 인생의 말년을 뜻한다. 『太平御覽』卷3에 “해가 서산으로 떨어질 때 햇빛이 나무의 꼭대기에 비치는 것을 桑榆라고 한다.”라 하였다.
- 800) 大有 : 이시현이 1838년에 竹軒主人 李大有에게 지어 보낸 詩 「寄竹軒主人」가 『自怡先生集·乾』 1쪽에 실려있다.
- 801) 馳書 : 급히 편지를 보내다.
- 802) 붓을 깎지에 꽂고 : 원문의 ‘閣筆’은 글 쓰는 붓을 깎지에 꽂는다는 뜻으로, 글을 지을 때 남의 글이 튀어나므로 쓰던 글을 멈추고 붓을 놓거나, 편지 따위에서 쓰던 글을 다 끝내고 붓을 놓는 것이다.
- 803) 致詞 : 국가나 왕실에 경하할 일이 있을 때 국왕이나 왕실 구성원 등에게 올리는 글로, 하례를 받는 사람의 덕을 기리고 경사를 축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서는 이시현이 일연거사의 회갑을 하례하는 뜻이다.
- 804) 陽坡 鄭相公 : 鄭太和(1602~1673)이다. 본관은 東萊. 자는 圃春, 호는 陽坡. 영의정 鄭光弼의 5대 손이며, 鄭惟吉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鄭昌衍이고, 아버지는 형조판서 鄭廣成이다. 어머니는 黃謹中의 딸이다. 좌의정 鄭致和와 예조참판 鄭萬和의 형이다.
- 805) 거침없는 언변 : 원문의 ‘懸河’는 위에 걸려 떨어지는 물줄기, 즉 폭포수를 뜻하는 말인데, 晉의 郭象이 滔滔하게 담론을 전개하자 태위 王衍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마를 줄을 모른다. 如懸河瀉水, 注而不竭.”고 칭찬했던 고사가 있다. 『世說新語』「賞譽」.
- 806) 졸렬함을 지키며 : 옛 풍속에, 칠석날 밤에 부녀자들이 견우와 직녀별에게 길쌈과 바느질 솜씨가 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의식을 ‘乞巧’라 하는데, 柳宗元이 일찍이 자신의 謀身策에 졸렬한 것을 버리고자 하여 乞巧文을 지어서 견우 직녀에게 많은 말로 기원한 결과, 직녀가 와서 고하기를, “하늘이 한 번 명한 바이니, 중간에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 하자, 柳宗元이 스스로 말하기를, “중신토록 졸렬함을 지키다가 그대로 죽은들 무엇을 상심하랴. 抱拙終身, 以死誰傷.” 한 데서 온 말이다. 『柳河東集』卷18.
- 807) 좋은 밭 두 이랑 : 원문의 ‘負郭田’은 근교의 좋은 밭을 말한다. 『史記』卷69「蘇秦列傳」에 “蘇秦이 탄식하며 말하길,……내게 만일 낙양 교외의 좋은 밭 두 이랑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어찌 육국의 재상 인을 찰 수 있었겠는가. 蘇秦喟然嘆曰……且使我有雒陽負郭田二頃 吾豈能佩六國相印乎”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司馬貞은 『索隱』에서 “負는 등, 혹은 베개와 같다. 성에 가까운 땅이 운택하고 가장 비옥하기에 부락전이라고 부른다. 負者, 背也, 枕也. 近城之地. 沃潤流澤, 最爲膏腴, 故曰負郭也.”라 하였다.
- 808) 여름 겨울 제사 : 원문의 ‘伏臘’은 여름철 三伏과 겨울철 臘日에 지내는 제사의 이름이다. 이날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술자리를 마련해 함께 술을 마셨다.
- 809) 뜰에 난초가 자라 듯 : 원문의 ‘庭蘭’은 다른 사람의 뛰어난 후손을 예찬하는 말이다. 晉 謝安이 여러 자제들에게 어떤 자제가 되고 싶은지를 묻자, 조카 謝玄이 “비유컨대 지란과 옥수가 섬돌 앞 정원에서 피어나 향기를 내뿜는 것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階庭耳.”라 한 데서 나왔다. 『晉書』卷79「謝安列傳」.
- 810) 삼가고 두려워하시며 : 『中庸章句』「第1章」에 “군자는 보지 않는 바에도 경계하고 삼가며 듣지 않는 바에도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숨기는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미세한 것보다 더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 이런 까닭에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가는 것이다. 君子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慎其獨也.”라 하였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自怡先生集』
- 『原州李氏世譜』
- 『桂陽遺稿』
- 『白雲洞幽棲記』
- 『古文眞寶』
- 『論語』
- 『朝鮮王朝實錄』
- 『周易』
- 『孟子』
- 『莊子』 「齊物論」 「人間世」 外
- 『承政院日記』
- 『宋史』 卷457
- 『春秋左氏傳』 「莊公2年」
- 『後漢書』 卷53
- 『世說新語』
- 『小學』
- 『山海經』
- 『杜少陵集』 卷1, 卷2, 卷10
- 『唐書』 卷143
- 『王右丞集』 권14
- 『漢書』 卷73, 卷87
- 『晉書』 卷36, 卷56 卷80, 「阮籍傳」
- 『述異記』 卷上
- 『孔子家語』 卷5
- 『東林十八高賢傳』
- 『朱子大典』 卷9
- 『禮記』 「學記」, 「禮器」 外

『楚辭』 「招魂」
 『詩經』
 『全唐詩』 권342
 『書經』 「舜典」
 『戰國策』 「燕策3」
 『荊楚歲時記』
 『南史』 卷49, 卷
 『蘇東坡詩集』 卷3, 卷13
 『安陽集』 卷17
 『藝文類聚』 卷8, 卷99
 『史記』 卷47, 卷55
 『陶淵明集』 卷3
 『荀子』 「法行」
 『淮南子』 「修務訓」
 『義府』 卷下
 『神仙傳』 卷2
 『侯鯖錄』
 『朱子詩集』 卷6
 『李太白集』 卷1
 『淮海集』 卷34
 『韓昌黎集』 卷2, 卷5
 『博物誌』 卷8
 『柳河東集』 卷42
 『舊唐書』
 『列仙傳』
 『梁高僧傳』 卷6
 『大學章句』
 『法言』
 『初學記』
 『列子』

『資暇錄』
 『唐才子傳』 卷8
 『高士傳』
 『韓非子』
 『希澹園詩集』
 『搜神集』
 『杜詩詳集』 卷10
 『續祭諧記』
 『曹子建集』 卷6

2. 단행본

임형택(2007), 『우리 고전을 찾아서』, 한길사.
 정민(2007),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11), 『다산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 (2015),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글항아리.
 —— (2018), 『잊혀진 실학자 이덕리와 동다기』, 글항아리.
 김용태(2008), 『19세기 조선 한시사의 탐색』, 돌베개.
 노치허(2018), 『누가 왕마힐 소동과 소강절의 청의미를 보았는가』, 학자원.
 초의선사 著, 배규범 역주(2011), 『초의시고』, 지식을 만드는 지식인.
 김상협(2008), 『소치 허련』, 돌베개.

3. 학술논문 및 기타자료

林煥澤(1998), 「丁若鏞의 강진유배기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한국한문학연구』 제21집, 한국한문학회.
 金奉楠(2008), 「자이선생집해제」, 『茶山學團文獻集成』 권5, 대동문화연구소.
 —— (2009), 「茶山 제자 李時憲의 詩文에 관한 一研究」, 『東方漢文學』 第38輯, 동방한문학회.
 김경국(2018), 강진 원주이씨의 백운동(白雲洞) 별서(別墅) 정착과정 고찰, 민족

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 박미선(2017), 「자이당 이시현의 ‘백운동별서’ 승계와 향촌활동」, 『호남문화연구』 권61.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원.
- 천득염(2016), 「강진 백운동 별서원림(別墅園林)의 가치」, 백운동 별서정원 학술 심포지엄,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건축역사연구소.
- 이재연(2016), 「강진 백운동의 변화와 보존 방안」, 백운동 별서정원 학술 심포지엄,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 · 건축역사연구소.
- 김덕진(2018), 「동강 이의경의 생애와 실학사상」, 백운동 별서정원 학술 심포지엄,(사)호남고문헌연구원.
- 윤재환(2015), 「朝鮮後期 漢詩 研究를 위한 몇 가지 提言」『한문학논집(漢文學論集)』.
- 정광희(2011), 「瀟灑園 初期 詩壇의 漢詩 一考」, 『동양한문학』.
- 성범중(2006), 「16, 17세기 호남지방 園林文學의 지향과 그 변이」, 『한국한시학회』.
- 황민선(2014), 「다산 정약용의 원림관을 통해서 본 <茶山花史>」, 『국학연구총론』.
- 장유송(2018), 「19세기 한시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조선후기 한시의 위상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한시학회』.
- 권수용(2013), 「간찰을 통해 본 장성 유생 기양연의 과거 합격 과정」, 『남도문화연구』 제25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